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 구독신청 02)737-0090 · 대표 02) 737-8881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8년 (서기 2004년) 4월 14일(음력 윤 2월 25일) 수요일 (주간) 제469호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제주도 · 중국전문 성지순례 여행사
(주)행복만선
Tel. 02)720-8489



금강산서 남북 함께 통일불사 첫 삽

4월 6일 금강산 신계사 복원불사 착공식에서 남북 대표단이 민족 화합과 신계사의 원만한 복원불사를 기원하며 역사적인 첫 삽을 뜨고 있다. 관련기사 7면
금강산=오유진 기자

“경주를 세계적 명상도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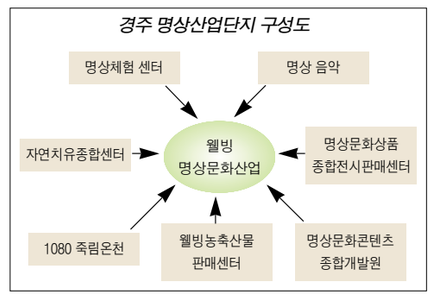
‘웰빙 명상문화 산업단지’ 계획안 경주시 긍정 검토

동국대 경주캠퍼스 제안

신라 천년 고도 ‘경주’가 미국 ‘세도나’에 버금가는 세계적인 명상 · 수행 도시로 거듭날 전망이다.

동국대 경주캠퍼스와 한국명상문화진흥회는 3월 31일 “한국 명상문화의 세계화를 골자로 하는 ‘경주 웰빙명상문화 산업단지’ 계획안을 경주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경주 보문단지를 중심으로 참선과 요가 등의 수행프로그램을 상설화하는 명상체험센터를 비롯해 각종 자연요법 및 수련법을 치유에 응용하는 자연치유센타 등을 설립할 예정이다. 또한 경주를 세계적인 명상음악 메카로 육성한다는 방침아래 한국 전통 명상음악의 연구 및 개발 · 보급도 활발히 전개한다는 구상이다.



박종희(동국대 관광산업연구소) 소장은 “수년 전부터 송순현(정신세계원 원장), 김지하(시인), 김도향(명상음악가), 적운 스님(경주 골굴사 주지), 동국대 선학과 교수진 등 명상 및 웰빙산업 관련 전문가들을 영입해 구체적인 사업방향을 논의해 왔다”고 밝혔다.

경주시는 현재 경상북도와 협의해 사업의 타당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강신재 기자 thatiswhy@buddhapia.com

비전 있는 현대불교에 오십시오

불교 정보의 총본산 ‘현대불교’가 내일을 이끌 인재를 찾습니다.

■모집부문
경력: 취재기자 ○명, 출판 · 인터넷 부문 ○명
수습: 기자 ○명

■응시자격
① 불교신자 ②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남자는 수습기자의 경우 197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병역면제 남자 또는 여자는 197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2차 필기시험, 3차 면접

■원서접수기간 및 방법
1. 접수기간 : 2004년 4월 22일(목)까지
2. 접수방법
인터넷 일간 붓다뉴스(http://www.buddhanews.com)에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양식을 다운받으신 후 E-mail(cgseo@buddhapia.com)로 보내시면 됩니다.
3. 제출서류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는 시험당일에 제출하십시오. (최종합격자가 아닌 경우 제출서류는 돌려드립니다)
4. 1차 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및 인터넷 공고 (문의전화 02-737-8881)

불기 2548년 봉축 준비 현장 천태종 관문사

“장엄한 燈물결 기대하세요”

부처님 오신날을 한달 20일 정도 앞둔 4월 8일 오후 9시, 서울 우면동 관문사 5층 옥불보전 뒤 30여평의 공간. 장엄등 제작을 위해 임시로 마련된 이 곳에서는 올 연등축제에 내놓을 등을 만드는 작업이 한창이다. 석탑등에 붙일 그림을 그리고 있는 30여 불자들의 손놀림에 정성이 배어 있다.

낮에는 직장에서 일한 이들은 퇴근후 한달음에 달려와 장엄등 제작에 참여한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등을 만들어요” “등을 만들고 나면 더 신심이 나더라구요”

“올해 연등축제에서는 꼭 최우수상 탈거에요. 기대하세요.”

등 제작에 참여하는 불자들이 연인원 1만2천여명. 천태종 특유의 응집력과 조직력이 넘쳐난다.

관문사 지하에서는 올해 첫 선을 보일 높이 3m 크기의 동자승등과 경천사지 10층석탑등의 뼈대를 만드는 용접 작업과 절삭, 수레틀을 짜는 목공 작업이 이뤄지고, 지상에서는 종이나 천을 붙이는 배접과 채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아직은 뼈대만 앙상하다.


관문사 총무 경해 스님과 불자들이 용등(龍燈)을 만들고 있다.

퇴근 후 모인 불자들 ‘작업삼매’ … 50종 모습 드러내

용등에 붙일 비늘을 만드는 작업은 지난 1월부터 시작됐다. 등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4월 중순부터는 하루 150여명이 동참한다. 지난해 연등축제에 등장했던 십이지신등, 잉어등, 목탁등, 별등, 코끼리등과 개인등을 창고에서 꺼내 다시 배접과 채색을 한다.

김현자 관문사 전통등연구회장은 만나는 누구에게나 “연등축제 하루를 위해 5개월동안 땀흘리는 과정에 참여해보라”고 권유한다. 축제를 준비하는 마음이야말로 부처님 마음이라는 것이다.

천태종은 크게 인기를 끄는 불뿜는 용등을 비롯해 태극기등, 육법공양등, 동자승등, 경천사지 10층석탑등 등 50여종의 등을 올 연등축제에 선보일 예정이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8월 ‘세계교수불자대회’

교불련, 15개국 3백여명 참가 만해마을서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연기영)는 미국, 영국, 일본, 중국, 인도, 북한 등 세계 15개국 3백여 교수불자들이 참여하는 ‘제1회 세계교수불자대회’를 8월 17~19일 강원도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개최한다.

4월 6일 밝힌 계획안에 따르면, 대회는 ‘대화문명 시대의 아시아 문화와 종교’를 대주제로 △정치 · 경제와 불교 △현대과학과 불교 △문화예술과 불교 △사회 · 교육 문제와 불교 △여성문제와 불교 등 총 5분과별로 나눠 진행된다.

기조발표는 박성배 교수(미국 스토니부룩 뉴욕주립대학)가 나서고, 카렐 베르네 교수(영국 런던대학), 임티야즈 교수(태국 애슈미션 대학) 등이 발표를 한다. 김철우 기자

수요일은 1080 누르고 福 짓는날!

나눔의 손잡기 기금모금 ARS

전국어디서나 일반전화 · 휴대폰으로
1080 누르면 ‘관음손’이 됩니다

우리이웃

현대불교신문사가 창간 10주년을 맞아 벌이고 있는 연중캠페인 ‘나눔의 손잡기’는 불자들이 보다 쉽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나눔의 ARS (060-700-1080)를 3월 26일 개통했습니다. 삼보에 귀의하는 마음으로 일반전화와 휴대폰을 통해 060-700-1080을 누르면 3천원이 자동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전달됩니다.

ARS : 060-700-1080

선원장 초청 대법회 혜국 스님 4월 18일 오전 10시 조계사

‘할’



그림 · 조태호

- 일오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포항지원

불상점안 및 법당준공법회

자성삼보에 귀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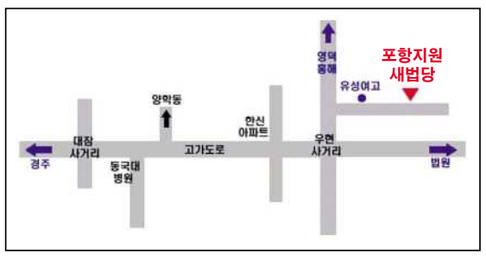
1993년 개원이후 자성을 밝히고자 하는
마음들이 이어지고 이어져
여래의 도량 한마음선원 포항지원
새 법당이 완공 되었습니다.

불법승 삼보와
언제나 함께 마음 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한마음선원 포항지원 준공법회를
열고자 하오니 두루 참석하시어
모든 불자님들의 마음에도
진정한 점안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한마음선원 포항지원장 혜 문 합장
신도회장 정인화

■ 일시 : 불기 2548년(2004년) 4월 25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한마음선원 포항지원
■ 문의 : 054)232-3163 / Fax 054)241-3503
http://tree.hanmaum.org/Pohang
포항시 북구 우현동 13-1

찾아오시는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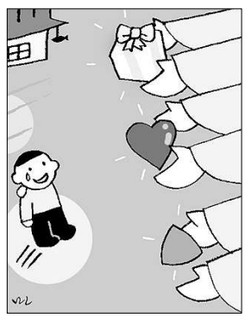
자비는 보시로 완성된다

요사이 대한적십자사가 전국 곳곳에 걸어놓은 홍보 현수막에는 '사랑은 동사(動詞)다'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사랑은 행동을 통해 전해진다는 뜻이다.

사랑이라는 말의 불교적 표현은 '자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보시'라는 행동으로 나타난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는 것이 보시다.

흔히 기독교도들은 십일조 등의 형식을 통해 기부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십일조는 막스 베버를 비롯한 서양의 기독교인들이 기부 문화를 다양화시키기 위해 만든 제도로, 기부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자의 기쁨'을 끊임없이 맛보고 즐기게 하려는 배려가 담긴 것이다.

기독교에서는 이 기부금으로 고아원과 양로원 봉사, 빈민구제, 후진국 지원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침으로써 기부 문화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무주상보시 실천 증가 추세
중생구제위한 '메뉴' 다양화를

하지만 우리나라 불자들은 이처럼 드러나는 기부보다는 티 안 나는 봉사활동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다. 남에게 드러내지 않고 오랜 시간 묵묵히 봉사해 온 불자들의 활동상을 언론 등을 통해 심심찮게 접할 수 있다. 불자들이 '보시'라는 기부 문화를 하나의 수행방편으로 삼고 있다는 반증이다. 그것이 <금강경>을 비롯한 여러 경전에서 가르치는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 혹은 '응무소주행어보시(應無所住行於布施)'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불교계 일각에서 펼쳐지고 있는 대사회 활동들은 이웃종교에 비해 늦게 시작한 탓에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여러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일부 스님들은 불자들이 기부(보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무지 관심이 없어 보인다. 불자들이 사찰에서 할 수 있는 기부라고는 기와불사나 개금불사, 중창불사 등에 불과하다. 깨달음으로 중생구제를 하겠노라고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절에서는 불자들이 복을 제대로 짓는 법을 가르쳐줄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을 화두로 삼아 발원을 하고, 보시의 기회를 만들고, 복 짓는 수행을 하게끔 도와주어야 한다. 기부를 하건 복을 짓건 선근을 쌓을 수 있는 '메뉴판'을 다양하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말이다.

유대교에서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돈을 빌려주는 것은 그 사람이 성공할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기에 최고의 복덕이라는 것이다. 부처님의 인간방생 교화방식 또한 이와 같다.

단순히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을 지을 수 있는 기회와 방법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불교는 적극적인 종교다.

우리 불교계에서도 '보시바라밀' 사상을 토대로 기부하고 기부 받는 문화를 새롭게 정립해야 할 때다.

■ 우승택(삼성증권 종로 FNhonors 부장)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채수삼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교육원·포교원 통합 바람직"

스태프 기능 축소, 사찰지원·국제기능 등 강화해야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조직진단 결과

조계종 포교원과 교육원을 통합해 유사기능의 시너지 극대화를 도모하고, 중앙연수원 및 복지원 신설로 교육기능과 복지업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등의 컨설팅 결과가 나왔다.

이 같은 결과는 조계종 총무원이 지난해 10월 글로벌경영컨설팅연구소(대표이사 김창호)에 용역의 의뢰해, 4월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열린 '중앙종무기관 조직진단결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나왔다.

조계종 총무원이 외부기관에 조직진단을 의뢰한 것은, 종단 개혁 10주년을 맞아 사회적 시대변화에 발맞춰 조계종 또한 한 단계 더 변화해야 한다는 내외의 요구를 수렴한 것에 바탕을 두고 있다.

글로벌경영컨설팅연구소는 조직진단 결과 "기능중심의 책임운영체제가 강화된 조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며 인사, 총무, 기획 등 스태프 기능을 축소하고 사회, 문화 등 공통업무를 통합해야 한다는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또 사찰지원과 원 스톱 서비스(one stop service), 국제기능을 강화하고, 각종 연구소의 연구기능을 통합 및 신설하며, 기획조정실의 정책업무 강화와 대외협력기능을 일원화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 외에도 전산국 업무 독립과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업무 강화, 감사기능의 독립, 자료 및 통계업무 강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러한 2원(1원)[총무원, 포교교육원(복지원)] 3실[감사실, 사서실, 기획조정실] 6부(1부)[총무부, 호법부, 문화부, 사회국제부, 교육부, 포교부(복지부)] 14국(1국)[총무국, 사찰관리국, 재무국, 호법국, 조사국, 문화국, 사회국, 국제국, 승가교육국, 재가교육국, 조직국, 신행국, 기획국, 홍보국(복지국)] 1소[종책연구소] 1센터[전통불교문화센터]는 종헌·종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 종헌·종법 틀 내에서 사찰관리과, 인사과, 국제과, 복지과, 종책연구소 등을 신설하는 4원 1회 2실 7부 12국 5과 1소 1센터 조직구조안도 마련됐다.

조계종은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내부의 충분한 논의 및 토의를 진행한 다음, 올 9월 이내 최종 합의안을 이끌어 내 올 11월 정기 중앙종회에 조직재설계도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전통강원을 사이버대학으로"

법장 스님 용주사 간담회서 밝혀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전통 강원을 사이버 대학으로 추진할 뜻을 밝혔다.

4월 6일 화성 용주사(주지 정락) 효행교육원에서 열린 교구본말사 간담회에서 승가교육제도 개선과 관련, 수원 봉녕사 승가대학 학감 도혜 스님이 복안을 묻자 법장 스님은 "강원을 전문교육기관으로 육성해 일반 대학원처럼 학위를 수여할 수 있게 만들겠다"며 "정부에 사이버 대학으로 등록하면 졸업 후 석사학위까지 취득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법장 스님은 "일부 강원에서 승가교육제도 개선안에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 강원체제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개선안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담회에서 봉녕사 승가대학 교무 설오 스님이 종단 및 교구본사 차원의 승가대 지원을 요청하자 법장 스님은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간담회에는 손학규 경기도지사를 비롯 5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한편 용주사청년회는 4월 9일 경기도청 앞에서 용주사와 융·건릉을 가로지르는 택지개발 반대 참회법회를 개최했다.

화성=남동우 기자

불교 시청각교재 발간

조계종 포교원, 중·고교에 무상배급

중·고등학교 종교교육 및 재량활동 시간이 청소년포교의 장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조계종 포교원이 불교교육연합회와 함께 중·고등학교 재량활동 시간에 사용할 <인성과 전통문화 교육을 위한 불교 시청각 교재>를 발간, 3월 20일부터 종립학교를 중심으로 무료배포하기 시작했다.

또한 전국 중·고등학교에 종교 교과서를 무상배급하기로 결정, 올해 배포된 교과서에 한에서는 신청을 받아 교과서 대금을 환급할 계획이다.

포교부장 일관 스님은 "인터넷이 생활화되고 제7차 교육과정과 학교 정보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서적보다 컴퓨터에 친숙한 청소년들에게 불교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절실했다"며 "체험위주의 시청각 교재와 종교교과서 무료배급이 많은 청소년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해설서 1권과 시청각 동영상 CD 10장으로 구성된 시청각교재는 종립학교를 필두로 파라미타 청소년협회 등 청소년협회와 청소년법회를 운영하는 각 사찰에 무상배포, 청소년포교 교재로 사용된다.

한편 불교교육연합회는 시청각 교재 정식배포에 앞서 4월 6일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을 방문, 종단 지원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교재발간의 의의와 활용방안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02)2011-1891

김은경 기자

목적·방법·체계 정립 안돼 '막막'

'신도수행 현황과 과제' 워크숍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이 신도수행 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재가 불자들의 수행 현주소는 어디에 있으며 문제점은 없는가?

조계종 포교원은 4월 2일부터 3일까지 영주 부석사에서 '신도 수행 현황과 과제 워크숍'을 개최하고, 재가자 수행체계 확립을 위한 의견수렴의 시간을 가졌다.

워크숍에서 신도수행프로그램 현황을 직접 조사한 발제자들은 한결같이 "신도들이 하고 있는 수행프로그램들의 목적이나 방법, 체계가 정립돼 있지 않았다"며 "사찰의 주지스님 및 지도자들도 효과적인 지도방법을 찾지 못해 막막해 하고 있었다"고 발표했다.

표준한글 경전 출간 필요
매주 체험 내용 점검해야

고명석 간경 수행부분 조사위원은 종단차원에서 간경의 범위와 순서 체계 정립, 표준한글 경전이나 독송법 출간, 운율개발을 건의했고, 심재관 주력부분 조사위원은 현재 행해지고 있는 주력 프로그램들이 임의적으로 구성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김경호 사경부분 조사위원은 사경의 개론서, 기법서 교재 발간과 통합적인 경전 발간을 건의했다.

워크숍에서 포교원 박희승 차장은 "신도기본교육을 이수한 신도가 3개월의 신도기본수행을 통해 교법 이해를 갖추고, 정견, 신심, 발심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선지식의 점검을 통해 간화, 지계, 간경, 염불, 주력, 위빠사나, 봉사 등 전문수행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내용의 수행체계 안을 제시했다.

중앙승가대 김응철 교수는 경전에 근거한 수행체계 확립을 주장했고, 신도국장 원철 스님은 "간화선이 생활선으로서 현대에 부각되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황수경 전문위원은 기본수행과정 내용이 교학중심으로 흐르게 되는 것을 우려하면서 "매주 1시간은 체험과 실천내용에 대한 점검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교연구실장 진명 스님은 "자료조사에서 미비한 부분이 있었으나 꼭 선행돼야하는 매우 중요한 활동이었다"고 밝히며 "종단이 추진하고 있는 승려기본교육과정의 간화선 지도지침을 고려해 신도수행교본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영주=배지선 기자

탄·허·불·교·문·화·재·단

자광사 국제선원 개원법회

귀의 삼보하옵고
본 사찰에서는 국제선원 개원법회를 다음과 같이
봉행하고자 하오니 동참하시어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 **일 시** : 5월 9일 (음, 3월 21일) 오전 10시
- **장 소** : **자광사 대웅전 (2층)**
- **문 의** : 042)822-9220(代)

◆객비와 화환, 화분은 사양하오니 양해바랍니다.

탄허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전 창 열
탄허불교문화재단 자광사 주지 청아 합장

영어법회 및 템플스테이

자광사에서는 매달 둘째 일요일에 외국인 스님
영어법회(오전 10시) 및 (내)외국인 템플스테이(1박 2일 수련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영 어 법 회	
날 짜	외국인스님
5월 9일	무량스님(미국 태고사 주지)
6월 6일	칼마 랫쉬 쏘모 스님(국제 여성불교회 회장)
7월 4일	라마 조파 린포체(FPMT 회장)

템플스테이(수련회)
기 간
5월 8일 ~ 5월 9일
6월 5일 ~ 6월 6일
7월 3일 ~ 7월 4일

■6, 7월은 첫째 일요일에 있습니다.

영어 법문은 약 한 시간 동안 통역 없이 진행되며, 이후 질의 응답시간에는 통역 가능합니다.

※ 영어법회는 불교 TV 매주 월요일 오전 9:20 저녁 8:20, 일요일 저녁 9:20에 방송됩니다.
※ 법회 전날은 수원과 서울지역, 법회 당일은 유성지역에서 차량운행을 하오니 종무소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자 광 사 대전시 유성구 학하동 649번지 TEL. 042)822-9220 E-mail : jakwangsa@kornet.net / juliette_park@hotmail.com

대불청 임원 130여명 쌍계사서 전진대회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정상옥)는 4월 10일부터 11일까지 진주 갑을 가든과 쌍계사에서 '전국 불교청년 임원 전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중앙 회장단 및 임원, 지구 · 지회 임원단 13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전국 지구 및 지회 조직의 현황을 파악하고, 전국 회원들의 인적 데이터를 조직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분임토의 및 발표, TFT(Task Force Team) 교육과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에 대한 브리핑, 모범 지회 법회 운영에 대한 사례발표를 진행하고, 7월 진주에서 있을 전국 불교청년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향후 대불청의 발전방안 등을 모색키로 했다. 김은경 기자

천태종, 北 영통사에 단청재료 1차 지원

천태종 나누며하나되기운동본부(총재 운덕)는 4월 26일 개성 영통사 복원을 위한 단청재료 1차분을 북한에 보낸다. 단청재료는 총 3차례에 걸쳐 지원되며, 12가지 색깔의 무광 수성도료와 착색제, 희석제, 그라프트지 등 26톤 분량에 달한다.

나누며하나되기운동본부는 또 미얀마 서부국경 메솟지역 난민촌에 중고컴퓨터 160대를 지원하기로 하고, 14일 대구 대성사에서 전달식을 개최한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으로부터 인수한 중고 컴퓨터는 16일 부산항을 거쳐 태국 평화재단으로 전달된 뒤 난민촌으로 보급된다.

한·일 불교문화교류대회 6월8일부터 日 광명사서

제25차 한 · 일 불교문화교류대회가 6월 8일부터 12일까지 일본 가마쿠라에 위치한 정토종 총본산 광명사에서 '기도와 구제'를 주제로 열린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회장 법장)와 일한불교문화교류협의회(회장 미야바야시 쇼겐)는 "양국 불교계의 우호 증진을 위해 매년 열리는 교류대회 본 행사를 6월 9일 정통종 광명사에서 개최한다"는데 최근 합의했다.

8일 요코하마 시내에서 환영회로 시작되는 교류대회는 9일 광명사에서 본행사와 동경시내 사찰 순례, 일본 아악 및 고전무용 시연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본 대회에서는 '기도와 구제'를 주제로 한 학술세미나와 세계평화를 위한 공동선언문이 발표될 전망이다. 박봉영 기자

20일 장애인의 날 행사 다채

나눔의 손잡기 우리이웃 불교신문 · buddhanews.com

나들이 · 산행 · 체육대회 · 장애체험 등 전국서 열려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불교계 각 복지시설을 비롯한 장애인 단체들이 장애인 세상 나들이, 장애예방 캠페인 등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표 참조)

제천장애인복지관은 17일 제천시 문화회관과 시내 차 없는 거리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장애체험 및 예방 캠페인'을 벌인다. 구미시장애인복지관은 17일 구미역 일대에서 '장애발생 예방 홍보 캠페인'을, 광주 광산구 장애인복지관은 20일 충장로에서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또 영주시장애인복지관은 23일 영주시내에서 '장애예방 포스터 전시회'를 개최한다.

나들이 행사도 준비됐다. 원주 소쩍새마을은 27일 어린이대공원으로 '세상 나들이' 행사를 갖으며, 강북장애인복지관도 14일 포천 제일유황온천으로 '밝은 세상 나들이'를 떠난다.

체육대회도 마련됐다. 강릉시장애인복지관은 16일 경포호수공원에서 '제2회 둘이서 하나되어 왼발, 오른발 걷기대회'를 연다.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이 행사에서는 300여 명이 동참할 예정이다. 이밖에 광림사 연화복지원은 25일 '청각장애인과 함께 하는 한마음 체육대회'를, 의정부시장애인시설곰두리네집은 24일 신흥대체육관에서 '제2회 징검다리 체육대회'를 개최한다.

시각장애불자 신행모임 대광맹인불자회는 25일 대구 팔공산 갓바위로 산행을 떠난다. 장애인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시각장애인 산행대회는 시각장애인과 자원봉사자 500여명이 참석한다. 대구개인택시 정법회가 차량을 지원하고, 대불봉사단에서 점심공양을, 대구불교대학, 영남불교대학 봉사단 등이 이들의 눈이 되어준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장애인의 날' 기념 불교계 단체 행사

행사명	일시	장소	주최	연락처
제2회 징검다리체육대회	4월 24일	신흥대체육관	의정부시장애인곰두리네집	(031)829-8294
장애인세상 나들이	4월 27일	용인 에버랜드	소쩍새마을	(033)762-9870
제2회 둘이서 하나되어 걷기대회	4월 16일	경포호수공원	강릉시장애인복지관	(033)643-1801
밝은 세상 나들이	4월 14일	포천 제일유황온천	강북장애인복지관	(02)989-4215
장애인차량 및 휠체어 무상 점검	4월 22일	복지관주차장	경주시장애인복지관	(054)776-7522
애인 인식개선 캠페인	4월 20일	광주시 충장로 일대	광주 광산구장애인복지관	(062)943-0420
장애발생예방 홍보 캠페인	4월 17일	구미역 일대	구미시장애인복지관	(054)457-3172
장애예방 및 인식개선 포스터 공모전	4월 23일	영주시내 영주시	장애인복지관	(054)633-6415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장애예방캠페인	4월 17일	제천시내	제천시장애인복지관	(043)652-0900
청각장애인과 함께하는 한마음체육대회	4월 25일	장소미정 광림사	연화복지원	(02)2202-5831
전국시각장애인 산행대회	4월 25일	대구 팔공산 갓바위	대광맹인불자회	(053)256-0114
장애인세상나들이	4월 23일	광릉수목원	상락원	(02)921-6410



삼보회 도량인 삼보정사 전경. 최근 지상 4층 규모의 중창 불사를 마무리하고 18일 회향식이 열린다.

'삼보회' 창립 40돌 맞아

재가신행단체 '원조' 학회 · 장학회 등 운영 18일 기념식…불사 회향

'최초'라는 수식어가 자연스럽게 따라붙는 재가불자단체, (사)대한불교삼보회(이사장 윤종길). 오는 4월 24일이면 꼭 창립 40돌을 맞는다.

재가불자신행의 요람이자 불자 인재양성의 산실 역할을 해 온 삼보회가 결성된 것은 1964년. 고 이한상 거사가 불자 학생을 위한 장학사업을 위해 삼보장학회를 설립하면서부터 시작된 삼보회 활동은 이듬해인 1965년 삼보학회를 창립하면서 본격화됐다.

이 같은 기반을 토대로 문서포교, 군 포교, 교도소 포교, 어린이 · 청소년 포교 등 각 분야에서 지성불교, 생활불교의 토대를 만드는데 전력해 온 삼보회는 1973년 한국불교단체로서는 최초로 '삼보합창단'을 창단, 찬불가 보급을 통한 포교의 전기를 마련했다.

이어 1975년 불교교양대학을 개설해 신도교육에 매진해오던 삼보회는 1980년 '불교어머니회'를 발족, 한국불교 재가신행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2004년, 삼보회가 새로운 변신을 시도한다. 장학사업과 함께, 어린이 · 청소년 등의 '젊은 불자 양성'에 역량을 집중한다. 신 사옥 2층에 어린이집을 개원하는 것도 중 · 고등학생회 법당을 개설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디지털 분야에서도 변화를 꾀한다. 40년간 2천5백여 넘게 봉행한 탄허, 청담, 관응 스님 등 5백여 명의 법문을 40장의 CD로 제작해 출시한다. 또 2002년 개교한 삼보사이버불교대학(학장 종범 · 중앙승가대 총장)의 커리큘럼도 삼보불교대학의 명성을 이어간다.

삼보회 김민식 상임이사는 "앞으로 중장년층과 청년층이 한데 어우러지는 신행활동을 적극 전개해 제2의 창립기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보회는 18일 서울 삼보정사에서 '창립 4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 또 이날 법회는 3년간 추진해온 지상 4층 350여 평 규모의 삼보정사 중창불사 회향식도 봉행된다. (02)943-2858

김철우 기자

"민 · 형사 소송하면 엄중문책"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는 최근 공고를 내고 사회기관에 고소, 고발, 진정, 탄원 등과 민 · 형사상 소송쟁의를 일으키는 행위에 엄중 문책할 뜻을 밝혔다.

호법부장 종열 스님 명의의 공고에서 "최근 종단 대내적인 문제나 사찰과 사찰, 승려와 승려사이의 문제로 종단내 사정기관의 시정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사회 기관에 고소, 고발, 진정, 탄원 등의 행위를 하거나 불법부당한 개인의 사욕을 도모하기 위해 허위사항을 유포 조작, 고의로 사직 당국에 민 · 형사상의 소송쟁의를 일으키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사회기관에 고소, 고발, 진정, 탄원 등과 민 · 형사상의 소송쟁의를 일으키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승려법 제46조, 제47조 14호, 종무원법 제25조에 의거해 가차 없이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남동우 기자

제주 4 · 3사건, 스님 16명 피해

35개 사찰 소각 · 폐허

제주 4 · 3 사건으로 35개 사찰이 소각 또는 폐허가 됐고, 스님 16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불교사연구회 한금순 연구원은 4월 7일 제주도 풍림콘도에서 열린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회장 백도응) 주최 '2004 이웃종교문화이해강좌'에서 '제주 4 · 3사건과 제주도 불교계의 피해 현황' 사례발표에서 4 · 3 사건으로 "제주시 11개, 서귀포시 5개, 남제주군 4개, 북제주군 15개 등 총 35개 사찰이 소각 또는 폐허가 됐고, 총살 10명, 수장 2명, 고문 후유증 사망 1명, 일본도피 1명, 행방불명 2명 등 총 16명의 스님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한 연구원은 사찰의 경우 "주로 토벌대의 초토화 작전 시기에 피해를 입었다"며 "사찰 소각은 종교 활동의 근거지를 없애버리는 일이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또 "35개 피해 사찰 중 현재 복원된 사찰은 16개, 다른 장소로 이전해 복원된 사찰은 10개"라며 "그러나 아직도 7개 사찰은 복원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스님의 경우 "4 · 3 사건이 공권력에 의한 한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이었음이 규명됐지만, 제주도의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4 · 3사건 피해 희생자로 신고 된 스님은 아무도 없다"며 그 이유로 "스님들의 직계 후손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남동우 기자

송광사, 고려시대 '속장경' 22일 공개

지난 1월 순천 송광사 사천왕상에서 발견된 <속장경(續藏經)>이 4월 22일 일반에 공개된다.

송광사 성보박물관(관장 고경)은 <속장경>의 가치 등 이 유물에 대한 문화재청의 견해를 받아, 이를 토대로 22~23일 '순천 송광사의 고문헌'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4월 8일 밝혔다.

<속장경>은 대장경을 결집할 때 누락된 것을 모아 1096년(고려 숙종 1년)에 대각국사 의천 스님이 편찬한 불경으로, 4000여권의 목록만 있을 뿐 실물은 희귀한 실정이다. 22~23일 송광사에서 열리는 학술대회 '순천 송광사의 고문헌'에서는 이 <속장경>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송광사가 소장하고 있던 경전과 조선시대 사찰에서 간행된 불서 1500여권에 대한 연구결과도 발표된다. 오유진 기자

동국대 불교대학원 최고지도자과정 43명

신행회 결성…기금 2억원 조성

불교계를 대표하는 지도자급 스님들과 사회 각 분야에서 내로라하는 재가불자들이 모여 있는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최고지도자과정. 이 최고지도자과정 학생 43명이 최근 엠베서더 호텔에서 모여 친목모임인 '원우회'를 결성하고 자체 기금 2억원을 모으기로 했다.

이들은 오는 4월23~24일 부부동반으로 신흥사와 낙산사, 건봉사를 돌며 템플스테이를 가질 예정이고, 6월에는 미얀마로 성지순례를 다녀오기로 했다. 자체 기금은 신행활동을 하는데 사용하는 것은 물론, 학교발전을 위해서도 쓰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한명우 기자

불교방송 사장 후보 공개모집

불교방송의 사장 천거권을 가지고 있는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에서는 불교방송을 이끌어갈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최고경영자 천거를 위한 후보를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1. 천거 대상 : 불교방송 사장(임기 4년)

2. 자격 요건
가. 독실한 불교 신도로써 수계를 득한 분.
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준하여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
다. 최고경영자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겸비하고, 불교방송의 경영혁신을 위한 미래 지향적 비전을 가진 분.
라. 1943년 6월 12일 이후 출생한 분.

3. 제출 서류
가. 이력서(사진 및 관련 경력증명서 첨부) 1부.
나. 불교방송 경영계획서(A4지 5매 내외, 10분 발표 분량).
다. 주민등록등본 1부.

4. 제출 기간 및 접수
가. 제출 기간 : 2004. 4. 19(월) ~ 2004. 4. 23(금) 17:00까지.
＊ 우편접수 시 당일 도착 분에 한함.
나. 접수처 : (우 121-714)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140번지 다보빌딩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사무국.
다. 접수 방법 : 제출 기간 내에 서류를 작성하여 직접 접수하거나 등기우편 접수.

5. 심사 방법
가.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이사회에서 심사.
나.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심사(면접심사 대상자는 개별 통보).

6. 기타
가. 본 천거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사무국장(02-719-185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 전화 02) 719-1855(代) 팩스 02) 719-5052
http://www.kbpf.org

조계종 개혁 10주년 기념 좌담 '개혁을 딛고 화해와 미래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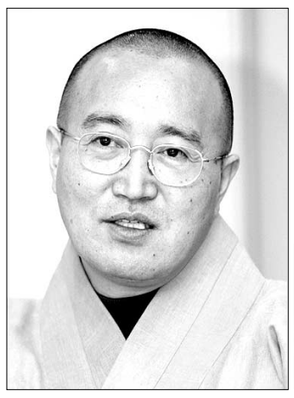
실천불교전국승가회 · 불교기자협회 공동주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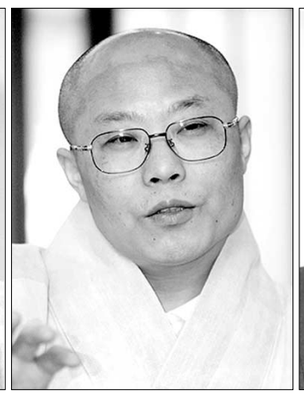
화합 기반으로 밑그림 다시 그려야

조계종 개혁 10주년을 맞아 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평가하고 향후 종단 개혁의 방향을 모색하는 좌담회가 개최됐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공동의장 효림)와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김원우)는 4월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조계종 개혁 10주년 기념 좌담회 '개혁을 딛고, 화해와 미래로'를 개최했다. 참여불교재가연대 윤남진 사무처장의 사회로 열린 좌담회는 ▲1994년 종단개혁의 의미와 평가 ▲94년 종단개혁 후 10년에 대한 회고와 반성 ▲종단개혁의 과제와 방향 등을 주요 의제로,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석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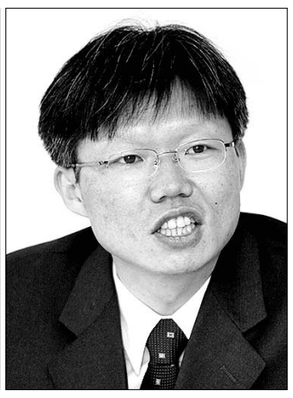
도각 스님 (조계종 종회의원, 사자암 주지)
법안 스님 (종회의원, 실천불교승가회 부의장)
성태용 (건국대 교수, 우리는선우 이사장)
위영란 (현대불교신문 편집부국장)
사회: 윤남진 (참여불교재가연대사무처장)


도각 스님


법안 스님


성태용 교수


위영란 국장


윤남진 사무처장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조계종 개혁 10년을 평가하고 미래를 전망했다. 사진=박재완 기자

개혁과정에 비판세력 없어 아쉬워

■ 1994년 개혁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가장 큰 소망은?

도각= 94년 당시 가장 고뇌했던 것은 종단 내 제도개선 보다는 민주화 과정에서 우리 불교는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 였다. 종단의 비민주성과 비자주성을 바꿔보자는 것이 고민의 중심이었다. 그 중심에 실천불교전국승가회와 선우도량이 있었다.

법안= 94년 개혁은 서의현 체제가 삼선을 염두에 두면서 수행자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현실에 사부대중이 분노하면서 종단 내부를 들여다본 계기였다. 종단 내 권력을 종도들에게 돌려주자는 취지에서 시작해 총무원 다수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과 맞물려 종단 개혁의 단초가 됐다.

■ 94년 이후 종단개혁이 잘 정착되고 있는지, 아니면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위영란= 94년이 지나고 난 다음 서의현 체제 반대 제도적 정비에 급급했다. 즉 서의현 체제 문제점 해결을 위한 미봉책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수행 등을 종단 핵심 과제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 끌고 갔어야 한다. 또 개혁 과정에서 비판 세력이 없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성태용=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릴만한 여유도 없이 승단 존립에 급급했던 것 같다. 개혁 과정에서 또 하나의 문제는 개혁 세력이 종단 내에 들어가도 별 수 없다는 무력감이다. 이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큰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

■ 중앙종회가 삼권분립 차원에서 이전보다 강화됐다. 그러나 책임성과 대표성 부분에서 문제가 지적되기도 한다.

법안= 종회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종단개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지적에 대해 답을 많이 알고 있지만 추진할 동력이 없다. 또 출가자 중심으로 기득권이 형성됐기 때문에 종도들의 여망을 받아들이는 고뇌가 없다. 재가자들이 종단 내로 못 들어오기 때문에 비판 · 감시 기능이 없다.

도각= 종회가 계파로 짜여져 계파들끼리 어떻게 자리를 나눠먹는가 하는 구조가 됐다. 이런 문제는 종단 구성 자체가 문중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 소위 봉건영주들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정체성에 훼손만 가지 않는다면 교구본사나 사찰단위의 공동체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위영란= 서의현 체제의 무소불위 권력이 이제는 종회가 됐다. 집단 이기주의화 되고 파벌주의화 됐다. 종회는 정치집단화 될 수밖에 없지만, 파벌이 아닌 각종 위원회 중심으로 가야 한다. 만약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과보가 따를 것이다.

성태용= 출가 수행자들은 그에 맞는 위치가 있다. 스님들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판정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정치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은 다른 기구를 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양원체제도 생각해 볼 일이다.

사찰운영 신도 참여로 투명해져야

■ 재가자들의 종단 참여 기회나 가능성을 열어줄 현실적 방안은?

도각= 결국 의식의 문제다. 성직자들이 신도와의 관계를 교화의 대상으로 보는 고정된 시각이 있다. 불교는 신도들이 스님들에게 삼배를 하는 예법상의 문제도 있다. 이런 구조를 어떻게 종헌 · 종법 상으로 끌고 올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법안= 스님들은 주인의식이 강하다. 재가자들을 신뢰할 수 없다는 생각도 강하다. 가톨릭의 경우 집행만 신부가 하고 운영은 공동으로 한다. 출 · 재가자 문제는 안에서 갈무리되는 방향으로 해소됐으면 한다. 사찰 운영에 반드시 신도들이 참여해야 한다. 그래야 스님들 뿐 아니라 교단도 더 건강해진다.

■ 종단이나 사찰의 재정구조에 대한 생각은?

성태용= 지금까지는 사찰 유지에 신도들이 돈을 냈지만 환경, 통일 등에 신도들이 돈을 내게해야 한다. 부처님 뜻을 바르게 구현하기 위한 구조를 만들어야 신도들의식도 향상된다. 한국불교는 거대한 자산이 있다. 이런 것들 잘 가공하면 포교하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다.

위영란= 문화는 산업이다. 재원 창출에 기본적인 한계가 있다면 그 외의 방법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복지도 산업화 될 수 있다. 최근 웰빙이 사회 관심 대상으로 되고 있는데 여기에 명상이나 선 등 불교적인 부분이 많다. 이것들을 산업화 해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

■ 중앙종무기관들이 너무 산만하게 구성돼 있다는 의견들도 있다.

위영란= 조계종은 십년 동안 어렵고 힘들게 변해왔지만 사회는 더 크게 변했다. 이런 것들을 좇아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따라서 사찰이나 단체들에게 이런 부분을 나눠줘야 한다. 하지만 조계종에서 하는 것만이 불교라고 하는 종단 이데올로기가 있는 것도 현실이다.

법안= 행정 집행부 기능과 역할은 94년 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평가가 있다. 그 원인 중 하나가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종무원이다. 교구본사 단위까지라도 교역직 종무원은 시험으로 선발해 일정한 연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총무원과 직영 · 직할사찰만이라도 순환보직이 돼야 질적 향상 및 투명화도 가능하다.

종단 재정 전문가가 맡아 관리해야

성태용= 조계종 정도 되면 전문가 집단이 튼튼하게 포진돼 있어야 한다. 기본 틀거리를 만드는데 집중적인 투자가 있어야 하지만 소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 종단에 힘을 집중할 때는 집중시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 멸빈자 사면은 종도들의 바람이라기보다는 정치적 문제라는 의구심도 지적되고 있다.

법안= 사면은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종단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 화합과 상생 측면에서 사면해주자는 것이다. 물론 교훈으로 남겨두자는 것에도 일리는 있다. 사면 문제는 인내를 가지고 시간을 두며 해결해야 한다. 밀어붙이기식은 안 된다.

도각= 어떤 명분으로든지 종회 의사정족수를 넘을 수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사면대상자들이 진솔하게 나왔으면 한다. 전 지구인들이 지켜본 집단 활극을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엔 동의할 수 없다. 또 사면이 원만하게 진행되려면 사면을 반대하는 사람들까지 안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

사면대상자 진솔함 보여주길

성태용= 사면복권이 이뤄지더라도 여법해야 한다. 당사자들의 참회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사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밑바닥에서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사면하는 쪽이나 받는 쪽 양쪽의 접근이 여법하게 있어야 한다. 필요성이나 당위성만으로 하는 사면에는 반대다.

위영란=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적용할 시점에 바르게 적용됐는가도 중요하다. 정치적 정황상 올바른 판단이었는가도 생각해야 한다.

■ 2010년까지 향후 6년간 조계종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만한 요인은?

성태용= 사부대중 공동체가 원활하게 화합하는 것이 관건이다. 또 비구니 차별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현대 사회에 맞지 않는 비구니 차별에 대해 스님들이 해답을 내야 한다. 이 외에 재가신도 역할 분담도 필요하다.

위영란= 불교계가 두려워해야 할 것 중 하나는 불자수 감소다. 유사수행법은 각광을 받고 있지만 불자수는 감소하고 있다. 교리와 수행 정신에 입각한 새로운 틀짜기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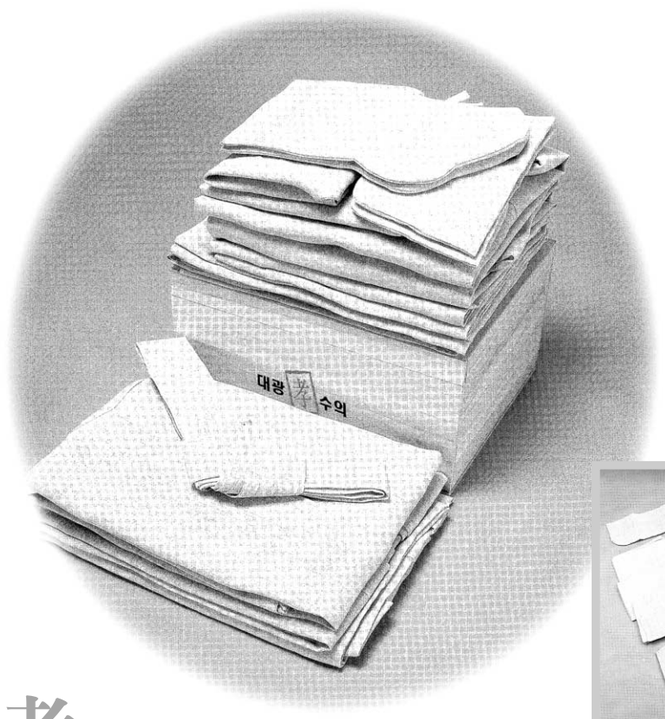
법안= 승단이 정체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개혁정신을 살리지 못한다면 강력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근본개혁을 위해서는 이판과 사판의 구분이 필요하다. 또 재가자들이 종단 문제에 동참할 수 있는 활로가 열려야 한다.

도각= 현 시기 사회가 안고 있는 모순에 대해 종단에서 발언을 해야 한다. 또 각 종단마다 고유한 색깔을 바탕으로한 종파적인 태도를 가졌으면 한다.

정리=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윤년 윤달의 효도 선물 대광[孝]수의로 하세요

갑신년 윤달 수의 특별가로 불자님들을 모십니다
불자님들을 위한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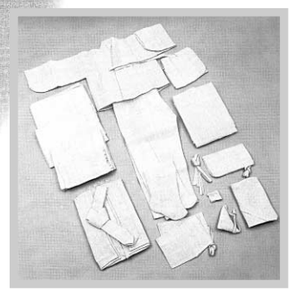


대광[孝]수의를 구입하시는 모든분께
성묘용 제기세트를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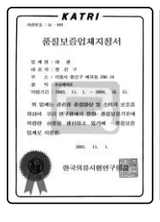
수의 가격표

상품명	재질(성분)	원사가공지	판매가격
국화1호	삼베100%	경북안동지역	1,515,000
국화2호	삼베100%	강원일부지역	1,395,000
국화5호	삼베100%	경남남해지방	1,249,000
국화7호	삼베100%	충남서천,홍성지방	950,000
특 1호	삼베100%	중 국	670,000
보성삼베	대마+저마	전남보성지방	1,450,000
남해삼베	삼베100%	경북남해지방	2,345,000
안동삼베	삼베100%	경북안동지방	4,300,000

윤달3월21~4월20일 원하시는 날 받으실 수 있도록 예약 주문 받습니다.



수의제품 품질보증업체 Q마크 획득





孝 대광수의 서울시 종로구 예지동 296-19 광장시장(1층)
TEL. 02)2275-8075, 2279-7450 FAX. 02)2272-6715

세시풍속〈歲時風俗〉

윤달(閏月)은 재액없이 무난하게 여기고 모든일을 거리낌없이 하는 풍속이 내려오고 있다.
특히 일년중에 한달이 덤으로 있는 윤달에는 손재 등이 없는 기간으로 모든일에 부정을 타거나 액이 끼이지 않는 달로 인식되어 왔고, 그래서 평소에 꺼려하던 이장(조상의 묘를 옮기는 일), 집을 헐고 새로 짓는 일 등을 윤달에 하는 것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예이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집안어른의 수의를 마련해두면 집안어른이 무병장수하고 자손도 번창한다는 세시풍습이 있다.
그 뜻을 미루어 짐작컨데, 수의를 마련함으로 자손들은 여생이 얼마남지 않으신 집안어른을 더욱 공경하고 효심으로 받드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되며 집안어른은 죽음을 다스리고 대비하면서 여생에 대한 진한 삶을 살고자 했던 조상들의 지혜라 여겨집니다.

대광[孝]윤년수의를 미리 마련해 놓으시면...

(1) 믿을 수 있는 좋은 품질의 제품을 여유있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시중에는 혼합된 원단으로 만들어진 제품들이 고가품으로 둔갑하여 유통되고 있으나 금년 윤달에 "대광"에서는 고품질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막상 큰일을 당하여 급한 나머지 아무 수의나 입혀드린 후 두고두고 후회하는 일을 겪지 않으셔도 됩니다.
(2) 고품질의 수의를 적정한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큰일을 당하여 경황없는 중에 저가품의 수의를 비싼 가격에 구입하시는 일이 비일비재 한 것은 현재 유통의 문제점입니다.
좋은 품질의 수의를 적정한 시기 윤달에 구입하시는 것은 이런점들을 고려해 볼때 좋은 기회라 생각됩니다.
(3) 금번 윤년 "대광상사"에서는 좋은 삼베만을 골라 한올한올 공경과 정성의 마음을 담아 맞춤 바느질한 제품을 그 동안 대광 삼베를 성원해 주신 보답으로 불자님 여러분들께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4) 수의의 옷감은 자연섬유로만 사용하여야 매장용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수년만에 윤달이 가장 좋은 해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길년에 효도하시고 고품질에 수의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시어 두가지의 행운을 함께 하십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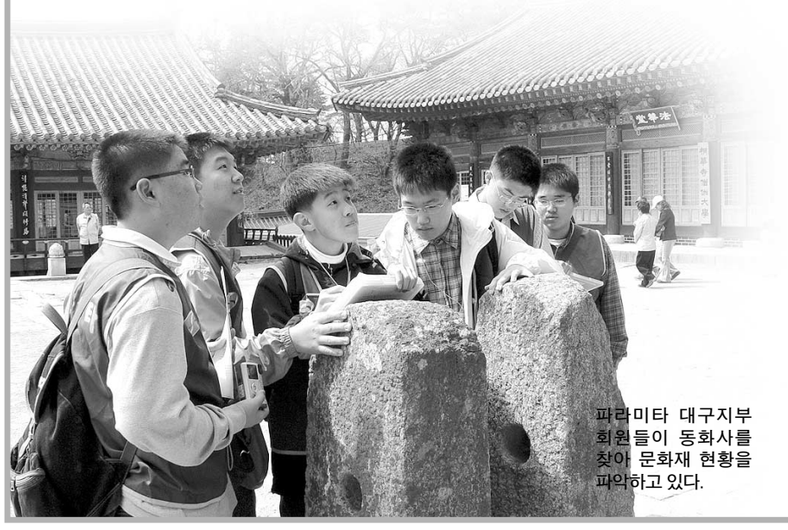
윤년에 수의를 준비하시는 불자님에게는 오동나무 상자를 무료로 공급해 드립니다.

“찾고 답하니 지식 쌓여요”

대구 파라미타 문화재 모니터링

“이렇게 비석처럼 우뚝 서 있는 이 돌은 뭘까? 여기 난간이 부러져 있네. 사람들이 왜 여기는 그냥 지나칠까?”

4월 4일 오전 10시. 팔공산 동화사 설법전 앞마당엔 파란 조끼의 사단법인 파라미타 청소년협회(이하 파라미타) 회원 130여명은 문화재에 대한 새로운 의문들로 넘쳐났다. 대구광역시가 주최하고 파라미타 청소년협회 대구지부가 주관하는 대구 역사 순례를 통한 문화재 모니터링 활동에 참가한 파라미타 회원들의 이러한 의문은 이날 하루 동안의 문화재 모니터링 활동으로 풀어야 하는 것들이어서 회원들의 움직임은 활기차고 분주하다.



파라미타 대구지부 회원들이 동화사를 찾아 문화재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능인 중·고 등 8개 학교 동참
4인 1조, 의문 답 보고서 작성
역사 순례기 자료집 만들 계획

이번 모니터링 활동에는 능인중학교, 능인고등학교를 비롯한 8개 학교 파라미타 학생들이 동참했고, 파라미타 대구지부 부지부장 신연섭 선생님, 이수열 사무국장 등 10여명의 선생님들이 참석해 학생들의 모니터링 활동을 도왔다.

“절에서는 몸가짐을 경건하게 하여 소리를 지르거나 경거망동해서는 안 됩니다.” 기본적인 사찰예절과 모니터링 활동에 대한 지침이 전달되고 조가 표시된 이름표가 나눠지자 학생들은 조별로 눈을 반짝이며 문화재를 찾아 흩어졌다.

일방적인 해설을 지양하고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모니터링은 대구시 ‘청소년 프로그램 사업 공모’에서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인기가 높았다. 4인 1조가 되어 의문과 답을 스스로 찾아나가고 그 결과보고서까지 직접 작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화재 설명과 주변 환경 스케치, 문화재 현황, 모니터링 내용, 답사 후기를 작성 제출하기까지 청소년들은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기록하며 문화재를 보는 새로운 시각을 터득하게 된다.

총 4회에 걸쳐 시도되는 모니터링 활동은 동화사를 기점으로 6월 13일은 대구 동구지역을, 5월 16일과 7월 17일은 동구를 제외한 대구시 전 지역의 문화재를 탐방한다.

특히 이번 모니터링 활동에는 전문 문화재 지도교사가 전화문의 창구를 통해 학생들의 궁금증에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대기하고 있으며, 모니터링 활동 참가 학생에게는 봉사활동증과 현장체험학습 참가증이 발급된다.

또한 이번 모니터링을 통한 청소년들의 역사 순례기는 자료집으로 엮게 되며, 우수작품에 대해서는 7월 말경 일괄 시상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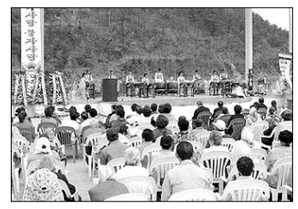
파라미타 대구지부 부지부장 신연섭 선생은 “문화재 모니터링을 문화재를 보는 새로운 시각을 배우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불교문화재를 접하면서 불교에 자연스럽게 다가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2년 실시된 역사문화탐방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는 이슬웅(달성고2)군은 “전에는 선생님들의 설명만 들어서 좀 지루하고 재미없었는데 이번에는 스스로 길을 찾고 숨겨진 것들을 찾아 볼 수 있어서 재미있다”고 말했다.

팔공산=배지선 기자 jsun@buddhapia.com

해동종 경남종무원장 취임

독거노인 초청 위문행사 다채



사단법인 대한불교 해동종(종정 해봉)은 4월 3일 밀양시 영남루 앞 고수부지 야외공연에서 경남 종무원장 취임법회(사진)를 봉행했다.

해동종 종정 해봉 스님, 총무원장 송산스님(용인 대원사 주지) 등 사부대중 3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새로 취임한 경남 종무원장 지수스님(밀양 용광사 주지)은 취임사를 통해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보살행을 근본으로 밀양을 불국토로 만드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종정 해봉 스님은 법어에서 “종도 모두가 스스로 부처님이 되겠다는 신심을 발해 더욱 정진해야 한다”고 법문했다. 또한 이날 법회는 밀양시내 독거노인 200여 명을 초청, 밀양 미리벌 아리랑 국악예술단의 축하공연과 밀양불교합창단의 음성공양 등 다양한 위문행사를 열어 의미를 더했다. 천미희 기자

“사람과 도시를 밝혀 봅시다”

대구 전통등 강습회

“아름다운 전통등으로 내 마음도 밝히고, 대구시도, 대구시민들 마음도 밝혀보자.”

대구광역시 봉축위원회는 4월 23~25일, 5월 1~2일까지 5일간 건들 바위 사거리에 있는 진각회관 1층에서 전통등 강습회를 개최한다.

이번에 처음으로 추진하는 전통등 강습회는 전통등 재현을 통해 지역불교계에 전통등에 대한 의식과 시각변화를 가져와 연등축제의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기 위해서다. 5인1조 1팀을 구성해 약 150Cm 규모의 전통등을 만들게 되며, 참가비는 1개팀 당 10만원. 재료비는 별도다. (053)629-9783 배지선 기자

“꽃 보고 부처님 뵈니 맘 젊어지네”

통도사 자비원 노인 자원봉사자 직원 230명 삼사순례

“예쁜 꽃도 피어있고, 절에 와서 부처님도 뵙고 정말로 좋아.”

“한꺼번에 봉사자들이랑, 또 친구들이랑 함께 오니 더욱 좋네.”

자원봉사자의 손을 잡고 혹은 휠체어에 몸을 의지해 포항 오어사를 찾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감탄이 여기 저기서 터져 나왔다. 통도사 자비원(원장 오심) 어르신들과 자원봉사자, 직원 등 230명의 대가족이 삼사순례를 떠났던 9일, 오랜만에 나들이에 나선 어르신들의 얼굴엔 봄햇살보다 환한 웃음이 번졌다.

이른 아침 자원봉사자들의 분주한 준비 끝에 출발된 이날 삼사순례는 포항 오어사, 경주 기림사를 거쳐 분황사 참배로 마무리됐다.

특히 이날 외출에서는 거동이 자유롭지 못한 어르신들을 자원봉사자들과 1:1대로 짝을 지어 정겨움을 더했다. 어르신들의 손을 꼭 맞잡은 자원봉사자들의 가슴엔 어르신들과 똑같은 이름표가 붙어 있었다.



통도사자비원 어르신들이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으며 포항 오어사를 방문해 경내를 둘러보고 있다.

이날 하루만은 어르신과 똑 같은 이름으로 불리며 어디를 가나 한 몸처럼 부축하고 보살피며 움직였다.

봉사자에게 업혀 법당을 참배한 김분이 할머니는 “몸이 불편해 외출이 쉽지 않은데 이렇게 좋은 절에 와서 부처님도 뵙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며 환하게 웃었다.

통도사자비원이 양로원, 요양원 식구들은 물론 가정봉사를 파견하는 어르신들까지 한꺼번에 나들이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평소 어르신들을 위해 자원봉사를 펼쳐왔던 삼성SDI 봉사자, 좋은 만남, 통도사 쿠샨티, 호스피스팀 등이 함께 해 의미를 더했다.

오심 스님은 “온 가족이 함께 떠나면 마음이 풍성해 질 것 같아 여러가지 애로점에도 불구하고 대가족 나들이를 하게 됐다”며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매년 함께 하는 여행을 해야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부산 농아인불자회 청각 장애인에 성금

부산농아인불자회(회장 이혜자)는 4월 18일 불우 청각 장애인 돕기 성금 전달식을 갖는다.

범어사 내원암에서 열리는 이번 전달식은 3월 14일 가진 하루찻집 수익금을 회향하기 위한 행사로 부산농아인협회, 농아인법회 양산지부, 청각 장애통합 학부모협회 등에서 추천 받은 불우 청각 장애인 10명에게 총 3백 만원의 성금을 전달한다.

하루찻집이 성황리에 회향되자 부산농아인불자회는 수화합창단 창단을 계획하고 수화합창단에 동참할 남 여 단원을 모집중이다. 수화합창에 관심이 있으며 누구라도 참여 가능하며 수화합창단이 꾸려지는 대로 찬불가 연구 및 보급을 위한 공연을 올 가을쯤 연다는 계획이다.

또한 22일에는 부산농아인불자회 지도법사 도원 스님과 청각 장애인 21명, 자원봉사자 1명은 중국 성지순례를 떠날 예정이다. 051)508-2014, 011-9940-6455

천미희 기자

영세민에 휠체어 전달 (사)부산불교봉사련

4월 장애인의 달을 맞아 지체 장애인 휠체어 보내기 운동의 일환으로 수안 스님 선서화전이 열렸다.

4월 6~10일 부산시청 2층 전시실에서 열린 이번 전시회는 (사)부산불교봉사연합(회장 최진호)이 마련했다. 영세 지체 장애인들에게 100대의 휠체어를 보내주기 위해 마련된 이번 전시회를 위해 수안 스님은 66점의 작품을 기증했다.

(사)부산불교봉사연합은 ‘영세 지체장애인 휠체어 100대 전달식‘은 17일 부산시청 녹음광장에서 열 계획으로 부산시에 휠체어를 받을 장애인 선정을 의뢰했다. 2002년 11월 창립된 (사)부산불교봉사연합은 봉사를 위한 법인으로, 창립 이후 장애인돕기, 치매노인돕기, 수재민 돕기 등 26차례에 걸친 봉사행사를 벌여왔다. 최진호 회장은 “여러분들의 정성이 모여 원만히 회향되었다”고 고마움을 전하고 “전달식이 열리는 17일에도 관심으로 함께 하셔서 기쁨을 함께 나누어 달라”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용호 은빛봉사단 발대식



용호은빛봉사단이 하수처리장 체육공원에 떨어진 오물들을 줍고 있다.

4월 6일 용호복지관(관장 혜총) 은빛 자원봉사단이 발대식을 갖고 첫 활동을 시작했다.

지역 내 자원봉사를 원하는 15명의 단원으로 구성된 은빛 자원봉사단은 이날 하수처리장 체육공원에서 정화 활동을 펼쳤다. 참여한 단원은 모두 9명. 60~70대가 대부분인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날 은빛봉사단 단원들은 굳어진 허리를 굽혀 휴지를 줍는 등 공원 곳곳을 깨끗하게 청소했다.

앞으로 거리 정화 활동, 공원 정화 활동, 캠페인 활동 등을 꾸준히 펼치게 되는 용호복지관 은빛봉사단은 자원봉사에 동참할 어르신을 모집중이다. 지역 내 자원봉사활동에 동참을 원하는 어르신들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051)628-6737

천미희 기자

대구 선광사 25일 봉불식

대구 동구 선광사(주지 예산)가 4월 25일 오전 10시 봉불식을 봉행한다. 대구 불교방송사장 성타 스님과 불국사주지 종상 스님이 증명 법사를 맡았다. 이번 선광사 봉불식에는 티베트라마승 쿤산 스님 외 4명이 특별 초청되어 티베트장엄염불을 하고, 2부 행사로는 풍물 한마음잔치와 선광사 주지 예산 스님의 달마도 시연이 있다. (053)963-9945 배지선 기자

경주 신라문화원 충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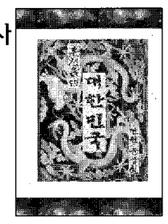
경주 신라문화원(원장 진병길)은 4월 18일 제16회 충담재를 오전 10시 30분에 안압지에서 개최한다.

충담재는 백성들의 평안을 기원하여 삼화령 미륵세존께 올린 충담스님의 차 공양을 기리기 위해 1989년부터 매년 경주에서 실시해 온 축제로 차모임 회원들의 육법공양과, 충담스님을 기리는 종사영반예식 차공양으로 진행된다. 배지선 기자

동양학의 명문 대유학당 신서안내

후천을 연 대한민국/ 실전 자미두수

▸후천을 연 대한민국



주역으로 풀이한 대한민국 100년사
무극시대(1910~1944)
→태극시대(1945~2004)
→황극시대(2005~)
※ 신국판 384쪽. 16400원.
저자: 건원 윤상철.

노무현대통령 탄핵은 운명인가?
5400년을 주기로 반복되는 초봄의 혼란
45년 8월의 광복부터 2004년 8월말까지의 60년은 태극시대에 해당하므로 모든 것이 불안정한 시기다(1편).
6.25동란은 음과 양이 교류하여 아이를 잉태하기 위한 전쟁이었다(170~175쪽)
올 8월말까지 막가파식으로 다투어야 나라가 잘된다(280~282쪽)
9월 2일 신시의 사작경신의 행사가 시작되면, “도저히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공감대가 길러지고 통일을 열 庚金의 지도자가 모습을 드러낸다(3편).
부산에서 태평양으로 뻗어가는 水路, 신의주에서 유럽으로 뻗어가는 陸路, 나진에서 북극으로 뻗어가는 精神路의 삼태극이 이루어지면 人極人尊시대가 열린다(3편).

▸실전 자미두수

※ 변형신국판 700여쪽.
상하 2권, 36,000원
저자: 이두 김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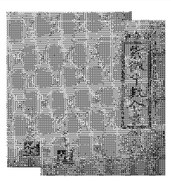


2004년 1월 12일 출간

“더 이상의 비법은 없다!”고 자부하며….
자미두수계의 선구자 이두 김선호선생의 13년 풍부한 임상경험의 비법을 아무런 사심없이 공개한 책, 사람의 명반을 놓고 “이때 왜 이 사건이 벌어져는가?”에 대해 일일이 별들과의 관계를 추론해 나간 책. 이 두 권만 다 소화한다면 누구나 자미두수를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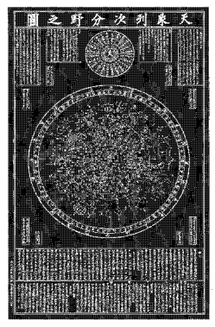
▸자미두수 전서

※ 4×6배판 1,700쪽.
상하 2권, 100,000원
(명반 CD포함)
저자: 이두 김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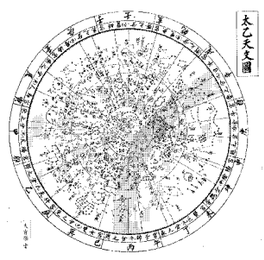


▸태을천문도(太乙天文圖)

천상열차분야지도(720×1200)
태을천문도(720×670mm)
부록(해설서, 28수를 우리나라에 배당한 지도, 휴대용 동서양 비교천문도)
※120,000원. 저자 : 윤상철
2004년 3월 15일 수정판 발행.



고구려시대의 천문도를 조선시대 태조의 명으로 권근이 수정보완한 「천상열차분야지도」를 재수정 보완하고, 오운경천(五運經天)의 이론을 넛붙인 「태을천문도」와 설명서. 서예가 김홍구님의 필적과 보관하기 좋게 천에 인쇄하여, 주변 분들에게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편해매화역수(編解梅花易數)

※ 4×6배판 증보판
20,000원
저자 : 김수길·윤상철
2004년 3월 20일 증보판 발행.



“알기는 소강절”이라는 말이 인구에 회자될 정도로, 주역의 대가이자 점의 최고봉이었던 소강절 선생 그 점학의 진수와 대가들의 비결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각종 점법에 따른 점치는 방법과 해석을 실전위주로 정리. 기존 편해매화역수에 소강절선생의 절자수, 글자점, 황극책수조수에 대한 내용을 증보하여 소강절 점학에 대한 이해를 넓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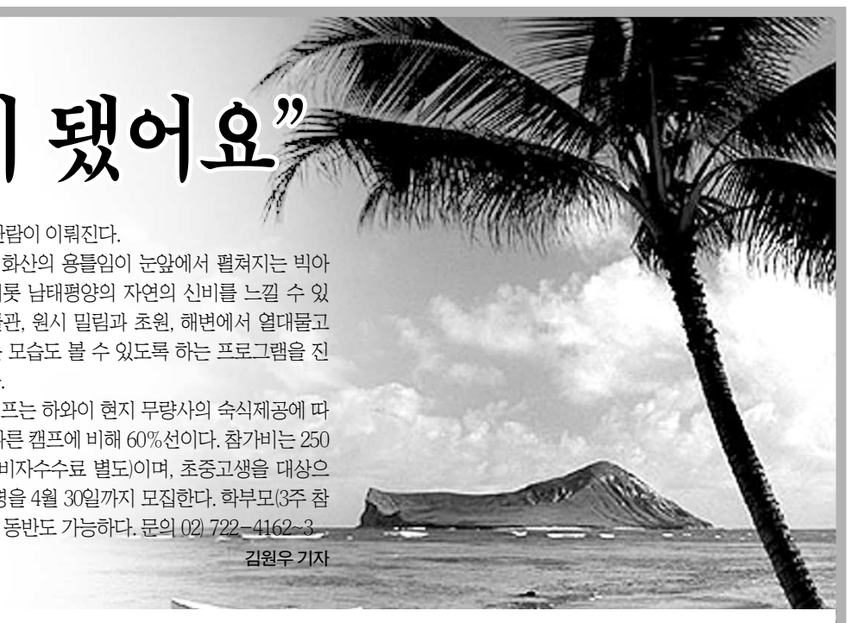
▸근간안내

심곡비결,
신기묘산,
현응결미두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대유학당
2249-5630
홈페이지 : 대유학당

문화체험 · 영어공부

"하와이 캠프 준비 됐어요"



무량사서 7월 29일 부터 21박 22일
김민선 교수 외 원어민이 직접 지도
초중고, 4월 30일까지 40명 선착순

"난 올여름 하와이에서 문화체험하며, 영어를 배운다."

현대불교신문사(사장 김광삼)는 창간10주년을 맞아 한인이민 100년의 역사가 숨쉬고 있는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소재 무량사 한인문화원에서 7월 29일~8월 19일(21박 22일) 어린이 청소년 영어연수 및 역사문화체험캠프를 개최한다.

2004 부다피아 Summer CAMP(여름캠프)는 지상의 낙원이라 일컬어지는 하와이에서 전문적인 어학교육과 함께 역사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부다피아 캠프의 어학연수는 총 54시간 영어강의와 현장에서 응용하는 원어민 교사와 함께하는 문화체험 60시간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어학연수 프로그램은 하와이주립대학교 어학연수교육원(Speech department Communication) 김민선 교수를 디렉터(총책임자)로 현지 원어민 강사 3명이 지도한다.

역사문화체험은 하와이 한인이민의 한이 서린 사탕수수 농장, 폴리네시아 민속촌, 훌라쇼 실수, 하와이왕국 이올리나 궁전 관람이 이뤄진다.

자연체험은 화산의 용틀임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빅아일랜드섬을 비롯 남태평양의 자연의 신비를 느낄 수 있는 자연사박물관, 원시 밀림과 초원, 해변에서 열대물고기들의 노니는 모습도 볼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부다피아 캠프는 하와이 현지 무량사의 숙식제공에 따라 참가비가 다른 캠프에 비해 60%선이다. 참가비는 250만원(여권 및 비자수수료 별도)이며,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선착순 40명을 4월 30일까지 모집한다. 학부모(3주 참가비 220만원) 동반도 가능하다. 문의 02) 722-4162~3

김원우 기자

일 정	시 간	프 로 그 램	일 정	시 간	프 로 그 램
7월 28일(수)	오전 8시	영어학교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 (원어민 선생님과 영어전용)	8월 7일(토)	09시~12시	와이키키해변 수영, 휴식
			8월 8일(일)	10시~12시	하와이 친구들과 대화, 휴식
7월 29일(목)	09시~16시	영어교육, 휴식	8월 9일(월)	09시~16시	진주만 방문, 다이아몬드 헤드 등반
7월 30일(금)	09시~16시	한인이민의 땀서린 사탕수수농장, 자연박물관 관람	8월 10일(화)	09시~16시	영어교육, 휴식
7월 31일(토)	10시~12시	와이키키해변 수영, 휴식	8월 11일(수)	09시~16시	하와이왕국 이올리나 궁전 탐방 및 퍼레이드 관람
8월 1일(일)	10시~12시	하와이 친구들과 대화, 휴식	8월 12일(목)	09시~16시	영어교육, 휴식
8월 2일(월)	09시~16시	영어교육, 휴식	8월 13일(금)	09시~16시	바다 물고기와 함께 하노우마베이에서 수영
8월 3일(화)	09시~16시	카할리만다린호텔 돌고래쇼 및 코닥 훌라쇼 체험	8월 14일(토)	09시~16시	영어학교 졸업식, 휴식
8월 4일(수)	09시~16시	영어교육, 휴식	8월 15일(일)	10시~12시	하와이 친구들과 대화
8월 5일(목)	09시~16시	하와이 폴리네시아민속촌 및 공연관람	8월 16일(월)	09시~18시	화산의 신비를 눈앞에서 빅아일랜드 화산섬 탐방
8월 6일(금)	09시~16시	영어교육, 휴식	8월 17일(화)	10시~	출발

월정사 '오대산 천년 숲길 걷기 대회'

상원사까지 약10km 진행
선원 참배등 부대 행사 마련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가 5월16일 '제1회 오대산 천년의 숲길 걷기 대회'를 개최한다.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걷기를 통해 자기를 발견하자는 취지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오전 10시 30분 오대산 월정사를 출발, 월정사 전나무 숲길과 반야교, 상원사 선재농장과 오대산장을 거쳐 상원사까지 약 10Km를 걷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상원사에서는 간단한 회향식과 함께, 상원사 만화루와 청량선원, 동정각 등에서 사진전 및 회화전, 선원 참배 등의 부대 행사도 열린다.

참가자 제한은 없으며, 참가 희망자는 5월16일 오전 9시30분까지 월정사 매표소에서 참가 번호표를 받으면 된다. 월정사는 이날 참가자 전원에게 티셔츠 등의 기념품을 증정한다. 문의는 전화(033-332-6661)나 홈페이지(woljeongsa.org)를 이용하면 된다.

한명우 기자

"사찰에서 공연 많이 많아 즐기세요"

종교인평화회의 종교시설서
'템플공연예술제' 마련

사찰이나 성당 등 각 종교시설에서 연극이나 뮤지컬 공연 등을 볼 수 있는 예술재가 막을 올렸다. 이제는 공연장을 찾지 않고도 가까운 종교시설에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된 셈이다.

종교인평화회의는 제1회 템플공연예술제를 마련, 4월12일 일산 여래사에서 가족극 '양덕원 이야기'를 개막하고 7월2일까지 서울 경기 지역의 사찰, 성당, 교회에서 공연을 갖는다.

이번 행사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사찰 가운데에서는 여래사 개막공연에 이어 수원포교당과 능인선원에서 공연이 계속된다.

공연되는 작품은 '양덕원 이야기' 외에 '우동 한 그릇'과 어린이 청소년 뮤지컬 '토끼와 자라 그 이후' '뮤지컬 하이라이트' '재즈' 등 모두 다섯 작품이다.

(02)736-2250 한명우 기자

진흥원, 대법당 다보원 개원





서울 마포동 다보빌딩 3층 대법당이 열린 수행 정진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했다(사진).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서돈각)은 4월 8일 5백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혜거스님(금강선원 원장)초청 다보원(多寶院)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다보원은 기존 대법당의 불교방송 공개홀 기능과 각종 법회, 불교사상 및 문화강좌 등이 열리는 종합문화공간으로 운영된다.

최명준 진흥원 사무국장은 "다보원이 개원함에 따라 법당기능을 활성화 시켜, 기도 및 시민선방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02) 703-0108

김원우 기자

나주 무량사 7일 큰법당 낙성

나주 무량사(주지 혜인)는 4월 7일 '큰법당 낙성 및 봉불식 타종법회'를 봉행됐다.

이날 법회에는 전 조계종 포교원장 암도 스님을 비롯 관내 사암스님과 지역 기관장, 재가불자 등 200여명이 동참했다(사진).

이날 법회에서 주지 혜인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중창불사를 시작한지 4년 만에 큰법당을 신축하고 '평등의 종'을 조성하게 됐다"며 "신도들과 한마음으로 정진해 미타정토도량으로 가꾸겠다"고 말했다.

이날 낙성한 큰법당은 24평 규모로 아미타불, 관음보살, 지장보살이 봉안됐다. 또한 법당 옥상에 대형 아미타불을 조성해 사찰 밖에서도 참배하도록 했다. 이준엽 기자

봉은사 18일 '수행결사' 회향

기존의 생전예수재를 수행결사로 바꾼 서울 강남 봉은사가 49일 동안 진행된 '참살림 수행결사'를 4월 18일 회향한다. 회향식에서는 그동안 진행해온 수행을 계속 이어가기 위한 1080배 정진이 진행된다.

앞서 15일에는 헌혈 · 화장서약을 비롯해 장기기증 · 사후 시신기증 서약 등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박봉영 기자

지금, 우리 절에서는…

서울 진관사

수륙도량 면모 되살린다



4월11일 대웅전 앞마당에서 시작된 수륙천도대재에서 불보살을 도량에 모셔오는 '시련' 의식을 진행하고 있다.

한양 4대 명찰, 청소년 법회 활발
불교무형문화 전통 계승에 진력

4월11일,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진관사에서는 하루 종일 수륙천도대재 회향식이 열렸다. 여느 사찰에서는 보기 드문 모습이다. 불보살과 천도 받는 영혼을 모셔오는 의식절차인 '시련(侍輦)'으로 시작된 수륙천도대재는 모든 재의식의 끝마무리인 '회향봉송(回向奉送)'이 오후 늦게 끝나면서 마무리됐다.

예로부터 한양 4대 명찰 가운데 하나로 일컬어져왔던 진관사. 지금은 거사림회나, 어린이 · 청소년 법회가 활발해 서울 서북부에서는 제1의 포교도량으로 손꼽힌다.

하지만 진관사가 조선시대에 나라의 수륙재를 담당하던 사찰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래서 진관사는 지금, 왕실과 나라의 안녕을 위해 매년 성대한 의식을 거행하던 수륙도량 진관사의 진면목을 되살리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날 열린 수륙천도대재 회향식은 바로 진관사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다. 윤달이 든 해마다 49일간 수륙천도대재를 지내온 진관사는 올해도 어김없이 수륙재 회향법회를 통해 불자들에게 수륙재의 연원과 그 의미를 알리고, 예술성을 부각시켰다.

수륙재는 떠도는 영혼과 혼령들에게 불법을 강설하고 법식을 베풀어 무주고혼들을 구제하는 불교의식이다. 영산재와 더불어 불교의식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고 장엄하다. 진관사에는 조선초기 국가 차원의 수륙재를 거행하기 위해 59칸이나 되는 건물이 지어졌고, 이를 수륙사(水陸社)라 불렀다. 진관사는 나라의 공식 행사인 수륙재를 담당하는 사찰 가운데에서는 가장 큰 규모였다.

진관사 수륙재 의식은 종합예술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시(詩)적인내용을 지닌 의식문을 범패(불교음악)로 창(唱)하며, 여기에 목탁 · 목어 · 북 · 운판 · 요령 · 바라 등이 반주 악기로 사용된다. 또한 의식의 중요한 부분에는 도량게작법, 천수바라, 법고춤 등의 무용이 곁들여져 하나의 종합예술로 형상화된다.

1963년 이곳 진관사 주지로 부임한 진관 스님은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진관사를 복원하고 오늘의 진관사를 일궈냈다. 하지만 진관 스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수륙재를 불교예술로 승화시키겠다는 원력을 세워놓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진관 스님은 올해 초 진관사 수륙재를 국가 중요무형문화재로 등록해 줄 것을 문화재청에 요청했다. 역사적으로나 불교문화적으로 볼 때 그만한 가치는 충분하다는 것이다.

진관사 총무 수경 스님은 "진관사 수륙재와 같은 불교무형문화를 제대로 전승하는 것이야말로 한국불교의 전통을 계승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말한다.

진관사는 지금, 포교 제1도량이라는 명성에 만족하지 않고 수륙재를 불교문화유산이자 민족문화유산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02)359-8410

한명우 기자



스님과 불자님들을 위한 불교 전문병원으로 거듭납니다.

◌ 큰 스님들을 위해 아늑한 별도의 치료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 특히, 큰 스님들을 시봉하신 불자님은 감사의 마음으로 무료로 치료하여 드립니다.



지하법당 | 약장(접수대) | 휴게실 | 스님 전용 치료실 | 일반 치료실

■ 크리닉 안내 척추 전문 크리닉 (2004년형 최신의료기) / 관절염 전문 크리닉 Tractizer 척추, 관절 물리 치료실 Nerve Stimurator(T.E.N.S), 종합중풍 크리닉 Infra Red / 통증 크리닉 Ultra Sonic Therapy 척추 특수 경락치료 LAPEX - 2000

콘티넨탈 대학교 평생교육원

대체의학 2004년 수강생 모집

UNIVERSITY OF CONTINENTAL 평생교육원 한국분원

본 평생교육원은 콘티넨탈대학교 의과대학 부설로써 대체의학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여 현대의학이 해결하지 못하는 질병치료와 예방의학을 통하여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해외 이민 가실 분 환영

●모집인원 : 25명 ●교육기간 : 15주 ●교육일시 : 매주 목요일, 토요일 오후 6시
●모집과목 : 대체의학 ●수료 후 콘티넨탈 대학교 총장명의로 수료증 수여

공부하는 학생들만 먹는 마고환

마고환은 세계적 석학들처럼 공부가 재미있어지고 성적이 쑥쑥 올라가는 두뇌에 좋은 한약입니다. 마고환이야 말로 잠자고 있는 80%의 뇌를 130%의 뇌로 가동시키는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고환은 뇌 신경세포에 좋은 성분만을 공급하는 한약입니다. 특히 초, 중, 고등학생은 밤낮으로 공부하느라 피로가 늘 겹치고, 심한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몸 전체의 신진대사기능과 뇌 신경세포까지 악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마고환은 정신의 안정과 체력을 돕는 작용으로 지구력을 증가시켜 수험생의 대뇌에 천재적 기억력, 암기력, 논리력, 수리력 등으로 뇌를 감미롭게 발달시키는 환약입니다.

마고한의원 · UNIVERSITY OF CONTINENTAL 평생교육원 한국분원 · 사회복지법인 한국경로복지재단 · 선불교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80-29 Tel 02)587-0001 동양의학박사 성법 합장

대구불교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무료제작
문의) 053-427-5114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FM 105.5MHz
www.dgbbs.co.kr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금강산 신계사 복원불사 착공식에서 남북 관계자들이 반야심경을 봉독하고 있다. 삼층석탑을 뒤로 하고 한 명씩 섞어 선 남 · 북 스님들의 모습 자체가 남북 불교 교류의 상징이다. 사진=오유진 기자

대화합으로 금강 법향 이루리

금강산 신계사 복원불사 현장

북측 조불련 관계자 50여명 마중
1500개 연등아래 남북 공동 시삽
종상 스님 "민족정신 되살리는 일"
황병준 스님 "북남 불자 공조실현"

신계사에 들어와 (入神溪寺)

바다 위 떠돌며 이름난 곳 찾아다니다 (海上名區跌宕餘)
산속 좋은 경치 찾기 처음 (山中勝景翫探初)
한가히 찾는 곳마다 아름다운 흥취 (閒蹤 到處多佳興)
덧없는 세상 한번 스침에 산수로 즐기리 (浮世一遊計不疎)
송환기(宋煥箕 1728~1807)

이 시를 읊은 시인처럼 금강산을 찾는 이 마다 신계사를 노래할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았다. 한국전쟁 폭격으로 삼층석탑 1기 만이 옛 절터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신계사가 드디어 역사적인 복원에 들어갔다. 남측 조계종(총무원장 법장)과 북측 조선불교도련맹(위원장 박태화 · 이하 조불련)은 4월 6일 금강산 현지에서 신계사 대웅전 복원불사의 첫 삽을 떴다.

2004년 4월 6일 정오.

금강산 외금강 신계천을 따라 멋들어진 금강송(金剛松)이 줄지어 서 있는 산길을 오르다보면 신계사 터가 나온다. 1500개의 오색연등이 걸린 신계사 터에는 북측 조불련 관계자들이 먼저 나와 남측 관계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검은 옷에 붉은 가사를 걸친 황병준(조불련 부위원장), 심상진(조불련 서기장) 스님과 조불련 관계자 50여명이다.

"다시 만나서 반갑습네다."

"신계사 복원불사가 여법하게 이뤄지길 바랍니다."

차에서 내린 종상(불국사 주지), 보선(조계종 중앙종회 부의장), 도후(심원사 주지), 미산(총무원 사회부장), 탁연(총무원 문화부장), 학담(민족공동체추진본부 상임집행위원장) 스님은 조불련 스님들과 이미 여러 차례 만난 듯 밝게 인사를 건넸다.

삼층석탑을 뒤로 하고 한 명씩 섞어 앉은 남 · 북 스님들의 모습 자체가 남북 불교 교류의 상징처럼 보여진다. 착공식은 법경(민족공동체추진본부 사무처장) 스님의 사회로 심상진 스님의 개식사, 종상 스님의 봉행사, 현대아산 김고중 사장특보의 김윤규 사장 축사 대독, 리승한 스님의 축원문과 남북 대표단의 시삽으로 이어졌다.

종상 스님이 봉행사에서 "신계사 복원은 민족정신이 되살아나는 민족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밝힌 것처럼 전쟁의 폭격으로 잿더미가 된 신계사를 복원하는 일은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남북의 대화합을 이뤄내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조불련 황병준 부위원장도 "신계사 복원으로 북남 불자가 민족 공조를 실현해 하루빨리 통일을 앞당기길 바란다"며 신계사 복원의 가치를 설명했다.

실제로 신계사 복원은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이 힘을 모아 민족문화유산을 되살리는 기념비적인 일이다. 특히 지난해 남북 학자들이 함께 시 · 발굴조사한 결과와 남아 있는 사진 자료를 바탕으로 전통목조건축 양식으로 원형을 복원하게 된다.

또 금강산 4대 명찰 가운데 하나인 신계사가 복원되면, 금강산 관광객들은 '불법이 가득하다'는 금강산에서 불교를 직접 접할 수 있게 된다. <화엄경>에 나온 '바다 가운데 금강산이 있는데 법기보살이 항상 1만 2천명의 보살, 권속과 함께 머물며 설법하고 있다'는 글에서 유래한 금강산 1만 2천봉과 산세가 너무 험해 관음보살의 힘을 빌려 산세를 누그러뜨리려 했다는 관음연봉(觀音連峰) 등 금강산에는 불교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넘쳐나기 때문이다.

"댕 댕 대앵~"

착공식을 마치고 신계사 당간지주 사이를 걸어 나오는 길, 신계사의 풍경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금강산=오유진 기자

신계사(神溪寺)는

금강산 4대 명찰 중 하나
보운 스님 창건
한국戰때 소실
11월 대웅전 복원



강원도 고성군 신북면에 위치한 신계사는 유점사, 표훈사, 장안사와 함께 금강산 4대 사찰 가운데 하나다. 신라 법흥왕 5년(519년) 보운 스님에 의해 창건됐다고 전해진다. 이후 김유신과 그의 부인 등이 신라시대에, 법인 스님과 묘청(妙淸)이 고려시대에 중수한 기록이 남아 있다. 이후 거하(擧遐 · 1709~1782), 낭오(朗旿 · 1780~1841), 탄종(坦鍾 · 1830~1894) 스님들이 신계사에 주석해 법석을 열었다.

신계사는 임석두 스님이 주석했던 1900년대 초반에만 20여동의 전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한국전쟁 때 폭격으로 모두 소실돼 현재는 삼층석탑 1기만이 남아 있다.

이에 조계종은 2000년 이후 본격적으로 신계사 복원불사를 추진해 왔다. 2002년에는 조불련과 북경에서 회담을 열고 신계사를 비롯한 북측 지역의 불교문화재와 유적지 복원, 남북 불교 중흥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조계종은 올해부터 2007년까지 4년간 복원불사를 진행하고, 85억원의 사업비가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11월이면 대웅전이 가장 먼저 복원된다.

대웅전, 만세루, 요사채 등 신계사 건물이 복원되면, 금강산에 불교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명소가 탄생하는 셈이다.

(사진은 만물상 모습)







전쟁으로 소실되기 전 금강산 신계사 전경. 현재 유일하게 신계사 삼층석탑(사진 가운데)만이 남아있다. 석탑에서 50m쯤 떨어진 신계사 당간지주(사진 오른쪽) 옆으로 "날아갈듯한 함각지붕으로 되어있어 시원하고 산뜻해 보이는 건물과 '삼층탑' 이라고 새겨진 안내판이 보인다.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주) 행복만선 Tel.02)720-8489

삼보에 귀의 하옵고
당사는 중국과 제주도를 현지 직영
운영하는 전문 여행사로서
불자님을 위한 중국여행과 제주도 여행을
안내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성원을 기대합니다.

특별기획안내 (호화 유람선으로 중국여행을...)
◎ 출발일 : 2004년 4, 5, 6월
1. 북경 / 백두산 7일 (매주 화요일 출발) 69만원
2. 청도 / 태산 / 곡부 / 천불산 (만불동) 6일 (목, 토 출발) 40만원

불교 성지순례 <중국 4대불산>
1. 관음도량 - 보타산 / 낙가산 5일 79만원
2. 지장도량 - 구화산 / 황산 5일 79만원
3. 보현도량 - 아미산 / 낙산대불 5일 85만원
4. 문수도량 - 오대산 / 운강석굴 5일 69만원
5. 달라이라마의 성지 - 티벳/ 낙산대불 8일 169만원

요금포함내역(공통사항)
- 포함사항: 왕복항공료, 호텔(4성급, 2인1실), 천일정 관광 및 식사, 차량료, 선박료, 인천공항세, 현지공항세, 관광진흥기금, 1억원 여행자보험
- 불포함사항: 여권, 비자비, 현지 기사/가이드 팁, 개별비용 - 비고: 11명당 1명 무료, 10명이상 출발가능, 인솔자 동행

고품격 여행과 윤년 제주도 삼사순례! 소원성취 방생법회를 최남단 마라도에서...
▶일요일 출발 - 225,000원 ▶화, 목, 토 - 248,000원 ▶금요일 출발 - 289,000원

<요금 포함내역 및 특전>
왕복항공료, 관광 1급호텔 2박, 조식 2회, 중식 2회, 마라도 유람선, 마라도해상국립공원 입장료, 여미자, 퍼시픽랜드(돌고래, 바다사자쇼), 해미안 녹차/해수 사우나, 제주 10경 관광안내. 차량료, 여행자보험

<관광일정 - 일요일 출발 기준입니다>

제 1일	제주공항 도착 → 마라도 "기원정사" 방문 및 방생법회 → 오! 설록(설록茶밭 및 뮤지엄)방문 → 호텔 투숙 및 저녁공양(자유식)
제 2일	호텔 아침공양 후 → 동양 최대의 식물원 "여미지" 관광 → 제주의 해금강이라 불리는 "주상절리"를 관광 → 점심공양 돌고래, 바다사자의 환상적인 쇼 "퍼시픽랜드"를 관람 → 동양 최대의 사찰 "약천사" → 밀감/버섯 농장 견학 "정방폭포"(혹은 천지연 폭포)를 관광 → 호텔 투숙 및 저녁 공양(자유식)
제 3일	해미안 녹차/ 해수 사우나(제주에서 가장 유명한 온천!!!) → 아침공양 → 시내에서 쇼핑 → 한라산 내 "신비의 도로" → "절물휴양림"에서 삼림욕을!!! → "조랑말 체험" 또는 "몽골리안 마상쇼" 관광 → 성읍민속마을 관람 → 점심공양 → "통일불사리대탑(고관사)"방문 → 제주공항으로 이동 → 김포공항 해산

50명 이상 단체는 별도의 일정(맞춤)과 가격을 드립니다 !!!

‘수락산 봄꽃축제’ 나눔의 한마당

진각복지재단, 본지 나눔의 손잡기 캠페인 동참

18일 11~21시, 문화공연·전시·먹거리 마당 열어



서울 상계동 수락산 등산로 입구에서 서울 시립요양원까지 900m꽃길에서 ‘나눔의 봄꽃축제’가 4월18일 열린다. 사진은 시립요양원과 주위에 핀 화사한 꽃의 모습.

철쭉, 영산홍, 벚꽃이 흐트러지게 핀 노원구 상계1동 수락산 등산로. 이곳에 위치한 노인시립 노인요양원 앞마당과 주변 일대에서 나눔의 수락산 봄꽃축제가 다채롭게 열린다.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대표이사 효암 진각종 통리원장)은 본지 나눔의 손잡기운동 캠페인과 연계해 4월 18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문화, 공연, 전시, 먹거리 마당을 연다.

봄꽃축제는 11시부터 등산객을 대상으로 단주제작, 평화와 행복을 염원하는 소망등 및 천염 염색손수건, 절편 만들기, 윷놀이 널뛰기 놀이, 페이스페인팅, 초상화 그리기, 풀잎공예, 도자기만들기 행사를 펼친다.

또 벚꽃, 꽃꽂이, 북한미술작품, 80여점의 전통등을 감상하고, 먹거리 마당에서 음식을 들며, 나눔운동에 동참하는 프로그램도 준비된다. 그 옆에는 나눔의 홍보코너가 마련돼 각종 복지시설 소개자료, 본지 나눔의 손잡기 스티커 배포와 후원조직인 만월회 회원 및 수락산 시립노인요양원 자원봉사자도 모집할 예정이다.

오후 2시부터는 수락산 노인요양원 가설무대에서 진각복지재단 산하시설의 회합한마당 행사가 열린다. 오후 6시부터 펼쳐지는 본 공연 행사에는 나눔의 손잡기 운동 홍보를 통한 사회적 메시지와 어린이들이 모금한 나눔의 손잡기 저금통이 요양원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전달된다. 또 소외지역 공연실황을 중계방송하고, 난타, 국악관현악, 사물협연, 초청가수 공연 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진각복지재단 장지현 사무처장은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지역 문화축제를 개최해 불교문화를 홍보하고, 나눔의 사회적 실천을 확산시키기 위해 봄꽃축제를 마련했다”며 “관심있는 불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02)942-0144.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주요 프로그램		
11:00~18:00	단주제작 소망등 등집운영 천연염색 손수건 만들기 민속놀이 나눔의 스티커 배포	시립요양원 앞마당
11:00~18:00	꽃꽂이 북한그림 전통등 전시회	시립요양원 내
14:00~16:00	진각복지재단 산하시설 공연	가설무대
17:30~21:00	벚꽃전시회	수락산 등산로
18:00~20:00	난타, 국악관현악, 사물협연, 초청가수 공연	가설무대

처남에게 간 기증



파주 약수암 류일우 불자

처남에게 간을 기증한 한 불자의 소식이 전해져 왔다. 자신의 장기를 이식해 준 주인공은 파주에 살고 있는 류일무 씨.

처남인 이호진 씨가 조직이 맞는 이를 찾지 못해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류 씨의 조직이 일치한다는 진단 결과가 나왔다. 이에 류 씨는 처남의 옆에 누워 함께 이식수술을 받았다. 지금은 퇴원해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류 씨는 “생면부지의 사람에게도 내 장기가 필요하다면 기증했을 것”이라며 쑥스럽게 웃었다.

류 씨는 파주 약수암에 다니는 독실한 불자다. 법회가 열릴 때마다 부인의 손을 잡고 법회에 동참해 왔다. 류 씨의 부인 이숙자 씨도 요양하고 있는 남편을 보살피면서도 틈틈이 자원봉사활동에 나서는 고운 마음씨를 지녔다. 이숙자 씨는 “남편이 대견하고, 고맙고, 행복하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노숙인 상담센터 후원자를 찾습니다

공간마련 자금 지원 절실

불교계 노숙인 지원 단체인 ‘홈리스의 친구들(운영위원장 윤여진)’이 노숙인들을 위한 거리상담센터 건립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영등포산업선교회, 구세군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리상담센터(드롭인센터)는 노숙인들에게 24시간 세탁, 목욕, 의료서비스,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홈리스의 친구들은 공간 마련에도 버겁다.

홈리스의 친구들은 서울 청량리역 주변 신설동, 보문동, 용두동, 제기동 등에 40여평 규모의 공간을 물색하고 있지만, 보증금은 차지하고 월 임대료가 100~200만 원가량 들어 엄두조차 못 낸다고 한다.

이주원 사무국장은 “운영비는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보증금과 임대료 해결이 가장 어렵다”며 “생명을 살리는 불사에 불자들의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02)924-1010 후원계좌 : 조흥은행 953-01-009468 예금주 (사)이웃을 돕는 사람들, 우리은행 131-04-112612 예금주 (사)이웃을 돕는 사람들.

남동우 기자

현대불교와 좋은 벗 풍경소리가 함께 하는 ‘나눔의 손잡기’



“어린이·청소년 법회에 찬불동요 테이프와 CD를 보냅시다”

현대불교신문사와 좋은 벗 풍경소리가 공동으로 ‘전국 어린이 청소년 법회에 창작 찬불동요테이프와 CD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아름답고 순수한 부처님의 마음을 담은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창작 찬불동요를 선물해 주세요.

불자님들 한 분 한 분의 정성은 미래의 부처님 되실 어린 불자들에게 ‘불성’을 가꾸어 주는 참된 불사가 될 것입니다.

◀ 어떻게 참여하나

◇종단·사찰·기업·단체·개인 모두 동참 가능합니다.

◇본사·연고사찰 단체 등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1구좌 1만원입니다.

◇보급기간: 2004년 3월부터 12월31일까지

◀ 어떻게 진행되나

◇매주 캠페인 내용이 소개됩니다.

◇매달 한번씩 동참자 명단을 게재합니다.

◇아름다운 사연을 본지에 지속적으로 소개.

※ 온라인구좌 / 농협 053-12-132878 예금주: 좋은벗 풍경소리 이종만

※ 문의 / 좋은벗 풍경소리 (02) 723-9836

도와주세요

부산용호종합사회복지관(관장 혜총 스님) 부설 용호가정봉사원파견센터는 재가노인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특식 후원자를 모집한다. 특식은 월 1회 실시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영양결핍상태에 있는 독거노인가정세대에 방문 전달한다. (051)628-6737

나눔의 손잡기 동참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극락사(주지 화답스님) 저금통-30개 스티커-100장

충북 청원군 남이면 탄공정사(주지 범준스님) 저금통- 50개 스티커-50장

서울 후암동 대원정사(상임법사 김범준) 저금통-100개 스티커-100장

경북 경산시 와촌면 법성사(주지 선덕스님) 저금통-10개 스티커-20장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은혜사(주지 관오스님) 저금통-10개 스티커-10장

인천시 부평구 산곡2동 무념회(회장 김은자 보살) 저금통-30개 스티커-30장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손혜숙님 저금통- 5개 스티커-10장

나눠드립니다

우리사회에는 현재 점심을 굶는 어린이들이 1만 4천여명이나 되고 6천여명의 소년·소녀가장, 64만여명의 독거노인 등이 한 하늘아래 살고 있습니다. 이웃들과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불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나눔 저금통 분양합니다



원숭이해를 맞아 원숭이 저금통을 분양합니다. 저금통은 회사 가정 가게 단체사무실등에 비치하시면 됩니다. 특히 불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기금 모금용 저금통을 비치할 경우 ‘나눔의 가게’로 선정해 드립니다.

스티커 드립니다

사찰, 자동차, 건물, 가방에 붙일 수 있는 나눔의 손잡기 스티커를 나눠드립니다. 나눔의 손잡기 스티커는 조선일보가 전개중인 ‘우리이웃’ 캠페인과 상호 협조에 의해 엠블럼을 공동 사용합니다.

● 나눔의 가게

충남 보령시 동대동 수협뒤 꼬치음식점 투다리 017-372-4456

알립니다

나눔저금통 5월15일 1차 수거 현재 3천300여개 배포

현대불교신문사가 연중캠페인 나눔의 손잡기 운동 일환으로 전국에 배포한 나눔저금통이 3천300여개를 넘어섰습니다. 본사에서는 상반기에 분양된 나눔저금통을 5월 16일 1차로 수거합니다. 채우지 못한 저금통은 10월 10일까지 본사로 전달하거나 기부자 명의로 입금해 주십시오. 지역 사찰의 경우 신도들이 채워온 저금통을 함께 분해하여 기부자 명의로 계좌에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또 불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기금 모금용 저금통을 비치할 경우 ‘나눔의 가게’로 됩니다. 상호와 업태, 주소, 전화번호를 본사에 꼭 알려주세요.

문의 (02) 722-4162~3

특별취재팀

김원우 차장, 박봉영 기자, 김철우 기자

이렇게 참여하세요

♥ 각 종단의 나눔운동과 연결

함께하면 큰 힘이 됩니다. 각 종단과 NGO 복지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사업과 연대합니다. 또 자비의 콘서트(불자가수) 법륜 및 세무상담(불자 변호사 세무사)봉사에 참여하거나 사업연대가 가능합니다.

♥ 나눔의 손잡기 공동체

내가 가진 돈, 힘, 시간, 지식 등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보시하도록 연결해 드립니다. 자원봉사를 원함에도 그 방법을 몰라 실천하지 못하는 불자들의 중개소 역할을 자부합니다. 모범이 되는 봉사자들을 추천해 주세요.

♥ 나눔의 손잡기 기금참여

남을 돕고 싶은 분들은 계좌나 한통의 전화로 자비를 실천하는 ARS(060-700-1080)를 통해기금을 보내주세요.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우등 우리사회에서 함께 살고있는 이웃들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 어려운 이웃 사연 제보

주위의 어려운 소년소녀가장, 결식학생, 독거노인, 장애우의 사연을 알려 주세요.

♥ 정기후원 참여

소년소녀가장들과 결식아동들의 후원자가 되어 매월 정기적으로 생활비나 급식비를 줄 수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과 결연을 희망하시는 분은 연락주십시요.

♥ 불자기업의 사회공헌

기업의 사회공헌은 이제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불자기업들과 불교복지시설을 연계하여 후원하거나 시설을 건립해 드립니다.

♥ 외국인노동자와 불교지도자 자매결연

불교권 국가의 외국인 노동자와 불교계 각종단 스님과 단체 운동가간 자매결연을 추진합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노동자들과의 결연을 희망하는 스님과 불교지도자들을 모십니다.

♥ 각 사찰의 공양미 나누기

불자들이 보시한 각 사찰의 공양미를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들에게 지원해주세요. 어려운 곳이나 복지시설에 공양미를 보내고 싶은 사찰은 본사로 신청해주시고, 공양미가 필요한 시설은 연락바랍니다. 과일과 김장, 양념, 라면, 과자류 등 식품도 접수 받습니다.

♥ 자비의 헌혈증 및 장기기증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헌혈증을 보내주세요. 장기기증에도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 보고싶은 가족찾기

미아는 물론 실종가족과 이산가족, 입양아들을 찾아드립니다. 사연을 보내주십시요.



"佛자도 모르는데 신행할 수 있나요?"

경찰불교회, 예비순경 불자들과 만나던 날

대한민국경찰불교회 중앙사무국 김진홍 국장(앞줄 오른쪽에서 두번째)과 충북지방경찰청 불교회 김태진 총무(세번째)가 중앙경찰학교 예비 불자 경찰관들과 함께 '경찰 불교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김철우 기자

4월 7일 충주 중앙경찰학교. '특별한 만남'을 앞두고 학교 법당 적보사가 술렁인다. 진작부터 법당에 모인 예비 불자경찰들이 서울과 충북 등지에서 찾아오는 선배 불자경찰들을 기다리고 있다. 메모지에 질문할 내용을 적고, 옷매무시도 다시 여민다.

잠시 후 법당 문이 열리자 시선이 집중된다. 간단한 상견례를 마치자 경찰불자들이 둥그렇게 둘러앉는다. 먼저 대한경불회 김진홍 사무국장과 충북지방경찰청 불교회원들이 자리를 잡고, 20여 명의 신임 순경과정 경찰들이 그 주위로 원을 그린다.

대한경불회가 처음으로 마련한 '선후배 불자 경찰관 좌담회'. 김진홍 사무국장이 말문을 연다.

"반갑습니다, 후배님들. 저희들이 이곳에 온 것은 여러분이 수료 후 일선 치안현장에서 근무할 때, 스스로 불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뭐든 좋습니다. 허심탄회하게 다 물어보십시오."

잠깐의 침묵. 머쓱한 분위기를 깨고 중앙경찰학교 165기 김병영 순경이 질문을 던진다.

"일선 경찰서에 경목실은 있어도, 경승실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맞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전국 104곳 경찰기관에 불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신행공간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전국 경찰기관에 경찰불교의 바람이 세차게 불면서 불교회가 속속 출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충북지방경찰청 불교회 김태진 총무)

"여기 모인 신임 순경들 대부분은 불교의 '불'자도 잘 모릅니다. 초심자들이 쉽게 불교를 접하고, 지속적으로 신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164기 여경 법우회 백수연)

"후배님들의 신행활동을 위해 선배들이 전국 곳곳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대한경불회 중앙사무국에서 신행활동 중인 불교회와 연결시켜 주는 '경찰불교 신행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사이버 경찰청에 커뮤니티를 개설해 불교기초교리 자료 등도 업데이트를 해놓았습니다."(김진홍 사무국장)

"그럼, 경찰생활에 도움이 될 신행법은 무엇이 있고, 어디서 어떻게 배울 수 있나요?"(165기 김희년)

중앙경찰학교 법당서 첫 대면
새내기 불자들 질문 두 시간
"불자 자부심으로 살겠다" 다짐

"즐겁게 불교를 배우고 느낄 수 있는 신행 프로그램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찬불가, 꽃꽂이, 명상 등 전국 경찰불교회에서 알찬 법회가 마련돼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충북지방청불교회 이대원 회원)

질문과 대답이 연이어 쏟아진다. 2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품었던 신행에 대한 의문점이 하나 둘씩 풀어진다. 이번에는 선배들의 조언이 이어진다.

"경찰학교 문을 나서면 엄청난 일들이 후배님들을 맞이할 겁니다. 최소 5년 이상은 치안 현장 구석구석을 누벼야 합니다. 힘든 일들로 '내가 왜 경찰을 했나' 하고 후회도 할 겁니다. 그 때 이 말을 잊지 마십시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았다'는 만해 스님의 시구를요. 이곳에서 후배님들이 강렬하게 불교를 처음 경험했듯이 말입니다."(중앙경찰학교 불교회 이종진 회장)

대한경불회는 왜 이런 좌담회를 마련했을까?

"불교는 젊어져야 합니다. 일터불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배들이 이끌어 주고, 후배들이 따르면 직장불자회는 활성화됩니다. 무엇보다도 이곳 중앙경찰학교는 경찰포교의 황금어장입니다. 연간 배출되는 신임 순경이 2천4백 여 명이나 되고, 전의경은 2만여 명이 넘습니다. 전국의 경찰불교회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려면, 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김진홍 사무국장)

전국에서 활동 중인 경찰불자들은 1만 여명. 치안 현장에서 '참불자 되기' 운동을 벌이며 경찰불교의 바람의 일으키고 있는 직장연합단체다. 민중의 지팡이로서의 자부심과 불자로서의 신심으로 뭉쳐있다.

좌담회를 마친 선후배 불자 경찰관들. '형과 아우의 정을 아낌없이 나눴다'며 즐거워한다. 한 후배 경찰의 말에 박수갈채가 나온다.

"선배님들의 방문, 저희에게 강한 추억을 남겨주었습니다. 그 기억으로 평생 동안 불자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충주=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우리불자회는요

거창군 공무원 불자회

'공무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아마도 '귀위'와 '딱딱한 인상'일 겁니다. 왜 그럴까요? 공무원은 법대로 엄격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요. 그럼 우리 불자 공무원들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이치에 순응하며 사는 것처럼 우리 불자 공무원들은 언제나 부처님 법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또 '친절, 봉사'도 항상 갖추고 있는 덕목이랍니다.

창립법회는 지난 2002년 3월 18일 거창 심우사(주지 심우)에서 봉행했습니다. 35명 불자 공무원들이 부처님 법문을 올바로 배워 군정에 실천하고자 뭉쳤던 것입니다.

우리 불자회의 자랑거리는 단연 사찰 현장답사입니다. 연중 2회 이상 실시되는 사찰 현장답사는 순례형식으로 이뤄집니다. 회원 및 가족, 비회원에게 부처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병아리 불자회'입니다. 하지만 우리 불자회원들은 '초심불제자' 특유의 뜨거운 신심으로 여러 가지 행사를 벌여 왔습니다. 창립 1주년 기념법회 때, 거창군수님 등 많은 축하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거창군 불자의 밤' 행사를 가졌습니다. 또 지난해 부처님오신 날에는 거창읍 로터리에 봉축점등 행사를 봉행했고, 우리불자회의 신행원찰인 거창 심우사에서 정기 신행활동도 왕성하게 벌였습니다.

올 3월에는 거창군사암연합회(회장 심우), 거창불교신도회 창립준비위원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우리 불자회 창립 2주년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뿐인가요? 관내 복지시설을 방문해 후원금을 나눠주는 등 따뜻한 불심도 피웠습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정보화시대에 발맞춰 자체 홈페이지를 제작해 회원간의 친목을 다지는 사이버공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업무에 바쁜 회원들이 인터넷상에서 자주 만나 부처님 법을 이야기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또 올해 부처님 오신 날에는 기쁨을 같이 나누고자 '부처님 떡'을 청 내 모든 사무실, 전사업소, 읍·면·동 등에 보시도 할 생각입니다.

또 우리 불자회는 개별 소년소녀 가장세대와 결연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삼사순례, 순회법문, 송년의 밤, 불우이웃돕기 등 각종 행사의 내실도 기할 예정입니다. 인근 지역 공무원불자회와의 합동법회를 정례화할 겁니다. 합양군, 합천군 공무원 불자회 등과 자주 만나 회원간 정보를 교환하고 친목과 우의를 다지는 자리를 마련할 것입니다. 특히 전회원이 수계식을 통하여 법명을 받아 오계를 지키며 부처님 법을 배우고, 또 배우고자 노력할 겁니다.

우리 불자회는 앞으로 더욱 정진해 진정한 불제자가 되겠습니다.

■강창남 회장(행정과장)



거창군 공무원 불자회원들이 올 3월 거창 심우사에서 창립 2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하고 있는 모습.

병아리 불자회… "신심만은 뜨거워요"
복지시설 방문 등 봉사정신 최우선

불교 최고의 경전 화엄경! 80권本 화엄경의 완역판 드디어 재간행!

無比스님 완역 한글 화엄경

전 조계종 교육원장 무비(無比)큰스님께서 완역한
『한글 화엄경』(12권)이 품절된지
10년만에 드디어 재간되었습니다!



3만명의 불자가
이미 『한글 화엄경』을 모셨습니다!

무비스님 완역『한글 화엄경』에 대한 언론의 격찬!

- 대승불교의 최고의 경전인 華嚴經이 無比스님(前범어사 講主)에 의해 한글로 完譯됐다. 도서출판 민족사가 최근 펴낸 『한글 화엄경』(전12권)은 善財동자의 구도과정을 그린 入法界品을 비롯해 80권本 화엄경 전 40品을 모두 한글로 옮기고 뒤에 원문을 붙여 대조할 수 있게 했다. 특히 경전의 긴 내용을 단락을 나누고 소제목을 붙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 조선일보 1994년 간행당시 -

- 최근 간행된 무비스님 완역 한글 화엄경은 단순한 번역이 아닌 경전의 치밀한 내용 파악으로 연구자와 일반인 모두에게 잘 읽히도록 번역편찬됐다는 것이 특징이다.
- 불교신문 1994년 간행당시 -

무비스님 완역『한글 화엄경』의 특징

① 80권本 화엄경(전40품)의 완역판.
② 모든 불자들이 읽고, 독송하기 좋은 새 한글 번역.
③ 중국 天童山판 80권本 화엄경 원문 수록
④ 상세한 단락구분과 소제목이 첨부되어 내용 파악이 용이함.

구입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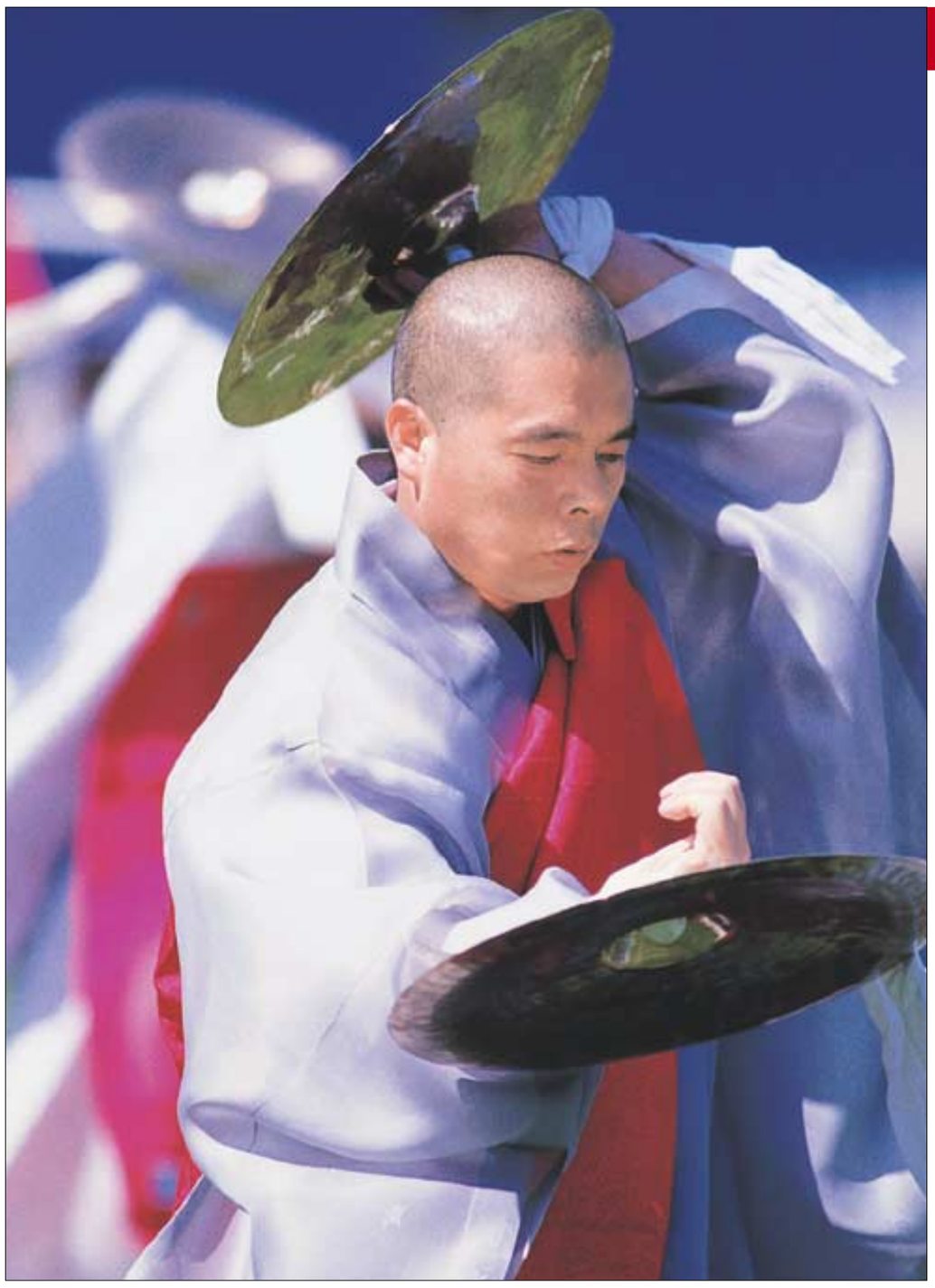
① 특가 : 전 12권 220,000원
② 신청 즉시 택배로 보내드림.
③ 송금방법 : 아래의 은행구좌를 이용하십시오.
국민은행 006-01-0773-002 윤재승 외환은행 059-18-17838-6 윤재승
농 협 053-02-109450 윤재승 조흥은행 390-01-033705 윤재승

도 서 출 판 민족사 우편번호 110-130 서울 종로구 청진동 208-1
전 화 : 02)732-2403~4 / 팩 스 : 02)739-7565
E-mail : minjoksa@chollian.net

소리 · 악기 · 몸짓 조화

의식무의 최고





인천 수륙재에서 천수바라춤을 시연하고 있는 일초 스님.

▌인천수륙재 예능보유자 지정 일초 스님

"소중한 불교문화 더 많이 지정 계승돼야"

"민속문화 공연장을 가보면 항상 공연 시작전에 굿을 자주 하지요. 더군다나 굿들의 종류도 다양해 볼거리가 많더군요. 그런데 시작의 의미로 열리는 이 무속의 '굿'들이 50여개의 무형문화재로 지정돼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불교도 방대한 문화와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무형문화재는 소수에 불과하거든요.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지요. 그래서 불교문화중 무형의 문화로 보존할 수 있는 '수륙재' 연구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3월 18일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15호 인천수륙재 예능 보유자로 지정된 일초 스님(부평 자원사 주지 · 전통예술신문사 발행인 · 한국불교종합예술대학장)은 감회를 이렇게 털어놨다.

"범패의 작법무가 불교 의식무의 일부를 한 장르로 발췌해 독립시킨 것이라면 인천 수륙재는 종합적인 불교의식 무용입니다." 일초 스님은 '인천 수륙재'가 소리, 악기, 몸짓이 오케스트라처럼 어우러진 '불교 의식무의 정수' 라고 설명한다.

실제로 인천 수륙재는 전문가들로 부터 법음(소리)이 장중하고 환희에 넘친 법무(무용)의 역동성이 가히 의식무의 최고봉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른 지방에도 수륙재는 얼마든지 행해지고 있지만 특히 인천 수륙재 회심곡의 곡절과 길가름 의식은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인천만의 색깔이라고 일초 스님은 강조한다. 회심곡은 징과 북장단에 맞춰 소리를 하며, 길가름은 스님이 바라를 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때 다른 지역은 5음을 사용하지만 인천수륙재는 간성까지 6음을 사용하는 것도 차별성의 예이다.

"바다를 끼고 있는 인천은 어부들의 희로애락이 담겨 있는 곳입니다. 물과 육지에서 헤매는 외로운 영혼과 아귀를 달래며 위로하기 위해 부처님의 법을 강설하고 음식과 가무를 곁들이는 것이 주내용입니다."

인천 수륙재의 발원지는 지금은 사적지로 지정된 강화도 마니산 밑 '묘통사'이다. 인천수륙재 보유자는 만월산 약사사의 한능회 스님에서 시작해 운포, 한구하 큰 스님으로 명맥을 이어왔다.

1967년부터 1980년까지 법주사 등에서 전통 천도재 의식을 배운 일초 스님이 본격적으로 천도재 의식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81년 신촌 봉원사에 주석중인 마일운 스님(중요무형문화재 영산재 준보유자)을 만나면서부터다. 일운 스님에게 5년동안 기초의식인 '상주권공'을 엄격하게 사사받았다. 이후 89년에는 박송암 스님(중요무형문화재 영산재 50호 범패 보유자)에게 수륙재, 영산재, 각배재, 바라춤, 나비춤, 식당작업 등을 사사받으면서 불교의식무의 기초를 견고하게 다졌다.

이번 수륙재 문화재 지정을 위해 일초 스님이 쏟은 열정은 남다르다. <고려사>와 <조선왕조실록> 등 각종 역사서를 탐독하면서 수륙재에 관한 자료를 수집했다. 또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인천 자원사와 약사사, 정양사에서 문화재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3번의 수륙재 시연회를 가졌다.

앞으로 귀중한 불교문화 자산들이 많은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일초 스님은 요즘 인천시 무형문화재 범패 작법무 서울 전수관과 인천 본관을 오가며 후학 양성에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외에도 4월 호암아트홀 명인명무전을 시작으로 5월 19일 인천시청 앞 봉축기념 공연, 6월 중국 산동문화원 범패시연, 9월 러시아 성페테스부르크 국립극장 초청공연 등에 참가할 계획이다.

- 회심곡, 길가름 '인천 수륙재'만의 특징
- 지정위해 역사서 탐독, 시연등 열정 쏟아
- 호암아트홀, 중국, 러시아등서 공연 계획

▌인천 수륙재(水陸齋)

수륙재는 물과 육지에서 헤매는 외로운 영혼과 아귀를 달래며 위로하기 위하여 불법을 강설하고 음식을 베푸는 불교의식이다. 다른말로는 수륙무차평등재의(水陸無遮平等齋儀), 국행수륙대재(國行水陸大齋), 수륙회(水陸會), 비재회(悲齋會), 시왕재(十王齋), 신중재(神衆齋), 재석재(宰釋齋)라고도 한다.

수륙재의 시원은 중국 양(梁)나라의 무제(武帝)가 불심이 두터워 유주무주(有住無住)의 고혼(孤魂)들을 널리 구제함이 제일가는 공덕이라 생각하고 스님들과 상의 한 뒤 스스로 의식문(儀式文)을 만들었다. 이후 그 의식문에 따라 서기 505년 금산사에서 재를 베푼 것이 그 시초이다.

우리나라에서 수륙재가 성행된 것은 고려때 부터이다. 광종때에 가끔씩 성대히 열린 바 있었는데, 970년(광종 21)에 갈양사(葛陽寺)에서 개설된 수륙도량이 그 최초의 예이다.

조선시대에는 비록 억불정책에 의해 불교의식이 유교의식으로 많이 바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인천 약사사에서 봉행된 '수륙재' 시연 장면.

중국 무제 儀式文 제작, 505년 금산사 시초
고려때 성행, 조선 태조는 진관사 寺社 지정
강화도 중심으로 봉행, 지역따라 차이 보여

태조(太祖)는 진관사를 국행수륙재를 여는 사사(寺社)로 지정하여 크게 재의를 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1395년(태조 4)에는 견암사(見巖寺)와 석왕사(釋王寺) 등에서 고려 왕씨의 영혼을 달래는 수륙재를 베풀었다.

그 후 전국각지에서 지역의 특성과 생활방식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거행돼 왔다. 예를 들어 영남과 호남의 불교의식이 서울 경기지역의 의식과 많은 차이가 있듯이 '수륙재'도 그 지역 사람들의 생활방식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행해 왔던 것이다.

인천 수륙재는 고려 문종(1066년), 명종(1171~1197), 회종(1209년), 태종(1401)에 이르기까지 강화도를 중심으로 봉행한 역사적 기록을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전통불교의식인 인천수륙재는 타 지역에서 행해지는 수륙재보다 그 소리가 장중하며 법무는 환희에 넘쳐 흥겹게 너울거리는 역동성이 가히 '의식의 정수(精髓)'로 꼽히고 있다.

의식 끝부분의 회심곡(回心曲)은 인천 지역 서민들의 애환을 기리는 곡절이 아주 특이하며 길가름 의식은 타지역 수륙재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인천 수륙재'만의 독특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http://kumdeung.com

황 금 연 등



금년 부처님 오신날에는 황금빛 찬란한
황금 연등으로 온 누리를 밝히소서

KD 금등사 대리점 모집 · 구매상담 031) 846-1950. 011-774-1452

120년만에 찾아온 윤달이 낀 갑신년은 金의 해! 부자 되는 해입니다.

소원성취(象眞珠) 영험메달, 금불상 반지



※ 본 제품은 큰 스님의 높으신 법력으로 백일불공을 마치고 영험으로 제작된 성품으로 몸에 지니고 있으면 강한 영험을 느낄 수 있으며 서원하는 모든 일들이 풀리며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 하십니다. ※18k도 주문·제작

금불상 영험반지 는
중앙에 금불상 부처님을 모셨고 그 위에 맑은 수정을 안치하였으며 돌아가며 六字大明王眞言 즉 옴마니반메훔을 양각하여 영원불멸의 생명력을 투영하였습니다. 좌우측엔 불교 卍자를 양각하여 스님과 재가불자들의 수행정진에 도움이 되게 하였습니다.

누가 휴대해야 하는가?
• 부정을 소멸시키고 소원성취를 발원하시는 분
• 집안에 우환이 있거나 환자가 있을때
• 삼재가 드신 분
• 부부화합 · 자손의 번창과 무사번영을 기원할 때
• 운전자의 무사고를 기원할 때
• 시험을 앞둔 수험생
• 부모님의 만수무강을 기원드리는 효도선물


골드 14k 영험 메달
상진주/14k 2.3돈/다이아 1EA ₩ 192,000


실버 영험 메달
상진주/은 2.3돈/다이아 1EA/가죽체인 ₩ 105,000


골드 14k 금불상 영험 반지
남반지:수정/금불상/14k 2.8돈/큐빅 6EA ₩ 222,000
여반지:수정/금불상/14k 2.6돈/큐빅 6EA ₩ 204,000


실버 금불상 영험 반지
남 · 여반지:수정/금불상/은 2.8돈/큐빅 6EA
남 · 여 각각 ₩ 99,000

※ 주문시 배송비는 무료이며, 개별 접안불공을 거쳐 보석감정 원본을 첨부하여 출시되는 관계로 배송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正進洋行 상진주 JEWELRY 제조 · 판매 [Balian] 주문처 ☎02)2231-9305(주야 접수)

백제시대 폐사지 본격 조사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부여 · 공주 · 익산지역 중심

부여 · 공주 · 익산 지역에서 입으로만 전해져왔던 백제시대 폐사지(廢寺址)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다.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소장 김용민 · 이하 연구소)는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백제 문화권의 중심지인 이들 세 지역에 산재해 있는 주요 폐사지에 대한 중장기 학술조사를 추진한다고 3월 30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묻혀져 왔던 백제사와 백제문화권 유적의 올바른 복원 · 정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사업으로, 구전으로만 알려져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폐사지의 성격과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정밀 지표조사와 시굴조사를 실시한다.

연구소는 올해 첫 조사로 지난 2월 23일부터 30일간 부여 관음사지와 밤골사지를 시굴조사한 결과, 건물지 흔적과 백제시대 연화문와당(蓮花文瓦當 · 연꽃 무늬가 새겨진 기와 일부분)과 치미(지붕 용마루 끝에 다는 장식) 등을 출토했다고 밝혔다. 연화문와당은 학계에서는 이미 백제시대 고유의 문양으로 인정된 바 있다. 이로써 이 두 폐사지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이 확인됐다.



부여 관음사지 조사결과 발견된 기와 조각들.

그동안 백제시대 폐사지에 대한 조사는 1960년대 이후 국립박물관과 동국대학교 박물관이 조사한 금강사지와 임강사지, 원광대학교 마한 · 백제문화연구소가 진행한 익산 제석사지에 대한 학술조사에 불과했다. 백제문화권 폐사지를 신라시대에 비해 관심이 덜한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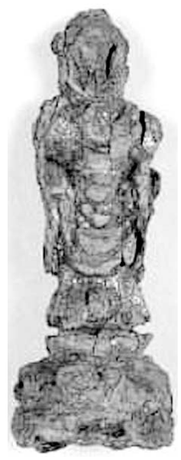
앞으로 조사될 부여지역 폐사지는 가탑리 사지, 석목리 폐사지, 중정리 폐사지, 임강사지 등 6곳. 이 가운데 임강사지는 60년대 동국대 박물관 연구에 대한 보충조사로, 이미 건물 9개동과 연화문 수막새 등이 출토된 바 있다.

연구소 이주현 학예연구원은 "백제시대 폐사지 종합학술조사는 매년 2~3곳의 유적을 선정해 향후 10년간 조사를 실시한다"며 "확인된 유구의 구조와 역사적 가치에 대한 평가와 폐사지 보존 등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의 협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오유진 기자 e_exist@buddhapia.com

왜관서 금동불상 출토

산업단지 건설현장에서



경북 왜관 지방산업단지 건설부지에서 금동불상(사진)이 출토돼, 이 지역이 과거 사찰과 관련된 터였을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됐다.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문화재조사연구단(단장 김정기)은 4월 2일 '왜관 일반 지방산업2단지 건설부지 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3차 지도위원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 지역은 6~7세기 통일신라 말기부터 고려 초기 사이에 사찰과 관련된 시설물이 있었던 터로 추정되며, 발견된 건물지와 배수로 등은 조선시대나 그 이후에 축조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발굴조사에서는 연화문(蓮花文) 기와 · 백자 · 토기 · 옹기 조각과 금동불상 1점 등의 유물과 기단 · 축대 등 유구 36기가 출토됐다.

문화재조사단은 "이 지역은 청동기 시대부터 조선 시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사람이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유물과 유구는 이 지역의 문화상을 복원하는 중요한 자료"라고 밝혔다.

우희종 교수의 불교와 생명과학 <37>

자살과 안락사

요즈음 뉴스에는 인터넷을 통해 동반 자살했다는 내용이 종종 나온다. 자신의 죽음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자살은 안락사의 모양과 유사하기도 하다. 하지만 안락사에 대한 수많은 논의를 생각해 볼 때 자살을 간단히 말하는 것은 어렵다.

사대(四大)로 이루어진 육신이 고통으로 가득 차고 회복이 불가능할 때, 주위를 생각하고 자신의 존엄성을 유지하고자 스스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과 정신적 고통 속에서 자신과 주위를 위하여 죽음을 선택하는 것에 과연 누가 그 차이를 말할 수 있을까.

한편, 현대의 생명과학은 예전 같으면 죽을 사람마저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게 발전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중환자실에서 영구 식물상태로 아무런 의미 없는 단순한 생물학적 목숨의 연장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생명의 연장이 아니라 죽음의 연장일지도 모른다. 그렇기에 생명과학의 발전에 바탕을 둔 현대 의학의 업적을 환호하고 매년 평균 수명이 늘어간다고 안심하고 즐거워하며, 동시에 자살하는 이들이 늘어간다고 우려하기 이전에 우리는 물어보아야 한다.

죽음이란 결국 삶의 문제로 귀결
깨어있는 지혜로 해답 찾아야

죽음이란 무엇이며 왜 우리는 죽음을 연장하거나 앞당기려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잘 들여다보면 죽음의 문제란 결국 삶의 문제임을 알게 된다.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받아들인 것인가의 문제이다.

생명이란 삶과 죽음이라는 명확한 경계를 지니고 단속적(斷續的)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흐름이다. 단지 특정 조건에 의하여 특정 모습을 지니는 것이기에, 뇌나 심장, 허파 등의 장기 기능이 멈추는 어느 특정 시점만으로 죽음을 정의하여 생명 전체의 종점으로 판단하는 현대 생명과학의 무의미한 시도에 편승할 필요는 없다. 삶과 죽음은 오직 원인과 결과로서 멈추지 않고 변화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삶과 죽음을 포함해 그 무엇에도 집착할 것이 없으며, 또 집착하여 붙잡을 수도 없음을 잘 알게 된다.

하지만 집착 없음이란 결코 삶과 죽음을 무의미하게 바라본다거나 가볍게 받아들이는 자세는 아니다. 모든 것이 고정되어 있지 않기에 더욱 이 찰나에 주어진 것의 소중함을 알고, 그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기에 순간에 주어진 것을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다.

삶과 죽음도 마찬가지이다. 죽느냐, 사느냐가 햄릿에게는 중요했을지 모르나 불자에게는 우문(愚問)이 된다. 안락사와 자살은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받아들이며 선택하느냐의 문제이다.

그래서 나는 선택의 순간에 선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다. 인간은 언젠가는 죽는다. 굳이 앞당길 필요가 있겠는가. 또 동시에, 인간은 언젠가는 죽는다. 굳이 죽음을 미루어 무엇 할 것인가. 오직 스스로 지어 스스로 받음이니 그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의 모양새이며, 그것을 만들어 가는 것은 자신의 깨어있음이기에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밝혀 지혜를 지니는 것으로 그 선택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서울대 수의과대학 면역학교실



마애삼존불 주변 암반 붕괴 가능

이찬희 교수 영주 가흥리 암석 진단 결과 발표

지난해 6월 집중호우로 마애삼존불상 좌측 앞부분의 암벽 일부가 무너지면서 새로운 석불좌상이 발견됐던, 영주 가흥리 마애삼존불 주변 암반의 붕괴 위험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월 27일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제19회 학술대회에서 공주대학교 이찬희 교수 등은 '영주 가흥리 마애삼존불의 암석학적 분석과 안전 진단'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 논문은 공주대 보존과학연구소가 영주시의 의뢰로 마애삼존불을 안전진단한 결과에 대한 중간보고서의 성격을 띤다.

보고서에 따르면 마애삼존불상은 불상 자체의 풍화훼손이나 절리에 의한 위험보다는 주변암반의 붕괴 가능성이 심각한 위험에 처해있으며, 삼존불상 주변에는 크고 작은 불연속면이 중첩되어 있어 각 암괴의 전방 도괴(倒壞) 가능성도 높은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삼존불상 주변 암석에서는 식물의 뿌리조직과 지의류의 균사체도 관찰돼 생물학적 훼손도 우려되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안전진단을 실시한 이찬희 교수는 "암반이 융기되는 등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 구조적인 약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암반에 절리나 불연속면에 얽혀 있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가흥리 마애삼존불의 구조적 문제는 지난해 집중호우 이후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 마애삼존불 주변에는 암반 진동을 검사하는 자동 계측기가 설치돼 있으며, 안전진단 역시 현재 진행 중이다. 오유진 기자

수행론 속 '여성억압' 풀어야

조승미 씨 '불교수행론과 젠더문제'서 지적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평등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2천여 년이 지난 현재의 불교수행론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을까?

4월 10일 동국대에서 열린 불교학연구회(회장 해주) 제23차 학술발표회에서 조승미(동국대 박사과정 수료) 씨는 '불교수행론과 젠더문제'를 발표하며 "아니다"라고 말한다. 불교수행론이 여성억압적인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 수행론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는 불교와 여성주의의 유사성만을 살펴왔던 그간의 불교여성학의 관점에서 한 걸음 나아가, 불교의 언어로 여성주의를 설명하고 이를 여성의 수행현실에 접목시키고자 하는 시도로 평가되고 있다.

조승미 씨는 "욕정이 많아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여성혐오론부터 여성비하적인 교단의 관행, <부모은중경> 등에서 보이는 모성찬미론까지 이들 모두가 여성을 억압하는 가부장적 불교수행론"이라며 "여성은 자신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수행으로 해결하고자 하지만 여성의 경험은 언어로 표현되지 못해 수행이 효과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불교수행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조 씨는 지혜와 감정, 마음과 몸으로 이원화된 수행원리가 여성을 억압하는 원리와 동일한 구조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조 씨는 "선불교는 기존의 불교를 해체한다는 점에서 여성주의와 연결되지만, 선불교의 계보성은 지극히 가부장적"이라며 선불교의 여성주의적 가치와 한계도 설명했다.

오유진 기자

파동명상수련을 통하면 운명적 영혼적 현상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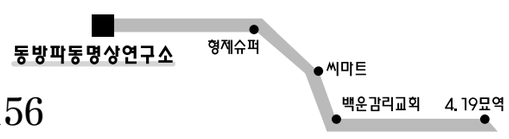
빙의에 대한 영혼적 현상들을
***파동명상요법*으로**
해결해 내는 빙의 현상에 대한 필독서!

최영식 지음 | 인화출판사 값 9,500원

저자 법운 최영식은 세계 최초로 탁월한 수행 기법인 **파동명상요법**을 개발하여 2003년 12월 부산시 사하구에서 발생한 어린이 유괴살해암매장사건의 범인을 검거하는데 결정적 역활을 했으며, 그 외에는 전국에서 일어난 많은 강력사건의 수사에 협조한 기여도를 인정받아 **2003년 제 58회 경찰의 날을 맞아 부산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감사장을 수여** 받았다. 그리고 영혼적 현상인 '빙의' 때문에 고통받은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되찾게 해주는 오늘을 살아가는 상처 받은 영혼들의 진정한 안내자이다.

『 현재 저자는 많은 수행자들을 대상으로 파동명상 요법을 강의하고있다 』
---------- (다수의 영통자들이 배출되었습니다)

※ 서울 연구소 약도



강북구 수유동
☎ 02)996-6156

「파동명상 요법」을 수련하게 되면...

다가올 미래의 시간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이자 또한 두려움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의 시간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 운명을 읽어낸다는 사람들을 찾아가 자신들의 미래를 그려본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 말을 듣고 믿는 시대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직접 미래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경험하는 시대***이다. 현생의 삶은 자신의 전생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속에 예정되어져 있는 영혼의 프로그램을 볼 수만 있다면 미래의 시간에 일어나는 사건들의 해답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점(占)과 철학으로 사람의 운명을 상담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파동명상요법을 통하면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운명적 사건과 영혼적 사건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

◈ 「파동명상 지도사」양성 과정

우주에 충만한 생명 파동 에너지와 우주의식(자연의식)을 100% 활용할 수 있는 수련을 통해 인간의 내면에 숨어 있는 놀라운 잠재능력과 우주의식을 끌어내어 자신과 타인의 영적(靈的)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는 영식(靈識)과 능력을 획득하게 되고 자신은 물론 타인의 영적 진화와 발전을 돕는 〈영혼 명상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수련내용

◈ **파동명상제령 :** 제주(祭主)또는 신도가 몸속의 영가와 대화할 수 있으며 그들이 떠나가는 것을 직접 목격할 수 있다.
◈ **원격명상제령 :** 제3자가 파동명상상태에서 원하는 사람의 몸속에 있는 영가를 불러내어 대화하거나 제령천도 할 수 있다.
◈ **영통靈通수련 :** 특별한 파동명상 기법을 통하여 영통을열 수 있게 하는 비법을 전수한다. (영통수련은 상담 후 결정)
◈ **수련대상 :** 스님, 법사, 기공사, 의사, 약사, 기타 상담사
◈ **수련교재 :** 기초 교재, 비디오 테이프, CD 교재
◈ **수련일시 :** 4월 둘째주, 넷째주 (화 ~ 금) ◈ **강의장소 :** 서울, 부산
◈ **수련과정** (1대 1 개인지도 可, 전화문의 바람)
① 파동명상 전문반 : 파동명상 수련과정으로 4일간 수련으로 수려증 수여. (수련비 200만원)
② 영통수련반 : 상담 후 결정(전문반을 수료한 자로서 본원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지도자 자격증 수여함.

동방파동명상연구소 ◈ 문의처 : 017-587-0777 · 051) 806-8500, 817-6156 Fax : 051)817-6157 ◈ 홈페이지 : www.dongbang21.co.kr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생활정보

▷ 광고문의 : TEL 02)732-1522, 737-8881
FAX 02)737-0697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1. 법회기도 – 지장기도, 관음기도, 정기법회, 기념법회 등
2. 구인/구직정보 – 공양주, 행자모집, 운전기사모집, 사찰중무원 모집, 일반사원모집 등
3. 알림정보 – 개업, 이전, 각종전시, 불교동우회 행사, 각종불교강좌, 수련회, 동창회, 부음 등
4. 불교용품정보 – 각종불교용품, 불교용품업체, 탱화 업체 등
5. 알뜰정보 – 팔고 / 사고 / 대행 / 대여 / 재활용 / 인테리어
6. 생활장터 – 가구, 도서, 음반, 컴퓨터, 통신기기, 비디오, 가전, 사무용품, 비품, 정수기 등 – 사보편집대행, 음반대행, 꽃집, 떡집, 승복집 등
7. 여행정보 – 성지순례, 사찰순례,

경면주사
(수비경면)

▷부적용, 서예용, 일반용
한의원 약국용 도, 소매

구입문의
011-9675-1089

예수재 영산재 49재 천도재 점안식
사찰의 행사에 직접

영인스님
염불 해 드립니다(바라, 작법)

방앗간 055-882-3455
016-428-6665

전통의식, 각종행사, 천도재, 점안식, 기타불공 스님 필요하신 곳
016-9340-1725
055-521-3673
법음범패, 제의식, 염불
배우실 학인스님모집
※행자모집 0名
효자사 혜성 합장

귄 휴양할분
- 공기맑고 물 좋은 산간벽지
- 경북 八公山 북쪽 명당길지
- 향토 온돌방 1인 1실
- 불사에 도움주실분 환영
- 공양주 급구(보수 50만원)

부처골 지장암
054)383-8553

참선스님 보세요
⊙ 정진중에
- 위장장애, 관절장애, 수마(잠, 졸음) 있으신 스님
- 몸이 냉하고 어혈
- 기력이 많이 떨어지는 스님
- 기혈이 많이 막힌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011-9715-6071 사리자
02)878-2515 (초의환)
P.S. 전문가가 만든 선식도 있습니다

천도재 구병시식 태중아기영가 49재 천도 전문도량
(9월경 제 2회 예정)
● 천도재, 49재 구병시식 수시 접수 中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02)3391-8523. 011-9002-8523
약천사 자운 합장

사주 명리학 수강생 모집
사주, 신수, 궁합, 택일, 작명 기타
- ▶ 주2회(1회 2시간씩) 4개월 완성
- ▶ 수강료 : 월 15만원(교재대금 포함)
- ▶ 수료후 청강은 무료. 개업, 부업 적극지원

선주명리교육원
02)336-8484

범음범패, 전통의식, 각종행사 해 드림
점안식, 상주권공, 각종불공, 천도재, 바라나비춤, 사물다루는 법, 화청, 모든 재의식 경전, 민속, 역학 등 염불 배우실 학인 모집 중
대광명사 탄우 합장
02)939-3327

고혈압, 당뇨, 암, 각종불치병
어떻게 많은분들이 나았을까요?
어떻게 이런일이 ----
좋은 인연 되시기를 권합니다. 훼밀리 랜드(미전사)
031)651-0092
011-9638-0056

명당

탐지기 관룡자 월간역학
02)2264-0258
동양상 역학강의도 함
www.kbs.cc

역학
동영상 강의
www.kbs.cc
3개월분 7만원
속성 확실한 교육. 자격증 수여.
명당 탐지기 관룡자 판매
월간역학 02)2264-0258

대구권
염불해 드립니다
011-9596-4338
▷무유스님

토굴 작은암자 외딴촌집
(경남지역)
보시해 주실분
(좋은인연 기다립니다)
011-9416-2261

통영시 사량면 사찰 불사 동참할 인연을 찾습니다
인수도 가능함 상세한 내용은 전화문의 하십시요
017-229-8652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서울 서초구
016-381-1319

사찰 버스기사 법당보살(50대) 모십니다
▷안양안산
018-219-4230

사미 비구스님(부전) 모십니다
▷모실스님 7~8분 ▷세속납 30~60세
▷사찰위치:경기도광주시(재)천운사
011-779-4496 주지합장
016-9560-7660 도광합장
031)764-3399 사무실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학포리
법비오는 동해사
033)672-2900

공양주구함
서울 당고개역 부근 사찰에서 숙식가능
011-826-5289

공양주 보살님 행자 모십니다
천년관음 기도도량
▷ 포항 자장암
011-584-0888
054)285-0129

부전스님 모십니다
▷인천
032)435-0478

부전스님 모십니다
▷부산시내(산)
051)332-8030
051)338-0108
017-540-1080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경북 칠곡군 동명면 구덕리
▷대한불교조계종 송림사
054)976-8116

기도스님 원하는 사찰 연락바랍니다
011-9597-6811

행자모집
출가를 희망하시는 행자(45세이하)를 찾습니다.
▷충북영동
011-574-9807

朴明圭
▷본적 : 경북 성주군 금수면 명천리 1958년생
▷서울 역촌동 큰형에게 연락하기 바람
02)355-5021

헌책을 보시 받습니다
서원에 비치하고 해외 동포와 세계인에게 한글 보급이 목적
高麗 本行會
우 621-801
金海市 進永邑 內龍里350番地
錦屛山 王冠城 長樂書院
055)345-1131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신심이 돈독한 보살님
(45~55세)
▷경기도 광주
011-742-8890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경기도 고양시
011-9349-0408

깊은산에서 천일기도하실 스님모십니다(비구)
011-696-8500

절터 시주 하실분 또는 스님과 평생 불사하실분 몇명을 모십니다
010-9226-5350

사찰에서 일하실 기사님 구합니다
55세~60세사이
처사님 1종 면허
▷경기도 양주
031)871-0101

탈종공고
- 사찰명: 무량사
- 주지: 민성하
- 주소: 충북 충주시 살미면 세성리 628번지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함

대한불교조계종 삼화불교 총무원장 법하

탈종공고
- 사찰명: 불현사
- 주지: 이현묵
- 주소: 강원도 홍천군 서면 마곡리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함

대한불교조계종 삼화불교 총무원장 법하

탈종공고
- 사찰명: 불현사
- 주지: 이현묵
- 주소: 강원도 홍천군 서면 마곡리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함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법하

易學秘法 전수
구성학. 매화역수. 육임등의 핵심 비법만 모아서 숫자로만 간편하게 년운, 월운, 일운은 물론 래방객의 처해진 상황, 온 목적, 占事등을 정확하게 통변할 수 있는 역학비법을 전수합니다.
(출장지도 가능함)
02) 6081-8475 , 019 - 446 - 4755

불교대학 분원설치 및 자격취득 안내
어린이 포교원, 불교 문화원, 불음국악 연주회(포교단) 설치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상학 인가된 분원 캠퍼스 설치
- ▶봉직사 과정 – 원사, 원무 자격
- ▶포교사 과정 – 상담포교사, 역학상담사, 유아놀이포교사, 불음법회포교사, 주슬포교사, 풍수지관포교사, 국악연주포교사, 장례관리포교사
- ▶법사 과정 – 상담법사, 신앙상담사, 상담지도사, 아동지도법사, 불음지도법사, 염불지도법사, 장례지도법사, 국악지도법사

만대교학대학원 불교지도자연합회 011)412-8040

2004 역학 컨설팅 교육생 모집
★ 모집과정 : 수시모집 ★ 강 의 : 주 2회(화,수요일)
★ 역 학 : 초 · 중급 – 남륜스님
★ 사주통변 및 작명법, 인연법 : 김재덕선생
(SBS 인생역전,KBS뉴스투데이, EBS 아름다운도전출연, 굿데이 인연법 연재)
★ 관상학 (특강) – 신기원선생

신청문의 02)567-4833. 011-9702-2237
인생역전 김재덕 운세 상담 060-605-0914

사주 책임 완성
■ 수강대상 스님에 한함
전통 명리학 1:1 단기완성
(될때까지 책임지도)
■ 051)757-8879 / 011-9342-9794

목당易학연구원
運眸堂
작궁순통
(개인지도) 명합쉐변
☎ 969-3169 (청량리 우체국)

운세(10초내) 바로 맞추면 보세요
02-826-5067(명리학 전문)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감정실습반(보고 듣고 질문으로 시작)
교재 사주첩경(이석영 저)실력테스트 해보세요
www.speedunse@dreamwiz.com
핸드폰, 카드 결제됩니다

능곡철학원(개인지도)
오늘의 권세와 부귀가 영원한 행복이라 단언 할 수 없으면 현재의 고민과 고통도 철학의 하나의 방편이 될수 없습니다.
학문을 모르셔도 괜찮고 기초를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속성으로 배우실 수 있습니다.
1. 과목 : 사주, 택일, 궁합, 작명, 모든것
2. 모집 : 일반,남,여,스님 3. 교육시간 : 주 5회 1일 1시간 20분

특별 감정가 1인당 2만원 전화 감정도 환영 합니다.
서면지하철 13번 출구에서 (구)진구청 쪽으로 2분거리
- 부산시 진구 부전동 347-12(부전빌딩201호)

전화 (051)-808-3260, 휴대폰 016-878-3915

성수철학원(학인모집)
■ 스님, 처사, 보살님 전문 교습 ■
- ▶ 무식자도, 공부해도 해도 안되는분 한달 수강 하면 역학 정통하여 환하게 개안(開眼)됩니다. (단체는 출장강의 가능)
- ▶ 눈치 안봐도 돼요, 다 맞으니까~
- ▶ 사주, 신수, 작명, 궁합, 택일, 신병 모두 100% 적중
- ▶ 불자님의 포교 일환(방편)으로 최고 (불교 교리로 푼다)
- ▶ 전국 일원, 제자 150명 활동중 임.
- ▶ 전화 감정도 환영합니다(신속 정확)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2270-4 (2층)
053)255-4784, 256-4784. 018-531-2237

유료노인전문요양원 '호암마을' 입소안내
치매 · 중풍 어르신을 가족처럼 모셔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삼천사 주지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대표이사 서성운
Tel.02)385-8205 / Fax.02)385-8207

사주 개인 지도
- 특수비법으로 쉽고 정확하게 하루에 통변 승려에 한하며 보시금 150만원
- 지도 : 대주 스님

HP : 011-741-0867 ☎ 02)962-0867

프라닉 힐링™ 특별 워크샵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치유 능력을 일깨운다

현재 세계 44개국에서 사용하고있고 미국의 현역의사가 시술하고있는 최신의 기치유법인 프라닉 힐링을이틀간의 집중된 워크샵을 통해 배우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치유능력을 체험하고 활용하는 법을 배운다.

배우게될 내용
- 에너지체의 구조 (내부오라,외부오라,건강선,나디(경락))
- 11개 에너지 센타(차크라)와 육체의 질환과의 관계.
- 오라 탐지를 위해 손 민감하게 만들기.
- 오라 탐지하기,탐지한 오라 해석하는법.
- 외부 에너지(프라나,기)끌어 당기기,발사 하기.
- 에너지(프라나,기)로 직접 치유해보기. – 두통,눈의 염증,코피,치통,근육경련,화상, 타박상,불면증, 편도선염, 치질, 충수염, 골절 등.
- 병 에너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법
-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기위한 자가 프라닉 힐링.
-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치유하는 원격 힐링.
- 몸에 엄청난 에너지를 생성하기 위한 호흡법과 운동법 .
- 사랑과 내면의 평화와 고요를 느끼게 하는 트윈하트 명상.
- 그 외 에너지 힐링(기치유)을 위해 필요한 사항.


프라닉 힐링 설립자인 마스터 조국리 선생과 포즈를 취한 Joseph Wong(좌측)

무료공개힐링체험워크샵
- 일시: 4월 23일 오후 5시 30분 ~ 7시 30분
- 장소: 정신세계원

※ 강사인 Joseph Wong이 직접 에너지 힐링을 할 예정으로 힐링을 체험 하고자 하시는 분은 예약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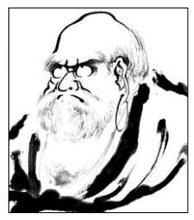
본워크샵
- 일시: 4월 24일 오후 1시 30분 ~ 9시 30분
  4월 25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 참가비: 35만원(교재별도구매: 기적의 프라닉 힐링(초롱 출판사))
- 장소: 정신세계원

※ 워크샵 참가자에게는 월드 프라닉힐링 협회에서 발행하는 수료증이 발부될 예정으로 공인된 프라닉 힐러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것입니다.
관련서적:빛깔 프라닉 힐링,프라닉 정신요법(근간),프라닉 크리스탈 힐링(근간),심령자가방어(근간)

강사소개 Joseph Wong
공인된 프라닉 힐러이며 공인된 프라닉 힐링 강사로 에너지 힐링을 전문으로 하는 힐러이다. 현재 미국 뉴저지와 펜실바니아에서 프라닉 힐링을 시술하고 있고 주말에는 워크샵을 하고 있다. 프락닉힐링의 설립자인 그랜더 마스터 조국쉬에게서 직접 개인적으로 사사 받았다 풍수에 대한 컨설팅도 하고 있다.

한국 프라닉 힐링협회
www.pranichealing.kr21.net/www.pranichealing.com
031.962.4519 / 019-275-8257

눈만 보면 압니다
"관상과 氣 명상으로 앞날을 밝힌다"



귀의 삼보하옵고,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지 못한다. 그것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것을 미리 알고서 세상을 살아간다면 열린세상이 될 것이다. 스님은 지나온 세상과 또한 미래에 전개되는 앞날의 일을 밝힌다. 사람의 운명 속에는 행운과 액운이 있음을 알아야 하며 이러한 운명을 사전에 알고 액운을 막고 가야 하는 것이다. 고해라고 불리우는 이 풍진 세상에서 온갖 고통에 시달리는 가엾는 중생들을 위해 산승이 기도와 제을 올리고 법시술로 중생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번뇌에 의하여 업을 일으키고 업에 의하여 고통을 부른다. 번뇌와 업과 고통의 이 세가지는 같이 굴러서 한이없고 끝이 없으니 이것을 가리켜서 윤회라 한다.

- 굿을 해도 소용없고 이곳저곳 어느곳에 가서 점을 봐도 답답하고 시원치 않는 분
- 집안에 우환이 끈이지 않고 부부자식간에 원진이 끼어 고통속에 사시는 분
- 집터나 가게터에 재수가 안들고 이사매매가 막혀 궁금하신 분
- 평생 제복과 관운이 없어 본인의 관상과 사주를 알고 싶으신 분

석가모니부처님도 인연없는 중생은 제도를 못했다합니다.
아직 인연이 당지않는 분들 혼자서 고민말고 바로 전화 주십시요.
인연이 되시는 분은 직접 오셔서 모든 업장 다 소멸하시고 소원성취는 물론 무량공덕의 큰힘을 얻는 좋은기회가 될 것입니다.중생들의 앞일을 스님이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경기도 하남시 관음사 주지 고봉 합장
011-715-6333
불사에 어려운 스님에게 사주를 쉽게 통변하는 비법, 기공과 염력으로 영기를 천도하는 비법을 전수합니다

당신도 설법을 잘할 수 있습니다
단시일내에 대법사가 될 수 있는 길
부처님의 오종설법, 비유법, 대기설법
〈실기훈련 · 설법자료제공〉
성공적인 법회운영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자료의 재구성능력이 확보되야 합니다.

과목
- 발성훈련, 표정연기, 설득, 상담기법
- 음성, 태도, 修辭, 원고작성법, 회의진행법 등

연 수 안 내
- ▶기 간 : 2개월 과정 ※ 수시접수
- ▶강 의 : 수요반 – 매주 (수) 오후 1시 ~ 3시
  목요반 – 매주 (목) 오후 7시 ~ 9시
- ▶지도교수 : 金哲會 박사
- ▶장 소 : 본 연수원

※ 출장 또는 개인지도 가능합니다 ※

◆ 문의 및 신청 ◆
☎ 02)747-1567/02)737-1567
H·P 011)248-1567

韓國說法研修院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20(영흥 B/D 4F)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737-8881 (代)
· FAX : 02)737-0697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 법당 : 18평
- 요사 : 20평
- 부지 : 59평
- 가액 : 3억7천만원

- 위치 : 충남
- 법당 : 20평
- 요사 : 100평
- 부지 : 700평
- 가액 : 3억3천 (급매)

- 위치 : 충남
- 법당 : 15평
- 요사 : 25평
- 부지 : 267평
- 가액 : 6천5백만원 (급매)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공양주보살님 연결하여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 011)713-5634

사찰안내

- 위치 :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 배운사 운장사 법당
- 10m돌탑영험부처님
- 전세 : 보증금 1000만원 월10만원
- 가액 : 2억

033)766-0057

사찰안내

- 위치 : 부산
- 대지 : 300평
- 임야 : 2천5백평
- 인등 : 3천개
- 가액 : 9억원(절충가능)

011-9338-2993
소개업자 일체사절

암 자 안 내

- 위치: 대구 달성군내
- 대지: 258㎡
- 건물 2동 청정하고 깊은 산속 초가상간 암자
- 전기 없음
- 가액: 상담 후 결정

053)611-9875~6
017-208-5555

포교당안내

- 위치: 부산 금정구 식물원 입구
- 평수 : 40평, 방2개,
- 주방, 화장실
- 전세 : 1000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1500만원

011-598-8673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예천 소백산 정화봉
- 종교용지 450평(풍수좋음)
- 법당 15평(불상 탱화 5점)
- 요사 40평(심야전기)
- 주차장 40평(주차 8대)
- 가액: 9천만원

011-9802-3136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도봉구
- 부지 : 500평 임대
- 법당 : 25평 목조
- 요사 : 90평
- 가액 : 5억 5천만원

- 위치 : 경기
- 부지 : 1000평
- 법당 : 33평 목조
- 요사 : 30평
- 가액 : 9억 5천만원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011-232-4082

포교당 최적지 안내

- 위치: 서울 종로구 교북동 3층 40평 독립문역에서 1분거리, 버스정류장 앞
- 법당1, 종무소1, 방1, 주방1, 화장실
- 삼존불, 후불, 신중단, 관음, 단군탱화, 영단
- 가액: 1천만원, 월 100만원
  시설비: 1천만원

(시설비는 차후 수개월 후 지불하여도 됨)

011-9124-6651
전덕수 02)2236-4703

사찰 및 부지안내

- 충청권 요지에 있는 전통양식사찰
- 경부, 중부고속도로 및 국도와 인접하여 교통사정원할
- 경관이 수려하고 주변환경이 쾌적하며 명당자리임
- 투자적요소를 동시 만족시킬 수 있는 충청권요지
- 가액: 10억원
- 관심있으신 분만 연락바랍니다

016-9558-0306

토 굴 안 내

- 위치: 서울 북한산 밑 전철 5분거리
- 단독 구옥
- 임법당1개, 방2개, 주방, 욕실1개, 텃밭
- 가액: 전세 3천만원 월세7백만원, 월 23만원

011-796-7833

포교원안내

- 위치: 울산시내최요지 아파트 및 주택밀집지역
- 4층건물3층 약30평
- 보증금1000만원 월30만원 시설비2000만원(최저절충가능)
- 몸만 오시면 법회가능
- 사정상 '급' 양도

011-202-2205

사찰(긴급)안내

- 위치: 합천 진주간 중간지점
- 건물: 법당(기와): 25평, 요사채(스라브신축): 30평 요사채(스라브): 20평 <등기필> 산신각, 용왕당
- 대지: 250평 등기, 임야 100평(법당뒤 산세수려)
- 사찰까지 차량진입가능(정남향 위치) 마을어귀
- 불필요 전화사절, 절충가능함(꼭 사시고자 한분)
- 가액: 1억 5천5백만원(경남권으로 포교 요충지)

011-9017-544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 용문
- 부지 : 500평
- 법당 : 20평
- 요사 : 40평
- 양도가 : 1억6천만원

- 위치 : 충남 천안시
- 부지 : 300평
- 법당 : 20평
- 요사 : 40평
- 양도가 : 7천만원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11)530-1975 / 011)688-3521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포교원 안내

- 위치 : 하남시 중앙동 대도로변
- 4층 건물중 5층. 38평
- 법당, 친견실, 스님방
- 몸만 오시면 됨. 명리에 능한신분, 역학가능하신 분 유리함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 1500만원
- 일신상 (급)안내

031)795-7579
011)663-2754

소원성취척척 건강도지키는 화제의 염주

금강염주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어지는 신비와 영험의 염주



생육광선과 금강의 강한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금강염주

문의 및 신청전화 (02)723-0909
전화로 주소 성명을 알려주시면 우체국 등기소포로 전국 어디나 받아 점안식을 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金剛念珠社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77 대형 B/D 406호

포교당안내

- 위치 : 부산 동래온천시장내
- 총 65평(3층 건물중 1,2층) 1층 공양실 2층 법당 45평(종무실, 주지실)
- 호불 500불, 인등 500, 닷집 단청필
- 보증금 2000만원 월 100만원 시설비 4500만원 (법당 최고시설)

016)444-5758

사찰 터 안내

- 위치: 의령군 칠곡면 산북리
- 부지: 1500평(대지 600평, 전 200평, 임야 550평, 도로 150평)
- 현재 건물 3동(창고1, 주택1, 근린생활시설사용1)
- 모든시설 완벽히 되어 있음
- 좌청룡, 우백호로 배면임수의 전형적인 명당자리 ● 가액 4억

055)573-7525/011-858-8747
직접 오셔서 보시고 결정바랍니다

사 찰 안 내

- 위 치 : 양산
- 대 지 : 283평
- 법 당 : 25평
- 요 사 : 30평
- 가 액 : 2억6천

※부산인근의 시골 암자 노포동종점에서 차로 10분

<포교당>

- 위 치 : 경주
- 대 지 : 문중땅
- 법 당 : 20평
- 요 사 : 15평
- 가 액 : 5천

※보문단지 덕동댐호안 홈페이지 사진참조

- 위 치 : 부산 부곡동
- 면 적 : 45평
- 전 세 : 2천만원 월세 70만원
- 시설비 : 4천만원

※아파트앞 대로변 신축건물

부산 영남지방 풍수컨문 사찰 컨설팅(양도, 인수하실 스님 상담환영, 절대보안유지)
佛國불사 051)508-7570 / 018-563-9575
홈페이지 www.boolguk.com
(홈페이지에 오시면 사진과 상세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토 굴 안 내

- 위치: 충남
- 부지 : 400평
- 건물 : 목조 한옥 21평 임법당(황토방)
- 가액 : 1억 8천만원

016-249-3393

포교당안내

- 위치 : 포항시내(우체국 뒤)
- 법당 21평, 삼존불, 탱화, 사리탑 (몸만 오셔도 바로 법회 가능)
- 가액: 전세 500만원에 월 30만원 (권리금 300만원)

011-9207-5296(스님)
016-520-7623(키관리)

포교원안내

- 위치 : 경기 일산신도시 주엽전철역 150m 3층건물에 3층
- 평수: 24평, 법당, 방1, 시설A급
- 도로변, 앞뒤로 아파트단지
- 보증금 2,000만원, 월 70만원 시설비 1천5백만원

031)919-0306
019-687-0306

정말 좋은터입니다(절터, 수련원터)

- 위치 : 이천시 마장면(중부고속도로 서이천IC 부근)
- 부지(준보전임야): 7800평(평10만원) ● 부지(준임)3300평(평15만원)
- 대지(잡종지)2500평(평40만원) ● 대지(잡종지)5300평(평35만원)
- 선원건물(3층): 대지270평, 건물 250평(4억)
- 강남, 분당에서 30분거리 / 계곡물이 흐르고 주변숲이 아름다움 세계도자기 엑스포단지와 산책로 연결 / 가까운 곳에 전철역 확정
- 수행터로 이용되길 바라는 마음에 시세보다 싸게 내놓았습니다

031)637-6719, 017-242-4741

토굴안내

- 위치: 경북 영천시 화남면
- 대지 171평, 건평 70평
- 상태: 황토방2개, 보일러방5개, 주방, 샤워실, 화장실2개,
- 마당에 텃밭 있음
- 교통편리
- 가액: 4300만원

054)336-2826

대지안내

- 위치: 서산 대산 상업예정지 (바닷가 라인땅)
- 용도: 팬션이나 식당, 모텔 부지(대로변)
- 건설교통부에서 서해안 고속도로 주변 개발 계획 확정 발표(2004, 4, 2)
- 가액: 평당 33만원

016-330-6426

포교당안내

- 위치: 인천 남구 학익동
- 단층 15평
- 가액 월 20만원
- 보증금, 시설비: 1500만원
- 몸만오시면 됩니다

010-4472-2828

포교당안내

- 위치: 부산시 해운대구 우2동 장산 아래
- 전세: 3천1백만원 (권리금 무)

051)731-9677
011-913-1460
011-9585-1172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북구덕천로타리에서 약 5분거리. 구포시장내
- 평수 60평, 방4개, 주방시설 완비
- 삼존불, 신중 탱화, 지장불, 지장 탱화 모셔져 있고 산신탱화. 시설 A급
- 보증금 : 1500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 1,800만원

055)386-7463
011-9530-7463

도심속 최고 포교당 안내

- 위치 : 오산시청앞
- 법당: 63평(최고급시설) ●종무소: 약 10평, 요사채방: 7개
- 전통다실: 40평(성업중) ●체육관: 선무도50평(성업중)
- 권리금: 없음 ●총 260평(요사채 및 법당 150평)
- 특기사항
  오산시청 맞은편 상가숲속에 위치해 있고 대단위 아파트 밀집지역에 위치함. 대형주차장 1일 평균 2000대 이상 출입 왕래
- 가액 : 답사 후 월세나 전세 상의해서 결정

011-9254-2353 / 031)374-2355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포항시 기계면
- 평수 809평, 법당 15평, 요사채 30평
- 가액: 1억7천만원

054)246-2350
016-536-8774

사찰안내

- 위치:밀양 초동면 지역
- 대지: 330평
- 현 거주 평수: 500평이상
- 법당: 20평, 요사채(2동) 23평 1개, 20평 1개 용왕단 5평,
- 마당까지 차진입 가능
- 가액: 1억7천만원

011-557-6786

사 찰 안 내

- 위치: 대구중구 남산동
- 상가2층 법당실평수(20평)
- 사정상 급
- 시설비 2000만원,
- 편리한구조
- 월세 35만원(전세도가능함)

011-519-0808

사 찰 안 내

- 위치: 서울시 강북
- 대지 80평, 법당 40평 요사 80평
- 가액 5억5천만원 (대출가능)
- 역사 깊은 도심사찰임

011-688-3521

사찰안내

- 위치 : 대구 달성군 유가면 4km 산속 2층건물
- 2층 법당 23평, 종무실 7평,
- 요사채 1층 큰방1, 방2개 식당1, 황토방 1동 2칸짜리 사용가능
- 가액: 1억2천5백만원

053)616-0004
011-9394-1215

포교당(급)안내

- 위치: 경기도 광명
- 법당 70평(5층)
- 삼존불, 요사채,
- 방2칸, 공양실

011-750-5424

사찰안내

- 위치: 원주시 문막읍 동화 농공단지 부근 (문막 I.C에서 10분거리)
- 평수 총 500평 법당 18평외
- 요사채 2동(분할가)
- 가액: 전세는 4천만원, 매매는 7천만원

033)734-0667
011-9186-0667

사찰안내

- 위치: 경남 고성군 고성읍 (읍내에서 5분거리)
- 대지 116평, 법당 15평
- 칠성당 4평, 산신각 1.5평 요사채 2동
- 가액: 6천5백만원
- 몸만들어오면 운영가능

011-9227-4387

포교당안내

- 위치:계산동 경인교육대학 전철역 1번출구에서 3분거리
- 평수: 25평
- 보증금: 1500만원 월세 30만원 시설비 1200만원
- 필요하신 스님 및 법사 직접오셔서 보시고 결정바랍니다

032)543-9245

사찰안내

- 위치: 강원도 영월군
- 대지: 200평
- 가액: 1천5백만원
- 보살님도 가능
- 꼭 필요하신분 연락바랍니다

033-375-1717
011-9790-9881

포교당(급)안내

- 위치:대구광역시 남구 대명5동 (명덕시장 앞 영대병원 전철입구)
- 법당(40평)후불, 신중, 시왕탱화
- 즉시법회가능
- 가액: 시설비 2500만원
- 보증금 500만원 월 23만원

011-9850-2946
053-653-028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부산 동래구 온천1동 269-53
- 대지 : 65.57평 ● 건물 : 약 30평(단층기와집)
- 동래온천관광호텔, 동물원, 금강공원, 동래별장 허심청 모두 도보로 3분거리
- 3억원에 구입했으나 일본유학관계로 2억원 선에서 양도하겠음
- 현재 석탑과 석등이 모셔져있으며, 전세 4천만원, 은행융자 2천만원 들어있음

019)368-3958 / 02)914-3958(주인직접)

사찰(급)안내

- 위치: 제주도 남제주군 성산읍 (성산일출봉에서 5분거리)
- 대지: 380평, 법당 23평 목조 단청, 입불석조약사여래불, 칠층석탑,
- 산신당(목조단청), 종각(단청), 용왕당
- 요사채 2동 반지하 150평이상(방7개) 보일러시설
- 특징: 성산일출봉이 법당에서 보이고 우도 섬이 보이는 봉긋한 동산위의 아담하면서 깨끗이 단장되어 있는 절
- 가액: 평당 백만원 바닷가에서 3분거리
- 연락처: 011-858-8892 064)782-4365
- 제주시 중심가 불교선원, 포교원 3층 40평 년세 권리금 비품포함 총가액 2500만원

사찰안내

- 위치: 대구 남구 봉덕동
- 대지: 80평(마당이 넓음) 법당(전통한옥 30평), 요사채, 방3개
- 즉시법회가능
- 가액: 시설비 포함 2억 7천만원 (은행융자 6000만원 가능)

019-473-7600

양평사찰부지안내

- 위치: 양평군 강하면 성덕리
- 부지: 2011평 시세보다 많이 저렴함
- 특징: 계곡이 있으며 우물도 남
  주변환경이 쾌적하며 청정지역이며 명당자리임

011-786-3400

토굴안내

- 위치:경북 영덕
- 부지 760평중 대지 200평 법당 20평, 찜질방 7평 요사채 2동 50평
- 교통편리, 뒷산 앞강
- 유실수 단감 다량
- 가액: 1억5천만원 (절충가능)

016-9677-3411

사찰안내

- 위치 : 대구시에서 5분거리 위치만점 아파트 밀집
- 대지: 135평, 법당 20평
- 요사 40평, 방 5개 사무실
- 신개발지 시내버스종점 교통편리
- 삼존불 봉안 화장실 3개
- 가액: 2억5천만원 (융자육천만포함)

011-825-1662
꼭 필요한 분만 연락바람

포교당(급)안내

- 위치: 부산 금정구 남산동 전철역에서 2분거리
- 빌라 2층 40평
- 가액: 평당 300만원
- 대작불사관계로 인연있는 분을 모십니다

016-574-0437

양산 취운선원 아파트 룸(방)에 평생 계실 회원님을 모십니다 출가하실 남 행자 모십니다

● 통도사내 취운선원

055)383-6479
016-696-9388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도 포천 경기승마공원입구
- 부지: 1300평
- 건물: 53평, 25평, 17평 3동
- 가액: 3억 8천만원
- 서울에서 50분거리
- 산세수려, 전망좋음

031)533-2420
017-202-2741

사찰터(급)안내

- 위치: 충북 제천시 청풍호 주변
- 부지 두필지 708평
- 현재 하우스 전기 전화
- 계곡 자연수 흐르는 기도처
- 가액: 상담후 결정

043)644-1666
011-742-5925

사찰안내

- 위치: 경남 고성군 고성읍 소재
- 대지: 600평
- 대웅전 25평(삼도 목조 단청)
- 요사채 45평(방7개) 기타 산신각, 용왕각
- 특징: 사찰 뒷편은 노송 숲, 앞은 평지
- 가액: 1억7천5백만원

019-546-2116
051)727-2116
055)673-6996

신축사찰(급)안내

- 위치:충북 옥천 대전 10분거리
- 규모: 법당 대웅전 25평, 산신각 5평, 요사채2동(11평, 18평)
- 시설: 근묵탱화, 후불 60평, 신중 40평
- 석물: 5층석탑, 자연석 신중, 산신탱화(화강암), 약사여래불입상, 지장보살입상 완벽조성됨
- 대지: 150평(산신환산지기결집 혈)
- 가액: 1억 3천만원(대출 2000만원 포함)

043)733-8186
011-9405-8186

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시 중구 중앙동 시내중심가 위치좋음
- 건물 4층 옥상사용가 (엘리베이터 있음)
- 건평: 58평, 법당 20평 나머지 40평은 방5개, 주방2, 욕실 큼
- 순 한옥식으로 잘꾸며져있음 바닥은 전체 온돌방
- 가액: 보증금 3500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품 3500만원

011-9678-3248

토굴작은암자(급)안내

- 위치: 경북 영천
- 평수: 100평에 건평30평
- 가액: 4300만원
- 꼭 하실분만 연락바랍니다

018-510-1237

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 5층건물중 4층
- 평수 50평, 법당 32평, 요사채 3개 삼존불 지장불 모셔져있음 공양실 1개
- 전세: 4000만원 월 50만원
- 매매가능

019-841-5515 /051-337-5517

일주문



대만 성운 스님 초청 법회

순천 송광사 주지 영조 스님은 4월 24일 대만 불광산사 개산종장 성운 스님을 초청, 특별법회를 봉행한다. (061)755-0107



구화루 복원 기공식

제주 법화사 주지 시몽 스님은 14억원을 들여 연건평 110평 규모의 누각 구화루(九華樓)를 복원하기로 하고 4월 10일 기공식을 열었다.



윤달 삼사순례법회 봉행

조계사 주지 지홍 스님은 4월 14일 전주 송광사, 위봉사 일대에서 윤달 맞이 제2차 삼사순례법회를 떠난다. (02)732-2187



중앙승가대 총동문회 정기총회

중앙승가대 총동문회장 원행 스님은 4월 16일 김포학사 본관 4층 대강당에서 '제24차 총동문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02)922-7881



길상사 지장전 착공식

서울 성북동 길상사 주지 덕조 스님은 4월 18일 오전 10시 극락전에서 지장전 불사 착공식을 봉행한다. (02)3672-5945~6



생전예수재 49일 기도 회향

양주 장흥 대원정사 주지 해련 스님은 4월 18일 오전 10시 대웅전에서 49일 동안 진행해온 생전예수재와 기도 불사를 회향한다.



지역 노인 초청 경로잔치

충북 영동 관음사 주지 응천 스님은 4월 8일 관음사 대웅전에서 주지 진산식 및 지역 노인 초청 경로잔치를 개최했다.



호암 과학상 수상

KIST 학습기억현상연구단 신희섭 단장은 4월 8일 호암재단에서 수여하는 제14회 호암상(과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고창 선운사로 성지순례

전국금융단불자연합회 이탁수 회장(우리은행불자회장)은 4월 17일 고창 선운사로 상반기 정례 합동 성지순례를 떠난다.



초펠 스님 초청 열린 법회

진주불교회관 윤대권 이사장은 4월 18일 불교회관에서 개관 11주년 맞아 티베트 체링 초펠 스님 초청, 열린 법회를 봉행한다. (055)747-0108

"사찰 석등 모형 시리즈 기대하세요"

불교문화재 상품화 나선 윤명진 씨

"30여 년간 과학문화재를 복원해 왔습니다. 그 인연이 순수한 한국적 이미지를 찾게 만들었고, 불교문화가 가장 적격이라 생각해 십이지신상을 복원해 상품으로 내놓게 됐습니다."

한국과학사물연구소 윤명진(62 · 사진) 소장은 최근 십이지신상을 복원한 문화상품을 내놓았다.

경기도 여주 영릉(英陵 · 세종대왕릉)의 간의(簡儀 · 각도기와 비슷한 모양의 천문관측기)와 국학진흥원의 혼상(渾象 · 하늘의 별을 보이는 그대로 둥근 구면에 표시한 천문관측기) 등 대규모의 과학문화재를 원형 그대로 복원해 온 윤 씨. 최근에는 원형을 복원한 모형을 만드는데 전력을 쏟고 있다.

"영릉에 문화재를 전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학문화재는 청소년들이 우리 선조들의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윤 씨가 모형문화재를 상품으로 제작하는 이유다. "아이들은 우리 선조들이 핸드폰 절반 크기도 안 되는 휴대용 시계를 가지고 다녔다는 사실을 알려주면 처음에는 놀라고 신기해 한다"며 "또 해시계의 원리를 설명해주면 선조와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된다"고 설명한다.

레이저를 이용한 재질검사에서 정밀 촬영까지 복잡한 과정을 거치며, 문화재 하나를 복원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게는 4~5개월에서 길게는 2~3년이다. 이렇게 복원해 놓은 문화재들도 '전시용'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윤 씨는 요즘 교육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모형제작에 힘쓰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과학 수업의 대부분이 서양의 과학에 치중하고 있어, 우리 선조들



의 과학 실력을 아이들에게 알려줄 기회가 많지 않아 안타까운 현실이다.

앞으로 윤 씨는 과학문화재 모형 제작과 함께 불교문화재 상품화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중흥사지 쌍사자석등(국보 103호)을 원형 그대로 모형으로 제작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각 사찰마다 유명한 석등 모형을 시리즈로 제작해서 불자들의 책상위에 석등을 올려놓고 싶습니다."

오유진 기자 e_exist@buddhapia.com

"복지현장 나가는데 나이가 문제인가요?"

예순살에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혜범 스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늦게 사회복지를 공부한 것도 평생을 수행에 전념하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최근 예순이 넘은 나이에 사회복지사 1급 국가고시를 합격한 스님이 있어 화제다. 그 주인공은 지난 2월 김포 중앙승가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과정을 수료한 혜범 스님(사진). 스님은 복지를 통해 자비정신을 구현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청담 스님은 '자비무적(慈悲無敵)'이란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푸는 데에는 적이 없다'는 뜻이지요. 불교의 사회적 실천력은 여기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늦은 나이에 복지 공부를 시작한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1970년 합천 해인사에서 도견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스님은 83년 동국대 행정대학원에서 재무행정을 전공, 석사학위를 취득할 정도로 '학구파 스님'이다. 또 82년 응석사 주지시절에는 인근 4천여 평을 매입해 응석사를 진주 지역의 포교중심 도량으로 자리잡게 하는 등 종무행정력도 남다르다.

스님은 "출가자들의 사회복지학 전공을 의무화하는 승가교육제도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철우 기자

'마지막 빨치산' 정순덕 여사 별세 파주 보광사서 영결식



'마지막 빨치산' 정순덕 할머니(사진)가 4월 1일 인천 길병원에서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71세.

정 할머니의 영결식은 3일 파주 보광사에서 진관 · 일문 스님 등 80여명의 조문객이 동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유해는 보광사 인근에 마련된 장기수 묘역에 안장됐다.

정할머니는 52년 2월 빨치산으로 활동하던 남편 성석조 씨를 찾아 지리산에 입산, 63년 체포됐다. 23년간 복역한 뒤 85년 가석방으로 출소해 서울 봉천동 낙성대 '만남의 집'에 정착하다 99년 뇌출혈로 쓰러져 투병생활을 해 왔다.

박봉영 기자

이사장 지태 스님 · 회장 원정 스님

마산 · 창원 불교연합회 정기총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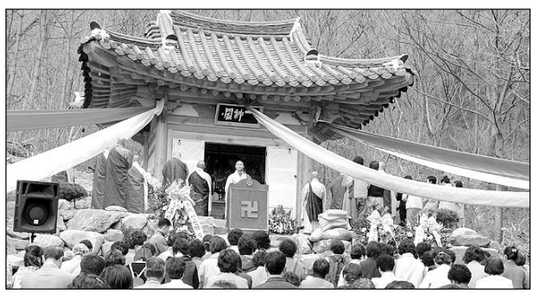




마산 · 창원 불교연합회는 4월 1일 정기총회를 열고 제 8대 회장에 원정 스님(창원 성주사 주지 · 사진 왼쪽)을 선출하는 한편 2004년 주요 사업을 확정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마 · 창불교연합회는 4월에 열 예정인 희망 나눔 시민유등제를 비롯,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한마당, 환경보전대법회, 산소음악회 등으로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또한 마 · 창불교연합회는 이사장에 지태스님(마산 정법사 주지 · 사진 오른쪽)을 선출하는 한편, 영제 스님(마산 삼학사 주지), 유정 스님(창원 원흥사 주지) 등 6명의 스님을 부회장으로, 도흥 스님(창원 불곡사 주지)을 사무총장으로 선출했다.

천미희 기자



구미 영명사 산신각 회향법회

구미 영명사(주지 지범)는 4월 6일 산신각 불사 회향법회(사진)를 봉행했다.

통도사 구미 포교당 영명사 산신각 회향불사에는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 통도사 선원장 천진 스님이 증명법사로 참석했으며 2백여명이 동참했다.

이날 회향법회에서 지범 스님은 "지장 도량의 면모를 갖추는 노력의 일환으로 산신각 불사를 발원, 여러 불자님들의 신심으로 원만히 회향됐다"고 감사함을 전했다.

현문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앞으로 더욱 더 정진하는 마음으로 전국 제일의 지장도량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가야금, 대금산조, 살풀이춤, 사물놀이 등의 국악 한마당 공연도 펼쳐져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천미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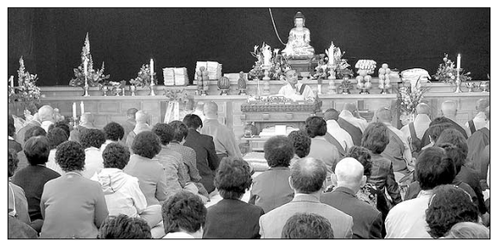
북한에 못자리용 비닐 125톤 전달



우리겨레하나되기 광주전남운동본부(본부장 현지)는 4월 7일 광주역 앞에서 북녘농민에게 보낼 못자리용 비닐 환송식을 가졌다.

현지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이 비닐은 평화와 통일의 디딤돌이 되어 다시 돌아올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이날 비닐은 25t트럭 5대 분량으로 강원도 고성을 거쳐 금강산 휴게소에서 8일 북한측 민화협에 전달된다.

직지선원 개원 봉불식



조계종 8교구본사 직지사는 4월 2일 대구 동구 동호동에 직지불교대학 직지선원(선원장 도일)을 개원하고 봉불식을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혜창 스님(전 직지사 주지), 정업 스님(와룡정사 주지)을 비롯한 사부대중 300여명이 동참했다. 직지선원은 낮에는 여성, 밤에는 직장인 남성을 위한 참선프로그램을 운영한다. (053)961-8620

참가신청 및 문의 : 월간「불광」02) 420-3200 목아불교박물관 031) 885-9952~4 선재이벤트 0302) 317-2555



제10회 전국 어린이 부처님 그림 그리기 대회

5월 5일 어린이날, 우리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을 이 나라의 주인공으로 대접하는 축제의 날입니다.
마음 속 부처님도 그려보고 재미난 놀이마당에도 모두 함께 참가해 볼까요.

우리놀이 10마당 - '모' 나와라 뚝딱, 북청물장수, 달려라 달팽이, 두껍아 두껍아, 왕딱지 대결, 으랏차차 허리씨름 ...

참가방법 : 하나, 5월 5일 그림그리기 대회 당일 행사 참가
둘, 작품(우편) 공모 참가

참가부문 : 크레파스화 부문 - 유치원 · 초등 1, 2학년
수채화 부문 - 초등 3, 4학년
판화 부문 - 초등 5, 6학년

일 시 : 2004년 5월 5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여주 목아불교박물관 (031-885-9952)

대 상 : 전국의 어린이 (만 5세 이상 유치원생, 초등학교 1~6학년)
참가비 : 5,000원 (10명 이상 단체 참가시 1인 4,000원, 작품 우편 응모시 작품과 5,000원 우표 동봉)
무료(복시시설, 재활원 등 단체 참가어린이, 시설 자체 차량이용)
준비물 : 도시락, 화판, 참가부문 미술도구(크레파스, 물감, 조각도), 돗자리, 모자착용
특 전 : 참가자 전원 기념 T셔츠 등 선물 증정
시 상 : 우뚝으뜸상 (문화관광부장관상 1명, 상장 및 상품)
각 학년별 으뜸상 (봉축위원장상 7명, 상장 및 부상)
각 학년별 버금상 (한국박물관협회장 등 7명, 상장 및 부상)
보람상 (500명, 상장) 한마음상 (3곳, 상장 및 상품)

후원 : 문화관광부, 봉축위원회, 대한불교 조계종,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한국박물관협회, 학교법인 동국학원, 한국전통문화학교, 불교레크리에이션 협회,(재)보덕학회, 불광사 불광법희, 도솔희, 보문희, 신흥인쇄, 불교방송
협찬 : 롯데월드, 질경이 우리옷(주), 생활한복 생아, 대림지류유통, 신우, 대한불교신문, 밀교신문, 법보신문, 주간불교신문, 현대불교신문, 월간「금강」, 월간「불교」
주최 : 월간 불광, 목아불교박물관



불자 세상보기

이 희 재
광주대 철학과 교수

선거용 세대갈등

최근 총선에서 '노인폄하'니 '노인정책'이니 하는 쟁점이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 쟁점을 제공한 발언당사자는 20~30대의 선거참여를 독려하는 뜻으로 한 말로 '60~70대는 쉬어도 좋다' 는 말이, 젊은 세대에 대해서 기대하고 노인세대를 경시하는 언행으로 비추어진데 대해 크게 당황하고 노인단체를 찾아가 사과하고 있다.

지금 우리사회는 60대 뿐만 아니라 50대 정년을 일컬어 '오륙도'라고 표현할 뿐만 아니라 40대도 '사오정'이니 하는 말로 나이에 걸맞는 대접보다는 돈 중심의 가치관속에서 경제적 짐으로 부담스러운 존재로 취급되고 있다. 청년세대도 처지는 마찬가지다. 평생직장이라는 과거의 풍속은 사라지고 비정규 계약직으로 채용되는 비율이 점차 높아져 취업전선에 찬바람이 불고 있으니 인간보다 돈이 우선시되는 세태가 안타깝다.

농업사회에서 성장한 우리 50대는 대가족적 경로사상을 가정에서 익힐 수 있었다. 가부장적 가정에서 할아버지의 권위는 높았고, 아버지의 위상은 지엄한 것이었다. 이것은 한 가정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대통령은 큰 집의 아버지처럼 가부장적 권위의 상징이었으며, 그것은 충효의 윤리로 의심의 여지없는 도덕법칙이었다.

그러나 60년대 이후 불어 닥친 산업화는 전형적인 농촌사회를 도시사회로 변모시켰고, 가정도 부부중심의 핵가족이 되었다. 그런 핵가족 시대에 할아버지들은 과거와 같은 권위를 잃고 소외되어 갔으며, 그들이 대접했던 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경제적 짐으로 취급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신 과도한 자녀와 여성의 권익이 노인의 권위를 대신하게 되었다. 지엄한 아버지 같았던 정치지도자가 아니라 허튼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친구 같은 대통령이 당선된 소위 탈권위주의와 일방주의에서 쌍방향의 시대로 어느새 변화해 버린 것이다.

동성애를 넘어서 동성(同性)끼리 혼인을 하기도 하고, 여성이 남성으로 성을 바꾸고, 여러 부부간에 혼음을 즐기기도 한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고 찾아볼 수도 없었던 그런 일들이 전통적 가치관과 함께 평등하게 공존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사회의 일면이 된 요즘 더이상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노인소외의 문제도 실은 우리사회에 짙게 깔려있는 급속한 세대교체의 흐름을 표현하는 것이며, 과거보다는 미래에 비중을 두는 그런 가치관을 드러낸 것이다. 노인보다도 청년을 중시한다는 것은 곧 과거보다는 미래를 소중히 한다는 뜻과 같다. 우리사회가 오직 미래를 향해서 뒤를 쳐다보지도 않고 옆을 쳐다보지도 않고 앞으로 향하기만 하면서 생긴 습관인 것이다.

개인적으로 나는 엊그제 70대의 존경하는 스승 한 분을 잃었다. 생리적 나이는 노인이었지만, 그분은 젊은이보다 더 높은 기상과 패기를 가졌었고, 자신의 언행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질 줄 알았으며, 약속은 생명처럼 지켰다. 최근 만남에서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은 그 사람이 민족반역자라고 손가락질 받아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갚는다"라는 이야기가 가슴에 남아 있다. 그렇다. 우리는 앞 세대의 부모와 스승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것이 신뢰사회의 바탕이 되며 후일 젊은 세대가 노인이 되어서 소외되지 않는 공동체의 윤리일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세대간의 갈등이건 조화이건 또는 '노인소외' 문제이건 평소의 공공정책에서는 소홀하다가, 느닷없이 득표를 위한 선거용으로 들추고 나와 세대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그리 아름답게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대한불교 삼보회'가 오는 4월 18일, 창립 40주년을 맞는다. 삼보회는 1964년, 당시 불교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던 청담, 성철 대종사와 덕산 이한상 거사의 원력으로 출범한 대한민국 최초의 재가불자신행단체이다. 삼보회는 일찍이 '삼보장학회'를 설립 운영하여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인재양성에 힘씀으로써 오늘날 국가발전에 헌신하고 있는, 학계와 정계의 주요 인사들을 배출시켰다.

삼보회는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 오랜 숙원사업인 지상 4층 350평 규모의 불교회관을 마련하고 포교활동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고자 결의를 다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주로 중장년층을 겨냥하여 전법교화에 최선을 다해왔지만, 앞으로는 어린이, 청소년 포교 및 사회복지 활동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삼보회의 역점 사업은 계층포교와 디지털포교이다. 어린이 포교 활성화를 위해 우선 금년 안에 지역주민을 위해 새로 지은 불교회관 2층에 '(가칭)삼보어린이집'을 개원하고, 시민선

신행의 새 이정표를

방을 개방하며, 어린이, 중 · 고교 불교학생회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2500회가 넘는 법회를 통해 설법한 탄허, 청담, 관응 대종사 등 550여명의 고승대덕 스님들의 법문을 40여장의 CD로 제작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삼보회의 활기찬 활동과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면서 다음 몇 가지 사항을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 삼보회 뿐만 아니라 불일회, 보림회, 구도회, 달마회 등 불교계의 대표적인 신행단체들의 공통된 문제가 회원들의 고령화 현상이다. 이것은 우리 한국 불교의 전반적인 문제이며, '젊은 피 수혈'이 시급하다. 문제가 있다면 청년부 법회를 별도로 운영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된다.

둘째, 지역주민들의 법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찰에 상주법사를 두어야 하고, 지역주민에게 홍보를 강화하고, 법당 공간을 대폭적으로 개방하여 지역 주민들과 호흡을 함께 해야 한다.

셋째, 회원들의 법회 참여율을 높이고 회원수를 늘려가기 위해서는 신행생활의 보람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법회 활동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사회봉사활동도 병행해가야 할 것이다. ■박경준(동국대 교수)

이렇게 들었다 TV 중독

"참으로 도를 알고자 한다면 어떤 법에도 집착하지 말고 업을 쉬어 정신을 길러라. 나머지 습기가 다하면 자연히 밝아져서 공부할 필요가 없느니라." 〈달마혈맥론〉

집에서 TV를 즐겨보는 사람들은 TV를 켜면 긴장이 풀리며 마음이 편해진다고 말한다. 그러나 TV를 끄자마자 사람들은 편안한 상태가 금방 긴장 상태로 바뀌고, 어느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해진다. 약효가 떨어지면 마치 불안과 고통이 엄습할 것 같아 계속 복용하거나 양을 늘리는 신경안정제처럼 TV 시청이 중독성을 갖는 이유다.

미국의 과학잡지인 <사이언티픽 아메리칸> 최근호는 사회문제로 대두된 'TV 중독'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한 특집을 게재했다. 이에 따르면 사람들은 'TV를 끄면 불안해질까봐' 더욱 TV를 보게 된다. TV 프로그램이나 광고는 생존을 위해 비상시에 써야 할 정향반응(orienting response; 동물이 새로운 자극이 주어지면 그쪽을 바라보거나 몸을 트는 본능)을 끊임없이 쓰도록 강요한다. TV는 1분에 다섯 번씩이나 정향반응을 가동하도록 자극함으로써 시청자의 뇌혈관이 팽창하고, 심장 박동이 느려지며, 주요 근육 혈관이 수축되는 생체 반응을 나타낸다. 그래서 심리학자들 사이에서 TV는 이제 '바보상자'라는 비평을 넘어 생존 본능까지 뺏어가는 '흡혈 상자'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라고 한다.

TV에 대한 집착은 더욱 보기 좋은 색과 보다 듣기 좋은 소리를 따라가는 전형적인 중생심을 보여준다. 이것도 하나의 습관, 나아가 습기가 되어 고치기 힘든 병이 되고야 만다. 달마 대사가 "중생들이 근본 성품을 보기만 하면 나머지 습기가 몽땅 다하고 정신이 어둡지 않다"고 한 말씀은 역설적으로, 온갖 나쁜 습기를 제거하기 위한 방법은 밖으로 향한 마음을 내면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김재경(취재부 차장)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정치보다 민심 살피길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의 사찰 방문이 잦다. 각 당 대표가 조계종 총무원장을 방문했고, 부산 범어사와 대구 동화사 등 큰 사찰들에는 당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불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 방문했다. 이뿐만 아니라 사찰 행사나 신행단체 간담회에는 초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정치인들이 찾아와 지지를 호소하기도 한다. 지역의 유력사찰 주지 스님을 찾아다니는 정치인도 적지 않다.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 불심을 잡으려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이런 와중에서 스님들이 얼마나 중심을 잡느냐이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는 스님들이 있었고, 그래서 불교가 정치에 관여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물론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지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이 있을 수 있다. 또 그런 것을 용인하는 사회가 민주주의다. 하지만 종교인은 조금 다르다.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는 것이 마땅하다. 종교마저 정치에 휘말린다면 나라는 극히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아직까지 스님이나 사찰이 선거에 관여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투표가 끝날 때까지 사찰과 스님들은 엄정한 중립을 지키면서 선거 후에 나타날 지도 모를 민심 분열이나 지역 분할과 같은 문제를 치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신경을 써야 한다. 이것이 정치에 관여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다.

김미형(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신도 수행체계 바로 잡아야

조계종 포교원이 4월 2~3일 개최한 '신도 수행 현황과 과제' 워크숍은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중심을 잡고 있지 못하는 재가불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조계종의 수행법인 간화선에 대한 체계 정립을 위한 연구와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일련의 움직임은 매우 긍정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간화선을 접할 수 없는 재가불자들이 더 많다는 현실을 주지해야 한다. 대부분의 재가불자들은 간화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불교의 기초지식도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재가불자들이 다수인 상황에 맞는 방편이 필요하다. 그들에게 불교의 기본적인 지식을 주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것이 포교의 첫 번째 주안점이 되어야 한다. 간화선의 대중화도 기본적인 수행관을 갖고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가불자들이 신도기본수행을 통해 정견과 바른 믿음을 지니는 발심의 단계에 도달한 다음 전문수행으로 이어지도록 수행체계를 바로 잡아나가야 할 것이다. 도원(붓다뉴스)

독자 시

거울 앞에서

백발노인 당신은
도대체 누구시기에
내 옆을 그리도
맴돌고 있나요.

이름도 성도 모르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시기에
쪼그라진 그 꼴로
언제부터인지
나를 따라 다니나요.

어디선가 본듯 만듯한 당신은
도대체 누구시기에
웃으면 같이 웃고
울면 같이 울고
바늘에 실 따르듯 하나요.

때로는 미웁고
때로는 이쁜 당신은
도대체 누구시기에
어쩌다 거울앞에 앉아 보면
거울속에 먼저 앉아
나를 쳐다보고 있나요.
당신 미워 고개 돌리면
똑같이 고개 돌리는 당신.

남 자광심(안양시 동안구 호계2동)

'현대' 만평 심 민 섭



우리 가족에겐 名品이 있다!

20여년을 오직 한 길로만 걸어온
성광수의 수신토종오가피!
챙기셨습니까?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월드컵국가대표선수들이 먹은
"수신토종오가피"를 챙겨주십시요.

신제품 발매 개시
오가피!!
이젠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챙기세요.
5대신문 히트상품선정으로
그 품질을 인정받은 수신토종오가피!
아직도 안 챙기셨어요?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상담과 동시에 오가피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국내 최대 규모 오가피 농장
- 2003년 5대 일간지 히트상품 선정
- 오가피 관련특허 보유기업(제0322351호)
- 2002년 월드컵 선수들이 먹은 그 제품
- 오가피전문연구소 개설(제20031860호)
- 과학기술부 연구개발 사업참여 기업

오가피건강상담 무료자료신청 02)455-7555

하기책자 3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화제의 신발

성불화 룸비니 신발

세상에서 가장 가볍고 편안한 신발



남여공용
성불화룸비니

룸비니는 석가모니 부처님 고향이름

세상에서 이렇게 가볍고 편안한 신발이 있을까?
성불화 룸비니를 신는순간 누구나 이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최첨단 신발과학의 명품으로 불자는 물론 일반인들 까지도 감탄과 찬사를 받으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서울에 사는 공무원 K씨는 광고를 믿지 않지만 어머니가 10년이상 관절염으로 활동도 못하고 고생하는 것이 안타까워 신발이라도 가볍고 편안한 신발을 사드리려고 하던중 성불화룸비니신발이란 신문기사를 읽고 속는 셈치고 구입해 드린것이 지금은 1Km이상 가볍게 걸을수 있으며 활동도 한다고 한다. 서초구에 사는 P여사는 신발이 너무 가볍고 편해 1족을 구입했으나 혹시 생산이 중단되면 어떠할까 해서 평생 신으려고 3족을 더 구입했다 할 정도로 가볍고 편안한 최고급 신발로 평가 받고 있으며 여의도에 사는 개신도 권사도 절에 다니는 친구가 신은 것을 보고 너무 좋아 종교를 떠나 사신고 다닌다고 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최고급 천연방수 가죽 뉴벅 사용

과학적인 설계로 신발의 무게를 획기적으로 줄여 대단히 가볍고 편안한 것이 특징이다. 룸비니 신발은 최첨단 신소재와 20만원대 신발에만 사용하는 최고급 천연방수가죽, 뉴벅을 사용했으며 밑창은 골프화 같이 조경량 골프그립을 개발하여 접지력과 마모력을 강화했고 눈, 비올때에 미끄럼 방지기능이 탁월하며 원적외선과 음이온이 발산하여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발냄새를 제거하는 기능성을 갖추었다. 디자인면에서는 평상복 또는 케주얼복에도 잘어울리게 제작했으며 불자님들의 사찰불공시, 또는 성지순례와 해외여행, 등산에도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시켜주는 과학적이고 인체공학적인 신발이다.

성불화룸비니는 남여공용으로 225mm~285mm까지 사이즈별로 제작되어 전화로 신청하면 우체국 택배로 보내준다. 가격88,000원

문의전화:(080)755-0003
농협 944-12-417900 고덕림

윤달이 낀 갑신년에 신발을 선물하면 건강장수합니다.

갑신년名品특집

윤달이 낀 갑신년

윤달이 낀 갑신년은 지금으로 부터 120년 전 1884년 갑신정변이 일어나든 해로 정변의 기운이 넘치는 해다. 역학적으로 서방의 氣가 동방으로 쏠려 정치는 격동기를 맞을 것이며 민심은 구심점이 없어 방황하고, 사회는 혼란스럽고, 서방의 氣가 동방으로 몰려 괴질과 풍토병이 만년하여 氣가 약한 사람은 건강적으로 어려움을 당할수 있는 해로 누구에게나 윤달이 낀 갑신년은 좋은 해는 아니다. 역학적으로 볼 때 한 마디로 윤달이 낀 갑신년은 집을 잃고 방황의 해다. 정치도 집이 없어 방황하고, 돈도 집이 없어 방황하고, 민심도 집이 없어 방황하고, 건강도 방황하지만 갑신년 후반기 부터는 모든 분야에서 집을 찾아 안정이 된다. 옛부터 윤달이 낀 해에는 누구에게나 삼재를 당하는 해와 같다하여 화를 쫓고 악을 물리치고, 복을 부르고 지혜를 얻기 위해 부처님 공양구 또는 법구를 집안에 또는 몸에 지니고 다니면 불교에서는 삼재를 물리치고 건강장수하며 복을 받는다고 했다.

금강저 건강밸트

부처님의 지혜를 얻는 승리의 금강저 밸트

삼고 금강저(金剛杵)



삼고 금강저

삼고 금강저는 고대 인도에서 인드라신(神)의 밀교 의식에 쓰이는 무기로 불퇴전의 강한 보리심을 상징한다. 밀교의 만다라에는 금강부의 여러존상이 모두 금강저를 가지고 있으며 금강역사는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악귀와 잡귀도 물리쳤을 정도로 금강저 앞에는 대적할 상대가 없다는 세상에서 제일 강한 지혜의 무기를 뜻한다.



뱃속에 잡귀와 악귀를 물리치고 강건할 것이다.!!

승리의 선물! 건강의 선물! 합격의 선물!

험한 세상 믿음의 호신용으로 인기

국내 최대의 불교성구 제작 전문업체인 관음예술원에서 불퇴전의 승리의 수호신인 금강저밸트를 제작하여 남자들로 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불교에서 금강저는 험한 세상 사는 동안 악을 물리치고 화를 쫓으며 부처님의 지혜인 금강의 지혜를 받아 각자 소망하는 소원이 성취되고 승리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법구다.

악귀와 잡귀 보기만 해도 도망

금강저는 고대 인도에서 인드라신(神)의 밀교 의식에 쓰이는 무기로 불퇴전의 강한 보리심을 상징한다. 금강저는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악귀와 잡귀가 보기만 해도 도망치며 금강저 앞에는 대적할 상대가 없다는 세상에서 제일 강한 지혜의 무기로 불경에 입각하여 제작된 승리의 수호신인 금강저를 밸트에 부착하여 남자들이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닐 수 있게 제작한것이 돋보여 직장인은 물론 중·고등학교 학생과 수험생, 경찰관, 군인등 믿음의 호신용 선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장이 약하고 허리 약한 분 최고

업체 관계자는 금강저 밸트에서 발산되는 氣와 원적외선은 신진대사를 촉진하며, 허리와 장이 약하신 분은 15일 정도 착용하면 튼튼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한다. 금강저 자동밸트는 실용신안 및 건강밸트로 특허를 획득한 국내 밸트 중 기능성을 가진 최고급 자동밸트로 평가되고 있다.



특별증정 삼고금강저

출시기념으로 여성들이 핸드백에 넣어 자신감을 갖고 다닐 수 있도록 순금도금한 삼고금강저를 선물로 증정하고 있다.
가격65,000원

관음예술원

문의전화:(080)330-7555
농협 : 906-12-369914 김현석



무게2.7kg 높이22cm 가로17cm

관세음보살 여의주 수진언 향로

갑신년, 가지가지 보배 재물을 얻고 소원을 성취할 것이다.

'소원성취 향로' 화제집중

99%청동을 만든 국보급 명작

불경에 입각한 법구를 전문으로 제작하는 관음예술원에서 불교의 관음 신앙에 등장하는 **관세음보살의 영험의 손모양(수진언)과 지물을 향로로 제작해 점안 불공과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불교에서 **관세음보살 수진언은 세상 모든 중생들의 소원을 성취시켜주는 영험**을 담고 있으며, 실제로 관세음수진언은 큰 스님들로 하여금 그림으로 그려져 어려움을 격는 불자들에게 긴급 비방으로 사용해 왔다. 출시한지 100일도 안되어 관세움보살의 성심으로 어려운 사업장이 부도 위기를 넘기고 2년간 패하기만 한 소송에서 승소를 하고, 어렵다고 생각한 아들이 S대학에 합격하고, 팔리지 않아 고민하던 집이 팔리고, 복권 1.2.3.4등이 모두 당첨되는 등 관세움보살님의 영험이 나타나고 있는 국내 최고의 향로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윤달이 낀 갑신년에 부처님 공양구를 가정에 모시면 삼재도 소멸되고 가족이 건강하고 화목하며 화를 쫓고 꼬였던 일들이 풀린다 하여 인기를 끌고 있다.

관세움보살 수진언 향로는 99% 청동만으로 국내에서 불경에 입각해 제작했으며 중국에서 싸게 만들어 들어오는 향로는 만들기 쉽게 합금을 하여 2~3년만 지나면 회색 꽃이피고 부식되고 변질되지만 **관세움수진언 향로는 천년이** 지나도 변질되지 않으므로 가정의 번영과 안녕을 지켜주는 가보와 수호신으로 가정에서 예불시 또는 제례시 사용하다 후손에게 물려줘도 손색이 없는 국보급 향로로 인정 받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전국 어디든 우체국 특급택배로 정성껏 보내드리고 있다.
가격295,000원

관음예술원

문의전화:(080)330-7555
농협 : 906-12-369914 김현석

부처님 福 지갑

영험의 룸비니 福 지갑

東西南北의 福을 모으는 靈驗!

120년 만에 맞는 갑신년 金의 해. 룸비니 福지갑으로 부자되세요



남여공용
반지갑



여성용 장지갑

★ 고급 케이스에 담겨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우신분은 꼭 사용하세요.

갑신년 선물로 최고!

생일선물! 개업선물! 이사선물! 결혼선물!
합격선물! 승진선물! 취업선물! 사랑의 선물!

왜! 윤달이 낀 갑신년에 지갑을 바꿔야 하는가?

120년만에 온 윤달이 낀 갑신년은 격동의해로 아주 특별한 해입니다. 역학적으로 윤달이 낀 해는 언제든지 누구나 삼재를 맞는 것과 같은 해로 환란을 소멸 하고자 윤달이 낀 해에 따라. 부모님의 수의를 장만하면 좋은 해가 있고, 가구를 바꾸면 좋은 해와, 적색내의를 입으면 좋은 해. 등 해에 따라 다르며 2004년 갑신년은 120년전 갑신년과 같이 서방의 氣와 金이 동방으로 몰리면서 지갑과 신발을 바꾸면 좋은해 입니다. 특히 윤달이 낀 갑신년에는 돈이 집을 잃고 방황하는 해라 하여 金의 해라하고, 돈의 집인 지갑을 새지갑으로 바꾸면 방황하는 돈이 새지갑으로 들어오는 해로 120년만에 온 윤달이 낀 갑신년입니다.

부처님지갑인 룸비니 복지갑에는 불교에서 유일하게 동서남북의 복을 부르는 부처님성구 卍자를 지갑정면에 넣고 윤달이 낀 갑신년 악귀와 잡귀를 물리치고 건강을 지키는 금강저를 지갑 내부에 순금도금하여 넣었으며 부처님 꽃이며 소원성취꽃인 백연화를 넣어, 가지고 다니는 순간부터 자신감을 갖게 했습니다. 부처님 지갑인 룸비니복지갑은 명산인 소백산에서 부처님께 점안불공과 축원불공을 드린 영험의 지갑입니다. 브랜드를 룸비니라 한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 탄생지 이름 입니다.

부처님 지갑인 룸비니지갑은 안과 밖이 똑같은 최고급 천연가죽으로 내부도 기존지갑과는 비교가 될수 없게 대단히 잘 꾸며져 있으며 국내 최고급 지갑으로 인정 받고 있습니다.

룸비니지갑은 부처님지갑으로 지갑을 받으시면 사용할 분의 신분증등을 넣고 깨끗한 상위에 놓은 다음 서쪽을 보면서 3배하시고 사용하시면 윤달이 낀 갑신년에 삼재도 물리치고 소원성취 하십니다.

이런분은 꼭 사용해 보세요.

- 사업을 하면서 어려우신 분
- 개업을 준비중인 분
- 장사를 하고 있으나 안돼는 분
- 이사를 계획하고 계신 분
- 항상 하는 일이 안돼시는 분
- 결혼을 앞둔 분
- 취업을 준비중인 분
- 특별한 선물을 찾고 계신 분
- 집을 팔려고 하시는 분
- 점포를 팔려고 내놓은신 분

신청 및 문의전화:080-755-0003

www.lumbinistar.com

전화로 룸비니복지갑을 받으실 주소와 성명을 알려주시면 우체국택배로 전국어디나 정성껏 보내드립니다.
남여공용반지갑55,000원 여성용장지갑95,000원은 신용카드 분할 또는 하기구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농협: 053-12-102911 김남룡

성불화 Lumbini 성-불-화 룸비니

산문밖의 禪

"내 화두는 색과 이미지"

맑고 향기롭게 고현 교수가 만든 '맑고 향기롭게' 스티커.



'불교 미술의 현대화' 란 화두로 반평생을 정진해 온 고현 교수. 사진 아래는 화성 자재정사에 봉안될 세계 최대(길이 43m) 불화인 '연해도(蓮海圖)' 의 부분.



세계 최대 '蓮海圖' 자재정사에 조성
고 현 교수

법화경 가르침 2×43미터에 담아
황금의 연꽃바다는 환희의 세계
"불교예술도 50년 가량하면
한 소식하지 않을까요?"

평생 <법화경>에 의지해 정진하고 있는 화성 자재정사 주지 묘희 스님이 묘법연화의 세계를 신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어떤 경전에서도 연화장 세계가 보이지 않는다는 그들에게 그 세계를 직접 볼 수 있도록 하고자 고현(법명 又泉 · 56) 조선대 디자인학부 교수를 찾았다.

그로부터 4년 4개월이 지난 2004년 3월, <법화경>을 풀어 그린 '연해도(蓮海圖)'가 완성됐다. 작품 크기만 해도 높이 2m, 길이 43m에 이르는 세계 최대의 연해도다. 정면 불단부분은 16m에 걸쳐 삼존불을 의미하는 보탑과 좌우로 24분의 협시보살, 팔만사천 대중이 자리해 있다. 양쪽 벽면은 각각 13m 크기로 새벽을 여는 금련(金蓮) 위에 <법화경>이 해인사 목판본으로 새겨져 있다.

"불교미술 현대화를 화두삼아 30여 년 매진하다보니 큰 가피를 입었습니다. 어느 작가가 평생 이런 대작을 그리는 인연이 있겠습니까."

그래픽 봉축카드를 탄생시키고 '맑고 향기롭게' 스티커, 각 사찰 로고, 불교잡지 표지 제작 등 불교이미지 시각화를 선도하고 있는 고현 교수. 고 교수가 세계 최대 '연해도'를 제작하게 된 것은 하루 아침에 맺어진 인연이 아니다. 불교와의 첫 만남은 고교 2학년 방학 때 선암사 참당암에서 단청불사를 도우면서였다. 그 뒤, 출가하고 싶었지만 두 번에 걸친 짧은 행자생활로 만족해야 했다. 그래서인지 매사가 불교식으로 푸는 삶이 아니면 견딜 수가 없었다.

대학 졸업 후 조교시절, 본격적으로 불교를 소재로 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곳에서 장애가 생겼다. 타종교 학생들의 방해였다. 집요하게 연구실로 찾아와 작품에 대해 시비를 걸었다. 심지어 '사탄을 그리는 강사에게 강의를 받을 수 없다'는 데에는 할 말을 잃었다. 이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하던 일을 멈출 수 없었다. 불교이미지를 누구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시각화 해야겠다는 의지가 더욱 강해졌다.

연륜이 쌓이면서 고 교수를 바라보는 불교계의 시선이 생겼다. 젊은 스님들이었다. 고 교수의 그림에서 '불교의 현대화'라는 동질성을 느끼며 새로운 불교에 공감대를 형성했던 것이다. 먼저 해인사 강원 스님들이 고 교수를 찾았다. 불교잡지 <해인>지 표지디자인이었다. 당시 불교잡지 디자인을 전문가에게 의뢰한다는 것은 파격이었다. 젊은 스님들이었기에 가능했고, 예상을 깨고 1년간 지속됐다.

1984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당시 서울 법련사 주지 현장 스님이 현대화된 봉축카드를 요청했다. 9장을 그렸고 장당 1만장씩 인쇄했다. 한마디로 '대박'을 터트렸다. 전국에서 반응이 폭발적이었다. 불교 이미지가 단순하면서도 다양한 칼라와 그래픽으로 재현된 것에 모두들 신기해 했다. 카드를 보내기가 아까워 보관하는 팬들까지 생겼다.

"신바람 났습니다. 불교이미지가 일반인들에게 호평 받는다는 것이 의외였고 가능성이 보였기 때문이죠. 그때처럼 혼신을 다해 열심히 작업하던 때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고 교수의 작품은 발표와 동시에 복제되어 시중에 나돌았다. 불교계는 물론 책받침, 타월 심지어 앞치마에 이르기까지 무차별 인용됐다. 창작하는 이에게 복제는 작가로서의 생명을 끊는 것과 같다. 그렇지만 더 많은 이에게 불교이미지를 보여주는 일이기에 강력하게 막지는 않았다. 문제는 원본과 다르게 왜곡된다는 것. 컬러로 발표된 작품이 흑백으로 변하거나 작은 크기의 그림이 확대되어 원작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데는 속수무책이었다.

고 교수는 사찰 단청과 불화 작업으로 다시 힘을 냈다. 수행, 포교 공간인 사찰에 들어서면 저절로 신심이 우러나도록 현대화 하는데 노력했다. 천년고찰을 복원할 때는 단청 한 획도 본래모습 그대로 재현해야 하지만, 도심지에 새로 건립되는 사찰이나 포교당은 현대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고 교수의 주장이다. 광주 선덕사, 대전 연화사 불화와 단청이 그의 대표작이라 하겠다.

고 교수가 즐겨 사용하는 색은 세 가지다. 우유빛 흰색과 승복에서 보듯 차분히 가라앉은 쥐색, 그리고 나무와 같은 황토색이다. 황토색을 고급스럽게 표현할 때는 금색을 사용한다. 고 교수가 불화나 단청에 주로 사용하는 색이 바로 화려하지 않은 황토빛 금색이다.

그림의 소재는 주로 <금강경>에서 찾는다. 그의 작품에 등장하는 바람, 안개, 물방울, 대숲, 그림자, 다기와 죽비, 풍경 등이 <금강경>을 독송하며 떠올린 이미지이다.

"불교미술도 50년 가량 하면 한 소식 하지 않을까요. 대작 '연해도'를 마치고 나니 후련합니다. 이제 경전을 바탕으로 불교미술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고 교수는 불교미술에 있어 독각의 길을 걸어 왔다. 불교미술이 이론적으로 정립되지 않아 매사 혼자서 헤쳐 나가야 했던 것이다. 더 이상 후배들이 허둥대지 않고 똑바로 나갈 수 있도록 이론을 정립하는 일도 그의 몫이 된 것이다.

고 교수에게 '불교미술 현대화'가 화두라면 '불교조형미술연구소 설립'은 그의 원력이다. 불교를 생활화하도록 생활용품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이다. 이미 1000여종 이상의 작품과 용품을 개발해 놓았지만 보급에 있어서는 엄두가 나지 않는다. 그렇다고 조급해 하지 않는다. 불교미술이 이론적으로 정립되면 후배들이 해낼 것이라 확신하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가장 크고 긴 '연해도'를 제작한 고 교수는 자재정사 법당 봉안에 앞서 일반에 선보일 예정이다. 오는 5월20일부터 25일까지 서울 공평아트센터에서 '현대불교 회화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는 다른 불교작품도 함께 전시되어 고 교수의 작품세계를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글=이준엽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고현 교수.

등불로 전하는 자비 광명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연꽃잎 제조특허(특허 제122168호) / 팔각등 실용신안(등록 제098634호)외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연등용 전선 케이블" 찬덕 연등이 시공하면 기초부터 다릅니다.

설계에서.. 시공까지..

지금 전국에선 "연등전선케이블"의 역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공하여 드립니다.



* 시공된 연등용 전선 케이블 *

팔모주름등



실용신안 등록 의장출원



보관상태

팔모조립등



공단등(비단등 실크등)



종 등



만월등



※ 만월등, 종등에 사찰이름을 인쇄 할 경우 제작시간이 소모되오니 미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찬덕 연등제작사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전송 : 031) 794-6288

찬덕홈페이지 : www.chanduk.com 한글홈페이지 : 찬덕연등

e-mail : chanduk21@hanmail.net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정목 스님이 말하는
'원효의 염불선' <1>



일심정토

원효 스님은 자비광명에 의지하거나 스스로 닦아 나아가거나, 모든 수행문의 궁극은 일체 경계가 일심인 지혜를 증득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일심의 지혜를 증득하면 자연히 동체대비심이 일어나 뭇 생명에게 이익 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수행의 완성인 일심광명(一心光明)입니다. 그러므로 일체 경계는 일심이라는 부처님의 지혜를 우러러 믿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종교적 신념으로써 부처의 세계에 나아갈 수 있고 깨달음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승불교의 꽃이라 부르는 정토(淨土)는 자연과 생명이 청정하여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운 세계입니다. 정토문은 진실한 믿음으로 정토를 염원하여 염불행을 실천함으로써 아미타불의 본원력(本願力)에 힘입어 정토에 왕생하도록 인도하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시어 "일체중생을 구제하리라" 하신 근본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정토는 일체 중생이 마침내 돌아갈 곳이지만, 범부에게는 자신의 현실과 거리가 먼 종교적 세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원효 스님은 일체 중생은 반드시 정토에 왕생하며, 보리심을 정인(正因)으로 삼아 십해초발심주(十解初發心住) 보살도 현실 가운데서 정토에 왕생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정토는 종교적 신념으로 염원해야 할 아미타불의 세계인 동시에 자비광명에 의지하여 성취할 수 있는 깨달음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원효 스님이 말하는 정토는 곧 일심의 바다로 향하는 깨달음의 세계이니, 바로 일심정토(一心淨土)입니다.

원효 스님의 염불관 가운데 '칭명(稱名)'은 믿음을 성취하는 방편이며, '관상(觀相)'은 깨달음을 성취하는 염불선(念佛禪)입니다. 번뇌가 심중한 범부는 명호(名號)를 생각(念)하고 부름으로써 결정된 믿음을 성취하고 안심을 얻어,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합니다. 선근이 깊은 근기는 경계를 관찰함으로써 깨달음을 성취하고 보살도를 실천하여 대도에 나아갑니다. 이와 같이 원효 스님은 범부로부터 현성에 이르기까지 다 함께 염불의 한 문(門)을 통해 일심정토에 나아갈 수 있도록 회통하였습니다.

원효 스님이 밝힌 일심정토는 서방정토(西方淨土)와 유심정토(唯心淨土)를 다 함께 포용하고, 불법의 씨앗을 민중의 땅에 뿌려 정토의 꽃을 피우는 독창적인 정토사상입니다. 민족의 창의성과 자긍심을 드높였을 뿐만 아니라, 순수한 한국불교를 탄생시킨 위대한 업적이었습니다. 원효 스님은 일체중생은 누구든지 염불로써 일심의 바다요, 부처의 세계에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으로 성취한 국토가 아미타불의 정토 혹은 법신보살의 정토는 아니더라도, 조금 깨달은 보살의 삶으로 최선을 다하는 국토라면 그것 역시 이 땅의 어둠을 밝히는 정토요, 일심정토에 나아가는 길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원효 스님이 역설한 일심의 도(道)는 곧장 부처가 되는 것도 아니고, 불법의 큰 바다를 자유롭게 헤엄치며 경론 해설하기를 산더미처럼 쌓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안락에 안주하는 것은 더욱 아니었습니다.

원효 스님의 일심은 곧 실천철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뇌하는 범부가 요원하게만 생각하는 그 깨달음의 세계를 바로 지금 현실적 고통이 끝없는 삶의 현장에 펼쳐 감로수를 뿌리고 갈증을 쉬게 하였습니다.

서방 · 유심정토 포용 독창적
일체 중생이 부처요 한생명

<양산 정토원 원장>

클릭하면 禪이 보인다



그림 · 김영민

문답 수행점검 사이트 인기
조사선 · 위빠사나 등 묻고 답하기 활발
바쁜 현대인들의 수행 점검에 큰 도움

"누구나 무심이 근원입니다. 무심에서 밥을 먹고 말하고 생각하고 일해요. 맞지요, 풀피리 님?"(석우 스님)

"예, 저 그건 알아요."(풀피리)

"그럼 무심을 이미 얻은 것이네요. 아니, 원래 갖추어진 것이지만…."(스님)

"그런가요? 하지만 뭔가가…."(풀피리)

"뭐가 미진하죠?"(스님)

"모르겠어요."

"더 이상 나아가려는 것이 문제예요. 원래 갖추어져 있는데, 본래 무심인데 뭘 더 원해요? 마음이 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스님)

"생각을 버리지 못해서인가 봐요."(풀피리)

"분명히 얻지 못함을 아는데도 얻으려 해요. 이것이 병입니다."(스님)

"예."(풀피리)

"한 생각 일어나면 어긋난다고 해 놓고서 금방 또 한 생각 일으켜요."(스님)

"그래서 바보죠."(풀피리)

"바로 그래서 달마 스님은 무심을 얻으려고 수행하나, 어떤 조작도 하지 말고 바로 원래 무심임을 깨달으라 한 겁니다. '무심을 깨닫기만 하면 그것이 바로 수행이지 따로 수행을 할 것이 없다.' 이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스님)

인터넷 다음카페의 '무불선원(cafe.daum.net/mubulsunwon)'에서 매주 목요일 저녁에 열리는 '인터넷 강의'를 통해 석우 스님이 '무심론(無心論)'에 대해 제자들과 즉석에서 묻고 답하는 장면이다. 선어록에서나 볼 수 있는 이러한 문답은 더 이상 수행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 선(禪)을 오랫동안 참구한 스님이나 재가법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질문을 던지면 된다. 카페에 들어 온 시간이 서로 맞으면 즉시에, 늦어도 하루 안에 선리(禪理)에 어긋나지 않는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선지식의 법문을 듣고 말끝에 단박 깨치는 '언하변오(言下便悟)'를 연상케 하는 선문답과 점검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동안 간화선 수행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선지식 및 지도점검 시스템의 부재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문답식 수행점검이 사이버 선방에서 정착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200여 곳의 불교 사이트나 인터넷 카페 가운데 일반적인 신행상담을 넘어 전문적인 수행문답이 이뤄지는 사이트는 20여 곳.

이 가운데 전통 조사선의 선문답 형식에 따라 수행문답을 하고 있는 사이트는 무불선원, 현정선원, 무심선원, 보림선원, 선림도량, 마하수련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 가운데 무불선원과 현정선원, 무심선원의 선원장인 석우 스님과 대우 법사, 김태완 법사는 실제로 문답식 법회를 통해 조사선의 공부를 지도하고 있어 온-오프라인 상에서 활발한 문답이 이뤄지고 있다. 공통적으로 일대일 점검과 참선 법문이 주요 공부 형식이며 좌선 보다는 일상 속에서 마음 공부하는 '생활선'을 강조하는 특징이 있다. 의심나는 점은 언제든지 게시판과 이메일을 통해 점검해 주는 방식이 일반화 되었을 정도로 수행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선 계열의 사이트에 못지 않게 위빠사나와 불교명상 사이트들의 수행문답도 활발하다.

위빠사나 수행센터의 통합 사이트인 위빠사나를 비롯해 보리수선원, 호두마을, 여래선원, 연방죽선원, 깔야나미타명상선원 등이 수행과정상의 의문에 대해 친절하게 답변하고 있다. 또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명상에 대한 궁금증을 쉽게 풀어주고 있는 관수련회, 명상아카데미, 바라보기명상 등도 인기를 끌고 있다.

수행 문답하는 사이트

무심선원	www.mindfree.net
무불선원	cafe.daum.net/mubulsunwon
현정선원	www.fuoyee.or.kr
관수련회	www.kwan.or.kr
마하수련원	www.mahazen.org
명상아카데미	www.bodhitao.com
바라보기명상	www.paraboki.net
선림도량	www.daedosun.org
소리산참선캠프	cafe.daum.net/sorisan
아미타파	cafe.daum.net/amitapa
안국선원	www.ahnkookzen.org
여래선원	www.buddhapia.cc
위빠사나	vipassana.buddhism.org
축서사	www.chooksersa.org
호두마을	www.vmcwv.org
깔야나미타명상선원	cafe.daum.net/kalyanamitta
보리수선원	www.borisu.or.kr
보림선원	www.borim.co.kr
연방죽선원	lotuspond.compuz.com
한국위빠싸나선원	www.vipassanacenter.com

이밖에 양산 정토원 원장 정목 스님은 아미타파를 통해 염불선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염불행자들의 환희심을 자아내고 있다. 청견 스님은 소리산참선캠프에 사이버 수행상담 코너를 마련해 신도 대하듯 자상하게 수행과정을 점검해 주고 있다. 축서사, 안국선원 등 참선도량에서도 신행삼담 코너를 통해 수행문답을 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어, 바쁜 현대인들의 수행 점검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되고 있다.

무불선원 운영자인 선봉화(48) 보살은 "사이버 선문답은 청법자로서의 예의가 없거나 장난기 있는 불청객, 또는 타종교인 등에 의해 다소 물의를 빚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건전한 수행문화로 자리잡은 것 같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인터뷰 석우 스님



온-오프라인서 참선 지도
무불선원 다음카페 회원 1천여명

"분노가 일어날 때, 시기심이 일어날 때, 질투가 일어날 때, 욕심이 일어날 때, 비교하고 싶을 때, 남을 흠집 내고 싶을 때, 바로 그때 필요한 것이 진리요, 수행입니다."

서울 방학4동에 위치한 무불선원의 선원장 석우 스님은 탐진치가 일어나는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수행하기 좋은 때라고 말한다. 옳으니 그르니, 크니 작으니, 잘났느니 못났느니 하는 분별이 일어날 때 즉시 한마음을 쉬고 놓아버리면 이 때가 바로 '부처의 행'(佛行)을 할 때라는 것이다.

참선 법회를 위주로 무불선원을 운영하는 석우 스님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동시에 '사람이 곧 부처, 다른 데서 찾지 말라'는 주제로 참선 공부를 지도해 주목받고 있다. 스님은 다음카페에서 '무불선원(cafe.daum.net/mubulsunwon)'을 운영중인데 회원이 1천여명이 넘을 정도로 선 수행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스님은 견성과 수행방법, 고승 설법, 선문답 강의실, 초심자의 방, 신행일기, 종합 경전 강의장, 선 관련 자료실 등을 통해 선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고 있다. 특히 '스님과의 대화방'이나 매주 목요일 저녁(오후 8시30분~10시30분)에 열리는 '인터넷 강의'를 통해 즉석에서 묻고 답하는 문답 시간도 갖고 있다.

석우 스님의 선 법문은 곧바로 핵심을 질러 들어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아는 그 놈(무위진인, 본성, 불성, 주인공 등)을 곧바로 보게 하는 임제선을 닮았다. 초심자로부터 구참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근기의 수행자를 제접하는 스님은 늘 "깨달음은 정성스러운 마음이 있어야 하고, 겸손하여야 하며, 갈구하는 마음이 강해야 바르게 온다"고 일깨운다. 수행자의 갈구하는 마음이 강하면 강할 수록 법문 한마디에 즉시 깨닫는다는 것이다.

<천개의 손과 눈으로 무엇을 하는가-천수경강의> <최상의 지혜-반야심경 강의> <법성게 강의> <조주선사 선문답-조주록강의> 등의 저서를 펴낸 스님의 포교 원력은 선불교를 널리 알려 불자들이 수행과 봉사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다.

김재경 기자

역술의 제왕(帝王)
역술을 알면 현생이 바뀐다 !
옛 성현의 金言에는 "군자는 재해(災害)를 예지(豫知) 함으로써 예방을 먼저 한다."고 하였다. 황제가 세 아들에게 전수하길 이 법으로 나라에 선정을 펴고, 수신을 보호하라! 만일 현명자가 없어 비법 전수를 하지 못하면 명산대산에 가서 묻어라!
- 길사는 언제 시작되는가?
- 흉사는 언제 끝는가?
- 근심과 재앙을 미연에 방지할 수 없는가?
- 언제 성공할 수 있는가? 그 때는?
- 상대가 방문할 때 어떤 처지에 놓였는가?
- 기로에 서 있는가? 갈등하고 있는가?
- 과연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원인이 뭔지, 산소탈인가, 귀신탈인가, 조상탈인가?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흉재가 발생한 뒤에 감정을 받고자 하는 이유는?
어리석은 중생아 깨어나라! 늦지 않은가?
태산육임학회에서 기초입문, 활용과정, 임상록으로 수강생 모집!
- 포교당, 철학원, 운명연구가!
- 궁금하신 분은 전화로 문의하세요!
- 운명상담은 예약!
- 각종 비법을 전수!
도서안내
- 아베 태산 대전과 황제내경, 육임대전
- 길흉정단비법
- 실천감정법
- 감정극비전
- 초학상해
주소 : 대구시 남구 대명 9동 501-7번지 1층
자료구입 계좌 : 대구은행 093-08-247393 (예금주 : 손외경)
전화 053)627-0170 / 휴대폰 016-580-6654

관 절 염
자 생 환(自生丸)
관 절 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 스 크 → 약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선천성 냉체 산후바람 낭 습 진 →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주의사항 -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산부 음주전후에 복용금지
관절염은 참 견디기 힘든 병입니다. 빠마디의 통증은 통증대로, 약을 먹으면 위장장애 때문에 이중으로 고생을 합니다. 자생환으로 근본적인 치료를 해보세요 상태가 심한 분은 3개월 이상 복용해야 합니다.
1개월분 ₩180,000
2개월분 ₩320,000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 옹(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 仁 製 藥(株)

승복 법복 안내
확실한 품질 · 만족할 가격
1. 고급 모직(물세탁)
적삼, 바지 130,000 동방, 바지 160,000 두루막 130,000
2. 면,광목(먹물, 손염색)
적삼, 바지 100,000 동방, 바지 130,000 두루막 100,000
3. 면레프사(먹물염색)
적삼, 바지 130,000 동방, 바지 150,000 두루막 130,000
4. 무명(먹물, 손염색)
적삼, 바지 180,000 동방, 바지 220,000 두루막 180,000
5. 마 : 한국산 100%(먹물, 손염색)
적삼, 바지 140,000 동방, 바지 160,000 두루막 140,000
6. 장삼 고급모직 200,000 / 경남제일모직 250,000
7. 가사 대가사 150,000 / 반가사 70,000
◆ 유사제품과 비교해 보십시요 ◆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치 : 대구 중구청 뒤편 [동삼아파트 지하 공장] (지역판매점 모집)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아름승복
전시장 : 053-256-0108
공 장 : 053-425-4449
휴대폰 : 016-597-4449
011-809-2398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 3가 88번지(동삼아파트 지하 공장)

중풍(뇌졸중)고혈압
해결책 보인다
100% 한방생 약제제 안티하이퍼 Anti-hyper
한국인의 사망율 1위
: 고혈압 및 상관된 질환인 뇌졸중 · 심장마비 · 협심증 · 심근경색
안티하이퍼(Anti-Hyper)복용이 꼭 필요한 사람
- 고혈압환자
- 협심증, 뇌졸중(중풍), 동맥경화증, 심근경색환자 및 동 질병 예방
- 약물(신약)의 각종 부작용이 염려되는 사람
- 당뇨병과 고혈압 등의 심혈관계 질환을 동시에 앓고 있는 사람
- 손발이 저리고 아프며 다리(下肢)에 힘이 없고 눈이 침침한 사람


2달분 258,000원
- 개발약사 약력 -
▶1941년 2월 5일 경북 상주 출생
▶1965년 효성카톨릭 대학교 약학과 졸업
▶1997년 홍채학 연구소 설립
▶현재 대체의학, 분자 교정의학, 체질영양학 연구 겸 한방약국(반석 당뇨 연구실) 경영중
▶저서 : 21세기 만성 난치성 피부병
구입신청 033-255-5669 안티하이퍼

1:1 대화로 '참나 찾기'

현/장 김병채 교수의 수행 공동체


삿상을 위해 전국에서 모여든 참가자들.


'푼자하우스' 입구. 참나찾기 화두가 불꽃처럼 되살아난다.

경남 창원의 작은 마을에 위치한 한 '아쉬람'. 절도 교회도 아닌 이곳에 매주 토요일 저녁마다 40~50명의 사람들이 몰려든다. 이국적 향취가 물씬 풍기는 건물형태나 인도식으로 제공되는 식사가 자못 눈길을 끌긴 하지만, 사람들 발걸음의 이유는 '삿상'에 있다. '진리와의 교제'를 뜻하는 삿상은 창원대 김병채 교수가 인도의 명상가 라마나 마하리쉬 · 슈리푼자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 98년 국내에 첫 인도식 수행공동체 아쉬람을 설립한 이후 6년 동안 쉼없이 이어오고 있는 자리다.

4월 3일 토요일, 오후 8시가 가까워오자 삿상 장소인 아루나찰라홀이 한켠부터 채워지기 시작했다. 홀을 빼곡히 메운 이들은 저마다 간직한 사연이 있는 듯 꼭다문 입술에 지긋이 내려감은 눈으로 진리와의 교제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윽고 명상음악이 잦아들고 김병채 교수가 입실, 라마나 마하리쉬 사진이 담긴 대형액자 앞에 앉아 말문을 텄다.

"올라가는 것이 있으면 내려오는 것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상승과 하강의 움직임에 집중하는 우리는 '출발지'를 잊고 있습니다. 어디쯤에서 어떻게 출발했는지를 알아야 공기저항도 제대로 제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삿상은 스승과, 경전과 대화하며 '시작'을 찾아가는 자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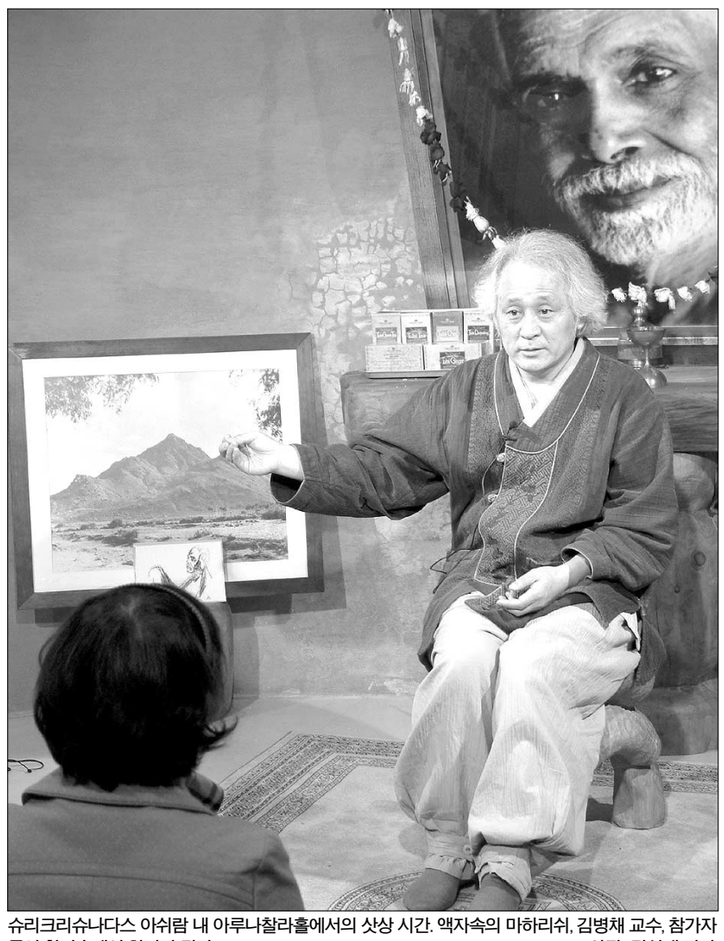
석가모니 부처님 재세시 제자들이 모든 의문을 부처님과의 대화 속에서 풀어갔듯, 김 교수가 이끄는 삿상은 얼굴을 마주하며 벌이는 일대일 대화를 통해 문제의 근원을 이끌어내는 시간이었다. 그 해결과정의 핵심은 바로 '참나찾기'였다.

"진정한 나를 찾고 싶지만 과거에 젖어있는 습(習)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습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당신에게 가방이 있습니까?"


슈리크리슈나다스 아쉬람 내 아루나찰라홀에서의 삿상 시간. 액자속의 마하리쉬, 김병채 교수, 참가자들이 참나속에서 하나가 된다. 사진=강신재 기자

印 명상가 라마나 마하리쉬의 공부법
98년 국내 첫 인도식 수행공동체 설립

"있습니다."

"가방을 자리에서 떨어진 벽 쪽에 따로 보관하고 있군요."

"예."

"습은 가방입니다."

"네?"

"가방이 당신입니까?"

"아니요, 가방은 '나의' 가방입니다. 가방이 '나'인 것은 아닙니다."

"습도 '당신의' 습입니다. 가방이 당신이 아니듯, 습도 당신이 아닙니다."

"…"

"당신에게 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몇 마디 대화에 '습'을 놓아버린 아낙의 눈에서 순간 눈물이 글썽이더니 입에서는 돌연 웃음이 터져나왔다. 가방 없이는 나가지도 않았던 나, 가방이 나인 줄 알았던 내가 가방으로부터 'free'를 선언하는 순간 생각지도 못했던 존재의 기쁨이 몰려온다. 통상적으로 믿어오던 '나'는 'ego'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의식과 생각을 걷어낸 '참나'는 그 자체로 살아있는 빛이요 진리라는 마하리쉬의 가르침을 피부로 느끼는 순간이다. 그 찰나의 희열이 몇 마디 소리로 살아나왔다. "나는 평화 속에 있다." (055)299-6379

창원=강신재 기자 thatiswhy@buddhapia.com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Avatar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종로구 평창동 110-4 101호
☎ 02)396-2736 · HP 010)6230-2113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heegyunwiz@hanmail.net

인 터 뷰 김병채 교수

"깨달음은 지금 여기에"



우리는 더 이상 배울것 없는 참나 그 자체

"깨달음은 수행을 통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음은 미래의 어느 때에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여기'에 영원히 현존하고 있습니다."

수행과 명상의 시대에 수도의 무의미함을 역설하는 김병채(창원대) 교수는 "우리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참나 그 자체"라며 "완전한 나를 자각하는 즉각적인 깨달음만이 필요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는 라마나 마하리쉬, 그의 제자 슈리 푼자 등과의 간결하고 명쾌한 삿상을 통해 얻은 진리로, 인도의 수많은 명상가들을 몸소 찾아다니며 깨달음을 갈구했던 기나긴 여정의 빛나는 축복이었다.

"스승의 가르침을 국내에 뿌리내리기 위해 '슈리 크리슈나다스' 아쉬람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화두를 안고 오는 이들에게 삿상을 통해 '화두'를 넘어선 '화두받는 자'에 대한 자각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모든 참나들이 과거에 속아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질문이 일어나고 있는 곳, 질문이 일어나기 전의 그 장소를 볼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지요."

그 과정의 끝은 '빛인 그대 자신을 그대로 자각할 뿐'이라는 김 교수. '지금-여기의 온전한 신(크리슈나)에게 헌신하는 자'라는 그의 인도명(크리슈나다스)이 낯설게 들리지 않는다.

강신재 기자

세계 불교 여성지도자들

패트리샤 펠런 (上)

美 채플힐 선원서 일상禪 전파

"당신이 좌선할 때는 오로지 좌선만 하십시오. 깨달음이나 불교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이 아침을 먹을 때는 앞에 놓인 음식에만 집중하고 먹고 있는 그 마음을 깨달으세요. 당신이 쉬고 있을 때는 오로지 쉬기만 하세요. 그대가 좌선할 때는 좌선만 하고 그대가 일할 때는 일만 하십시오." (http://www.intrex.net/chzg)

미국 노스 캐롤라이너에 위치한 채플힐선원(Chapel Hill Zen Center)의 패트리샤 펠런(Patricia Phelan) 선원장은 '좌선할 때는 앉기만 하고 일할 때는 일만하라'는 전통적인 일상선(日常禪)을 표방한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먹지 않는다'는 백장 선사의 가풍을 현대에 드날리고 있는 펠런 법사의 가르침은 생활인, 특히 도시민들의 모든 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 수행법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녀는 일상 속에서 평상심(平常心)을 갖고 매사에 대처해 나갈 경우 생활인들은 어디서 어떤 일을 하건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더 이상 참선하기 위해 산속에 위치한 선원을 찾을 필요가 없으며, 수행 역시 명상에만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좌선할 땐 앉기만 하고 일할 때는 일만 하라"

펠런 법사는 이러한 일상선과 함께 '우리는 이미 부처이기에 어떤 여건에서도 부처행을 하고 있다'는 '본래부처'를 강조한다. 그래서 그녀는 '우리는 단지 수행을 통해 참된 본성을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강조한다.

"불교는 우리가 깨달았든, 깨닫지 못했든 이미 부처라고 가르칩니다. '깨닫다(Realize)'라는 말은 '실현하다(to make real)'란 의미입니다. 불교에서의 깨달음은 발생한 어떤 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의 마음 또는 지각에 관한 어떤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와 골수, 뼈, 머리카락까지 관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좌선을 할 때 어떤 생각을 멈추려 하지 말고 우리가 가진 신념이나 옳다고 여기는 견해를 내려놓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좌선을 통한 결과가 우리의 살과 뼈로 스며들 수 있을 것입니다."

펠런이 좌선을 시작한 것은 1969년 오리곤에서 였다. 71년 샌프란시스코로 이사간 그녀는 타사자라선원에서 몇 년간 머물며 정진했다. 91년 10월 채플힐선원의 선원장에 임명될 때까지 그녀는 샌프란시스코선원에서 20여년간 수행하며 지도법사와 기숙사 사감을 맡았다. 펠런은 77년 순류스즈끼(Shunryu Suzuki) 선사의 후계자인 리처드 베이커 선사(샌프란시스코선원장 역임)로부터 계를 받았다. 그후 그녀는 스즈끼 선사의 또 다른 제자인 소준 멜 와이츠먼과 렙 앤더슨과 함께 수행했다. 그리고 하와이에 있는 금강사원의 로버트 아이큰 노사와 함께 정진하기도 했다. 95년 마침내 그녀는 버클리선원장인 소준 와이츠먼으로부터 전법(傳法)을 받았다. 자신만의 내적 여행과 더불어 오랜 불교 공부의 경험을 반영하고 있는 그녀의 설법은 전적으로 스즈끼 선사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일본 조동종의 스님인 스즈끼 선사는 1959년 세수 55세에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가서 퇴폐문화가 범람하던 곳에 좌선을 행하는 정통 선불교를 전했다. 13세기 도겐 스님의 직계후손이었던 그는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다수의 선원을 설립하였고 60~70년대에 미국에 불교를 전한 선구적인 인물에 속한다. 조용하고 소박한 성품에 작은 체구를 지닌 스즈끼 선사는 LSD 같은 마약을 통한 심령 실험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반문화의 중심도시에 도심 선원을 차리고는 참된 정신의 변화와 마음의 광대함을 체험하고 싶다면 마약 대신 좌선을 해보라고 미국인들에게 권유했다.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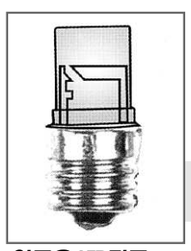
김재경 기자

인등 연등 전구의 혁신

귀의삼보하옵고 불자기업 황금 LED조명에서는 기존의 인등전구와 연등전구의 단점(짧은수명, 고유지비, 화재위험, 낮은견고성)을 보완하여 사찰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한번의 교체로 유지보수가 필요없는 반영구적인 인등 연등용 LED전구로 바꾸어보십시요.

기존 인등, 연등을 사용시 전력이 부족했던 사찰은 지금 전구를 바꿔보세요!!


인등용 LED전구

◇소비전력 : 0.07w
◇가 격 : 700원

특징
- 기존 설비에 전구만 교체 사용 가능하며 비용이 절감 됩니다.
- 필라멘트가 아닌 반도체로 되어 수명이 반영구적 입니다.
- 발광 효율이 높고 소비전력이 낮아 유지 관리비가 감소 합니다.
- 반도체로 되어 있어 가열로 인한 화재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 전구 알이 견고하여 잘 깨지지 않습니다.


실용신안등록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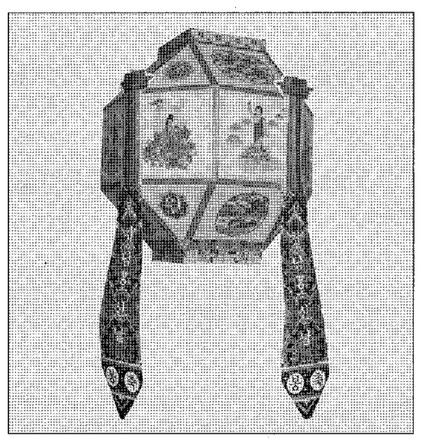

연등용 LED전구

◇소비전력 : (대) 1.4w
(중) 0.8w
(소) 0.5w
◇가 격 : (대) 5,000원
(중) 3,000원
(소) 2,500원

특징
- 일반 소켓 220용에 다용도로 사용할수있습니다.
- 별도 전선 교체없이 전구 교체 가능합니다.
- 기존의 전구 소켓에 삽입할 수 있습니다.
- 안정된 전원을 공급 할 수 있습니다.
- 다 방향으로 빛을 조명 할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등록증

제품문의처
황금 LED 조명 - 기보전자산업 서울시 중구 산림동 205 청계상가 가열 117호
TEL : 02)2266-9098, 7550 FAX : 02)2266-7557 www.kibosa.com E-mail : kibosa@kornet.net



이제 연등에 번잡한 풀칠이 필요없습니다!!

우리불교 전래의
조립식 팔각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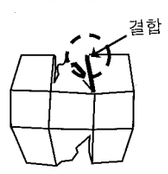
가격 동결 단행!!

어려운 사찰의 경제에 도움을 드리고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가격을 동결하였습니다.

★ 제작이 간편한 등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낱장으로 풀발이 하던 등제작이 「한번의 공정으로 아름답고 멋 스러운 등」이 3분내에 완성.

★ 야외장엄용
「특수 이중 합지방식에 코팅 처리」를 하여 이슬에 젖지 않음은 물론 견고성을 지니고 있어 「행사 수일 전부터 사찰의 축제분위기 장엄」에 활용

★ 운반 및 보관 용이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하도록 고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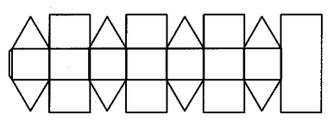


▣ 단 한번의 공정으로 3분내 완성

★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고려시대 연등회, 팔관회의 고증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청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하여 봉축의 의미와 중생의 불심이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디자인.

★ 경제적인 가격
종래의 복잡 다원화된 유통 구조로 인한 높은 가격을 배격한 「사찰을 위한 경제적 가격」

▣ 펼친 상태 [골조 및 인쇄겉지 합지 방식]



현우기획
전화:(043)877-6464 팩스:(043)877-8239 핸드폰 : 016-552-9360
■ 우체국 013706-01-003311 예금주:(주)국민피앤텍
■ 농 협 415051-51-000057 예금주:(주)국민피앤텍



만암 스님(1876~1957): 전북 고창 生. 11세에 백양사에서 취암 스님에게 득도. 백양사 주지, 불교전수학교 교장 역임. 1947년 광주에 정광고등학교 설립.

네티즌 교리문답

'사사무애(事事無碍)'란 무엇인가요?

문 사사무애법계(事事無碍法界)에 관한 개인적 견해를 구합니다. 〈화엄경〉의 법계연기를 공부하고 싶은데 이 사사무애법계의 의미가 언설로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어서요.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을) 사사무애법계라 이름 합니까? (ID '강가')

답1: 이(理)는 이론, 이치, 진리를 말합니다. 사(事)는 일, 현실적인 것, 다양한 삶이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이론에도 훤하고 일에도 능숙한 것을 이사무애(理事無碍)라고 합니다. 이 단계를 지나 따로 진리나 일을 구별할 것이 없고 일이 곧 진리이며, 진리가 곧 일임을 깊이 아는 경지가 사사무애(事事無碍)입니다. 이것을 일과 일에 걸림없는 경지라고 하며 비로소 형식적인 공부가 끝난 단계입니다. (ID '김성우')

답2: 사사무애법계는 모든 만물이 서로서로 융합하여 걸림이 없이 융섭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만물은 겉모양으로 보면 모두가 하나의 독특한 모양을 하고 있지만, 그 깊은 내면을 보면 어느 절대적인 존재가 없이 서로 모여서 이루어진 한 형체에 불과합니다. 즉 우리의 눈에 보이는 한 형체도 영원하지 못하고 곧 다른 형체로 변해간다는 얘기입니다.(ID '법설')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 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선의 세계 ㊴

불립문자(不立文字)-12

말로써 말을 버려야 깨달음 이뤄
선지식 직접 대면해 배울 것 강조

경전은 오랜 기간 동안 숱한 사람의 손을 거쳐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를 했다. 불교 경전만 그런 것이 아니다. 크리스트교의 성경도 그렇고 이슬람 성전 꾸란도 그렇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이들이, 특히 언급된 종교의 신자 가운데에는 많은 이들이 어리둥절해 할 것이다. 심지어는 경전의 거룩함을 모독하는 얘기라고 화를 내는 이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튼 학술적으로는 그 얘기가 상식화되어 있다. 학문적인 진리가 반드시 종교적인 진리보다 우위를 차지한다는 보장은 없다. 하지만, 학술적인 상식을 수용하지 못하고 거부해야만 유지할 수 있는 종교적 믿음이라면, 그 믿음에도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곰곰 생각해볼 필요도 있다. 사실상 어느 종교에나 경전의 문자 하나하나를 절대시하여 글자 하나하나를 좇아서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이른바 축자적(逐字的)인 태도의 전통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문구 그 자체에 얽매이기보다는 거기에 담긴 메시지의 취지를 해독하고 이해하는 데 주력하는 입장도 전통으로 형성되어 왔다. 앞의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불쾌해 하겠지만 뒤의 경우에는 별로 개의치 않을 것이다.

선(禪)은 분명히 뒤의 경우이다. 그리고 불립문자 교외별전(不立文字 敎外別傳)이라는 구호를 통하여 그런 입장을 아예 공식 입장으로 표명하였다. 전에 어느 텔레비전 방송에서 선에 관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것을 보고 있자니 작년에 입적한 해인사 방장 혜암 스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왔다. "팔만대장경? 그거 깨친 사람에게는 다 똥닦개에 불과한 거야."

앞에서 직지인심 견성성불(直指人心 見性成佛)이라는 선의 구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언급했듯이, 이것은 경전 그 자체, 또는 경전을 공부한다는 것 그 자체를 문제 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경전에 대한 태도, 경전 공부를 하는 태도에 시비를 거는 말씀일 터이다.

선사들이 보기에 경전에 담긴 가르침은 모두 결국 우리 자신이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는 데로 귀착된다. 그것이 불교의 본령이라고 본다. 본령을 망각하고, 또는 뒤로 제쳐놓고 다른 신행에 몰두하는 것은 다 헛짓이요 심각한 장애물이라고 본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았다는 경전을 공부하는 것조차도 깨달음이라는 본령을 뒤로 제쳐놓고 한다면 헛짓이요 당장 때려치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면 도대체 가르침은 어떻게 받으라는 말인가? 피와 살을 가지고 살아 있는 선지식에게서 직접 대면하여 가르침을 받을 것을 강조한다. 사람과 사람이 대면하는 현장에서 가르침을 주고받는 것이다. 그래서 선에서는 글보다는 말을 더 신뢰한다. 실은 말도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말이란 그럴 듯한 명제, 논리적인 설명, 조리있는 설득 같은 것을 뜻한다. 선에서는 그런 말을 신뢰하지 않는다. 오히려 말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는 말로 가르침을 전하려고 한다. 이른바 선문답(禪問答)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언어를 구사하는 예이다. 언어에 구속이 된 의식의 흐름을 언어의 사슬에서 풀어내주는 언어가 선문답이다. 〈대승기신론〉에 보면 인언견언(因言遣言) 즉 말로써 말을 버린다는 구절이 나오는데, 바로 그런 취지를 담은 개념이다.

■윤원철(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묘월 장자의 법문

지혜 광명 얻어 대비이타행 실천
청정심과 진리만이 밝은 삶 영위

앞에서 견고해탈장자는 선재동자에게 '집착하는 생각이 없는 청정한 장엄해탈'법문을 설하고 나서, 다시 그 성안에 있는 '묘한 달(妙月)'이라고 하는 장자를 소개하였다. 그 장자의 집에는 항상 광명이 있으니, 그에게 가서 보살행을 배우고 보살도를 닦는 법을 물으라고 하는 것이었다.

선재동자가 묘월장자가 있는 곳을 찾아가 그에게 예배하고 나서 가르침을 청하자 묘월장자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선남자여, 나는 '깨끗한 지혜광명(淨智光明)'이라고 하는 보살의 해탈을 얻었다. 나는 다만 이 깨끗한 지혜광명이라고 하는 보살의 해탈을 알 뿐이니, 저 보살마하살들이 한량없는 해탈의 법문을 증득한 것이야 내가 어떻게 알며, 그 공덕의 행을 말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묘월장자는 자기가 체득(體得)하고 있는 해탈의 이름만을 밝히고 있을 뿐으로 그 밖의 다른 설명은 없다. 장자가 '나는 오로지 이 깨끗한 지혜광명이라고 하는 보살의 해탈을 알 뿐이다'라고 한 것은 그가 깨끗한 지혜광명을 얻어서 그것을 근본으로 하여 대비이타의 보살행을 실천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생의 특성이 무지와 어두움이라면 부처님의 특성은 지혜로움과 밝음이다. 중생이 겪게 되는 온갖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무지하고 어두운 것 때문에 비롯되는 것이다. 그러나 깨달음의 지혜 광명은 자기자신의 무지와 어두움을 물리쳐 줄 뿐만 아니라 주변 세계까지도 밝게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화엄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부처님의 성격은 비로자나(vairocana)라고 하는 이름으로 상징되는 광대무변한 지혜의 광명이 부처님의 본질로 되어 있다. 비로자나불은 일체법에 정각을 이룬 대지혜(大智慧)의 부처님이다. 비로자나(vairocana)라고 하는 말이 '빛을 두루 널리 비춘다(vai 널리, 두루두루 rocana 빛을 비춘다고 하는 의미로서, 일반적으로 光明遍照라고 번역함)'라고 번역되는 것처럼 지혜의 빛이 모든 것을 두루 비춘다는 뜻으로서 부처님의 본질이 모든 존재의 진실을 아는 지혜인 것을 나타내고 있다. 지혜는 우리들 중생의 근원적인 미망(迷妄)의 어두움을 비추어 없애는 광명으로 되어 작용하고, 그 광명은 모든 중생을 따뜻하게 감싸고 보살펴서 고뇌를 없애주는 자비로운 작용으로 되어 전개하는 참된 생명이다.

장자의 이름이 묘월(妙月)인 것은 지혜광명이 훌륭하게 작용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장자의 자비스런 지혜 광명이 중생을 이롭게 해서 세간 중생의 미혹을 타파하기 때문에 이러한 명칭이 붙은 것으로 생각된다. 지혜의 광명은 깨달음의 지혜가 중생들의 무명(無明)의 암흑을 깨뜨리는 등 여러가지로 세상 만물에 이로움을 주는 작용을 한다. 깨달음의 지혜는 항상 어둠 속에서 작용한다. 그러므로 지혜 광명이 비추는 곳은 언제나 중생들이 살고 있는 세간 속이다. 이러한 지혜가 이른바 근본적인 지혜(根本智)를 얻고 나서 그것을 활용하여 다시 다양한 지혜의 작용을 일으키는 후득지(後得智)이다. 이 후득지가 방편바라밀을 성취하여 세간 속에서 훌륭하게 보살행을 실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묘월이라는 명칭은 이 장자가 현실의 세간 속에서 어떤 것에도 구애됨이 없이 깨달음을 잘 실현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경문에서 '묘월장자가 머무르고 있는 집에는 항상 광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장자의 생활 모습을 단적으로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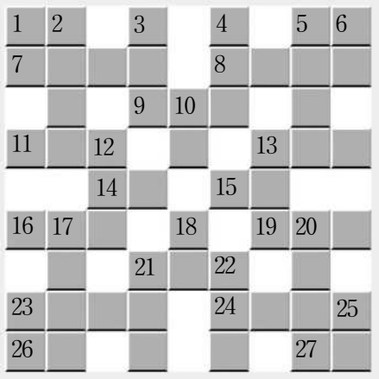
묘월장자가 체득하고 있는 '깨끗한 지혜광명'이라고 하는 보살의 해탈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세속에 몸을 담고 살아가면서도 세속에 물들거나 빠지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보살의 이상이다. 사람들 가운데에는 세속에 물들어서 혼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또한 중생들의 삶의 터전인 세상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거나 삶 자체를 비관하면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마음가짐이나 삶의 자세를 가지게 되는 원인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은 본질적으로 진리에 무지하고 어두운 것, 즉 지혜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밝고 힘찬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선 무엇보다도 항상 마음을 밝고 지혜롭게 써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반야바라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언제나 세속에 몸을 담고 살아가지만 어떠한 집착과 망념이 없고, 자비심을 가지고 다양한 방편을 써서 중생들을 교화하고 구제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의 삶에는 언제나 광명이 넘치는 삶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묘월장자의 법문은 앞의 견고해탈장자가 설하는 '집착하는 생각이 없는 청정한 장엄해탈의 법문'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고 머무르고 있는 곳도 같은 성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강대 불교문화학부 교수

상식퍼즐



정답은 26면에

가로 1. 사리나 유골을 넣고 쌓은 둥근 돌탑 5. 입헌 정치의 준말 7. 선거에 뽑혀 그 느낌을 말함 8. 국가 원수, 외교 사절, 군함이나 공적인 군대 등에 인정되는 특권 9. 부처님이 처음으로 법을 설한 곳 11. 사섭법의 하나로 타인과 고락과 화복 등을 같이하는 실천행위 13. 지원하는 사람 14. 모아서 하나로 합침 15. 새로 한 번역에 대하여, 그 전에 한 번역 16. 써서 없애는 양 19. 신문·잡지 등을 정기적으로 받아 읽고서 치르는 돈 21. 겹치는 고생 23. 전지 24. 싸움에 이긴 여세를 타고 계속 몰아침 26. 인도의 용수(龍樹)가 지은 대승불교의 중심이 되는 논서 27. 전쟁 따위에 드는 비용.

세로 1. 정당하지 않음 2. 고려 초 승려로 풍수지리에 능함 3. 조선 중기 이후 민간에 성행하였던, 예언서·신앙서 4. 초등학교 이전의 교육 기관 5.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이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헌법 재판소에 내는 소원 6. 나라의 통치 기관을 움직이는 권력 10. 민간에서 사사로이 기록한 역사 13. 일정한 지역을 한 단위로 하여 설정한 선거구 17. 부동산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여 장기주택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 18. 비구·비구니·우바새·우바이를 통틀어 부르는 말 20. 남의 의견은 묵살하고 저 혼자 모든 일을 처리하는 사람 21. 이(理)와 기(氣)의 원리를 말하는 성리학의 이론체계 22. 신라의 학자 김대문(金大問)이 쓴 책 23. 더 무겁게 함 25. 두루 갖춤.

그들의 무덤앞에 서니 죽음은 없더라



인생은 아름다워라

맹난자 지음
김영사/9천9백원

세계 대문호 29인 묘지기행
'잘 죽는 법' 꾸준히 탐구

'우리가 산다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다가 끝내는 죽음을 사랑하게 되기 위하여'

'삶이란 좋은 것이다. 죽음 역시 좋은 것이다. 죽음을 정복할 수 없다는 건 사실이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정복할 수 있다'



러시아 페테르부르크 교외에 있는 도스토예프스키 묘비 앞에선 맹난자 씨.

'묘지찾아 3만리'.

맹난자(에세이문학 발행인)씨가 괴테, 톨스토이, 헤세, 셰익스피어 등 세계적인 대문호 29인의 묘지를 돌아보고 왔다. 그 여정과 감상을 담은 책이 <인생은 아름다워라>다.

이 책에는 미국 덴마크 프랑스 일본 중국 등을 다니면서 그 나라 독자들은 물론이고 세계인들의 가슴에 영원히 살아 있는 대문호의 발자취를 더듬고 있다.

좋은 테마도 많은데 왜 하필 '묘지'일까. 책의 부제에 달려 있는 '영혼의 순례, 묘지기행'을 보는 순간 한번쯤 의문을 품게 만든다. 그만큼 '묘지'란 명사는 우리 정서상 무섭고 섬뜩하고 꺼림직한 부정적인 요소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팬들의 키스마크가 인상적인 '오스카 와일드' 묘비.

하지만 '죽음'에 관한 기록이면 무엇이든지 간에 밑줄 긋고 가위로 오리면서 20여년동안 스크랩해 온 맹씨에게 죽음은 마냥 무겁거나 어두운 주제만은 아니다. 부처님께서 목련존자의 죽음을 두고 '오직 열반락 만이 있다'고 한 일화를 경전에서 읽으며 맹씨는 불교에서 육신의 죽음이란 무의미한 것임을 깨달았다. 또한 죽음을 초탈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고단한 삶을 껴안고 끊임없이 정진해야 한다는 것도 터득했다. 이것이 바로 맹씨가 주장하는 '잘 죽는 법(?)'이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묘지기행을 마친 맹씨는 이런 전형적인 모델로 괴테와 톨스토이를 꼽았다. 치열한 삶을 살다간 이들의 작품속에서는 인생에 대한 통찰과 관조의 경지가 느껴지는 완성된 죽음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이번 묘지기행의 백미는 무엇보다도 책에서 볼 수 없었던 귀중한 삶의 진실을 발견하는데 있었다. 사르트르와 보부아르 여사는 일평생 문학과 철학의 반려자로 살아왔지만 보부아르는 죽기 전 '내 무덤을 사르트르 옆에 만들지 말라'고 유언했다. 살아생전 가슴에 쌓아둔 원망 탓이다. 그러나 재미있게도 두 사람의 무덤은 몽파르나스 묘지 양지바른 곳에 나란히 놓여 있다. 사후의 일은 남은 자의 몫이기 때문이다.

모든 여행에는 아쉬움도 있는 법이다. 맹씨는 중국 심양으로 도연명을 만나러 갔다가 가묘(假墓) 앞에서 서운한 마음을 머금고 돌아서야 했다.

무엇보다 이 책이 단순한 기행서라기 보다는 수필문학서라는 요소가 물씬 풍기는 이유는 문장 곳곳에 녹아 있는 맹씨의 소녀적 감수성때문이다. 모파상과 보들레르가 숨을 거둔 정신병원 앞을 서성이며 자신의 가족을 잃은 것처럼 슬픔에 잠겼다. 또 파리의 '미라보다리'를 노래했던 아폴리네르의 시성(詩性)을 저자 나름대로의 감성으로 다시 읊조렸다. 죽음앞에 당당했던 노신과 카뮈, 아름다움의 본질은 슬플 수 밖에 없다는 오스카 와일드, 그것을 직접 자신의 생애와 몸으로 입증해 보인 보들레르와 다자이 오사무, 애드가 앨런 포우 등이 영원히 누워 있는 현장에서 한동안 말없는 긴 침묵의 대화를 갖기도 했다.



몽파르나스 묘지에 나란히 누워있는 사르트르와 보부아르의 묘지(사진 위)와 중국 안휘성 청산에 있는 이태백의 무덤.

10여년의 묘지기행을 마친 맹씨는 이 책에 등장하는 문호들을 작품으로 만나며 공통점을 발견한다. 그들은 대부분 생전에도 삶에 대한 고통과 가난 · 사랑 · 이념 · 질병 등에 시달리며 끊임없이 분투하면서 살았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生)과 사(死)의 길목에서 남긴 그 한마디는 숙연하다. 백거이는 '인생은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다'고 했고, 카잔차키스는 '삶이란 좋은 것이다. 죽음 역시 좋은 것이다. 죽음을 정복할 수 없다는 건 사실이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정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헤세도 '우리가 산다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다가 끝내는 죽음을 사랑하게 되기 위하여'라고 말했다. 또 임어당은 '인생을 널리 아름다운 한편의 시'라고 노래했다.

맹씨는 "어린 나이에 세상을 먼저 떠난 동생의 묘지가 택지 개발로 쓸려나갈 때부터 덧없는 인간의 실체를 확인하고 싶어 죽음이란 화두에 몰두했다"며 "현재 내 자신의 삶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바로 다른 사람들의 무덤을 보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 맹씨는 "특히 불꽃처럼 살다 간 작가들의 일생과 작품 배경을 더듬어 보면서 그들이 삶과 죽음을 어떻게 바라봤으며 작품속에서는 어떻게 반영했는지, 그리고 자신의 죽음과는 실제로 어떻게 부합되는지를 살펴보고 싶었다"고 이번 출간의 의의를 덧붙였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전문가 서평



대몽골 시간여행

배석규 지음
굿모닝미디어 펴냄/3만원

광활한 대륙을 경영한 유목민들, 불굴의 모험정신으로 끝없는 이동과 변화를 통해 제국을 경영했을 때 세계는 그들의 발 아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이동을 멈췄을 때, 제국의 역사도 함께 중단됐다. 칭기즈칸이 통치한 몽골은 바로 이런 유목민이 세운 대표적인 국가였다.

<대몽골 시간여행>은 '유목 제국의 세계 경영사'라는 부제하에 천년에 가까운 몽골사를 복원했다. 책은 저자를 비롯한 14명의 YTN 취재기자들이 2만Km가 넘는 유라시아 대륙을 100일 이상 누비며 영상에 담은 화면과 기억들을 글로 풀어낸 것이란 점에서 자못 흥미롭다.

또한 이 책을 읽는 동안 700여 년 전의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면서 유목민들이 만들어 낸 영광과 어둠의 역사를 수많은 자료조사와 인터뷰, 답사를 통한 현지 검증으로 조명해서 인지 땀냄새가 책속의 곳곳에서 느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 때문에 YTN 홈페이지와 야후 코리아 뉴스 사이트에 432회에 걸쳐 이 책의 글들이 연재되는 동안 네티즌들의 반응이 높았다고 들었다.

유라시아 지배한 몽골 1천년史

100일 이상 2만Km 누비며 영욕의 시간 기록

저자는 이 '유목민 정신'의 회복을 역설하며 한반도에서 북방의 조선족과 중앙아시아의 고려인, 그리고 그 중앙의 몽골인을 연결해 유라시아를 횡단하는 '신 실크로드'를 꿈꾼다.

칭기즈칸 시대에 초점을 맞춰 온 그동안의 관점들과 달리 이 책은 그 시대는 물론 그 이후의 융성기와 몰락 과정을 그렸다. 300장에 달하는 관련 사진과 지도, 인물 추정도도 곁들였다. 이 모두가 당사국인 몽골은 물론 한국 중국 중앙아시아 역사학자들의 증언과 자료들을 바탕으로 했다.

칭기즈칸은 자손들에게 유목민의 기질을 잃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 정신을 지키기 위해 쿠빌라이칸은 궁궐 안에 몽골인의 이동주택인 '게르'를 설치해 놓고 그 속에서 잠을 잤다. 그러나 몽골인들이 정주민 사회의 안락한 생활을 배워나가면서 결국 세계제국은 무너졌다. 그리고 16세기 말 알탄칸의 주도로 티베트 불교로 개종한 뒤 용맹한 몽골 전사들은 활과 칼 대신 불경을 들게 됐다.

저자는 '붉은 영웅'이라는 뜻을 지닌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초원과 가축, 가옥들의 모습을 보면서 몽골의 어제와 오늘을 교차시킨다. 초원에서 말을 비롯한 가축을 키우며 산 가난한 유목민들이 세계 경영의 역사를 만든 과정은 오늘날의 현실과 대비해 많은 교훈을 준다. 바로 이러한 몽골의 세계 경영사는 유한한 자원으로 세계 무역시장을 개척하려는 국가들이 벤치마킹할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책을 읽는 중간중간마다 기자출신인 저자가 곁들이는 역사적 사건과 사실은 몽골사를 한획으로 조망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와 밀접한 관계에 있었지만 사실상 먼나라였던 몽고의 역사를 새롭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 김남기(한솔여행사 대표)

우 · 리 · 절 · 은 · 불 · 자 · 여 · 러 · 분 · 을 · 사 · 랑 · 합 · 니 · 다

◆ 교통편
1. 강변역 → 광주 → 곤지암 1113-1
2. 잠실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1
3. 양재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2

곤지암 우리절

천도재 기도도량 · 대비주 기도도량 우리절!

우리절 정기기도 · 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일요법회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자녀 및 입시기도 목련사랑법회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특별대비주기도회
- 매월셋째 화요일 오후 2시 ~ 4시 부 산 동 선 회 법 회
- 곤지암터미널 – 우리절 셔틀버스 운행

우리절은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대비주 기도도량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장장 5시간에 걸쳐 논스톱으로 올리는 대비주 기도에 불자님들의 모든 바람을 한번 멋지게 걸어보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절은 온갖 정성을 다 기울여 선망조상 영가님들을 천도하는 역시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천도재 기도도량입니다.
주[대비주 = 신묘장구대다라니]

생전예수재법회 I

칠재	날짜	요일	특별법회 / 행사내역	장 소
입재	2.29	일	입재법요식	우리절
초재	3.07	일	윤달삼사순례	보문사
이재	3.14	일	주장자법회	우리절
삼재	3.21	일	태화산산신제	우리절
사재	3.28	일	점안법요식	우리절
오재	4.04	일	서옹큰스님사리친견법회	백양사
육재	4.11	일	관정법요 · 경전봉정식	우리절
막재	4.18	일	수의점안 · 봉송법요식	우리절

제6재 관정법회에 참여한 분들에게는 동봉스님의 사언절 <<지장보살본원경>>을 봉정한 뒤 나눠드립니다. 이 <<본원경>>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지장기도를 할 수 있게끔 필요한 내용이 모두 수록되어 있습니다. 판매용일 경우라면 권당 30,000원 이상이 될 것입니다만 무료로 보시합니다.
막재에서는 윤2월을 보내면 여러 어르신들을 위해 효도선물이 될 금강경탑다라니 명주판을 점안하여 보급합니다.
명주탑다라니는 2장 1세트에 24,000원입니다.

생전예수재법회 II

우리절에서는 오는 4월 18일(음력 윤2월 그믐날) 생전예수재 회향 때에 맞춰 불자님들께서 미리 장만해 두었던 수의를 가져오시면 거룩하고 장엄하게 점안을 해 드립니다. 역법상 몇백년만에 한 번 올까말까 한 중요한 윤2월에 부처님 앞에서 수의를 점안하였다가 입혀드리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점안동참비는 무료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우리절 http://www.urijeol.com / 우리절.com /우리절.net 우)464-881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상림리178 전화 031)763-4674-5 / 팩스 031)763-2150

법화경
정승석 지음
사계절 / 1만2천원





국보 185호 <묘법연화경>. 고려 공민왕 22년(1373)에 은색 글씨로 정성들여 옮겨 쓴 것이다.

대립에서 조화와 통일로

"<화엄경>이 현묘하고 심오한 무애의 경지를 펼쳐 보인다면 <법화경>은 그 경지를 실천하는 방편을 보여주는 경전입니다. 방편으로 진실을 유인하는 <법화경>의 매력이 동북아시아에 '법화 신앙'을 만발하게 한 것입니다."

다양한 비유와 문학적 구성으로 오늘날까지도 널리 읽히는 <법화경>.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과 일본에서 '법화 신앙'으로 거듭난 <법화경>은 중국 수나라에서는 국가 통합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고려에서는 창업의 정통성을 선전하기 위한 방법으로 널리 유포됐던 경전이다. 하지만 그동안 선보인 <법화경> 관련 책들은 경전 구절의 풀이에 머물러 경전이 가지는 참 의미와 사회 · 역사적 의미를 알기에는 부족했다.



단순한 경전풀이에서 벗어나
탄생과 전파과정
역사적 맥락에서 조명

최근 정승석(48 · 동국대 인도철학과 · 사진) 교수가 펴낸 <법화경-민중의 흙에서 핀 연꽃>은 이러한 갈증을 시원하게 풀어준다. 정 교수는 책에서 단순한 경전 풀이 대신 <법화경>의 탄생과 동아시아 전파의 역사적 맥락을 살피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법화경>이 과연 민중 지배를 위한 정치이데올로기였나'라는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한 답을 찾고 있다.

"<법화경>은 범어 원전이 다양한 사본으로 현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매력의 실체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직 <법화경>은 과거의 전설 속에 갇혀 있는 셈이죠."

때문에 정 교수는 책에서 <법화경>이 우리나라와 일본으로 널리 퍼진 시기와 법화 신앙의 유행 등 '법화경의 역사'를 통시적으로 추적하고 있다.

<법화경>은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하는 것'을 제일의 목표로 삼았던 구마라습(344~413)의 번역본인 <묘법연화경>을 통해 중국에 소개됐다. 이후 법화 신앙은 우리나라와 일본에 전래돼 민중들의 삶 속에서 화려한 꽃을 피우게 된다. 정 교수는 동북아시아에서 법화 신앙을 번성하게 한 토대인 천태종의 성립과 전파, 교세 확장 과정을 설명하며, 이러한 상부구조가 민중의 저변으로 파고들어 튼튼한 하부구조를 형성하게 됐다고 말한다. "<법화경>을 국가와 사회의 지도 이념으로 신봉한 소수 엘리트 집단과 <법화경> 자체를 맹목적으로 신봉한 다수의 집단이 '법화신앙'을 싹트게 한 저력"이라는 것이다. 일례로, 일본의 일련종은 '나무 묘법연화경'을 열심히 읊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 단순한 신앙형태지만, 민중들 사이에서 폭넓게 유행한 사실을 들 수 있다.

이 밖에도 <법화경>의 중심 사상을 전달하는데 사용된 일곱 가지 비유 즉 '법화 7유'를 간추려 소개한다. '부록'에서는 <법화경>의 성립 시기와 '정법화경', '첨품묘법연화경' 등 다양한 번역본을 통해 <법화경>의 원형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 교수는 <법화경>에 담긴 사상과 방법론이 '옛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오히려 갈등과 대립이 난무하는 요즘 같은 세상에서 <법화경>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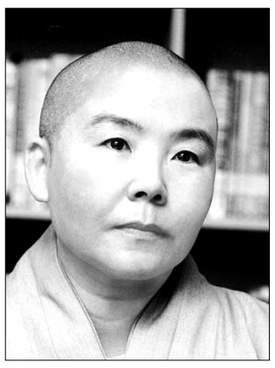
"서구 문명이 발전하는 데 기독교 정신이 공헌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갈수록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문명과의 조화를 모색하는 길을 <법화경>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화경>이 표방하는 '일승사상'은 다양한 견해와 입장이 지니는 가치를 인정하고, 갈등과 대립을 평등과 조화의 통일로 이끄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법화경>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수행자의 '멋진 생활' 엿보기

스님 요즈음 뭘 하십니까
정운 스님 지음
여시아문 / 9천원





"종교는 내 속에 잠재돼 있는 에너지의 방향 전환이다. 또 비우는 연습이다. 현실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하고 방향을 전환한다면 이보다 더 멋진 생활이 있을까 싶다."

충남 보령 세원사 주지이자 보령 청소년 상담실, 청소년 자원봉사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는 정운 스님(사진)이 수필집 <스님 요즈음 뭘 하십니까>를 펴냈다. 1999년부터 일간지와 교계 신문, 잡지 등에 기고한 글 60여 편을 모은 이 책에서는 청소년 포교에 앞장서 온 스님의 수행이력을 볼 수 있다.

청소년 포교 · 스승과 도반 이야기 등
신문 · 잡지에 기고한 글 60여편 묶어

스님이 보령시 주교면의 고추밭을 법향(法香) 가득한 세원사로 탈바꿈시킨 것은 한 아주머니 덕분이다. 우연히 보령 나들이에 나선 정운 스님이 자신을 '아주머니'라고 부르는 사람을 만난 후 '이곳에서 포교를 해야겠다'는 원을 세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추밭을 개간해 지은 가건물은 장마철이나 태풍이 불 때면 이곳저곳이 무너져 내리기 일쑤였고, 겨울이면 아무리 보일러를 가동해도 손이 시릴 정도였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스님은 어린이 · 청소년 포교에 매진했다.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에서 어린이 법회 지도법사로 활동하며 포교의 중요성을 실감했던 스님은 세원사에서 어린이 법회를 열었다. 처음에는 단 세 명의 신도만이 참석했지만 입소문을 타고 차츰 절을 찾는 사람들이 늘기 시작했다.

그러던 1989년 마침내 가건물을 헐고 지금의 법당을 지었다. "청소년 사업은 눈에 보이지 않는 투자"라고 말하는 스님은 "모든 것을 내 이익으로만 채우지 말고 그 이득을 다시 사회로 환원할 줄 아는 것이 부처님이 중생들에게 일러 준 회향이다"고 말한다.

신문과 잡지 등에 실린 글들은 길지 않으면서도 생활 속에서 느낀 포교의 어려움, 잘못된 청소년 문화에 대한 안타까움, 수행자로 산다는 것의 보람과 기쁨 등을 잔잔하게 전해준다.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심응섭(혜전대학) 교수의 삽화가 글 읽는 맛을 더한다.

덧붙여 정운 스님이 '요즈음 뭘 하시는지' 궁금한 독자라면 본지의 일간 인터넷 '붓다뉴스(www.buddhanews.com)'를 클릭해보면 된다. 스님은 이곳에서 '1분이면 마음이 열려요'란 커뮤니티를 운영하며 불자들의 신행을 돕고 있다. **여수령 기자**

'경험과 번뇌' 경전공부의 바탕

틱낫한 스님의 금강경
틱낫한 지음 / 양미성 · 김동원 옮김
장경각 / 8천5백원



우리나라에서 가장 널리 읽히는 경전인 <금강경>을 틱낫한 스님이 풀이했다. 경전 읽기를 수행의 방편으로 삼으라는 스님은 "모든 개념을 떠난 고요한 마음으로 <금강경>을 읽되, 주석을 먼저 읽지 말고 경전부터 읽으라"고 강조한다. 자기 자신의 경험과 번뇌를 바탕으로 경전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라는 것이다. 또한 스님은 "금강석이 무지와 번뇌와 망상을 깨부수는 것을 의미하는 <금강경>의 이름처럼, 경전을 익히고 수행함으로써 무지를 깨고 그릇된 생각을 뛰어 넘어 해탈의 언덕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한다.

책에서는 단순히 경전 뜻풀이가 아니라 부처님의 말씀을 실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새로나온 책

■ **<30분에 읽는 달라이 라마>**(제네이에브 블레이스 지음, 강주헌 옮김, 랜덤하우스중앙, 5천5백원)="달라이 라마는 누구인가?" 최근 티베트 불교와 달라이 라마에 대한 책들은 넘치지만 정작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란 쉽지 않다. 달라이 라마의 생애와 사상, 주요 저서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도와준다.



■ **<365일 부처님 말씀>**(윤창화 엮음, 동승동, 7천5백원)="나쁜 말, 거짓말, 이간하는 말로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어떠한 악행도 못할 것이 없게 된다.(화수경)" 경전 속 부처님의 말씀 중 생활 속에서 되새겨 봄직한 문구들을 하루에 한 편씩 읽을 수 있도록 가려 담았다.



■ **<내 안의 행복을 찾아서>**(리차드 아텐보로 엮음, 장상영 옮김, 8천8백원)=영화 '간디'로 1983년 아카데미 최우수감독상을 수상한 영화감독 겸 배우 리차드 아텐보로가 간디의 글을 묶었다.



■ **<초여름의 향기>**(서성림 시집, 경서원, 5천원)=불자로서 수행과 글쓰기에 매진하고 있는 서성림 시인의 시집. "내 마음에 끼인 얼룩 때/ 날마다 씻어도/ 다시 찰싹 붙어있다"('수행' 中)나 "그랬구나/ 인간의 어리석음은/ 끝이 없구나"('중생 소견' 中) 등 자신을 비워가는 과정을 담은 작품들을 보이고 있다.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 · 편자	출판사
1	불교의 수행법과 나의 체험	우룡 스님	효 림
2	백일법문	성철 스님	장 경 각
3	아! 붓다	틱 낫 한	반디미디어
4	수행의 단계	달라이 라마	들 녘
5	불교수행법 강의	남 회 근	세상을 투리는 사람들
6	대승입능가경 외	동국역경원편집부	동국역경원
7	화두참선	이 계 묵	우리출판사
8	불교의 이해와 신행	조계종포교원	조계종출판사
9	밥상에 도가 있다	정 세 채	모 색
10	틱낫한 스님의 반야심경	틱 낫 한	장 경 각

도서 안내:(02)737-0695



〈 바로보인 선문염송 제4권 출간 〉
『선문염송』은 세계 최대의 공안집으로서 1,454칙의 본 공안마다 여러 선사님들의 법문과 송이 딸려 있다. 역저자인 대원 문재현 선사는 선문염송 매 칙마다 도움말과 송으로 취모검을 휘둘러 법문의 참 의중이 숨어 있는 공안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였다.
www.zenparadise.com
☎ 02-597-2460 도서출판 바로보인

제13회 행원문화상 수상자를 찾습니다

본 재단에서는 매년 불교 문화 발전을 위하여 훌륭한 업적을 이룩하신 분들을 찾아 포상하고 있사오니 다음 요령에 따라 많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상 부문

수상대상선정기준		인원	상금
역경상	불전을 국역하거나 역경사업에 이바지 하신 분	3 명	각 300만원
문학상	불교사상을 토대로 시, 소설, 극문학(희곡, 방송극, 시나리오 등)창작에 탁월한 업적을 이루신 분		
예술상	1. 불교사상을 토대로 예술(음악, 미술, 연극, 무용) 분야에서 업적을 이루신 분(서화부분 제외) 2. 방송, 연예활동을 통해 불교사상을 선양 홍보하고 대중교화(포교)에 이바지 하신 분		

2. 구비서류
① 신청서 또는 추천서(지정양식) ····· 1 통
② 이력서(명함판 사진 3장) ····· 1 통
③ 공적서 및 증빙자료(최근 2년이내 실적자료) ····· 1 통

3. 제출처 및 신청 마감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03-67 강남종합상가 10동 401호 재단 사무국 (우편번호 137-070)
☎ 02)586-6521~2 / FAX 521-9948
· 신청마감 : 2004년 6월 3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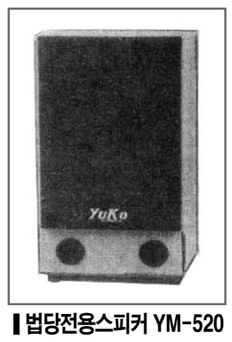
4. 심사 발표 및 시상일
· 본 재단의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수상자에게는 개별통지 및 불교관계 신문 발표
· 시상일 : **2004년 9월 24일 금요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재단 사무국 (02)586-6521~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財團法人 行願文化財團
理事長 朱永云

사찰, 법당, 앰프 설치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硏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아무리 먼 곳이라도 출장비는 받지 아니합니다)
소리공양 실적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www.yukosound.com



염불, 설법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스텐드 마이크
가격 : 250,000원



법당전용스피커 YM-520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법당전용 스피커
▷ 고성능 무선마이크 ▷ 각종 마이크 판매

비구니스님 특별우대!

유 코 음 향 연 구 소
소장 김문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2601-8284 팩스 (02)2695-9676
홈페이지 : www.yukosound.com

물 맑고 산 좋은 양수리
무궁화공원
▷ 서울에서 40분 거리의 편리한 교통
▷ 북한강이 보이는 명당의 산세
▷ 온 종일 비추는 일광조건
▷ 다양한 형태의 묘지설치
▷ 수도권 최고 저렴한 가격
▷ 이장 무료상담
상담전화 : 031-775-0114



제9회 현대불교 신행수기공모

특별상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상)

채상희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언어도단의 세계를 언어로 표현함이… 〈중〉



그림 · 김흥인

저는 마음 속으로 '그래, 수술은 잘 되려는가 봐' 하며 남편을 바라보니 남편 역시 비몽사몽간에 부처님의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8시경에 아이는 병실로 옮겨졌으며 9시경 회진하는 의사 선생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 것 이었습니다. 아이를 전신 마취시킨 후 수술실에 들어가 메스를 대려 하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다시 한번 맞추어 보지' 하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혹시나 해서 뒤를 보니 아무도 말한 사람이 없었으며 다시 또 메스를 대려 하니 똑같이 그 이야기가 들렸답니다.

원래 정형외과 의사들은 뼈를 맞추고 주무르고 해서 치료를 하기도 하지만 '튀어나오고 산산 조각이 난 뼈를 어찌 맞출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어린 아이고 후유증도 만만치 않으니 다시 한번 주무르고 땡기고 해서 뼈를 대충 맞추다 보니 튀어 나온 뼈가 신기할 정도로 들어 가더랍니다. 오! 부처님이시여, 관세음보살이시여, 고맙고 고맙습니다.

수술 안하고 기적처럼 치료

두달 후 다시 고관절 골절

불보살의 불가사의한 위신력으로 우리 아이가 살아난 것입니다. 제가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퇴원 후 두 달 동안 아이는 꼼짝 할 수 없었으며 학교 역시 다니지 못하고 있었지만 수술을 하지 않고 나을 수 있었던 기적에 대해 전 항상 고마워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중간고사가 다가와 아이는 시험을 치르러 학교를 가게 되었고 마지막 시험이 끝나는 날, 또다시 제게 커다란 비극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 범부 중생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시험을 보고 난후, 교문 밖에서 아이를 기다리고 있던 제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엄마 나 못일어나" "다 나았어 일어나봐"

"민우 어머니, 민우가 많이 다쳤는데 어서 오세요."

'이런 청천벽력이…어디를 또 다친거야.' 달려가 보니 아이는 운동장에 큰 대자로 누워있었고, 그런 아이를 보고 숨이 멈춰질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연인즉 시험이 끝나고 운동장으로 나오는데 축구공 하나가 '또르르' 굴러 오는 것을 보고 두 달이나 집에서 누워 좋아 하던 운동도 못하던 아이는 '이때다' 싶어 오른 발을 들어 공을 차는 순간, '뚝' 소리와 함께 고꾸라지고 말았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였습니다.

119의 도움으로 다시 병원으로 향하였고 의사들은 아이에게 손을 대지 못하고 헝겊을 집어 넣어 운반한 뒤 수없이 X-ray를 찍고는 고관절이 부러졌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잠시 응급시트에 누워 있던 아이는 전날 밤을 꼬박 새운지라 잠이 들었던가 봅니다.

저는 이때 참으로 아이가 미웠습니다. 어쩌면 이럴 수가. '겨우 두 달이 지났잖아' 하며 한숨을 내쉬는 제게 아이는 잠이 깨었는지 "엄마, 나 꿈에 절에 다녀왔어" 하지 않겠습니까? 전 시큰둥하게 "넌 그 잠시 동안 멀리도 갔다 왔구나" 하고 대답했습니다.

아들은 계속 혼자 절에 갔기에 엄마가 걱정할까봐 전화를 하려 했는데 그곳에는 전화가 없었고 마침 지나가시는 스님을 뵙고 여쭈어 보니 그 스님 말씀이 법당에 가서 부처님 사타구니에 손을 대고 마음속으로 '엄마, 나 잘 있으니 걱정 마세요 하면 너의 엄마가 아실거야' 하시더랍니다.

아이는 부처님의 사타구니에 손을 대고 이야기 하였고, 곧 잠이 깨었다고 합니다. 저는 순간, "민우야, 너 일어나 봐"하니 아이는 쩔쩔 매며 "엄마, 나 못 일어나."

불과 5분, 아니 3분전에 들것에 실려온 아이가 일어난다는 것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전 아이에게 일어날 것을 종용하였습니다.

이번엔 나에게 시련 찾아와

가족들 충격 안받게 비밀로…

"너, 다 나았어. 일어나도 돼. 얼른 걸어봐" 하는 이야기가 믿기지 않은 듯 아이는 망설였지만 급기야 일어나 제법 멀리에 있는 화장실까지 다녀오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놀란 의사들이 뛰어 왔으며 옆에 있던 환자들도 눈이 휘둥그레 졌으며 X-ray상 우리 아이는 고관절이 부러져 기브스를 하고 8주간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실제 상황은 그와는 너무나 다르게 유유히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불자 여러분, 이렇게 믿기지 않는 일들이 저의 집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저의 가족은 항상 부처님께 감사드리며 함께 한다는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정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련의 끝은 아니었는지 믿음을 더욱 돈독히 하게 하심이었는지 2000년 제게 커다란 시련이 다가 왔습니다.

좌우 가슴에 종양이 4개씩 생겨서 절제하기도 그렇고 치료를 해 보아야 할 것 같다는 비극적인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두 아이에게 초유 한 번 먹이지 못한 저는 항시 유방암을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드디어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당황 하지도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가족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기에 제가 아프다는 이야기는 비밀로 했습니다. (계속)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만 꼭꼭 담아두었던 감동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연중 접수한 신행수기 가운데 우수작은 신문에 연재하며, 연말에 최종 심사를 거쳐 시상합니다.

- 주제: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722-4162
- 인터넷 접수: thatiswhy@buddhapia.com

릴레이 수행일기 〈상〉



김성규
영남대 의대교수

불교를 처음 접했던 고교시절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인다. 여름 방학 동안 남산 칠불암에서 함께 공부했던 그립고 보고 싶은 얼굴들이며, 불적을 찾아 천방지축 돌아다니던 그때 그 모습들.

남산을 뒤흔들어 놓던 새벽 종성과 목탁소리. 옛날 원효와 대안 스님이 참선했다던 참선대에 앉아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는 경이로움. 남산에서 하룻밤을 묵고 나면 세속의 모든 번뇌에서 벗어난 것처럼 반짝이던 눈빛. 설익은 수행자들의 모든 재롱들을 말없이 바라보고 계시던 칠불암 부처님. 남산의 그 혼 속에서 나의 신행은 익어가고 있었다.

분황사와 경주고등학교 강당을 들락거리며 영남불교학생회 300여명이 함께 가진 동계수련대회. 경주시내 도량석을 마치고 났을 때 너무 추워 손과 발이 모두 꽁꽁 얼어붙었고, 입이 떨어지지 않아 한참을 말도 할 수 없었던 기억들.

고교때 경주 남산서 수련회 '환희심'

믿음과 수행이 둘아닌 삶 되도록 노력

표충사 수련대회를 준비한다고 하이타이 풀어 수 십년 묵은 때를 땀 뻘뻘 흘리며 밀고 밀던 일이며, 해산 스님의 그 자상한 미소. 수련대회중 1080배를 마치고 났을 때 새벽의 의미와 함께 온 전신을 엄습한 환희심은 20년이 지난 오늘도 잊혀지지 않고 생생한 감동으로 남아있다.

그때 불교 중흥하자고 다짐했던 수많은 그리운 얼굴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고 있을까? 아직도 불자로 남아 있을까? 생활을 탓하며 더러는 개종도 했을 법하다.

결국 인간이 살아가면서 주어지는 제일의(第一義)적 의미는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 명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공통과제이며, 우리의 삶 또한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이 명제를 구체화 해 가는 것이다. 믿음과 수행을 통하여 현실적인 삶을 소중하게 할 수 있고 과거의 잘못은 벗어버릴 수 있으며 다가올 미래는 광명과도 같은 밝은 빛이 될 것이다.

평소 갖고 있는 나의 믿음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불교 신행인으로서 나는 무엇을 믿고 있으며, 어떻게 생활하려고 노력해 왔던가 되돌아 본다.

첫째, 나는 인과법칙을 믿고 있다. 인과법칙을 확신하는데서 우리의 삶의 형태는 구원과 종속에서 벗어나, 창조로 이뤄지며 자기가 행하고 있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확신과 소신을 가지고 진실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나의 믿음이 수행으로 이어지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다. 수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어떻게 생활속에 불교가 심어지겠는가? 생활과 불교는 둘이 아니다. 절에서 법회를 보고 있을 때만 불교인이고 집에 돌아오면 불교와 무관한 것이 우리 불자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이다. 수행은 믿음을 성숙시켜 열매를 맺게 하는 거름과도 같고 흘뜨려져 있는 것을 같은 방향으로 향하게 하는 작업이다. 수행을 통해 얻어지는 자유와 평온함이 바로 생활과 직결되어야 하며 생활 자체가 수행의 도량이어야 한다.

아침에 일어나 단 30분이라도 좋다. 참선을 하든, 독경을 하든, 기도를 하든지 자기 것이 될 때까지 매일 행해야 한다. 그 행함이 자기 자신의 한 부분이 되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불교인이 될 수 있으며 진실한 삶을 추구하는데 자기 자신을 참여시킬 수 있는 것이다. 매주 참석하는 일요 법회는 여가선용이 아니다. 한 주를 보내고 정리하면서 다시 맞이할 새로운 주를 설계하면서, 스님의 청음과 함께 가장 소중한 시간에 법회는 열려야 한다. (계속)

2003년도 불교역사를 한눈으로 『현대불교신문 합본 9집』 발간

현대불교신문 2003년 합본집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하 두 권으로 나누어 제작되었으며, 2003년부터 호당 32면으로 증면되어 더욱 풍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현대불교신문 합본집은 큰스님 법문, 이해하기 쉬운 불교교리, 생활의 지혜, 불교문화자료 등이 수록되어 있어, 불자님들에게 더 없는 불교의 길잡이가 될 것이며, 스님들에게는 수행의 반려자가 될 것입니다.



■ 구입 안내
- 구성 : 상권 2003년 1월(402호) ~ 6월(427호)에 발행된 현대불교신문
  하권 2003년 7월(428호) ~ 12월(453호)에 발행된 현대불교신문
- 판형 : 신문원형 그대로 (40cm×55cm)
- 절차 : 신청 → 입금확인 → 발송
- 가격 : 상하권 총 80,000원
- 입금계좌(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국민 245-25-0001-461 | 농협 053-01-236053 | 우체국 010041-01-010042

■ 주문 및 문의
- 전화 (02)737-0090 (直) (02)737-8881 (代) | 팩스 (02)737-0697
- e-mail : sclee@buddhapia.com
  현대불교신문사 경영관리국 관리부

■ 지난 호 구입가격은 60,000원(발송비무료)입니다.
지난호는 1998년도,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합본이 신청가능합니다.
재고가 많지 않으므로 빨리 신청하세요



보문사 선사 7인 초청 대법회

한 순간 마음 놓치면 번뇌망상에 빠져

지상 백고좌

(오른손으로 주장자를 수평으로 높게 들어 보이며) 잘 보십시오. 잘 보셨지요?

(주장자로 법상을 내리쳐 '쿵' 하는 소리가 난 후) 잘 들으셨습니까?

주장자를 잘 보고 주장자 소리를 잘 들었으니 이보고 듣는 가운데 알아 차렸다면 오늘 법문을 잘 들으신 겁니다. 제가 오늘 다른 스님들과 같이 똑같은 주장자를 들어 보이고, 소리를 내어 보였지만 특별한 뜻을 부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저 주장자를 보고, 소리를 듣는 거기에 초점이 있는 줄 아셔야 됩니다.

선 법문이라고 하면 사실 직접적으로 선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법문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실참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법문을 시작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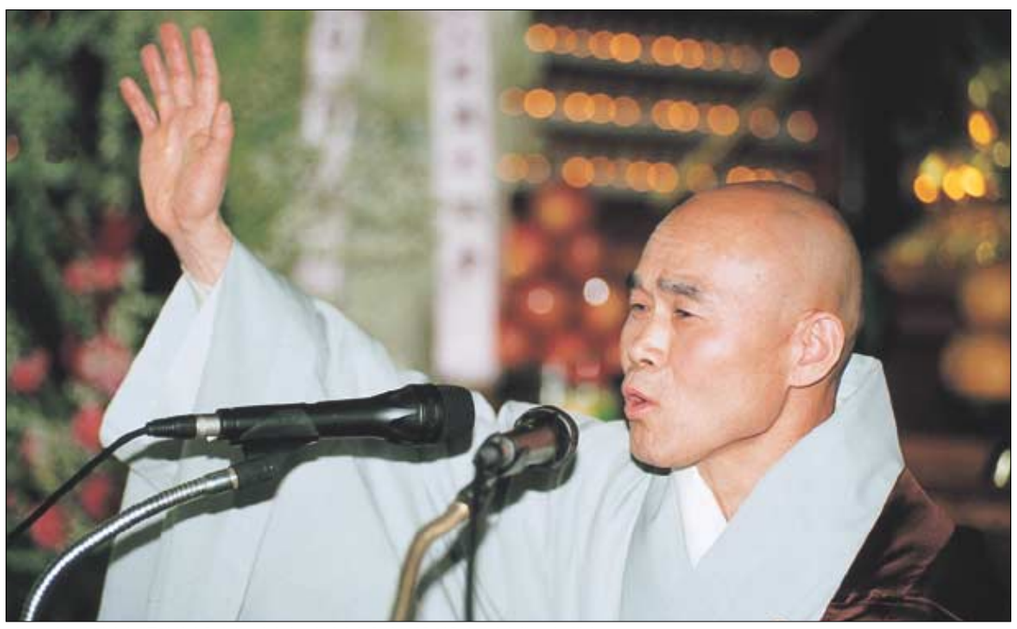
우리가 조사 스님의 법문이나 큰스님들의 법문을 들으면 알 수 없는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직접 깨달아 선의 경지에 들어가 보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경지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스님들이, 실천해 보면 안다는 의미로 대중이

마음 깨닫는 것이 연기법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법문 하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틀을 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 경전은 누가 봐도 쉽게 알 수 있고 누가 들어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대중법문을 많이 다니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설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주장자를 들어보이고 소리를 내는 행위에 대해 듣는 모습과 소리에 초점을 맞추어 보시라고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방금전 주장자를 든 것을 보고 치는 소리를 들었는데 무엇이 보고 무엇이 들었습니까?

바로 마음이 보고 마음이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부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선을 하고 수행을 하는 것은 바로 이 마음을 바로 알고 깨닫고자 함입니다. 우리가 화두 참선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일오 스님은 "현재심이 새롭게 살아 움직이는 법이 화두법"이라며 "참선수행을 게을리 하지말라"고 당부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때 과거·미래 잊고 지혜 눈 떠

<금강경>에 보면 '과거심(過去心)도 현재심(現在心)도 미래심(未來心)도 불가득(不可得)' 이라고 했습니다. 왜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과거, 현재, 미래의 마음이 모두 얻을 것이 없다고 했지만 어떤 장소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우리는 이 현재심에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제가 볼 때 이 순간, 현재심을 여의고는 아무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떠나서 부처가 따로 없다고 하는 것도 바로 이 도리와 상통합니다.

그래서 보고 듣는 가운데 다 알아 차렸다면 오늘 법문 잘 들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량겁(無量劫)을 살아오면서 쌓아온 업장 때문에 이 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바로 보기 위해서는 이 업장을 소멸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업장을 소멸하는 것은 사실 마음을 깨닫는 법, 마음을 밝히는 법입니다.

현대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오욕락의 성취가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오욕락을 성취해야 된다고 믿는데 이렇기 때문에 탐욕이 생기고, 욕망 성취가 되지 않으면 불만족으로 괴로워하게 됩니다. 더불어 일어난 욕망을 성취하려고 하다보니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모든 허물은 바로 여기서 생기고 업장도 두터워집니다. 업장 소멸의 방법은 많지만 '나' 에서 벗어날 때 진정한 도리를 깨달을 수 있어요.

팔만사천 부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은 바로 삼법인(三法印)입니다. 제행무상(諸行無常), 제법무아(諸法無我), 열반적정(涅槃寂靜) 등 세가지 이치를 말합니다. 그러나 제행무상과 제법무아는 별개의 것이 아니고 전부 하나의 연기적 현상으로 설명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연기를 보는 자 법을 본다, 연기를 보는 자 나를 본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조사 스님들이 내세운 마음 깨닫는 법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 이 연기를 깨달은 것입니다. 마음 가는 것도 연기에 의해 생겨난 것이고 조건에 의해 생겨난 것이기에 제행무상, 제법무아라고 했어요. 그래서 선종에서는 오직 일심(一心)만 깨달으면 우리 마음을 깨달을 수 있다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각경> 보안보살장에 오색 구슬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색영롱한 구슬이 있는데 그것이 아름답다고 구슬을 깨어 보면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겉에서 보면 안에 무언가 들어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지요.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와 같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떠올리는 마음이 영원히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마치 구슬 안에 본래 오색영롱한 다섯 색깔이 들어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과거심도 현재심도 미래심도 불가득이라고 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인연에 따라 일어나고 없어지는 찰나생찰나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한번 태어나서 죽는 것을 생사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마음이 일어나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고 마음이 사라지면 죽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항상 변하기 때문에 무상하다 한 것입니다. 이 도리를 모르고 그냥 허무적인 무상, 무아를 해석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살 행위입니다. 이 모두가 연기의 이치인 셈이죠. 현상계가 무상하다는 것을 알고 안으로 한 생각이 일어나고 꺼지는 이 마음을 잘 관찰해 보십시오. 실체가 없이 순간순간 일어났다가 없어지는 이치를 깨닫는다면 그것이 바로 연기법을 아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수행을 하다보면 잠시라도 마음이 하나로 집중되는 삼매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순간은 바로 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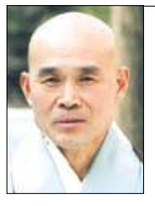
'나' 에서 벗어날때 도리 깨쳐

심과 미래심이 끊어진 현재심만이 존재하게 됩니다. 과거심은 이미 지나간 마음이고 미래심은 아직 오지 않은 마음이기에 현재심 만이 남아 있게 되는 상태입니다. 현재심이라고 하는 이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심에 초점을 맞추자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주장자를 들어 보이고 소리를 냈을 때 보고 듣는 그것이 바로 현재심입니다. 보고 듣는 그 순간 드러난 마음이지요. 이 현재심에 집중하기 위해 수행법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느 수행법보다 화두 수행법이 좋다고 하는 것은 화두를 참구하다 보면 바로 이 현재심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두에 의심이 붙어 한 생각에 빠질 때 과거도 미래도 모두 끊어져 버립니다. 화두가 가장 잘 되는 순간이 바로 이 현재심을 가장 잘 다스리는 순간이고 현재심이 가장 온전하게 드러나는 상태인 셈이지요. 이때 지혜가 생겨납니다. 현재심이 새롭게 살아서 움직이는 법이 화두법입니다. 그러나 실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수행을 직접 해서 그 맛을 봐야 부처님이나 조사 스님들이 왜 그리 공부 하라고 강조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조사 스님들이, 너의 본래 면목을 찾아라, 마음의 주인공을 찾으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현실을 떠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무언가인 참 주인공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조사 스님들의 뜻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무아라고 했습니다. 실체를 가지고 변함없이 그대로 존재하는 나라는 것은 없다는 뜻이지요. 무상, 무아인 줄 알고 현상계가 괴로운 것인지 알아야 여기에서 보리심을 내게 되고 연기의 이치를 바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뜻을 확연히 드러내는 계송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밤에 잘 때 항상 같이 자고 같이 일어난다. 걸어갈 때 같이 걸어가고 앉을 때 같이 앉고, 말할 때



■ 일오(一悟) 스님

1943년 경남 함양에서 태어난 스님은 65년 월인 스님을 은사로 함양 상연대에서 출가했다. 71년 화엄사에서 도광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했고 73년 통도사에서 월하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일오 스님은 77년 강진 만덕사, 92년 사천 구룡사에서 잠시 주지 소임을 살았지만 출가 이후 줄곧 전국의 선방에서 정진에만 전념해 일반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수좌계에서 '접구통 수좌' 로 유명하다. 지난해부터 전북 부안 월명사 사성선원장을 맡아 후학 지도와 간화선풍 진작에 앞장서고 있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한 기도 영험도량에 법비 오는
동해사 삼사순례



동해사 비 오는 곳

◎ 동해사에서
낙산사 10분 소요,
휴휴암 15분 소요, 불탑사 10분 소요
◎ 바닷가 방생지 5분 소요
◎ 대형주차장 완비

100일기도 접수안내
꼭 소원이 간절하신분 접수하여
한가지 소원이라도 이루어보세요.
◇기도시간 : 4:00시 ~ 5:30분
오전 10시 ~ 11시 20분, 오후 5시~6시
◇기 도 비 : 10만원
(농협 331036-51-062531 동해사)



삼보전에 귀의하옵고
밤 낮없이 사리탑위에 법비가 내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해있는 동해사. 법비의 자비광명으로 화신하여 중생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계신곳 동해사에 오시어 순례도
하시고 마흔 두가지 중 어떤 소원도 이룰 수 있는 사십이
수주 진언의 기도를 하시고져 하는일 이루어 보시기 바랍니다.

동 해 사 주지 혜명 합장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학포리 156번지 033-672-2900

방생 집전스님이 필요한 불교단체는 주지스님 집전 가능함.

불교성지순례
17년간 불자님들과 함께합니다
(주)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앞 (02)720-9600

부처님의 숨결을 느낄수 있는 성지순례!!
성지순례는 전통있는 실크로드와 함께 최고의 순례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특선1 하롱베이 / 앙코르와트 6일 999,000원
●일정 : 인천-앙코르와트-하노이-하롱베이-인천 ●출발일 : 5월 28일
특선2 보현보살의 성지 아미산, 세계자연유산 구채구 112만원

몽골, 바이칼호수 8일(몽골 대초원과 러시아 바이칼호수) ▶출발일 : 6월 7일
▶일 정 : 인천-울란바타르-이르쿠츠크-시베리아-바이칼호수-울란바타르-테를지-인천

파키스탄, 실크로드 탐방 19일 ▶출발일 : 6월 21일
불상의 탄생지 파키스탄의 간다라유적과 카라코함하이웨이르 따라 파미르고원(총령)를 넘어 실크로드로-세계최장수 마을 훈자-쿠차 천불동 등 비경을 찾아 탐방하는 일정
▶일 정 : 인천-라호르-탁실라-페샤워르-스와트-칠라스-길기트-훈자-카슈카르-쿠차-우루무치-돈황-서안-인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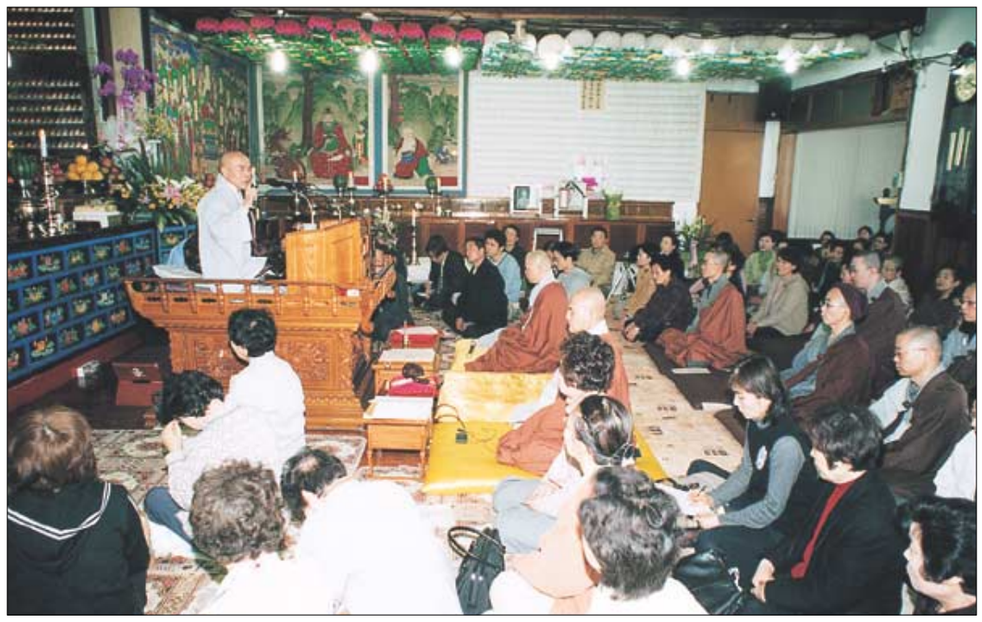
중국불교 4대 명산 순례 *10명이상 출발 가능
▶지장보살의 성지 구화산 5일 (남경-구화산 지장성지-천하제일 황산-항주-영은사,서호-상해) 85만원
▶관음보살의 성지 보타산 5일 (상해-항주-영파-보타산-관음현신처 조음동,보제사,낙가산 등-상해) 79만원
▶문수보살의 성지 오대산 6일 (조주선사의 백림선사 임제선사의 임제사, 오대산, 운강석굴 등) 95만원

미얀마 성지순례 6일 (미얀마 최고의 불교 유적지 순례) ▶출발일 : 4월 22일 149만원
▶일 정 : 인천-양곤-바간(2000여개의 불탑-거대한 유적군)-만달레이-양곤(쉐다곤대탑,까바예파고다-진신사리친견)-인천

티벳 성지순례 11일 ▶출발일 : 6월 3일
실크로드의 수많은 경험으로 특색있는 티벳의 불교성지를 찾아서...
티벳일주 11일(티벳 라사에서 히말라야를 넘어 카투만두까지) ▶일 정 : 라사-포탈라궁-장체-시가체-라체-치가(에베레스트등 히말리아 조망)-장무-카투만두

수미산 순례 24일 ▶출발일 : 6월 4일, 7월 6일 , 9월 3일
수미산 순례의 선구자 실크로드가 수미산 순례단을 모집합니다. 수미산 순례는 어렵고 그만큼 많은 경험을 필요로합니다.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으며, 실크로드만의 노하우로 수미산 순례를 완벽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일오 스님 (월명암 사성선원장)



3월22일 서울 상도동 보문사에서 열린 '선사 7인 초청법회' 동참자들이 초청법사 일오 스님의 법문을 듣고 있다.

수행할때 음식 가려먹는 것이 좋아

현장에서 '묻고 답하기'

▲어떤 화두를 들어야 좋습니까?

–비심(非心), 비물(非物), 비불(非佛)이라고 했습니다. 화두를 분별하면 안됩니다. 즉, 어떤 화두가 좋고 어떤 화두가 덜 좋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잘 아는 스님에게 화두를 받으면 믿음을 갖고 들어야 합니다. 설사 화두 수행을 하다가 지옥에 가더라도 나는 후회가 없다는 정도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한 어떤 화두를 들든지 자신의 문제에 와 닿아야 합니다. 그래야 의심이 생기고 화두에 힘이 생깁니다. 화두를 믿고 의심을 내어 보세요.

어떤 화두 들든지 자신의 문제에 와 닿아야 힘 생겨

▲화두를 들다가 잘 안될 때는 화두를 바꾸어도 됩니까?

–화두 수행이 잘 안된다고 해서 혹시 다른 것은 없나 하면 화두 자리가 잡히지 않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화두를 바꾸어 볼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망상만 일어날 뿐이었습니다. 화두 바꿀 생각 말고 열심히 의심하십시오.

▲화두를 타파하고 나면 또 다른 화두를 들어야 합니까?

–하나의 화두를 타파하면 더 이상 풀어야 할 것이 없습니다.

▲수행하는데 있어 음식을 꼭 가려야 합니까?

–탁발을 행하는 남방불교에서는 신도들이 시주한 음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시주하면 고기를 먹기도 하고 오신채도 먹습니다. 그러나 수행을 하는 입장에서는 안 먹을 수 있다면 안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이 탁해지면 피도 탁해지고 정신도 탁해지게 됩니다. 한순간 한순간 화두에 전념해야 하는데 정신이 탁해지면 화두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려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같이 말하고 묵묵할 때도 항상 따라다닌다. 항상 따라 다니는 것이 우리 몸의 그림자 같다. 만약 부처가 간 곳을 알고자 한다면 바로 이 순간 말하고 듣는 요놈이다."

이 순간 바로 드러난 현재심에 모든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현재심만이 존재할 때 그것이 부처입니다. 본래 부처가 따로 있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내 자신과 싸워 이기는 사람이 가장 용맹한 사람입니다. 염불, 화두 참선 모두 좋습니다. 다만 열심히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과거로 끌려가고 미래를 걱정하게 됩니다. 견성한 사람도 마음 수행을 게을리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우리 마음이 찰나생, 찰나멸 하므로 한 순간 놓치면 바로 번뇌 망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예의주시하며 관찰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화두를 놓치지 말고 항상 자신을 잘 관찰하십시오. 이 도리를 아는 사람은 나의 집착에 빠지지 않고 내가 하는 일이 항상 옳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남을 이해하고 존경하게 됩니다. 그때 진정한 마음으로 남을 돕는 보시의 마음이 생깁니다. 열심히 수행정진 하십시오.

정리=김두식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알림 식목일 연휴관계로 조계사-현대불교가 공동주최하는 '전국 선원장 초청대법회'가 한 주 쉬었습니다. 위 법문은 3월 22일 서울 보문사 주최 '선사 7인 초청법회'에서 법문한 일오 스님의 설법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다음호부터는 예정대로 선원장법회 법문이 소개됩니다.

안양규 교수의 **경전이야기** <9>



재산은 연못 물과 같아서 나누면 되돌아와
고인 물은 부패 …"바르게 벌고 쓸 줄 알아야"

퍼내도 줄지 않는 연못 '돈'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두 축으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선 돈이 무엇보다도 소중하다. 어느 사회제도에서나 돈이 필요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선 돈이 없으면 문자 그대로 생존자체가 불가능하다. 돈이 없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음식을 살 돈이 없어 며칠 굶주리다가 돈을 마련하기 위해 택시 강도로 돌변한 젊은이의 이야기가 돈은 물질적인 사회에선 피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온 종일 온갖 굳은 일을 감내하는 것이다.

갖은 수고를 하며 번 돈을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준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처럼 보인다. 힘들게 한 푼 두 푼 모은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보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이 금전적인 보시를 하면 사람들이 존경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돈을 버는 것에만 몰두하고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 돈을 모으는 재미에만 빠져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돈은 적절히 사용되어져야 하는 도구에 불과한 것인데 인생의 목적이 되어 버린 것이다. 가진 재산이 많이 있으면서도 남에게 베푸는 데 인색한 사람이 되고 만다. 보시를 베풀면 자신의 재산이 줄어들게 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로 인색하기 짝이 없는 노랭이가 되고 만다. 이런 마음을 고쳐주는 경전이 있다. <잡아함경>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붓다가 사위성에 머물고 있을 때 코살라의 국왕인 파세나디가 한낮에 붓다를 방문하였다. 붓다가 왕에게 어디를 갔다 왔느냐고 묻자 왕이 대답하였다. "거대한 재산을 가진 거부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에겐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 재산을 모두 왕실에 거두어 들이고 온 것입니다. 금은 보화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거부는 쌀겨가 섞인 죽을 먹고 헤어진 천 조각으로 꿰매어 만든 옷을 걸치고 오래되어 잘 움직이지도 않는 수레를 타고 다녔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간혹 보고 구두쇠라고 부른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지도 않고 심지어 자신을 위해서도 사용하지 않고 돈만 모으고 있는 것이다.

붓다는 재산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가르쳤다. "탐욕심이 많은 사람은 막대한 재산을 가졌어도 스스로 즐기지 않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 심지어 부모, 형제, 처자까지도 즐겁게 하지 않는다. 종교 수행자에게도 보시하지 않으며 천상에 태어나기 위한 보시도 하지 않는다. 바르게 사용되지 않은 재산은 도둑에게 강탈 당하기도 하고 물이나 불의 재앙으로 순식간에 잃게 되기도 하고 원하지 않은 상속자에게 빼앗기게 된다. 비유하면 깨끗하고 감미로운 연못의 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과 같다. 사람들이 연못의 물을 나르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고 그냥 방치해 두면 무엇에도 소용이 없다."

연못의 물은 여러 사람이 사용하더라도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 오히려 사용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낙엽이나 흙에 의해 연못은 더럽혀지고 메워지고 만다. 고인 물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반대로 사람들이 수시로 사용하면 연못의 물은 순환이 되어 항상 깨끗하다. 사람들은 그 연못에 대해 감사하며 잘 보호하므로 훼손당하는 일이 없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을 간직하고 남에게 주려고 하지 않는다. 남에게 주면 준 만큼 손실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돈 때문에 사이가 불편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붓다는 재산이란 연못의 물과 같아서 여러 사람과 바르게 나누어 사용하여도 줄지 않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나가면 나간만큼 다시 들어온다는 것이다. 베풀면 베푼 만큼 다시 들어온다는 가르침은 실천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을 것이다. 재산을 바르게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재산은 목숨을 걸고 추구해야 할 만큼 가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저주받아야 할 대상도 아니다.

한국 사회에서 부자가 존경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정당하게 땀 흘려 번 돈이 아니라는 것이다. 법과 사람을 속여 만든 재산이므로 깨끗하지 못하다. 그리고 또한 제대로 돈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자식들에게 편법으로 물려주는 것에 관심이 있고 사회 전체의 복지를 위한 일에 돈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붓다는 재산이 있어야 자신의 육신을 보존할 수 있고 중생들에게 보시할 수 있다고 금전의 중요성을 무시하지 않았다. 재산이 이 한계를 넘어서 인간을 지배하게 되면 돈 때문에 살인사건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돈은 선행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는 붓다의 가르침을 새겨 금전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될 것이다. 동국대 불교학과(경주)교수

화제의 염주
소원성취척척 건강도지키는
금강염주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워지는 신비와 영험의 염주
선물로도 최고! 성불에도 최고!



생육광선과 금강의 강한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금강염주

이런분은 스님께 보시 또는 본인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분
❖자녀가 없어 고민하고 계신분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분
❖구직을 원하시는 분
❖수험생 자녀를 둔 가정
❖사업이 잘 풀리지 않는 분
❖연분을 찾고 계신분
❖투병중인 분
❖고시준비 하시는 분

부처님께로 가까이
염주는 부처님께로 가고자 하는 마음의 법구 이므로 항상 귀중하게 생각하며 정중히 사용해야 복을 받고 소원이 성취 됩니다
참심이 들어간 12단주를 제작하였으니 기도 정진하시는 스님 및 불자님께 주문 판매 합니다.

금강의 밝은 지혜와 강한 힘으로 건강을
금강염주를 방이나 거실에 걸어놓으면 금강의 강한 기와 93%의 생육광선, 음이온등이 발산되어 현대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컴퓨터 OA사무기기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차단하며 도심의 좋지 않은 공기 환경속에서 건강이 약해지는 스님 및 불자님들의 건강을 도와드립니다. 신진대사가 원활해지며 피로회복, 신경안정, 스트레스해소, 혈액순환 등에 효과 있는 세계유일의 금강염주입니다. 밝은 지혜와 금강의 강한 氣가 발산하는 금강염주는 기도 정진시 일념무아 하면 부처님 가피로 고시준비나 어려운 일이 있으신분은 뜻을 이룰수 있는 신비의 금강염주입니다.

2가지 소원이 이루어지는 금강염주
세계 최고의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전래되는 북한 신비의 금강염주를 국내 반입하여 조립 시판하고 있어 화제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금강염주는 北韓 평안도 명산에서 소량이 발견되며 세계 유일의 희귀 금강석으로 이곳은 원효대사께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받아 유학을 포기하고 참선 안거 하시던 곳으로 유명한 일화가 있는 곳입니다. 금강염주는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며 악귀와 잡귀들이 보기만해도 도망쳐서 액운과 화를 쫓고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오며 2가지 소원이 꼭 성취되는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옛날부터 전해오고 있는 염주입니다. 금강염주는 접안식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신용카드도 분할구입 가능합니다.
※12단주와 108염주 1set 가격 195,000원
※ 농협 743-02-563237 (정해철)

문의 및 신청전화 (02)723-0909
전화로 주소 성명을 알려주시면 우체국 등기소포로 전국 어디나 받아 접안식을 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金剛念珠社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77 대형 B/D 406호

사찰 연등용 전선 (케이블)
사찰용 전구 3W, 5W, 10W • 건전지용 초 • 형사초롱 및 손잡이대
등간격
22cm, 30cm, 50cm, 1M, 2M, 3M, 5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 지겠습니다."

사찰전구(정품)
▶ 불제 고추전구, 인지전구
▶ 중류 : 3W, 5W, 10W
▶ 일반 전구에 비하여 전구알이 견고하여 잘 깨지지 않으며 윌라멘트가 6배(특 윌라멘트)로 빛이 윌등이 밝고 절전 효과가 있다.

불제 건전지용 초
▶ 형사초롱 및 연등용으로도 사용이 편리하며 4월초파일날 행사, 각종 연등행사 (탑돌이, 방생)등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장점이 있어 공연행사 등 이동에 적합 합니다. (건전지 사용)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986-0277~8 구입문의 (02)2266-2634 (02)2263-2638
구입문의 (032)582-6235~6 011)630-7092
http://www.bulje.co.kr 주소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475

전시

오색 영롱한 극락정토

스페이스 씨 '色 그대로 박생광'



우리민족의 생활종교적 염원과 정서를 나타낸 작품 '열반'.

불화, 무속화 등에서 발견한 토속적인 이미지들을 단청의 화려한 빛깔로 담아낸 작품.

故 박생광(1904~1985) 씨의 작품전 '色, 그래도 박생광'이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 스페이스 씨에서 4월 8일부터 6월 12일까지 개최된다.

박생광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우리 전통 색채의 뿌리 찾기'라는 주제로, 굵은 테두리선 등의 원시적 묘법과 옛 색체, 단청의 화려한 황 · 청 · 백 · 적 · 흑의 원색 사용 등 박생광 씨의 독특한 표현법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특히 박생광 씨는 단청의 원초적 색체를 재발견, 다양한 빛깔의 상상력으로 우리 전통회화의 뿌리와 그 계승문제를 이야기 했던 화가로 평가받는 화가이다.

작품들은 박생광 씨의 일본유학시기 작품과, 해방후 지방화단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시기의 작품, 이후 4년간의 일본 활동시기 작품, 77년 귀국 후 박생광 양식의 채색화를 완성했던 말기 작품 등 총4단계로 나눠 전시되며, '열반' '무당' '고려불' 등 대표작들도 만나볼 수 있다. (02)547-9750

바람이 머문 한복자락

영광도서갤러리 '정꼬슬란 展'



정꼬슬란 씨의 대표작 '옷자락과 바람'.

일상 속에서 무심코 지나치는 바람. 바람이 싣고 오는 생명의 기운을 둥글고 우아한 한국의 美 '한복' 속에 담은 작품. 정꼬슬란 전시회 '바람이 분다'가 4월 20일부터 26일까지 부산 영광도서갤러리에서 개최된다. 작품들은 한복 속에 묻어있는 민족 정서 '한'과 '신명'을 바람의 빛으로, 한지와 수묵을 통해 담담히 이야기한다. 한복 디자이너 이영희 씨는 한복을 가르켜 '바람의 옷'이라고 표현했을 정도. 정꼬슬란 씨는 "고여있는 물과 돌, 흙뿐만이 아니라 옷자락, 머리카락 등도 바람에 의해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하고, 새로운 생명력을 얻는다"며 "작품 속 대상에 바람을 불어넣어, 그 자체로 생명을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051)816-9500

극장가

첫키스만 50번째 / 로맨스, 코미디 / 99분
개봉예정일: 4월 15일
감독: 피터 시걸
출연: 아담 샌들러, 드류 베리모어 등

단기 기억상실증 환자와 사랑에 빠진 한 수의사의 이야기. 수의사 헨리는 우연히 만난 루시에게 첫눈에 반해 데이트 약속을 받아낸다. 하지만 교통사고로 단기 기억상실증에 걸린 루시는 헨리를 기억조차 못한다. 갖은 헤프닝 끝에 첫 데이트를 마치는 그들. 하루가 지나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루시 때문에 결국 제목처럼 매번 새로운 데이트가 되고 만다.

네드 켈리 (Ned Kelly) / 드라마 / 108분
개봉예정일: 4월 16일
감독: 그레고 조단
출연: 헤스 레저, 올랜도 블룸, 나오미 왓츠 등

호주가 영국 식민지였던 1800년대 실존인물 '네드 켈리'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영국 경찰과 잦은 마찰을 일으키던 켈리 가문 형제들. 어느 날 경찰의 모함으로 큰 아들인 네드는 살인미수 누명을 쓰게 된다. 경찰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던 네드와 형제들은 가난한 이들을 위해 영국의 공권력에 투쟁하게 되는데….

무간도3-종극무간 / 드라마 / 117분
개봉예정일: 4월 23일
감독: 맥조휘, 유의강
출연: 유덕화, 양조위, 여명 등

2002, 2003년 1, 2편을 통해 홍콩 영화사상 최고의 흥행기록을 달성한 무간도 시리즈의 완결판이다. 범죄자와 경찰의 신분으로 각각 경찰내부와 범죄조직에 스파이로 가담했던 유견명과 진영인. 진영인의 죽음으로 경찰내부조사 대상이 된 유건명은 뛰어난 후배 경찰인 양금영에게 의혹을 느끼고 조사에 착수한다. 유건명은 서서히 범죄조직과 복잡하게 얽혀있는 양금영의 비밀을 파헤치게 된다.

"어르신들 교육받고 돈 버세요"

종합복지관, 노인 취업훈련 전담센터 문 열어

'어르신들, 취업교육 받으세요!'

고령화 사회, 노인들의 일자리가 없다. 아직 몸은 청춘인데, 고용하는 곳이 없다. 손자 · 손녀에게 용돈도 주고, 맘 편하게 영화 한 편 보고 싶어도 자식들 눈치가 보인다. 하지만 이제 이런 고민들은 그만. 불교계 노인종합복지관들이 최근 노인취업알선센터를 개소하는 등 다양한 노인 전문 취업훈련과 적응교육을 전담하는 장소를 마련했다.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지완)의 경우, 취업교육은 취업전문과정과 취업적응과정으로 나눠 진행된다. 전문과정은 총 12개 프로그램이 마련됐고, 적응과정은 재취업을 위한 마음가짐, 친절서비스교육, 취업사례발표, 공개구인 등 적응소양교육이 실시된다. 특히 기업이 원하는 인력을 요구할경우 '맞춤형 교육'도 곁들어진다. 교육시간은 과정별로 10~30시간(2일~7주).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노인취업훈련센터교육과정

기 관	교육명	교육기간	인 원	교육내용	취업알선분야	비 고
서울노인복지센터 (02-739-3249)	창업교육	4일(25시간)	50명×2회	창업절차, 취업성공사례, 부동산점포선정, 소자본 창업 공동 및 개인창업, 자활사업참여		년2회 4, 11월
	경비원교육	4일(20시간)	40명×4회	경비근무수칙, 안전관리, 근무방법, 출입도난관리	현장체험 학교 및 빌딩 경비	년4회 4,6,9,11월
	베이비시터	4일(20시간)	40명×2회	신생아관리, 아기목욕, 분유 마사지 교육, 응급상황 및 집안관리	실습 베이비시터, 보모개인가정	년2회 4,9월
	건물환경관리원	4일(20시간)	40명×3회	건물안전관리, 비품청소, 청소장비활용	건물관리인, 미술관관리인	년3회 5,7,11월
	컴퓨터활용교육	7주(35시간)	24명×3회	자타익히기, 컴퓨터작동법, 원도우시스템, 한글문서작성, 인터넷 사용	사무보조원, 매표원, 사우나관리원	년3회 4,7,9월
	분야별 실무번역교육	7주(35시간)	24명	번역전문용어교육, 컴퓨터활용교육	회사공문번역, 번역회사	년1회 11월
	주유원 및 가스충전원	2일(10시간)	40명×2회	가스안전, 위험물교육, 주유방법, 카드체크, 세차기기 사용 및 실습	주유원 및 가스충전원	년2회 6,10월
	배달원 교육	2일(10시간)	40명×3회	친절서비스, 택배업무실무, 귀중품다루기, 영수증 작성	서류배달원, 물품배달원	년3회 6,9,11월
	가사도우미교육	4일(20시간)	40명×2회	음식만들기, 가전기기사용, 식품관리, 세탁물관리, 청소	가사보조원, 파출부	년2회 7,11월
	노인도우미교육	4일(20시간)	30명×2회	노인의 이해, 응급처치법, 상담자 교육	가정봉사원, 노인보조원	년2회 7,12월
	무역사무원교육	4일(20시간)	24명	무역실무, 수출입제도, 무역관세, 서류작성	무역회사 보조원 및 고문	년1회 12월
	주차관리원 교육	2일(10시간)	40명×2회	서비스자세, 주차원의 역할, 안전관리, 근무수칙, 현장체험	주차관리원, 운전직, 어린이집	년2회 5,9월
은평노인복지관 (02-385-1351)	교사출신 어르신 사서도우미 교육	2개월	25명	도서관史, 도서관정보화개론, 자료조직론	지역사회 도서관 및 학교	년2회 5월
동여수노인복지관 (061-643-1966)	강사파견 교육	80~100시간	20명	서예, 장기 · 바둑, 일본어, 한자 학습	지역 내 학교	5월부터
경주노인인력지원센터 (054-775-1950)	신라문화해설 교육	주2회	인원제한 없음	문화재 지식 습득 및 해설교육		년2회 5월

알뜰장터 가보자

"아껴쓰고, 바꿔쓰고, 나눠쓰는 아나바나의 정신을 되살려요!"

(사)맑고 향기롭게가 매달 셋째 주 일요일(4월 18일) 길상사 관음석상 앞 광장에서 '알뜰시장'을 개최한다. 각종 재활용 의류 및 생활용품 판매를 비롯해 무공해, 저공해 먹을거리와 비누, 화장품 등 다양한 환경보호상품들을 전시할 이번 알뜰시장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수익금 전액은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으로



알뜰시장에 참가한 주부들이 재활용품들을 고르는 모습.

쓰일 예정. 이번 주말 아이들의 손을 잡고 행사장을 찾아 절약정신과 함께 환경의 중요성을 재인식해보면 어떨까?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된다. (02)741-4696

20면 상식 퍼즐 정답

부	도		정		유		헌	정
당	선	소	감		치	외	법	권
	국		록	야	원		소	
동	사	섭		사		지	원	자
		취	합		구	역		
소	모	량		사		구	독	료
	기		이	중	고		불	
가	지	치	기		승	승	장	구
중	론		론		전		군	비

불교방송 · TV 봄개편

시스템 디지털화 · 문화 프로그램 확대

불교방송과 불교TV는 방송시스템을 디지털화 하고 문화관련 프로그램 들을 강화하는 등 봄 개편을 단행한다.

불교방송은 4월 19일 봄 개편을 통해 프로그램을 신설하거나 폐지하는 대신 '차 한잔의 선율', '다시듣고 싶은 노래' 등 간판급 프로그램의 코너를 보강했다. 또 '우리들의 찬불가'는 7시 55분으로 시간대를 옮기고, '뉴스와 사람들', '백팔가요' 등 주말프로그램은 방송시간을 늘렸다.

불교TV도 12일부터 '불교문화 특강', '하오명의 향기있는 차 이야기', '신영희의 국악한마당' 등 6편의 신설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다. '생활 속 아함경', '묵연 스님의 시와 사랑'은 폐지되고, '지운 스님의 기신론', '혜거 스님의 선 특강' 등이 선보인다.

지리산 남악제 열린다

17~25일 공연 · 궁도대회 · 백일장 등 행사 다양

"지리산 남악제를 아시나요?"

신라시대부터 국태민안과 시화연풍을 기원하며, 하늘에 올렸던 제례의식 '지리산 남악제(4월 17~25일)'. 이번 주말 화엄사 집단시설지구와 서시천 체육공원 등지를 찾아 제례의식을 구경하고, 다양한 문화 · 체험 행사들에 참가해보면 어떨까.



지리산 남악제의 제례의식 모습.

특히 화엄사 일주문 일대는 구한말 외세에 억압에 의해 쇠퇴하던 제례의식이 광복 후 처음 재현됐던 곳이라 그 의미를 더 한다.

'전통과 문명, 그리고 환경과의 만남'이라는 부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17일 시가행진 및 무용, 음악 공연 등을 시작으로 남악제례, 전통 다례시연, 전국 야생화 · 압화공모 및 국제교류전, 남 · 여 궁도대회, 남악서예 백일장 및 전시회 등으로 참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구례군청 (061)780-2227

방송 프로그램

BBS 불교방송

06:05 불교강좌
10:05 BBS 신행상담실
13:00 뉴스
15:05 음악의 마을
18:00 저녁예불
20:05 다시듣고 싶은 노래
22:05 영화음악실

서울 FM 101.9 MHZ
부산 FM 89.9 MHZ
광주 FM 89.7 MHZ
대구 FM 94.5 MHZ
청주 FM 96.7 MHZ
춘천 FM 100.1 MHZ

Btn 불교TV <ch 32>

14일 08:20 신영희와 함께하는 국악한마당
15일 09:20 지운 스님의 기신론 강의
16일 14:30 정병조 교수의 불교와 현대사회
17일 16:10 다시듣는 법문
18일 13:50 참선요가
19일 12:40 TV 법회
20일 14:30 불교문화 특강

하이라이트

■**불교방송**: BBS 신행상담실(4월 15일 10:05~10:55)- 불교 교리와 신행 생활 등을 스님과 함께 상담하는 시간. 이날 방송에는 송광사 서울분원 법련사 지묵 스님이 출연, 선불교와 대승불교에 대한 불자들의 궁금증을 전화로 상담해 준다. (02)705-5555~8.

■**불교텔레비전**: 지운 스님의 기신론(4월 15일 09:20~10:00)- 한국불교의 근본경전 중의 하나인 <기신론>. 이를 지운 스님의 강의를 통해 배우고 일상생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프로그램. 이날 방송은 첫 번째 시간으로 대승의 법(法)과 의(義)의 의미에 대해 설명한다.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전문쇼핑몰 mahamall.co.kr

연꽃큐방차걸이

노랑, 분홍, 연두, 보라, 오렌지 다섯 빛깔의 연꽃모양 차걸이. 연꽃 상단에는 큐방이 있어 자동차 유리나 컴퓨터 모니터에 붙여 사용하기에 편리하다. 재질:마블. 가격: 개당 3천 6백원. (2개구입시 7천원, 5개 1만 5천원, 10개 2만 8천원) (02)732-1520



게시판

공부합시다

호스피스교육 대구 영남불교대학이 4월 22일 제1기 불교호스피스대학을 개강한다. 강좌는 호스피스 개요 및 철학, 말기환자 사별가족 간호, 호스피스 환자의 신체 증상 관리, 통증완화 및 완화의학 등으로 구성되며, 7월까지 3개월간 진행된다. (053)474-8228

장애인정보화 교육 안산시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 참가자를 모집한다. 참가자는 4월부터 11월말까지 3개월 과정의 PC활용교육이나 6개월 과정의 전문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교육은 무료로 진행된다. 신청은 20일까지 각 동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031)481-2204

함께 해요

시민녹화교실 서울시가 4월부터 10월까지 도심공원 4곳에서 분재, 화훼장식 등을 배우는 시민녹화교실을 운영한다. 남산공원에서는 분재 및 화훼식물 가꾸기, 식물 병해충관리 등의 강좌가, 보라매공원에서는 실생활의 소품을 이용한 꽃 디자인과 실내벽걸이 녹화강좌 등이 열린다. 또 월드컵공원과 어린이대공원에서는 목공강좌와 분재강좌가 마련된다. 접수는 인터넷(parks.seoul.go.kr)을 통해 수시로 할 수 있다. (02)6321-4193

쌀사진 콘테스트(사진) 농촌진흥청이 2004년 세계 쌀의 해를 맞아 쌀 사진 콘테스트를 개최한다. 쌀과 벼에 관련된 추억이 잠긴 사진이면 모두 출품 가능하다. 이번 콘테스트는 6월 25일까지 농진청 홈페이지(www.rda.go.kr)를 통해 접수받으며, 온라인 투표와 오프라인 심사를 통해 6월 30일 수상자를 발표한다. (031)299-2200



어린이 충치예방 부천시 원미보건소와 오정보건소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연중으로 펼친다. 치아홈메우기는 충치발생의 원인인 치아 사이의 음식물찌꺼기를 사전방지하기 위한 예방책이다. (032)320-2835

허브식물 특별전 서울대공원이 개장 20주년을 맞아 4월 18일부터 5월 18일까지 한달간 '허브식물 특별전'을 개최한다. 300여종의 허브식물 5,000점이 전시되는 이번 전시회는 허브 시음회와 허브 관련 상품 판매 등의 프로그램들로 다채롭게 꾸며진다. (02)500-7114

건강나이 평가서비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월 6일부터 개인의 건강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건강위험평가 서비스'를 인터넷 홈페이지(www.nhic.or.kr)를 통해 제공한다. 개인별 건강 위험도를 측정하는 이번 평가는 위험요인을 제거한 뒤 나올 수 있는 목표나이와, 이를 위한 식습관 개선 및 운동방법 등도 알려준다. (02)1588-1125

건강 전통음식 체험 한국관광공사가 4월 17일~18일, 4월 24일~25일 두 차례에 걸쳐 '건강 전통음식 체험과 숲속 초록여행'을 실시한다. 관광공사가 여행경비의 30%를 지원하는 이번 행사는 순창과 담양 일원에서 고추장 및 메주 만들기와 담양 대나무골 테마공원 방문, 강천상 산림욕 체험 등으로 진행된다. 신청은 홈페이지(www.visitkorea.or.kr)에서. (02)729-9600

고승대덕 선서화전 영화 스님의 '고승대덕 선서화전'이 4월 10일부터 18일까지 광주 남도예술회관 2층 전시실에서 개최된다. 다선사 창건기금마련을 위해 마련된 이번 전시회에는 경봉스님의 선필과 송담, 석정, 일장, 수안, 범주스님의 작품 50여점이 선보인다. (061)781-8680

즐겁게 떠나요

전등사로 떠나는 웰빙여행 자양사회복지관이 4월 17일 강화도 전등사로 '우리가족 웰빙여행'을 떠난다. 이번 여행은 전등사 탐방 및 사찰건강음식 맛보기, 차와 명상의 세계, 가족 소망등 만들이 등으로 다채롭게 꾸며진다. 선착순 마감. (02)458-1664

소쇄원 생태문화기행 (사)맑고 향기롭게가 4월 25일 전남 담양에 소쇄원으로 생태문화기행을 떠난다.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이 담겨 있는 정원, 소쇄원에서 우리 선조들의 자연관을 엿볼 수 있는 기회. 동참금 2만원. 단, 점심과 간식은 별도 지참. (02)3672-5945

선운사 답사여행(사진) 답사여행의 길잡이 터사랑이 4월 18일 봄의 전령 동백을 찾아 선운사로 답사여행을 떠난다. 적색빛의 동백림을 중심으로 진행될 이번 답사여행은 인근 내소사에도 들려, 벚꽃을 감상하게 된다. 성인 3만 8천원, 어린이 3만 3천원. (02)722-1284



사무실 옮겨요

도서출판 보련각 서울 종로구 청진동 51로 사무실을 이전합니다. (02)733-0333

혜초여행사 서울 종로구 관철동 45-1 대왕빌딩 902호로 이전합니다. (02)733-3900

살까 말까 망설이지 말고

값싸게 빌려 쓰자!

알뜰살림의 지혜 '렌탈 서비스'

서울 마포에 사는 주부 윤원실(33) 씨는 얼마 전 둘째 딸의 돌잔치를 위해 한복, 드레스, 카메라 등을 전문대여업체에서 빌렸다. 대여에 든 비용은 모두 10만원 정도. 만약 직접 구입했다면 100만원 이상을 지출했어야 한다.

이처럼 필요하지만 높은 가격 때문에 구입이 망설여지는 물건들을 빌려 쓰는 렌탈 문화가 최근 들어 확산되고 있다. 구매비용 뿐 아니라 관리비도 절약할 수 있는 합리적인 소비형태로 자리잡고 있다.

생활 가전용품

1백만원대 정수기
월 사용료 2만~5만원
가전용품·의복 등
다양한 물품 대여

'렌탈'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곳은 정수기, 비데, 연수기(세정수 정수기) 등 생활 가전용품 시장. 갖춰놓으면 생활에 편리하지만 1백만원대가 훌쩍 넘는 가격 때문에 선뜻 구매가 어렵다. 하지만 인터넷 렌탈전문사이트, 각 브랜드 렌탈사업본부 등을 통해 대여하면 매달 1~5만원 정도만 내고 관리까지 받을 수 있다.

일반 정수기는 1백만원, 냉 · 온수 기능이 있는 제품은 1백 50만원 선에 구입할 수 있다. 렌탈을 할 경우 기능에 따라 월 1만 9천원~ 5만 2천원의 사용료만 내면 된다. 회원가입을 하고 등록비를 미리 내면 월 사용료가 더 저렴해진다. 2개월마다 한번씩 정기점검과 필터교체는 무료. 최소 사용기간은 1년 단위로 5년 간 렌탈비를 내고 사용하면 정수기 소유권이 소비자에게로 넘어간다.

욕실에서 쓰이는 비데, 연수기도 매달 1만 8천~2만8천원씩 렌탈비를 내고 사용할 수 있다. 정기점검은 물론이고 연수기는 4개월에 한번씩 필터를 교환해주는 가격도 포함해서다. 이밖에도 공기청정기, 각종 헬스기구를 빌려쓸 수도 있다. 특히 건강과 운동에 관심 있는 사람이 늘면서 런닝머신의 대여율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운동기구는 보통 월 4만~8만원이면 빌려 쓸 수 있다.

특별한 날

생일이나 결혼식 등 특별한 날에는 이것저것 필요한 것이 많다. 특히 한복, 드레스 등은 일년에 며칠 안되는 기념일에 반드시 필요한 의상. 기성한복은 20~30만원대이고 맞춤한복은 더욱 비싸다. 아이들은 비싸게 한복을 사 입혀봤자 얼마 지나지 않아 사이즈가 맞지 않게 된다. 이럴 때 한복대여점을 이용하면 성인은 5만~10만원, 아동용은 2만원이면 때마다 분위기에 맞는 한복을 입을 수 있다. 신발, 노리개 등도 마찬가지. 한복 입은 모습을 2만~2만5천원을 내고 일일 대여한 캠코더에 담아보자.



고가의 정수기를 렌탈해서 사용하면 정기 점검과 필터 교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아이들 장난감 및 아동도서

아이들은 대개 갖고 싶어한 장난감이라도 몇 번 가지고 놀면 금세 싫증을 낸다. 이런 아이들을 위해 곳곳에서 장난감 전문 대리점이 문을 열었다. 대표적인 곳은 서울 을지로 녹색장난감도서관(02-753-0222~3). 서울시 보육정보센터가 영유아용 장난감 3천여점을 구비해 놓은 이 장난감도서관은 2천원의 회원가입비만 내면 한번에 2개씩 10일 동안 무료로 장난감을 빌려준다. 정회원이 되면 1회 3개씩 14일 동안 빌릴 수도 있다.

이밖에도 인터넷 장난감 · 유아용품 대여업체 등에서는 가입비 1만원, 월 3만원의 이용료만 내면 아이들이 맘에 들어하는 장난감을 언제든지 빌려준다. 이들 업체의 장점은 직접 집까지 장난감을 가져와 아이들에게 고르게 한 뒤 싫증난 장난감을 수거해 간다는데 있다.

아동도서 방문대여도 이와 유사하다. 동화책, 교육용 교제들을 월 1만원에 매주 4권 씩, 한달 16권의 책을 직접 배달해 빌려준다. 1년에 200여권의 책을 12만원에 보는 셈이다. 아이북랜드, 아이놀이북, 동화친구 등 인터넷을 통해 15개 안팎의 업체가 서비스 중이다.

한상희 기자 hansang@buddhapia.com

"우린 대불련 선후배랍니다"

우리 가족 이렇게 신행해요 <7>

손규만 씨 가족



쌍둥이 아들과 함께 온 가족이 대불련 동문인 손규만(오른쪽) 씨 부부.

대불련 법우로 만나 부부지연을 맺고 이제 아들까지 대불련 법우로 키워낸 대불련 가족이 있다. 71학번 손규만(54 · 법명 도광), 72학번 송태래(52 · 법명 우담화) 씨 부부는 96학번인 아들 재운(28 · 성균관대 약학대학원 석사과정) 씨가 대불련 활동을 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준 선배였다. 대구 영남대학교 지회장을 지낸 아버지와 서울에서 대불련 활동을 했던 어머니가 생활 속에서 불법을 실천하는 가족으로 한길을 걷는 모습을 늘 보고 배우며 자랐기 때문이다.

재운 씨는 초등학교 때 아버지의 목탁에 맞춰 온 가족이 예불을 드렸고,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재운, 재용 쌍둥이 형제를 위해 지극정성으로 올리는 어머니의 천일기도 소리를 들으며 사춘기를 보냈다. 부처님 같은 부모의 길을 따라 걷다 보니 어느새 대불련 동문이 되어 있었다. 재운 씨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학부시절 경북대 지회장, 대경지부 지부장 등 대불련의 리더로 활동해 왔다.

"모여 앉으면 불교 얘기를 했고, 함께 참선하고 함께 예불 드리며 자랐으니 자연스럽게 대불련 후배가 되더군요."

손 씨 부부는 도반이 된 아들이 대견스럽기만 하다. 아내와 재용, 재운 형제에게 둘도 없는 공부의 길잡이가 되어왔던 아버지는 이제 아들이 오히려 불교공부를 이끌어주는 스승이 되었다고 스스럼없이 말할 정도다.

이들 가족을 더욱 든든한 도반애로 뭉치게 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재운 씨가 대학교에 입학하던 해 아버지의 공장에 큰 불이 나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잃었고, 99년에는 어머니가 대형 교통사고를 당해 6개월간 병원 생활을 해야 했다. 예견하지 못했던 어려움 앞에서 가족의 신행생활은 큰 변화를 겪었다.

"이 때까지 이론으로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을 더욱 더 내면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재운이와 더욱 더 정진했고 부모와 자식이전에 끈끈한 도반으로 연결되는 값진 경험을 했죠." 송 씨는 6개월간의 병원생활을 '무문관'이라고 표현할 만큼 목발 짚고, 재활치료를 받으면서도 관세음보살 정근과 화두를 놓치지 않았다. 그런 아내를 지켜보며 손 씨는 재발심의 고삐를 당길 수 있었다.

서로를 이끌어주고 보듬어주며 한 가족은 이제 진리의 한길을 걷고 있다. 이들 부부는 회향을 위해 찻집을 겸한 쉼터를 만들 궁리 중이다. 한 잔의 차를 우려 마시며 '오로지 불법 공부밖에 없다'는 말을 누구에게나 자신 있게 해주고 싶기 때문이다.

모여 앉으면 불교얘기…참선·예불 함께 해

찻집 겸한 쉼터 만들어 신행공간 제공할 터

부산=천미희 기자

불교 환경교육원, 주부 생태학교 개최

생태학교 스케줄	
4월 18일 (일)	[생태기행] 풀잎으로 만들어보는 곤충, 반딧불이자연학교 정병준(분당환경시민의모임 대표)
4월 19일 (월)	웰빙시대, 밥상머리에서 하는 마음공부 김수현(바른식생활실천연대 대표)
4월 26일 (월)	잔소리, 삶을 망치기도 하고 세상을 바꾸기도 한다. 오용선(바람 물 연구소 상임 연구위원)
5월 3일 (월)	물은 물이 아니고, 산은 산이 아니로다 이상훈(수원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물전쟁' 번역)
5월 9일 (일)	[생태기행] 살아 숨쉬는 마을공동체, 문당리 사람들 주형로(농부)
5월 10일 (월)	햇빛과 바람속에서 커가는 아이들, 새로운 에너지를 찾아서 이필렬(방송통신대학 교수)
5월 17일 (월)	몸, 마음, 자연과의 새로운 만남 박석동(한국불교환경교육원 사무국장)

한국불교환경교육원(원장 유수)은 5월 17일까지 서울 정토회관 강당 3층에서 주부를 대상으로 '지구를 위한 몸 · 마음 · 자연 이야기' 생태학교를 연다.

지난 4월 12일 이창우 박사의 '몸, 마음, 자연을 위한 다양한 상상력' 으로 시작한 이 생태학교는 바른식생활실천연대 김수현 대표, 수원대 환경공학과 이상훈 교수 등의 진행으로 총 6회의 강의를 마련했다.

이밖에도 분당환경시민의모임 정병준 씨와 반딧불이자연학교를, 농부 주형로 씨와 생태공동체 문당리를 둘러보는 2차례의 생태기행도 실시된다. 강의는 매주 월요일 11시부터 12시 30분까지, 생태기행은 4월 18일과 5월 9일에 각각 진행된다. (02) 587-8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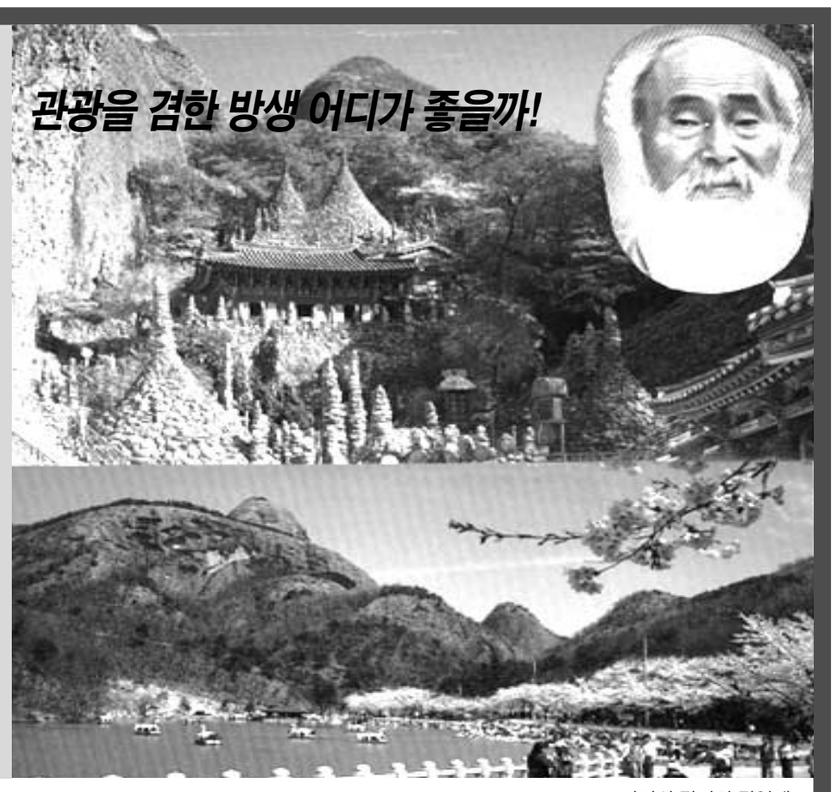
양성평등 온라인 교육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양성평등을 쉽고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플래시 에니매이션으로 구성한 양성평등 온라인 교육과정을 실시한다. 양성평등의 개념, 관점, 가족과 성, 법과 정책 등 총 11개 강의가 진행된다. (02)3156-6151, www.kigepe.or.kr

자녀지도 부모 성교육

강남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실은 4월 14일부터 23일까지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 성교육을 실시한다. 아하 성문화센터 윤경혜 책임상담원이 자녀의 성발달과 심리, 자녀 성교육방향성 찾기 등을 강의한다. 교육비 1만원. (02)545-27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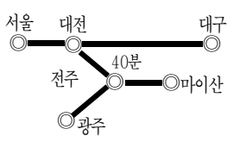
신비의 마이산 탑사
탑영제 방생



▶ 마이산 탑사와 탑영제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

기묘한 산이 있어 좋고, 불가사의한 탑이 있어 신비스러운 곳,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탑영제 방생기도



진안 마이산 탑사
063)433-2900,0303
432-0652,0072

줄 탁 동 시
(참선 · 부처님 호흡법, 자동단전호흡법, 챠크라 여는법)

◆ 쪼구리고 앉아 배꼽아래 명치를 손으로 쥐어보면 불행과 병고 액난의 화병 덩어리가 잡히는데, 중단전 챠크라가 막힌 것으로 이런 사람은 호흡수련이나, 염불, 독경, 주력, 위빠사나, 참선을 하면 할수록 가슴이 더 답답해지고 배꼽 주변에 딱딱한 덩어리가 생기고 배에 가스가 차고 허리나 손가락 마디가 까맣게 되며, 얼굴이 붉어지고 상기병이 되므로 수행의 제일 우선 과제는 중단전 챠크라를 여는 것입니다.

◆ 중단전 챠크라 지옥 덩어리를 간단한 수행의 비법으로 찰라에 뚫리게 하여 순간 수승화강이 되어져 머리에선 서늘한 바람이 나오고 손, 발, 배는 따뜻해지며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게 된다.

◆ 위빠사나, 참선 단전호흡 수행시 고개를 숙이고 어깨가 쳐지고 허리를 약간이라도 구부리고 또한 너무 반듯한 자세로 경직되면 교감신경의 작용으로 100% 상기병 걸리니 자세법, 이완법, 집중법을 철저히 배우고 수행해야 한다.

◆ 염불, 독경, 주력 수행의 들숨시에 배가 들어가고 어깨, 가슴이 들먹거리는 역호흡으로 숨을 들어마시게 되면 불행의 늪인 병고 액난을 자초하는 것이니 자동단전호흡법을 배우시게 되면 몸과 마음과 호흡이 참으로 건강한 수행자가 되어집니다.

△ 자동단전 호흡법의 기초에서부터 참선 수행을 잘 할 수 있는 테크닉과 심신건강의 비법을 배우게 됩니다.

☞ 수련일시 : 매주 목요일 낮 반 : 오후 1시, 저녁반 : 오후 8시
☞ 수 련 비 : 입회비(만원), 수련비(월: 3만원)
☞ 오시는 길 : 지하철 5, 7호선 군자전철역 4번 출구에서 천호방향으로 100M 이망스 가구 4층

법왕정사 서울 군자법당
☎ 전화: 02)456-4994, http://cafe.daum.net/sorisan

"숨을 氣차게 잘 쉬는법" 책 5월 출간 예정

3천배 철야정진 차량운행 안내

◆ 일 시 :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저녁 7시~일요일 아침 7시
◆ 호흡에 맞춰 절하는법 교육 (저녁 7시 ~ 9시)
숨차지 않고 헐덕거리지 않으며 맥박이 빨라지지 않고 몸살나고 힘들고 졸립고 다리, 무릎, 허리가 아프지 않게 하려면 절하는 동작에 흡흡호 호흡법을 대입하는 교육을 2시간 받으시면 누구나 완벽하게 절할 수 있습니다.
◆ 3천배정진 : 500만배 성만한 스님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죽비소리에 맞춰 300배씩 10회로 매 시간 시작전에 마음 다스리는 소참 법문을 듣고 끝내며 부처님전 감사 수행으로 마음 밝히고 축원 기도를 올리며 간절한 큰 마음으로 소원을 성취 하며 인생에 걸림돌이 되는 큰 업장이 녹아 내림을 체험한다.
◆ 차량운행 : 2004년 4월 24일 토요일
군자전철역 4번출구 → 법왕정사 건너편 5번출구 능동주유소 앞 4시 30분 출발
◆ 차량 예약 문의 : 양 현 숙 011)222-3329

백만불자 108배 만일결사 수행 중심 도량
법왕정사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 소리산 참선캠프
전화 031)771-7745 · 7038 · 6736 (Fax 겸용)
⊙ 오시는길 : 양평 → 용문터널 → 단월 → 대명비발리파크 스키장 입구 청평방향 7Km
⊙ 버스 (서울 상봉터미널) → 모곡행 → 모곡종점하차 전화 요망

“동네 이름 茶道 잖아요”

국내 최대 야생녹차단지 조성 나주 다도면 주민들



나주 불회사가 자리한 다도(茶道)면은 덕룡산 일대 3만여 평의 야생차밭을 ‘야생녹차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불회사 철안 스님은 “비자나무 그늘 아래에서 자란 차는 맛과 향이 으뜸이다”고 말한다. 사진=박재완 기자

제1회 다소 석장생축제 열어 ‘다신제’
25개 마을 차만들기 차밭기행 등 행사
불회사 주변 5만평 녹차밭 조성 계획

야생차를 육성하고 보급하는데 지역 면사무소와 주민이 발벗고 나섰다.

국내 최대 야생차 군락지 나주 불회사가 자리한 전남 나주시 다도면(면장 김근용)은 ‘차의 고장’이라는 명성을 되찾기 위해 올해부터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한다.

첫 번째 행사로 다도면은 녹차 첫 잎을 따는 곡우를 맞이해 오는 4월 20일 불회사에서 ‘제1회 다소(茶所) 석장생축제’를 열고 ‘다신제(茶神祭)’를 올린다.

이번에 처음 열리는 석장생축제는 덕룡산 불회사와 운흥사 입구에 세워진 석장생(중요민속자료 11,12호)에 다도면 25개 마을주민이 모여 고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행사이다. 이날 석장생제에 이어 주민들은 덕룡산 일대에 자생하는 첫순을 따기에 앞서 다신에게 알리는 제를 지낸다. 또한 불회사 일주문 주위에서 전통차 만들기, 차 시음회, 찻잎 따기, 차밭산책 등 다양한 야생차 관련 행사와 목장생세우기, 돌탑쌓기 등을 펼친다.

이처럼 다도면과 주민이 나서 야생차 관련 행사를 마련한 것은 이곳 지명의 유래에 근거한다. 다도(茶道)면의 지명은 본래 ‘다소(茶所)’로 이곳에서 나는 차의 맛과 향이 좋아 임금에게 진상했다고 전한다.

특히 200여 년 전 운흥사에서 출가한 초의 선사가 <동다송>에서 덕룡산 자생녹차를 설명하고 있어 다도면은 오래전부터 야생차의 본고장으로 알려져 왔다.

덕룡산에 자생하는 야생차는 현재까지 약 3만여 평이 군락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야생차는 불회사에서 ‘비로차(枇露茶)’, 운흥사와 동원암에서 ‘운설로(雲雪露)’ 등의 전통차로 제조되고 있으나 야생차의 특성상 수량이 적어 사찰에서만 쓰고 있다.

다도면이 덕룡산 야생차 복원을 위해 금년에 마련한 또 다른 사업은 불회사 일주문에서 사찰 진입로를 따라 녹차단지를 조성하는 것. 다도면이 조성하는 녹차단지는 야생 녹차밭(5만평)과 녹차공원(1천5백 평)으로, 다원 및 부대시설 건립에 소요되는 예산 7억6천만 원을 나주시에 신청해 일부 확보해 놓았다. 녹차단지사업은 2004년도 1차 사업으로 30평 규모의 전통 기와양식의 다원을 건립해 야생차 홍보 및 제조기법 재현, 가족단위 무료 시음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녹차공원에는 야생차와 조경수, 들잔디를 가꾸어 산책로로 활용한다. 다도면이 조성하는 야생차밭은 관광객 유치는 물론 야생차 생산 · 판매와 녹차 주말농장 등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061)330-8612, (061)337-3440

나주 =이준엽 기자



불회사 일대의 야생차밭은 ‘야생 녹차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인터뷰 김근용 면장



“덕룡산 일대에서 자생하는 야생차는 비자나무 그늘에서 적당량의 햇빛과 계곡에 흐르는 풍부한 수분으로 맛과 향이 국내 으뜸입니다. 이곳에서는 아직도 덕룡산에는 국내 최대규모의 야생차가 자생하고 있습니다. 이 야생차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생산해 옛 다소(茶所)의 명성을 되찾고자 합니다.”

국내 최초의 야생녹차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김근용 다도면장은 “야생차를 테마로 하는 가족단위 시음회, 다도예절, 녹차 산책로 조성 등을 통해 야생차를 관광 상품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면장은 “녹차밭 조

기후 풍토 좋아 맛·향 으뜸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성 5개년 사업이 끝나면 주민들을 중심으로 작목반을 구성해 야생 녹차를 생산 · 판매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도면이 고향으로 어려서부터 불회사를 자주 찾았다는 김 면장은 “그동안 방치했던 야생차를 보호하게 되어 다행이다”며 “불회사와 석장생, 덕룡산 자생차는 다도가 자랑하는 보물로 지역민은 물론 국민이 함께 보호해야할 소중한 문화”라고 강조했다.

김 면장은 “4월 20일 다도면민의 날을 맞아 열리는 ‘다소석장생 축제’에서는 온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해 자연 속에서 편히 쉬었다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엽 기자

우리 사찰 차 모임 — 심곡암 다도회

천혜의 여건속 ‘평생공부’ 다짐



지난 2003년 가을 단풍축제에서 다도 발표회를 여는 모습.

서울 성북구 북한산 형제봉 자락에 자리 잡은 심곡암(주지 원경, www.simgokam.org). 이제 막 봉오리를 터트리기 시작하는 진달래와 산벚꽃 등을 배경으로 30여 분 정도 걸어 오르면 심곡암을 만날 수 있다. 봄이면 산꽃으로, 가을이면 단풍으로 장엄되는 이곳에서는 향기로운 차 한 잔이 절로 생각난다.

아니나 다를까. 매주 수요일마다

신행활동 일환으로 생활
심곡암서 봄, 가을 차 행사
시민선방에 다실 열 계획

심곡암에 올라 차를 나누는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심곡암 다도회 회원들이다. 다도회는 지난 2000년, 평소 차를 즐기던 주지 원경 스님에 의해 결성됐다. 이후 오혜숙(56, 법명 불일향) 원장이 강의를 맡아 기초반, 중급반, 고급반 과정을 개설해 회원들을 가르치고 있다. 다도회의 전 과정을 이수하는데 3년은 족히 걸리지만 현재 10여 명의 회원들은 모두 ‘평생 공부’라는 마음가짐으로 차를 배우고 있다. 단순히 ‘다도’라는 기술만이 아니라 신행활동의 일환으로서 차 생활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센터다 다도모임이다 해서 차를 배울 수 있는 곳은 많지만 사찰 다도회에서는 신도들간의 화합도 다지고 자신의 신행활동도 이어갈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또한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좋은 사람들과 마시는 차 한 잔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입니다.”

다도회는 일년에 두 번 큰 행사를 치른다. 봄이면 라일락과 철쭉, 개나리 등의 봄꽃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산꽃축제에서 햇차시음회와 다도시연회를 펼치고, 가을이면 단풍이 곱게 물든 도토리나무 아래서 다도발표회를 열어 축제를 찾은 사람들에게 차를 대접한다. 다도 행사가 진행되는 곳은 심곡암의 명물 너럭바위. 절 한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너럭바위는 십여 명이 둘러앉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여서 산사음악회나 다도 행사를 펼치기에 안성맞춤이다. “다도회가 생기지 않을 수 없는 천혜의 조건”이라는 회원들의 말이 빈말이 아님을 느낄 수 있다.

요즘 다도회원들이 가장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한창 불사(佛事) 중인 시민선방의 완공이다. 이곳에서 사찰문화 체험 행사의 일환으로 다도교육을 하게 되고, 누구나 찾아와 차를 마실 수 있는 다실(茶室)도 열 계획이기 때문이다. 지난 5년 동안 다도회의 기반을 다져 온 심곡암 다도회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좀 더 내실 있는 모임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02)914-8860

인터뷰 오혜숙 원장



편안하고 내면 살피는 차생활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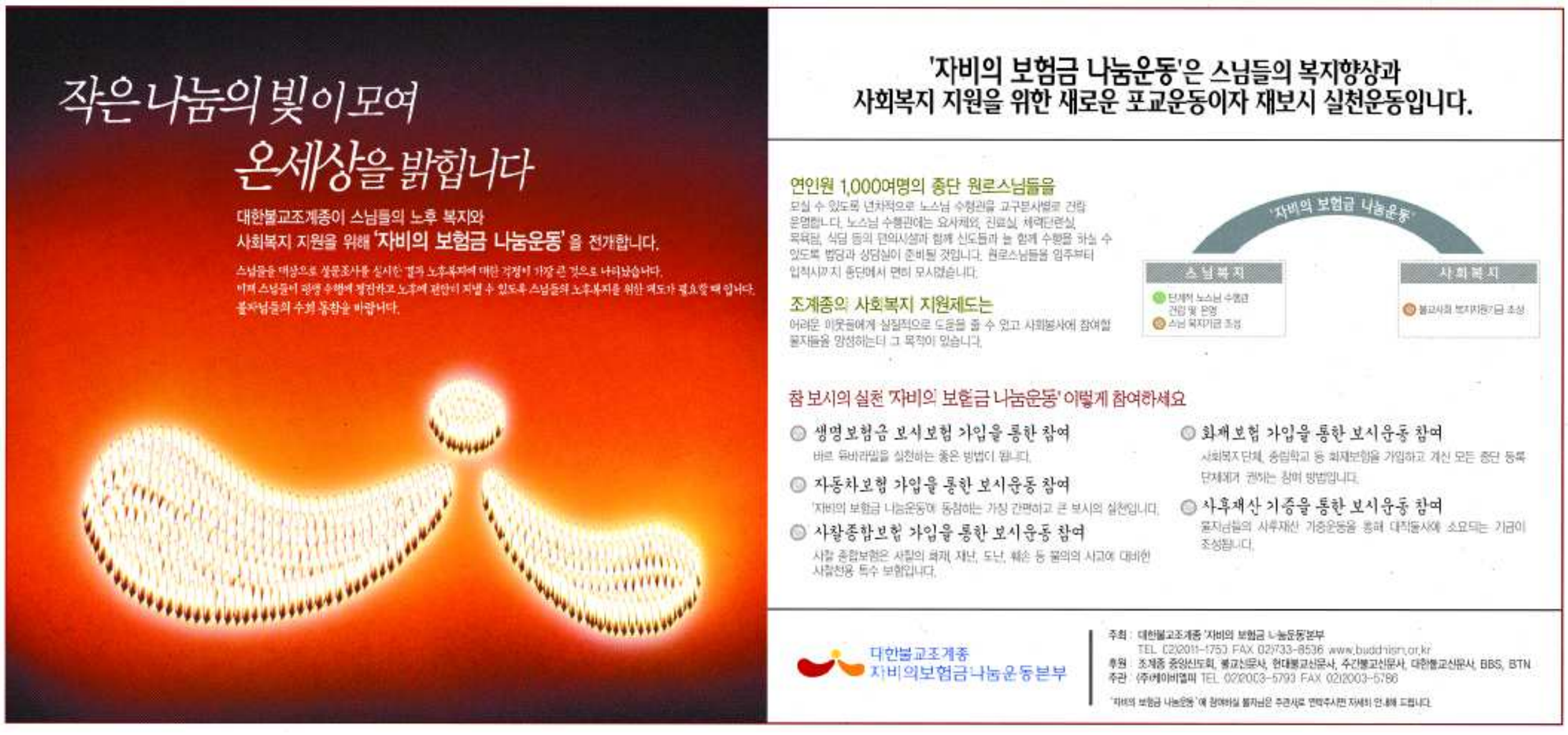
“취미로 시작했던 차 생활이 이제 제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일이 됐습니다. 10여 년 동안의 차 생활 덕분에 신행과 차 마시는 일이 둘이 아님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다도회 결성의 견인차 역할을 한 오혜숙 원장은 회원들에게 ‘편안한 차 생활’을 강조한다. 차를 마시며 자신의 내면을 살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차 마시는 일은 남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수행을 위한 것이니만큼 틀에 박힌 형식보다 편안함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일까? 오는 5월 열리는 산꽃축제 때 선보일 다도발표회와 6월에 떠나는 제다체험행사 준비에 여념이 없는 오 원장의 모습에서 오히려 여유로움이 느껴진다.

여수령 기자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열심히 뛰면서 생각하는 것이 그대로 참선

여러분이 이렇게 한데 모여 앉았다가도 일어서면 다 뿔뿔이 헤어집니다. 헤어졌다 또 모이고 모였다 헤어지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진리가 그러합니다.

예전에 강태공은 곧은 낚시를 넣고 앉았으면서 영계를 다스릴 때에 명령을 해서 다스렸다 합니다. 노자(老子)는 영계를 다스릴 때에 영원한 나의 친구로서 나와 둘 아니게 다스렸다 합니다. 또 제갈공명은 촛불을 켜고 영계를 다스렸다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떤 분이 다스린 것이 정이라고 생각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이 세상의 물리를 다 파악 못하고 물리가 다 터지지 못한 사람이 그러는 겁니다. 옳다 그르다가 없이 내가 그대로 여여하게 닥치는 대로 생활을 한다면 그처럼 그대로가 없을 텐데 말입니다. 또 모르고서 그대로 한다면 아무리 해봤자 걸립니다. 내면의 나와 외부의 내가 그렇게 둘이 아니게 할 수 있는 내면세계를 완전히 파악하고서야 그 모든 것을, 외부의 모든 것을 가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명령해서 쓰는 게 옳으냐, 영원한 친구로서 나와 둘이 아니게 쓰는 게 옳으냐, 하는 것이 한계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의식이란 것은 찰나찰나 바뀌어서 화할 수가 있으니 한 찰나에 한생각이, 그 한생각이 수천 수만이 될 수도 있고,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이 초월돼서 닥치는 대로 자기가 중용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중용을 한다는 것은 자기 불바퀴를 마음대로 굴릴 수 있고, 법바퀴를 마음대로 굴릴 수 있고, 즉 물바퀴를 마음대로 굴릴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여러분 몸속에 적계 잡아도 십일억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얘깁니다. 숫자를 어떻게 따지리까마는, 십일억이 넘지만 십일억이라고 대충 잡는다면 만약에 그 십일억 중에 하나가, 그 의식이 깨알처럼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하는 그런 게 없이 수만 개가 됐다가 아니, 억겁에 이 세상 대천세계를 꽉 덮고도 남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하나가 말입니다. 그러면 십일억 중에 그 많은 것이 다 벌떼 일어나듯 생각이 그렇게 많이 일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병고도 하나가 일어났다 하면 수십 개가 일어나고, 만약에 막는 놈은 적고 일어나는 놈이 많아진다면 그 집은 쓰러지는 겁니다. 좀먹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만약에 내 마음이, 지켜보는 마음이 빨갛게 생각을 했다 하면은 전체가 빨개집니다. 노랗게 생각을 했다 하면 전체가 노래지는 것이고, 악으로 나오는 걸 자기가 다스리지 못한다 할 때는 전체 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면세계의 그 살림살이들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돼야만이 바깥의 살림살이도 이끌어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 이겁니다. 여러분 몸속에 과거에 살던 그 자체가 쓰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묶어놓지도 않았는데 인연에 따라서 저절로 자연적으로 입력이 돼서 여러분이 짊어지고 나왔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사성제(四聖諦)를 설하실 때 고(苦)라는 문제가 제일 첫번에 나왔던 겁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은 악으로 가게끔 이끌 수도 있고 선으로 가게끔 이끌 수도 있습니다. 고정됨이 없이 쉴 사이 없이 돌아가는 그 마음이 어떤 거든지 바로 이끌어나갈 수 있고, 지켜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실험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배인과 같습니다. 그래서 본래자성불이라고 합니다.

본래자성불은 옴죽거리지 않으면서도 그 힘을 가하니, 마치 맷돌처럼 물건만 넣으면 저절로 갈아져 나오고 맷돌이 이탈을 안 하고 잘 돌아가는 거와 같다 이겁니다. 이걸 비유해서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그 맷돌과 같으니깐요. 심봉을 꽂지 않는 맷돌은 이탈을 하게 되고 잘 물건이 갈려 나오질 않아서 사는 데 복잡하고 배고프고 춥고,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서 한 가정이 파괴 직전에도 갈 수 있고 또는 화목하지도 못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넓게 보지도 못하며, 또 그렇게 좁아서 자기 살기도 극히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놓으셨어도 지금 시대의 여러분이 알아듣지 못하고 감지를 못한다면 좋은 말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여러분이 먹어보지 못하고, 맛을 모른다면 그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를 하는 이 마당에서 꼭이 부처님이 가르쳐주신 공부다 하기 이전에, 부처님이 나오시기 이전에도 진리는 있었으니까요. 다만 부처님께서는 진리를 먼저 탐구해서 먼저 깨달아서 평생을 두고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으면서 우리들한테 전달을 했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이 열쇠고리라면, 거기 달린 그 열쇠를 불성이라 한다면 여러분 속에는 십일억의 불성이 있다 이 소립니다. 그 불성이 하나냐 둘이냐, 둘도 아니요 하나도 아니요, 늘이면 백천 개로 몇만 개로 될 수도 있고 또 줄이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많아서 이거를 내 마음이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거를 내 불성이라고도 할 수 없고, 이거를 내 공안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 바로 공했다 한 겁니다.

여러분은 "아휴! 참 세월은 무상해!" 이렇게 말씀들 잘 하시죠? 무상하다고요. 무상한 것은 허무가 아닌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게 항상 고정됨이 없이 우리는 찰나찰나 돌아가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어떤 거 할 때 나라는 게 없기 때문에 모든 것에서 나라는 것을 쑥 그냥 던져서 빼버린다면, 악도 없고 선도 없고 자동적으로 자기가 올바르게 계도하고 올바르게 선정도 베풀고 올바르게 물리가 터져서 일체와 둘이 아닌 도리를 그대로 여여하게 해나갈 것입니다. 역시 물질이라는 거는 그저 없어졌다 생겼다가, 부서지고 썩어지고 부러지고 깨지고 온통 이 야단들입니다. 그러면서 돌아가니 무상입니다. 무상!

이 세상에 모든 물질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무상이라고 한 것이지 사람들이 살아나가는 게 허무해서 한탄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주 삼라대천세계(森羅大千世界)의 근본은 인간의 마음의 근본이요, 이 세상의 일체 만 가지 생활의 근본은 인간의 마음에 가설이 돼 있다. 그러니 저 태양은 만물만생을 소생시키는가 하면 또는 산하대지는 만물만생을 길러낸다. 천지가 둘이 아니죠. 어머니 아버지가 둘이 아니듯, 애들을 기르는 데는 떼자니 참 이거 미안하고 배신하는 거 같아서 안 뗄 수도 없고 그렇게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입을 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입을 안 떼고 거기 대롱대롱 매달려 있겠습니까? 그건 무슨 까닭입니까? 옛날에는 선지식들이 이렇게 낚시를 던져서 채찍질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해결이 나겠습니까? 여러분은 아예 묵비권이군요. 아주 모두 도인들인가 봅니다. 그런데 내가 괜히 이렇게 말하지 뭡니까. 하여튼 좋습니다.

예전에 경허스님은 말입니다. 첫째, 사계절을 무조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벌거벗고 사셨다는데 그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둘째, 경허스님은 수염이 나지 않았대요. 그건 또 무슨 까닭입니까? 세번째, 경허스님은 상투를 틀어서 동곳을 꽂았대요. 그건 또 무슨 까닭입니까? 없습니까? 함이 없이 한다면 말도 한 사이가 없고 방귀 뀌는 거와 같을 텐데…. 항의가 없습니까? 역시 도인들이시네요.

아무리 도인들이라도 그 이치를 알고 몰라야지, 이치를 모르고 모른다면 아예 모르는 거죠.

고 했고 그것은 '무(無)'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어디로부터 좇아 나왔나 이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거를 짊어지고 나온 인연에 따라서 입력이 돼 있는 것을 숙명통이라고 합니다. 지금 시쳇말로 컴퓨터라고 해도 됩니다, 과거를 짊어지고 나온 그것을.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한테서 몸을 빌려서 나왔는데 어째서 그렇게 짊어지고 나왔느냐고 하시겠죠. 영원한 생명의 근본은, 어머니 아버지의 뼈와 살을 빌려서 몸뚱이 하나를 받았지만 자기가 한 일은 자기가 짊어지고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컴퓨터 안에 입력이 돼 있던 거니까 걸머지고 나와 가지고서 입력된 대로 솔솔 지금 현실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 입력이 돼 있는 그 자체가, 십일억 가량이나 되는 그 의식에서 뭐는 없겠습니까? 여러분이 몰라서 죄를 짓고 알아도 죄를 짓고, 아상이 있어서 죄를 짓고, 무기력해서 죄를 짓고, 욕심이 많아서 죄를 짓고 불순해서 죄를 짓고, 그저 평등하게 생각하지 못해서 죄를 짓고, 올바르게 행하지 못해서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 지혜롭지 못해 죄지은 거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 의식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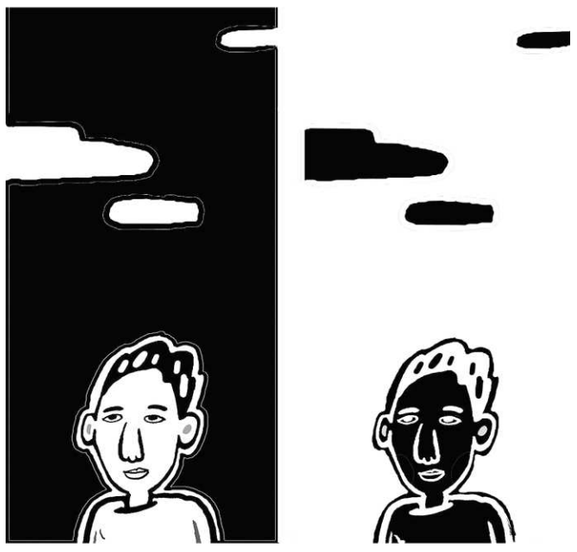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림 · 최주현

옳다 그르다가 없이 그대로 여여하게 닥치는 대로 생활할 수 있어야

촛불을 켜놓고 쓰는 게 옳으냐?' 했을 때 제갈공명은 촛불을 켜놓고 썼기 때문에, 촛불이 꺼지고 켜지고가 있기 때문에 그 몸이 조금 더 있다가 갈 것을 그렇게 자유스럽게 못했다,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물질로써는 절대로 거기에 눈을 뜨지 말라 하는 거죠. 물론 나의 내면세계의 그 모두를 알고 파악하고서야 이해가 가고 또 가늠을 하고 깨닫고 이러면서 결국은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고, 닥치는 대로 해결할 수 있는 자기의 그 뿌리 말입니다.

노자는 그래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곧은 낚시를 넣고 아무리 있어봐라. 네가 명령해서 한다면, 말하자면 군사를 모을 때에 분산되기가 쉽고 또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해이해질 수도 있다. 그러니 백천만의 군사를 거느릴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했답니다. 그러니 노자는 부처님의 뜻을 그만큼 그래도 둘이 아니게 생활을 했던 모양입니다. 나도 잘 모릅니다마는 그런 말씀을 했다는 유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내가 항상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겉로 표현을 한다면, 여러분이 깨 한 알갱이를 심는다면 얼마나 나옵니까?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 한계가 있느냐? 시간을 두어야 하고 또는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 한계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의식이란 것은 찰나찰나 바뀌어서 화할 수가 있으니 한 찰나에 한생각이, 그 한생각이 수천 수만이 될 수도 있고,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이 초월돼서 닥치는 대로 자기가 중용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중용을 한다는 것은 자기 불바퀴를 마음대로 굴릴 수 있고, 법바퀴를 마음대로 굴릴 수 있고, 즉 물바퀴를 마음대로 굴릴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여러분 몸속에 적계 잡아도 십일억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얘깁니다. 숫자를 어떻게 따지리까마는, 십일억이 넘지만 십일억이라고 대충 잡는다면 만약에 그 십일억 중에 하나가, 그 의식이 깨알처럼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하는 그런 게 없이 수만 개가 됐다가 아니, 억겁에 이 세상 대천세계를 꽉 덮고도 남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하나가 말입니다. 그러면 십일억 중에 그 많은 것이 다 벌떼 일어나듯 생각이 그렇게 많이 일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병고도 하나가 일어났다 하면 수십 개가 일어나고, 만약에 막는 놈은 적고 일어나는 놈이 많아진다면 그 집은 쓰러지는 겁니다. 좀먹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만약에 내 마음이, 지켜보는 마음이 빨갛게 생각을 했다 하면은 전체가 빨개집니다. 노랗게 생각을 했다 하면 전체가 노래지는 것이고, 악으로 나오는 걸 자기가 다스리지 못한다 할 때는 전체 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면세계의 그 살림살이들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돼야만이 바깥의 살림살이도 이끌어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 이겁니다. 여러분 몸속에 과거에 살던 그 자체가 쓰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묶어놓지도 않았는데 인연에 따라서 저절로 자연적으로 입력이 돼서 여러분이 짊어지고 나왔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사성제(四聖諦)를 설하실 때 고(苦)라는 문제가 제일 첫번에 나왔던 겁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은 악으로 가게끔 이끌 수도 있고 선으로 가게끔 이끌 수도 있습니다. 고정됨이 없이 쉴 사이 없이 돌아가는 그 마음이 어떤 거든지 바로 이끌어나갈 수 있고, 지켜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실험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배인과 같습니다. 그래서 본래자성불이라고 합니다.

본래자성불은 옴죽거리지 않으면서도 그 힘을 가하니, 마치 맷돌처럼 물건만 넣으면 저절로 갈아져 나오고 맷돌이 이탈을 안 하고 잘 돌아가는 거와 같다 이겁니다. 이걸 비유해서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그 맷돌과 같으니깐요. 심봉을 꽂지 않는 맷돌은 이탈을 하게 되고 잘 물건이 갈려 나오질 않아서 사는 데 복잡하고 배고프고 춥고,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서 한 가정이 파괴 직전에도 갈 수 있고 또는 화목하지도 못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넓게 보지도 못하며, 또 그렇게 좁아서 자기 살기도 극히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놓으셨어도 지금 시대의 여러분이 알아듣지 못하고 감지를 못한다면 좋은 말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여러분이 먹어보지 못하고, 맛을 모른다면 그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를 하는 이 마당에서 꼭이 부처님이 가르쳐주신 공부다 하기 이전에, 부처님이 나오시기 이전에도 진리는 있었으니까요. 다만 부처님께서는 진리를 먼저 탐구해서 먼저 깨달아서 평생을 두고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으면서 우리들한테 전달을 했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이 열쇠고리라면, 거기 달린 그 열쇠를 불성이라 한다면 여러분 속에는 십일억의 불성이 있다 이 소립니다. 그 불성이 하나냐 둘이냐, 둘도 아니요 하나도 아니요, 늘이면 백천 개로 몇만 개로 될 수도 있고 또 줄이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많아서 이거를 내 마음이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거를 내 불성이라고도 할 수 없고, 이거를 내 공안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 바로 공했다 한 겁니다.

여러분은 "아휴! 참 세월은 무상해!" 이렇게 말씀들 잘 하시죠? 무상하다고요. 무상한 것은 허무가 아닌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게 항상 고정됨이 없이 우리는 찰나찰나 돌아가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어떤 거 할 때 나라는 게 없기 때문에 모든 것에서 나라는 것을 쑥 그냥 던져서 빼버린다면, 악도 없고 선도 없고 자동적으로 자기가 올바르게 계도하고 올바르게 선정도 베풀고 올바르게 물리가 터져서 일체와 둘이 아닌 도리를 그대로 여여하게 해나갈 것입니다. 역시 물질이라는 거는 그저 없어졌다 생겼다가, 부서지고 썩어지고 부러지고 깨지고 온통 이 야단들입니다. 그러면서 돌아가니 무상입니다. 무상!

이 세상에 모든 물질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무상이라고 한 것이지 사람들이 살아나가는 게 허무해서 한탄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주 삼라대천세계(森羅大千世界)의 근본은 인간의 마음의 근본이요, 이 세상의 일체 만 가지 생활의 근본은 인간의 마음에 가설이 돼 있다. 그러니 저 태양은 만물만생을 소생시키는가 하면 또는 산하대지는 만물만생을 길러낸다. 천지가 둘이 아니죠. 어머니 아버지가 둘이 아니듯, 애들을 기르는 데는.

깊은 물 돌고 돌아
수증 되어 오르고 내리면서
만물만생과 더불어
산천초목도 두루 적신다.

저 둥근 달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청정하게 밝게 비추어주니
스스로 여여하고
스스로 그대로 실상인 것을!

옛날에 이런 점이 있죠. 아까 여러분 몸속에 있는 그 자체 인연으로 인해서 그렇게 많은 의식들이 들어 있으면서 악으로 나오고 선으로 나오는 거, 그거를 여러분 마음이 다스리면서 모든 것을 거기에 맡겨 놓고, 잘되는 거는 감사하게 놓고 안 되는 것도 거기 맡겨 놓을 수 있어야 되고 정진이 돼야 됩니다. 무슨 화두를 갖는다 어쩐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껍데기에 또 껍데기를 씌우는 거나 한가지니까 지금 이 밝은 세상에는, 문화문명이 꽃피고 이렇게 발전이 됐을 때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그저 직접 나를 화두로 알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어느 스님이 말입니다. 아주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얘깁니다. 어떤 사람이 공부를 하다가, 비유해서 말하자면 나무 꼭대기 천야만야한 데로 올라가서 나뭇잎을 입에다 물고선 대롱대롱 매달려서 있었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스님이 와서 길을 물었답니다. 그러니 말을 하자니 입을 열면 땅바닥 그 천야만야한 데로 떨어져서 죽을 거고, 입을 안 열자니 그것은 '무(無)'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어디로부터 좇아 나왔나 이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거를 짊어지고 나온 인연에 따라서 입력이 돼 있는 것을 숙명통이라고 합니다. 지금 시쳇말로 컴퓨터라고 해도 됩니다, 과거를 짊어지고 나온 그것을.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한테서 몸을 빌려서 나왔는데 어째서 그렇게 짊어지고 나왔느냐고 하시겠죠. 영원한 생명의 근본은, 어머니 아버지의 뼈와 살을 빌려서 몸뚱이 하나를 받았지만 자기가 한 일은 자기가 짊어지고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컴퓨터 안에 입력이 돼 있던 거니까 걸머지고 나와 가지고서 입력된 대로 솔솔 지금 현실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 입력이 돼 있는 그 자체가, 십일억 가량이나 되는 그 의식에서 뭐는 없겠습니까? 여러분이 몰라서 죄를 짓고 알아도 죄를 짓고, 아상이 있어서 죄를 짓고, 무기력해서 죄를 짓고, 욕심이 많아서 죄를 짓고 불순해서 죄를 짓고, 그저 평등하게 생각하지 못해서 죄를 짓고, 올바르게 행하지 못해서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 지혜롭지 못해 죄지은 거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 의식들

일상생활 하는 것이 그대로 내 주인이 하는 거라고 생각해야

높은 산 누리에 하얀 눈 덮이고
가지마다 배꽃 피어 만발했는데
골짝마다 흰뿌리는 넝쿨지어 뻗어나가고
서리 위에 흰꽃 피어 만발하였으니
그윽한 향내는 두루 하는구나.
경허선사 앞뒤 없는 대피리 소리
온 누리를 덮고 울리니
중생들의 마음속에 들고 나며 나투셨노라.

후렴으로 여러분에게 항상 했던 소리지만 또 한마디 할까요? 끝났으면 그만두었으면 좋겠는데 조금 시간이 있으니깐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내가 항상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지수화풍이라고, 지수화풍이 돼서 지수화풍을 먹고 산다고요. 그래서 뱃속에 있는 모든 그 생명들이 자기 생명이지 딴 생명들이 아닙니다. 자기는 뭉쳐놓고 그렇게 많은 생명들이 자기라고요. 나만 불성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생명들도 불성이 있어요. 그 불성은 몇 개나 될까요? 헤아릴 수 없겠죠. 아마 대충 헤아린다면 그 불성이 십일억이나 그쯤 되겠죠. 그러면 그것이 한데 모이면 모이는 대로 불성이 하나요, 또는 흩어지면 불성이 너무 많아서 어떤 게 불성이라고 할 수 없으니 바로 부처라이 차원에 따라서 전부 깡통은 깡통대로 모이고 금은 금방에 모이죠? 저절로 자연적으로 모입니다. 그러니 컴퓨터에 입력이 됐다고 볼 수밖에요. 전부 입력이 돼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팔자 운명을 어디 가서 한탄을 하겠느냐는 거죠, 자기 탓이지. 모든 게 잘했든 못했든 자기 탓이에요. 그래서 악과 선도 놔라 했습니다. 그렇게 놓지 않는다면, 악으로 간다면 선이 따르고 선으로 간다면 악이 따르니 악과 선도 놔라, 또 입력이 돼서 나오는 데다 다시 입력을 한다면 앞서의 입력한 게 없어진다, 입력이 됐던 것이 다 없어지면 홀연히 자기는 밝아질 거다 이런 겁니다.

거기에서는 또 뒤따르는 게 뭡니까? 여러분 몸 하나 구조가 모두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가고 올 수도 있고 행할 수도 있고, 모든 걸 생각할 수도 있게 갖추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보이게 그렇게 갖추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면에도 그렇게 갖추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을 거기서 나오는 대로 거기다가 맡겨 놓고, 악한 마음이 나오면 "야, 그러면 안 되잖아, 이 친구야!" 하고 거기다 돌려놓죠. 영원한 친구거든요. 과거 부(父)와 현재 자(子)는 둘이 아니라 영원

☞30면으로 계속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체험을 해보세요

☞29면에서 계속

한 친구입니다. 자기와 자기가 어떻게 들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심봉과 맺풀이 들일 수 있겠습니까? 물건을 넣고 갈아내는 것도 둘이 아니거늘 어찌 둘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두 거기다 맡겨 놓고, 안되는 게 있다 하더라도 맡겨 놓고, 또 남으로 인해서 망했다 할지라도 '그거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나를 채찍질해주는 거지, 나는 경험을 얻고 그랬으니 그 많은 돈을 버렸어도 아깝지 않다.' 하고 내 탓으로 돌리고 놔라 이겁니다. 모든 게 남의 탓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만날 남을 원망하고 남을 증오하고 너 때문에 나는 살고 너 때문에 죽고, 뭐 이러고 있어요. 사랑도 값비싼 사랑을 해야지 값싼 사랑을 해서는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망상이요, 착이요, 욕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모든 것을 내 탓으로만 돌리고 내가 없다면 고정된 게 하나나 있습니까? 그러니 무엇을 보고 무엇을 할 때에 내가 봤다고도 컴퓨터로 들어가고, 외부에서도 모든 것이 조절이 잘 돼나가니까 인간의 대기권이나 지구의 대기권이나 살림살이의 대기권이 모두 적절하게 자유스럽게 돌아간다, 대기권의 작용이 말입니다. 한 조가 되어서 그렇게 돌아간다면 이 세상을 한 주먹에 다 넣고도 남음이 있는 거고 굴리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깥에서 신이 있어서 나를 도와주는 줄 아시는데 역대의 선사들이 역대의 부처님들이 아니, 경허 스님도 얘기했지만, 달마 대사든 어느 누구든 막론해놓고 삼천년 전의 부처님과 그분들이 둘이 아니다 이겁니다. 금반지가 있었는데 시대에 따라서, 변천하는 유행을 따라서 그 반지를 다시 해놓은 거나 마찬가지죠. 모습은 다르나 금은 변함없이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니 삼천년 전의 부처님



그림 · 최주현

부처는 먼 데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가까이 있어요

하겠습니까? 그래서 공했어요. 내가 없어요. 그래 지금 속에서 살고 있는 게 바로 내가 움죽거리는 거예요. 내가 마음 돌리는 대로 화해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보현도 부처요 문수도 부처다. 왜? 한마음 속에서 나오니까. 한마음을 내지 않는다면 부처고 마음을 냈다 하면 문수고 움죽거렸다 하면 보현이니, 어찌 그것이 둘이냐 셋이냐 이렇게 따지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도 생각 안 할 때는 부처고 여러분이 생각을 했을 때는 법입니다. 또 여러분이 움죽거렸을 때는 바로 활용이에요. 그러니 부처는 먼 데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가깝게 있으니 여러분이 수박이라면 수박씨를 바깥에서 찾지 말고 안에서 찾으세요. 미래에 그 수박씨를 심어서 중생들을 다 먹이고도 그 씨는 되남을 테니까요.

수시로 바뀌어 나오는 거, 그래서 타심통 이니 신족통 이니 천이통 이니 천안통 이니 하는 그 자체가 바로 그 숙명통 자체를 안고 돌아가는 겁니다, 같이. 그러니 하나하나, 손가락 하나 뗄 수 없듯이, 우리 눈 한 짝 뗄 수가 없듯이 그렇게 조(組)가 돼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돌아가는 바퀴 속에서는 바퀴를 굴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거기다 맡겨 놓고 자기는 그냥 거기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지금 누진이라고 그러는데 레이다망이나 똑 같애요. 오는 거, 들어가는 거, 나가는 거 다 체계적으로 딱딱 해나가니까 내면으로 따로 보고 지금 선지식들 따로 보고, 여러분 따로 보고 이렇게 하지 말고 좀더 시야를 넓혀서 모두 둘로 보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삼천대천세계, '삼천' 하면, '삼(三)' 해놓으면 과거 · 현재 · 미래 모든 것을 묶어서 하는 거고 '천(千)' 그러면 하나로 또 묶인단 말입니다. '대천(大千)' 하면 또 하나로 묶여서 그대로 하나죠. 그 하나는 바로 하나가 아니라 전체 두루 하는 것을, 하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좋나좋나 우리가 들고 나는 이 의식 자체, 마음 자체를 자기 마음이 다스리고, 조화를 이루고, 화목하고 평등하고 부드럽게 해버릇을 하신다면, 오늘부터라도 마음속의 그 생명들은 벌써 마음들이 달라져요. 여러분 마음이 회색이라면 회색으로 바꿔지는 거죠. 그래서 삼십이상이 구족하면, 마음이 또 삼십이상이 구족해서 그대로 응신(應身)으로서 받아들인다, 받아들여도 두드러지지 않고 이 허공에 다 써도 즐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광대무변한 법이 우리들의 마음에 직결이 돼 있는데도 졸장부처럼 항상 바깥에서 비는 겁니다. 여자든 남자든 만날 비는 거예요. 우리 아들 잘되게 해 주시고, 나 몸 안 아프게 해주시고, 뭐 우리 누구, 누구, 누구 명 길게 해주고…. 해주긴 뭘 해줍니까? 누가 해줍니까? 허공에서 해주나요? 이름이 해주나요? 형상이 해주나요? 저렇게 형상으로 계신 저분은 이 세상에 '나'라는 게 없기 때문에 부처지 '나'라는 게 있다면 저렇게 (부처님을 가리키시며) 부처로 해놓지도 않았어요. 여러분의 형상이요, 여러분의 마음이요, 여러분의 생명이니 둘로 보지 말라 이거죠. 그런다면 아마도 6 · 25 사변이 났을 때 그렇게 업고 가지도 않으면서 업고 다닌 거예요, 둘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 사람네들을 그때 보니까 전부 그냥 업고 가지도 않고 자기 혼자만 달아나가요. 진짜 부처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마음 가운데 전부 있다 하니까 누구나가 세 살 먹은 어린애까지도 모르는 사람 없으나 백 살이 먹어도 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아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혜(慧)도 정(定)이요, 계(戒)도 정(定)입니다. 시간과 공간이 없이 돌아가는 혜도 그 속에 있고 계도 그 속에 있는데, 계 · 정 · 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정에 든다면 우리가 잘못을 저질러서 계를 지키지 못할 일도 없고, 또 지혜로이 평등한 마음으로써 남을 이익하

행하는 데 목적이 있는거지 아는 데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다

이나 의학이나 천체물리학이나 과학이나 모두 발전이 돼 나가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은 선(禪)을 한다고 틀어 앉아서 몸뚱이를 묶어놓고 있는데, 묶어놓는 마음도 자기 마음이란 얘기죠. 몸뚱이를 묶어놓고 마음을 묶어놓고, 그러고서는 한 발도 떼지 못하게 만들어놓고 있거든요. 보세요. 지금도 당장 보라고요. 아까도 과거니깐 과거 생에 살던 여러분의 집을 지금 가보세요. 안 보이십니까? 신발장이 어디 놓여 있고, 간장이 어딨고, 초장이 어딨고 그런 것까지도 다 알죠? 그 얼마나 묘한 일입니까? 그걸 홀연히 다 밝게 하시려면, 아까 얘기한 대로 화두를 쥔다 생각 말고, 놓는다는 생각도 말고, 좌선을 한다는 생각도 말고, 좌선을 안 한다, 빨리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마시고 일상생활 하는 것이 그대로 바로 내 주인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 아프게 들어오는 것도 주인만이 낫게 할 수 있어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그대로 주인의 심부름이에요. 내고들이고 하는 것이 다 주인으로 인해서 나간다면 여러분이 병고에 휘달릴 것도 별로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왜? 30%는 병원에 가서 할 수 있는 거라면 하고, 70%는 자기가 거기에다 충당해서 나간다면, 걱정할 게 뭐 있어요? 내가 죽을 때 되면 죽겠지. 안 그래요? 옷 벗을 때 되면 벗겠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니깐 고통을 그렇게 안 받고도 갈 수 있지 않느냐. 공부하는 데 실험할 때는 거기에서 별게 별게 다 나와서 어떠한 게 닥쳐도 거기다 되입력하는 그 자세로써 나간다면 여러분은 얼마 안 있어서 내면에서 올바로 볼 겁니다. 올바로 보게 되면 나중에는 둘이 아닌 공부를 하기 위해서 진짜 그때부터가 공부죠. 그때는 대의정이 나는 겁니다. 의정도 스스로 의정이 나야지 만들어서 의정을 낸다면 그게 의정인가요?

그러니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체험을 하십시오. 하나하나 탑을 쌓아 올라가는 게 점수(漸修)라 하면, 다 쌓고 봉오라지 탁 올려놓는 게 돈오(頓悟)입니다. 그러니 점수와 돈오는 둘이 아니죠. 언어가 붙지 않는 자리, 돈오다 점수다 이 언어가 붙지 않는다 이겁니다.

여러분은 그저 모든 걸 지켜보고 관하라 이러면 뭐 지킬 게 있느냐고 그러죠. "지키는 놈은 어떤 거냐?" 이래요, 또. 그러는데 그대로 거기서밖에는 해결할 수 없다 그러고 거기 맡겨 놓으면, 맡기는 놈도 그놈이요, 지키는 놈도 그놈이니 지켜봐라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또 감응이 되고 실험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체험을 거기서 하게 되고, 또 어떤 게 닥쳐오면 갖다놓고 또 하다보면 체험이 되고 또 체험이 되고, 그게 바로 하나하나 쌓아서 탑 올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물리가 터지고, 그렇게 하다보면 홀연히 자기를 자기가 알게 되고, 그럭하다 보면 둘 아닌 도리를 알게 되고, 그렇게 하다보면 바로 둘 아니게 나투는 도리를 알게 된다 이거죠.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허 스님이 사계절을 무시하고 발가벗고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치고 사신 그 까닭이 무엇이냐? 다른 남자들은 다 수염이 나고 그런데 그 스님은 왜 수염이 안 났느냐? 그 까닭은 또 무어냐? 다른 스님들은 머리는 깎고 다니는데 그 스님은 왜 상투를 틀어서 동곳을 꽂았느냐? 그 무슨 까닭이냐?' 하는 걸 잘 생각해보시기 바라며 그럼, 오늘 이걸로써 마치겠습니다.

※위 법문은 대행스님 법어집 『한마음』의 내용 중에서 38호를 발췌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경면주사 100% 혜월법사의 생필(100점 한정)
신비의 부적 팔만대장경 부적을 아십니까?

팔만대장경 부적은 고탑에서 출토되어 널리 알려져 있지 않으나 신비하고 영험스러움은 말로 다할 수 없다 영가에 시달리는 가정 입시생 사업하시는 분들께 권하고 싶고 **혜월법사가 260자 한 자 한자 기도하며 경면주사로 사경**하고 달마도를 넣어 그 기를 충만케 하고 특히 **화엄경 80권을 천일기도와 함께 우리나라 최초 경면주사로 사경중**이며 각종 병풍 진언달마도등 불자들이 소장하고픈 많은 작품이 있어 답답하고 고민 많으신 분 연락주세요. 홈페이지 보세요!



작품크기 : 가로 50cm 세로 120cm

www.ajeaje.co.kr
전화 055)648-5093
H.P 011-231-5094
주문신청:
농협
823031-52-042561
예금주 : 김수영

사경 기도 도량 팔만대장경 마을 건립 불사중
경남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1901-5



퇴미승

영험 도량

불보살님 가피력 받는사람
참회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 갖는사람

누구나 4차원 파장을 받을 수 있으며 음(陰)을 양(陽)의 기운으로 바꾸어 주면 육체, 마음 고통에서 벗어납니다.

- 중병은 70~80% 4차원 장애
- 육체, 마음 고통은 4차원 장애
- 기타, 인생사 4차원 장애

▶ 인연기도로 기찌를 받은 사례 ◀

낙태 경험이 있는 사람 둘 중에 한사람이 고통을 받고 가족에게 영향을 주며 기도로써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물질, 금전욕, 애착, 그리움, 미움을 갖고 살아가면 사후에 구천을 떠도는 파장이 되어 직계 가족에게 영향을 준다

해 원 사 초하루, 18일 법회 신중참회기도
031-736-3734 · 732-3790

대구 대승불교대학 정토사 부설 불교의식 대학
제 2기 불교의식 (범음 · 범패)
수강생 모집
5월초 개강

본 대학은 대승불교의 수행 이념을 전파코자 설립한 교육기관으로서 갑신(甲申)년에 경전 강의와 함께 불교의식반 신입(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과 정

㉮ 초급반 (3개월) :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 5시)
사물 (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기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례, 행선축원. 신중청, 관음기도법, 산왕기도 ...

㉯ 중급반 (3개월) :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 5시)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시다림법, 점안의식, 방생의식, 구병시식

㉰ 작법반 (6개월) : (매주, 화요일 오후 5시 ~ 6시 30분)
천수바라, 다게작법, 오공양작법, 요잡바라, 삼귀의작법 (일명 바라 나비춤)

㉱ 고급반 (6개월) : 영산재, 예수재, 수륙재 등... (희망자 소수)

대구 대승불교대학 부설 범음 · 범패 의식교육원 · 정토사
신청 문의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1914-5 (월촌역4거리)
전화 : 053)622-0333 / 011-699-9120

▶ 無一 불교 문학상
1. 장 르 : 시(시조),수필, 소설 ※ 시(시조)는 3편 이상
2. 분 야 : 어린이(유아.초), 학생(중.고.대), 일반
3. 상 금 : 각 분야별
- 대 상 : 어린이(50만원),학생(80만원),일반(150만원)
- 우수상 : 장르별,분야별 상금(9팀)
4. 마 감 : 2004년 5월 15일(토)
5. 불교적 소재라야 함
(상세내용은 홈페이지 영남불교대학관음사 또는 숫자 8228로 참조)

▶ 전국 찬불가 대회
1. 장 르 : 독창, 2중창, 합창
2. 분 야 : 어린이(유아.초), 학생(중.고.대), 일반
3. 상 금 : 각 분야별
- 대 상 : 어린이(50만원),학생(80만원),일반(150만원)
- 우수상 : 장르별,분야별 상금(9팀)
4. 마 감 : 2004년 5월 15일(토)
5. 장 소 : 영남불교대학 3층 대법당
(상세내용은 홈페이지 영남불교대학관음사 또는 숫자 8228로 참조)

▶ 행 자 모 집
1. 자 격 : 16세이상 41세이하의 독신 남.녀 / 고졸이상
2. 1인 1실 및 개성존중의 민주적 수행

대구 도심사찰 최초! 남골당 운영
영남불교대학·관음사
(053) 474-8228



'마음의 살까지 빼주는 사찰음식 다이어트' 펴낸
대안 스님

욕심도 빼야 다이어트지!

탐식, 폭식 습관 내려 놓아야
원활한 호흡 기의 순환 도와
제철재료 · 소열량 양념에 초점

육류와 인스턴트 식품 등으로 찌든 현대인의 식단에 채식바람이 불고 있다. 채식 중에서도 오신채는 물론 인공조미료까지 걷어낸 사찰음식의 인기는 단연 으뜸이다. 이 사찰음식으로 다이어트까지 챙길 수 있다면?

최근 <마음의 살까지 빼주는 사찰음식 다이어트>(중앙M&B)를 펴낸 대안(경남 산청 금수암 주지) 스님은 "산에서 끌어내린 사찰음식으로 현대인의 비만을 치유할 수 있다"고 말한다. 다이어트라 해서 몸의 살빼기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살인 욕심도 '다이어트' 될 수 있다는 것이 스님의 주장이다.

이처럼 몸과 마음의 군더더기를 덜어내는 다이어트법의 핵심은 "음식을 수행하는 마음으로 접하라"는 것. 자신의 식욕을 가만히 들여다봄으로써 음식을 탐욕의 대상으로 취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그 첫째 과제다. 자제심을 잃게 만드는 폭식 습관도 가만히 내려놓는다. 그 후에는 '음식 이전의 음식', '호흡'을 생활화하는 것으로 마음챙김을 이어간다. 대안 스님은 "들숨날숨이 원활한 호흡은 기의 순환과 열량소모를 도울 수 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실제 다이어트 사찰음식에 응용되는 조리비법은 무엇일까? 대안 스님은 가공하지 않은 자연산 제철재료와 열량을 최소화하는 양념 등에 초점을 뒀다. 같은 음식이라도 조리 방법이나 첨가하는 재료에 따라 영양소나 열량이 두 세배 이상 차이 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저칼로리 식이섬유소의 집합체인 다시마를 이용하거나, 칼로리가 없는 반면 소화효소와 체내 대사 기능에 탁월한 표고버섯을 양념으로 사용하면 불필요한 열량 증식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한 그릇 음식이라도 볶음밥류에 비해 열량이 현저히 떨어지는 시래기현미밥, 은행밤죽 등으로 식단을 꾸리는 것도 영양가 높은 저열량 식사에 좋은 방법이다.

강신재 기자 thatiswhy@buddhapia.com

최윤근 교수의 아유르베다 읽기 14

음식, 정신 작용에까지 작용

아하라의 음식 치료법들



활력은 몸과 마음에 살아 움직이는 힘을 제공하는데, 인간은 이러한 활력을 통해 저 깊은 의식 속에 숨겨져 있는 감정적 욕구에 도달할 수 있다. 즉, 음식의 섭취로 얻어진 생명력을 통해 섭취된 음식물의 성질에 합당한 특정 행동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육식을 많이 한 사람의 경우 채식주의자보다 훨씬 많은 공격성과 격렬함을 드러낸다. 그것은 고기 속에 들어있는 독소와 나쁜 호르몬들 때문이다. 육류는 우리에게 에너지와 힘, 근육과 조직, 호르몬의 원료인 단백질을 제공하지만 동물들을 죽임으로써 얻어지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안 된다. 동물들은 죽는 순간 극도의 공포와 두려움, 적개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성 호르몬과 독소를 뿜어낸다. 때문에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독소와 호르몬도 함께 섭취한다는 것이므로 몸을 병들게 하고 면역력을 감소시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인 것이다.

고기의 독들 파타 도샤 악화 시켜
사트바 가리고 사고 · 판단력 저해
유전자 조작 식품 반자연적 행위

분노로 인해 생긴 이러한 고기의 독들은 파타 도샤를 악화시킨다. 따라서 파타 도샤의 영향을 받는 소화 기관들은 이런 육류를 소화하고 대사시킬 능력이 줄어들게 된다. 그 결과 심장병과 각종 퇴행성 질환,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또 정신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러한 분노와 공포는 라자스와 타마스를 생기게 하고 사트바를 가리게 돼 우리의 사고력과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렇게 음식은 음식 자체로서 뿐만 아니라 정신 작용에까지 관여해 그에 따른 행위를 유발시킨다. 고기를 먹든 채소를 먹든 우리는 그러한 자연 환경의 지배를 받으며 또한 주위로부터 오는 감정들이나 느낌들에 영향을 받는다. 이것은 무엇을 먹느냐 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누구와 어디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이번엔 최근에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해 알아보자.

이 문제는 인간은 어디까지나 자연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지한다면 쉽게 해결될 수 있다. 옹호론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획기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편리함과 함께 해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고 크고 많이, 오래 보존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일단 긍정적이다. 그러나 그것은 엄연히 우주의 섭리를 거스르는 행위다. 대자연으로부터 부여받은 생명력에 인위적인 조작을 가해 본래의 상태를 훼손했다는 것은 반자연적인 행위다.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어떤 식으로든 인간들에게 그 영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가공 식품과 음식물 속의 화학물질은 아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삶의 속도가 빨라지고 도시화, 산업화 추세가 늘어남에 따라 현대인의 식생활 문화도 급속히 바뀌었다. 직접 음식을 준비할 시간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레 신선한 음식과 접할 기회도 그만큼 줄어들었다. 그 결과 점점 가공 식품이나 인스턴트 식품에 의존하게 되었다. 그 결과는 어떨까?

■ 포천중문의대

동서고금을 통해 위대한 사상가로 추앙받는 이들은 '건강'을 어떻게 바라봤을까. 플라톤은 심신이원론을 주장하며 정신만이 인간 존재의 중심이라 했고, 공자는 도덕과 윤리수행을 강조했으나 신체는 마음을 닦은 후에 자연히 단련되는 정도로 파악했다. 그렇다면 학문과 수행을 함께 이어갔던 종교지도자의 생각은 어떨까.

달라이라마(사진)는 수행을 매개로 한 정신과 신체의 긴밀한 관계에 주목했다.

달라이라마 현대인의 건강문제 지적

"명상 · 수련, 건강 지킬수 있고
부정적 사고 행위 변화 가능"

국제선무학회가 최근 발간한 선무학술논집 제 14권에 수록된 '달라이라마가 지적한 현대인의 건강문제(원광대 김철교수)'에서 달라이라마는 "명상이나 선수련을 통해 정신적 · 육체적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사념처관법 등 몸과 마음의 움직임을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펴보는 수련을 통해 건강을 저해하는 괴로움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분별을 일으키는 자아의식을 소멸시키는 동시에 모든 부정적인 사고와 행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형성된 건강한 몸과 마음이 곧 행복이라는 것이 달라이라마의 주장이다. 강신재 기자

당 뇨
당치발란스
국내최초 천연원료로 안전성을 입증한 생약캡슐
- 당뇨, 고혈압,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개선에 효과 '놀라워' -
▶당치 발란스의 당뇨에 대한 효과
7일~15일만 드셔도 효과가 나타나며 1~2개월만 드시면 병원약(신약)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개발자(김종연 교수) 약력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부교수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교실 주임교수
-영남대학교 기초의학연구소 소장
-영남대학교 비만-당뇨 선도연구센터 센터장
현재 역임중
현직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학적 검증을 거쳐 개발된 한국인의 식생활 습관에 맞춘 혈당강하 식품입니다.
- 당치발란스의 기타 질환에 대한 효과 -
· 위궤양, 비만증, 무좀, 체력증강
· 감기에 걸리지 않는 체질로 개선
· 피로를 없애고 뇌를 맑게 해줌
· 갱년기 장애
· 고혈압, 고지혈증
영남대학교 당뇨선교연구센터 소재 공동연구
주문 및 무료상담전화 080-558-6633

간(肝)이 간 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 (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055) 963-9583 · 상담문의: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동의대학교 음악 아카데미
응용피아노 수강생 모집

지도교수 권 상 무
• 방송 피아니스트
• 필라델피아 음대 음악박사-편곡
• "크로스 오버" 오케스트라 지휘자
피아노 치며 노래하는 반주법(초보, 중급) -
생활피아노(초보 누구나 가능)
• 찬불가, 가곡, 가요 강좌번호 108번
• 찬불가 합창단 반주 및 법회 반주
예술적인 고급 연주법 및 째즈(고급): 연주용 피아노
• 피아노 전공자, 피아노 교사, 사찰 반주자 강좌번호 109번
수시모집 12주-주1회 ₩300,000
1:1 렛슨 · 눈높이 교육
동의대학교 평생교육원
TEL:(051)890-1947~8 FAX : (051)890-1949
http://www.educate.dongeui.ac.kr E-mail:educate@dongeui.ac.kr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동 산24번지
권상무 교수 H.P : 011-342-8215

특별강좌
전기기공요법
너무나 쉬운 이 시대 최고의 대체의학. 電通으로 경락을 소통시켜 만병을 치유하는 中國 특효의술 강의.
적응증 구안와사, 반신불수, 요통, 관절염, 좌골신경통, 오십견, 협심증, 위장병, 두통, 요실금, 전립선비대증, 당뇨, 중풍, 간질환.
일 시 2004년 4월 18일(일)
▶12시 - 맛보기 무료강의
▶ 1시 - 본 강의(약 3시간)
장 소 상봉역 7호선 6번출구 새서울 극장옆 무량선원
전 화 02)491-7358
017-750-9900
대 상 의료계 종사자, 스님, 일반인, 목회자
매주 일요일 강의 예정
※ 철저한 실기위주 완벽마스터 1일 완성

마하몰.kr www.mahamall.co.kr

마하몰 봉축캐릭터 용품전

마하몰에서 전화와 인터넷으로 봉축용품을 준비하세요~ 주문전화 02)732-1520

연등



만월등
□ 32cm × 32cm
□ 노<v1.60><e0>
□ 노랑,연두,분홍,빨강, 오렌지,흰색(영가)



궁단등(비단등,실크등)
□ (大) 23Cm / (中)18cm (小)15cm
□ 황금,연분홍,진분홍,빨강, 흰색(영가등)



팔각조립등
□ 높이 26cm 폭 28cm 입구 11cm
□ 핑크,봉축노랑,오렌지, 성도일 노랑, 봉축빨강, 성도일 빨강, 초록, 파랑



캐릭터비닐만월등
□ 32cm × 32cm
□ 분홍,빨강,파랑,노랑,초록
□ 봉축위원회에서 권장하는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등



장등(오색)
□ 높이 47cm 폭 25cm



종등
□ 높이 39cm 폭 27cm
□ 노랑, 연두, 분홍, 빨강, 오렌지



비단팔모접등
□ 높이 28cm 폭 24cm 입구 11cm
□ 연분홍, 노랑, 연초록



비닐팔모접등
□ 높이 28cm 폭 24cm 입구 11cm
□ 핑크, 노랑, 연녹,파랑



육각등
□ 47cm X 25cm

현수막



봉축현수막 : 나염
□ 90cm × 6m (40,000원)
□ 90cm × 7m (45,000원)
□ 90cm × 8m (50,000원)



봉축현수막 – 세로
□ 6m × 90cm (60,000원)
□ 7m × 90cm (70,000원)
□ 8m × 90cm (80,000원)



장엄 번(만장기)
□ 90cm × 210cm (40,000원)
□ 90cm × 230cm (4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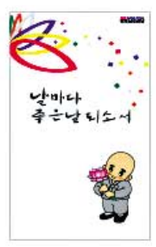














지하철현수막
□ 105cm×200cm (40,000원)
※ 현수막 크기, 내용은 변경가능



어깨띠
□ 2,500원
※ 100매 이상 사찰명 인쇄가능

봉축행사용품

※ 기타 현수막 사이즈 주문가능



봉축리본 세트
□ 일반 : 25,000원
※ 100개 1세트



봉축리본 세트
□ 고급 : 35,000원
※ 100개 1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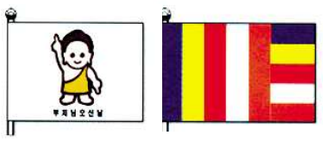
연꽃리본
□ 일반 : 25,000원
□ 노랑,연분홍,연보라
※ 100개 1세트



연꽃리본
□ 고급 : 35,000원
□ 빨강,오렌지,연분홍
※ 100개 1세트



만자기/법륜기/불교기
□ 20,000원 90Cm×135m
※ 다른 사이즈 제작가능



차량용 깃발
□ 4,000원
□ 20 X 30cm



봉축 풍선세트
□ 30,000원
※ 100개 1세트(대롱 포함)



방생타이슬링
□ 2,000원
※ 2개 1세트



캐릭터 청사초롱
□ 4,000원 고급 본염 인쇄
※ 최소주문수량 100개



봉축버튼)
□ 3,200원
※ 8개 1세트



봉축타이슬링
□ 5,600원
※ 8개 1세트



연꽃보드(걸이형, 자석형)
□ 18,000원
□ 17.5cm x 24cm



도자기연꽃
□ 33,000원
□ 14cm(높이) X 13cm(넓이)



연꽃전등(中 No.1)
□ 35,000원
□ 15cm(높이) X 17cm(넓이)



연꽃전등(大)
□ 50,000원
□ 15cm(높이) X 13cm(넓이)



부채
□ 700원
※ 500개이상 인쇄 가능



큐방 연꽃 차걸이
□ 3,600원
□ 재질 : 마블
□ 색상 : 노랑,분홍,연두,보라,오렌지



봉축등표
□ (특대) 95mm × 265mm 6,000원 (100장)
□ (중) 65mm × 180mm 4,400원 (100장)
□ (소) 65mm × 132mm 3,200원 (100장)

연꽃등표
□ (대) 81mm × 240mm 4,800원 (200장)
□ (소) 63mm × 175mm 2,800원 (200장)

봉축스티커세트
□ 30,000원
※ 100매 1세트

연꽃타올
□ 4,000원
□ 녹색, 노랑, 분홍, 청색
※ 100장 이상 사찰명 인쇄

다 포
□ 39cm x 50cm
□ (백색)800원
(회색)1,200원
※ 200장 이상 사찰명 무료 인쇄

기도포
□ 39cm x 80cm
□ (백색)1,600원
(회색)1,800원
※ 100장 이상 사찰명 무료 인쇄

추천상품

도실단주
□ (일반) : 6,000원 □ (특) : 10,000원

도실백팔염주
□ (일반) : 24,000원 □ (특) ; 40,000원

청자칠보투각향로 (靑磁七寶透刻香爐)
□ 국보재현품
□ ~~49,000원~~
□ 특별할인가 : 39,800원

백련정차
□ 연의 꽃, 그리고 잎과 뿌리, 연자를 같이 법제하여 만든 차
□ 50g : 18,000원 □ 100g : 35,000원
□ 정차세트(50g+100g) : 47,700원

황토달마
□ ~~98,000원~~
□ 특별할인가 : 59,800원
□ 가로25cm × 세로30cm
□ 지리산 황토100%

지면에 광고된 상품 외에 보다 많은 봉축용품을 인터넷 마하몰에서 만나보세요. 국민은행 006-01-0785-361 / 우체국 010041-01-012219 ㈜현대불교신문사 / 농협 053-12-113210 하동규